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2019~2023)

목 차

I. 서론

1. 연구 배경·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3
4. 범위와 내용구성	4
5. 연구 체계	5
6. 연구 경과	6

II. 인천의 문화유산 환경 및 정책 분석

1. 일반환경	7
2. 문화유산환경	14
3. 문화유산 정책환경	30
4. 문화유산 정책 성과평가	44
5. 중앙정부 및 타 지역 주요정책 비교분석	47
6. 시사점	57
7. 종합평가(SWOT분석)	62

III. 인천의 역사문화비전 및 핵심가치

1. 인천의 역사문화비전	63
2. 핵심가치	64
3. 대전략분야	65
4. 추진방향	69
5. 추진단계	71

IV. 전략 분야별 세부추진 과제

1. 문화유산과 인천브랜드	73
2. 인천형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 구축	117
3.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156
4. 문화유산 교육과 연구	193
5. 소요예산 정리	227

[부 록]

1. 인천시 지정문화재 현황	231
2. 인천시 유/무료 관광지	244
3.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시설 현황	245
4. 인천시 비지정문화재	251
5. 인천시민 대상 문화유산(정책) 이해 및 인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	255

표 목 차

〈표 1〉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7
〈표 2〉 인천시의 등록인구 추이	8
〈표 3〉 인천시 상주/야간/주간인구(2015년)	9
〈표 4〉 인천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당해년 가격)	9
〈표 5〉 인천시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2016)	10
〈표 6〉 경제활동별 인천시내 생산물 부가가치(당해년 가격)	11
〈표 7〉 인천시 문화재 연관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1
〈표 8〉 인천의 해안선 및 도서	12
〈표 9〉 인천시 큰나무조립 현황(2016년)	13
〈표 10〉 2015 유형별 지정·등록 문화재 건수	16
〈표 11〉 인천시 문화재	17
〈표 12〉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인지도	20
〈표 13〉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 고려점	26
〈표 1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 제한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필요성 및 선호 보상방식	28
〈표 15〉 인천의 유/무료 관광지 방문객 수(2016년)	30
〈표 16〉 마니산 및 서포리 관광지 관람인원 및 관람료 수입(2016)	30
〈표 17〉 한국 관광 선택시 고려 요인(1순위, 2016년)	34
〈표 18〉 인천시 역사문화시설	38
〈표 19〉 인천시 박물관 현황	39
〈표 20〉 인천시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	40
〈표 21〉 인천시 문화재과 인적 구성	41
〈표 22〉 인천시 문화재과 예산 규모	41
〈표 23〉 2018년도 인천시 문화재과 사무분장	41
〈표 24〉 인천시 문화재 관련 위원회 현황	43
〈표 25〉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48
〈표 26〉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의 전략과제, 핵심과제, 세부과제	49
〈표 27〉 문화재청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50
〈표 28〉 최근의 문화재 정책 추진방향	51
〈표 29〉 인천시와 연계된 주요 사업	52
〈표 30〉 타 부처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	53
〈표 31〉 서울시의 역사도시 기본계획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54

〈표 32〉 제주도의 문화재 기본계획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56
〈표 33〉 인천시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수혜 현황	59
〈표 34〉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분야	60
〈표 35〉 인천 문화유산 정책의 SWOT 분석	62
〈표 36〉 문화유산 종합발전계획 체계	69
〈표 37〉 인천 근구 근대건축물 조사 실태 조사 결과(2016)	101
〈표 38〉 인천 개항장 대표 서사자원	102
〈표 39〉 세계유산의 종류	107
〈표 40〉 2018 인천시 지정 문화재 통계	117
〈표 41〉 2018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 위원회 현황	118
〈표 42〉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목록	123
〈표 43〉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범주별 현황	123
〈표 44〉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범주별 현황	123
〈표 45〉 시도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보유자, 조교 현황 포함)	124
〈표 46〉 시군별 비지정 무형유산 중 지정 가능성 높은 종목 목록	125
〈표 47〉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높은 무형유산 일람	125
〈표 48〉 인천곳과 서울곳의 장단 비교	126
〈표 49〉 인천 진오기곳과 서울 진오기곳의 비교	127
〈표 50〉 인천 재수곳과 서울 재수곳의 비교	127
〈표 51〉 등록문화재 지역별 현황	131
〈표 52〉 국가별 고도(古都) 보존대책(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133
〈표 53〉 인천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성과	151
〈표 54〉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성과	152
〈표 55〉 인천시 무형문화재 중 향후 기록화 대상 종목	153
〈표 56〉 전국 지역 축제 개최 계획	157
〈표 57〉 인천시 공공 축제 종류(2018)	157
〈표 58〉 인천시 공공 축제 목록(2018)	158
〈표 59〉 인천시 역사문화축제 (2018년 기준)	159
〈표 60〉 인천시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164
〈표 61〉 인천시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	168
〈표 62〉 인천시 박물관 일반 현황	176
〈표 63〉 인천시 박물관 진흥기반 거버넌스 구축 지원	176
〈표 64〉 인천시 자료관 및 전시관 현황	177

〈표 6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예산과 건수('13~'17)	184
〈표 66〉 인천시 민간 역사문화 시설 및 활동 지원 사업	185
〈표 67〉 시·도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8.04.16. 기준)	189
〈표 68〉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의 구성	194
〈표 69〉 자유학년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예시)	202
〈표 70〉 인천시 생생문화재 사업	205
〈표 71〉 근대 군산 시간여행 주요 프로그램 구성	205
〈표 72〉 한성백제 부활의 꿈 주요 프로그램 구성	206
〈표 7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215
〈표 74〉 문화재 지킴이 추진 실적	217
〈표 75〉 인천 무형문화유산 조사항목 선정 준거	224
〈표 76〉 전략분야별 추정 소요예산	227
〈표 77〉 '인천유산의 세계화'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27
〈표 78〉 '인천유산의 가치 보존'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27
〈표 79〉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제고'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28
〈표 80〉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 관리'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28
〈표 81〉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확대'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29
〈표 82〉 '문화유산 거버넌스의 확립'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29
〈표 83〉 '학교 및 시민 교육 활성화'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30
〈표 84〉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230

그림 목차

〈그림 1〉 1959년 인천항 모습	15
〈그림 2〉 전국 문화재 지도(2015년 기준)	16
〈그림 3〉 문화유산 관심도 및 인천시 이미지 부합도	18
〈그림 4〉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19
〈그림 5〉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 인지도	20
〈그림 6〉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21
〈그림 7〉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21
〈그림 8〉 해양관방유적 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진할만한 자연/문화유산	22
〈그림 9〉 인천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필요도 및 정책 관심분야, 중요추진분야	23
〈그림 10〉 인천 문화유산 방문율	24
〈그림 11〉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 사업	25
〈그림 12〉 역사/문화유산관련 시민대상 사업 참여 기회인식 및 불참 이유	25
〈그림 13〉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재의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	27
〈그림 14〉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보상방식	28
〈그림 15〉 2016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은 인천 방문지	31
〈그림 16〉 백제문화유산주간 포스터	35
〈그림 17〉 고려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36
〈그림 18〉 인천시 문화재과 조직도	40
〈그림 19〉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의 미래 정책 방향	48
〈그림 20〉 제주도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과제	55
〈그림 21〉 송도불빛축제 포스터	58
〈그림 22〉 문화유산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70
〈그림 23〉 시기별 추진단계	71
〈그림 24〉 근대(역사도시)의 특성	94
〈그림 25〉 근대역사문화자원 상품화·산업화 방향	97
〈그림 26〉 개항창조도시 융합관광 육성 기반 및 동향 검토 종합	99
〈그림 27〉 (좌)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110
〈그림 28〉 인천 무속의 권역별 존재 양상	128
〈그림 29〉 인천 무형유산 권역 설정의 예	129

〈그림 30〉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개념	168
〈그림 31〉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활용체계	184
〈그림 32〉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	193
〈그림 33〉 “강화도, 우리 역사를 말하다” 캡처 화면	197
〈그림 34〉 지역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연계	219

▶ 1. 연구 배경·필요성

1) 급격한 도시 변화 속에서 인천의 고유한 역사성과 전통의 보존, 계승

- 인천은 개항이후 근현대 시기를 거치며 급격한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왔음. 이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유무형 문화유산의 파괴와 훼손, 소멸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변화상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도시들이 겪은 일반적 경험이기도 하나 인천의 경우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 경험은 강렬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은 20세기 도시 확장 속에서 원인천, 부평, 강화, 옹진 등 역사적 발전 과정이 분명하게 구별되고 이질성이 강한 문화권의 결합체로서 성장함. 또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며 타 지역 주민이 인천으로 다수 유입됨. 이런 역사적 과정은 인천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키지게 함. 현재까지 인천 지역사회에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약화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 차원의 분명한 정책 방향은 확인하기 어려움
- 인천은 급격한 도시 확장과 변화 과정에서 겪은 문화유산의 소멸, 정체성의 혼란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도시의 역사성을 어떻게 발굴, 보존,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시 차원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집행이 중요함. 인천이 20세기 산업도시, 경제도시의 이미지에 더해 21세기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 성격을 확장해 나가기 위한 단계에서 이는 필수 과정임

2) 참여 민주주의 시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유산 정책의 요구

- 과거 시민은 공공영역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객체였음. 이런 경향은 문화유산 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으므로, 정책 방향은 주로 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짐. 그로 인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 행정이 이루어졌고, 문화유산의 시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은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고식적인 수준에 그침
- 이러한 문화유산 정책이나 행정은 시민을 문화유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냄. 시민이 문화유산과 멀어지면 문화유산은 박제화되고, 시민의 행복 증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함. 시민이 문화유산을 적극 향유하고, 문화유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함
- 21세기는 참여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일컬어짐. 공공영역을 비롯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하려는 분위기가 늘어남.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시민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문화재를 감상하는 수준에 그치려 하지 않음. 시민이 더 이상 소극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가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 수립을 고민해야 함

3) 수익창출 수단을 넘어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

-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문화유산을 관광과 연계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널리 확산되었음. 이에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 산업 진흥, 지역 소득 증대 차원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방문객 증대 등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러 지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유행처럼 앞 다투어 추진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음
- 이런 현상은 문화유산이 지역 발전의 방해물이라는 시각을 벗어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음. 또 행정기관에서는 문화유산 정책에서 활용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그러나 한편으로 문화유산의 왜곡된 복원이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변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또한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 증가·삶의 질 하락 등의 문제도 심각해짐. 이는 인천이나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임
- 문화유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창출의 수단, 도구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문화유산의 보호가 아닌 훼손, 지역민의 피해 등 문제를 불러일으킴. 문화유산이 지닌 본질적 가치, 즉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성이나 문화적·예술적 가치에 다시 주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정책 수립의 방향 또한 시민들이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그 보존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데에 맞춰져야 함

4) 개발과 보존의 조화, 공존 추구

-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개발과 보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화유산이나 환경 행정에서 중요한 논쟁 사안이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이기도 함. 지역 개발 과정에서 문화유산을 걸림돌로 이해하여 파괴, 소멸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는 경우도 상당함. 결국 개발과 보존의 대립,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역량을 소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 또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한 규제로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으로서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특히 강화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더해 군사시설 보호 관련 규제, 농지 관련 규제 등 중첩된 규제에 따른 주민 불만이 높음. 이런 불만은 행정 기관과 주민의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문화재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문화유산 혐오로까지 이어짐
-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문화유산이 지역 가치를 높이고, 주민 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또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함. 개발과 보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정당성을 얻기 어려움

▶▶ 2. 연구 목적

1) 인천의 역사와 고유성을 살리는 체계적 문화유산 계승·보존 계획의 수립

- 인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역사와 고유성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며, 그것은 유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합리적 계승과 보존을 통해 가능함
- 이를 위해 문화유산의 계승, 보존의 문제점,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2) 중장기 문화유산 정책 비전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

- 문화유산이 시민의 관심을 받고 박제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인천의 문화유산 정책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문화유산 정책 비전 등 정책의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꾀해야 함

3) 종합발전계획수립을 통한 문화유산 정책의 수행 역량 강화와 신뢰 도모

- 타 분야의 행정 정책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정책 또한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지속적인 정책이 가능하도록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각적 검토를 통해 탄탄한 기초를 다진 종합발전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유산 정책의 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정책 신뢰를 증대하여야 함

▶▶ 3.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 기존 인천시의 문화유산 관련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정책 내용 분석
-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참고 정책 사례 분석

2) 문헌 자료 연구

- 기존 연구 및 정책 보고서 등 검토
- 관련 법령 및 각종 참고 문헌 분석

3) 의견 수렴

- 시민대상 설문조사로 문화유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인식 상황 조사
- 자문위원단에 대한 3차례 보고회 실시-내용 평가, 자문
-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다양한 의견 수렴

▶▶ 4. 범위와 내용구성

1) 정책계획 수립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향후 5년(2019~2023)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계획 설정

2) 연구의 내용구성

-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 환경 분석
 - 인천시의 문화유산(정책)과 관련한 환경 파악 및 분석
 -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의 SWOT 분석
-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 정책 분석
 - 인천시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중앙정부의 문화유산 정책 분석
 - 타 시도 참고 사례 분석

Ⅱ 환경 및 정책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 운용 방향 제시

- 종합발전계획의 비전, 핵심가치, 추진 체계 등 추진 전략 체계 제시
 -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의 향후 비전과 핵심가치 등 기본 방향 제시
 - 종합발전계획의 단계별 전략 분야 제시
-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제시
 - 소전략분야별 추진과제 제시
 - 정책과제별 필요성 및 목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제시

▶▶ 5. 연구 체계

1)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본 연구 사업 전반 총괄
- 연구사업 기본 방향 설정(인천역사문화센터와 협의)

2)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 인천시 문화재과와 협의하여 사업 주관
- 연구 추진 세부내용 설계
- 종합발전계획 비전과 전략 등 중심 추진체계 설정

3) 문화유산 정책 전문가 초빙 연구·집필

- 문화유산 정책 분야별 전문연구자(5명)를 집필진으로 초빙
-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설정 및 내용 구성
- 집필진 회의 통해 상호 내용 분석

4) 외부 전문기관 용역

- 인천시 문화유산 환경 및 정책 분석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연구용역
- 인천시민대상 문화유산(정책) 설문조사 : (주)리서치알앤에이 조사용역

5) 자문위원단 운영

- 인천시 및 시의회, 지역사연구·문화재보존·무형문화재·시민사회 등 각계 관계자, 전문가 13인으로 자문위원단 구성(인천광역시에서 위촉)
- 정기 보고회 등 통해 연구 진행상황 검토 및 의견 제시

▶▶ 6. 연구 경과

- 인천시 문화유산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안) 확정-인천시(2월)
- 연구 세부추진계획 수립-인천역사문화센터(3월)
- 자문위원단 구성(4월)
- 착수보고회 개최(4.19.)
- 문화유산 환경 및 정책 분석 연구용역 실시(5.28.~8.31.)
- 문화유산 관련 인천시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6.25.~7.13.)
- 세부추진과제(정책 및 사업) 집필진 구성 및 집필 진행(8월~12월)
- 추진 전략 체계 기본안 구성(8월)
- 중간보고회 개최(9.20.)
- 자문위원 대상 심층 의견 수렴 회의(10.24.)
- 계획 검토를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11.26.)
- 최종보고회 개최(12.18.)
-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최종 결과물(보고서) 완성(12.31.)

▶▶ 1. 일반환경

1) 인구와 도시 공간¹⁾

(1) 행정구역 및 인구

Ⅱ 행정구역 및 인구

○ 2016년 기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은 8구 2군 1읍 19면 130동임(행정동 기준)²⁾

<표 1>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

단위 : 개

	면적 (km ²)	구성비 (%)	군·구		읍·면·동				통·리		반	출장소			
			군	구	읍	면	동		통	리		시	군·구	읍·면	
							행정	법정							
2011	1,032.41	100	2	8	145	1	19	125	135	3,808	261	21,603	1	4	3
2012	1,040.82	100	2	8	146	1	19	126	135	3,838	261	21,894	1	4	3
2013	1,040.88	100	2	8	147	1	19	127	135	3,893	261	21,919	1	3	3
2014	1,046.27	100	2	8	148	1	19	128	135	3,919	261	22,020	1	3	3
2015	1,048.98	100	2	8	149	1	19	129	135	3,974	261	22,255	1	3	3
2016	1,062.60	100	2	8	150	1	19	130	135	4,024	261	22,425	1	1	3
총구	140.19	13.2	-	1	11	-	-	11	52	275	-	1,268	-	-	-
동구	7.19	0.7	-	1	11	-	-	11	7	204	-	980	-	-	-
미추홀구	24.84	2.3	-	1	21	-	-	21	7	638	-	3,130	-	-	-
연수구	54.95	5.2	-	1	13	-	-	13	6	468	-	2,399	1	-	-
남동구	57.05	5.4	-	1	19	-	-	19	11	667	-	3,699	-	-	-
부평구	32.00	3.0	-	1	22	-	-	22	9	645	-	4,201	-	-	-
계양구	45.57	4.3	-	1	12	-	-	12	23	486	-	2,477	-	-	-
서구	116.90	11.0	-	1	21	-	-	21	20	641	-	2,754	-	1	-
강화군	411.43	38.7	1	-	13	1	12	-	-	-	186	1,245	-	-	1
옹진군	172.48	16.2	1	-	7	-	7	-	-	-	75	272	-	-	2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원자료 : 인천시청 자치행정과)

1)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자료 참조(<http://www.incheon.go.kr>)

2) 2018년 7월 1일자로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되어 이하에서는 미추홀구로 통일함.

- 인천시 인구는 2018년 5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 2,953,255명, 외국인 64,468명이며, 세대 수는 1,199,382개임
- 아래 <표 2>를 보면, 인천은 2000년 이후 외국인 인구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인구 증가율 및 세대 당 인구는 급감했음
-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 향유 양태도 달라질 것이므로 이를 반영한 문화유산 관련 정책이 필요함

<표 2> 인천시의 등록인구 추이

연도	세대	인 구			인구증가율 (%)	세대당 인구 ¹⁾	65세이상 고령자	인구밀도 (명/km ²)	면적 (km ²)
		합계	한국인	외국인					
1960	74,975	402,009	402,009	...	11.31	5.4	...	2,417	166.30
1970	126,801	646,013	643,316	2,697	11.78	5.1	...	3,883	166.36
1980	243,625	1,083,906	1,083,906	...	3.85	4.4	...	5,389	201.13
1990	485,870	1,818,293	1,818,293	...	3.64	3.7	...	5,733	317.18
2000	829,164	2,562,321	2,545,769	16,552	1.51	3.1	138,316	2,657	964.53
2010	1,059,664	2,808,288	2,758,296	49,992	1.81	2.7	237,805	2,728	1,029.44
2011	1,077,563	2,851,491	2,801,274	50,217	1.54	2.6	250,528	2,762	1,032.41
2012	1,097,491	2,891,286	2,843,981	47,305	1.40	2.6	260,107	2,778	1,040.82
2013	1,118,988	2,930,164	2,879,782	50,382	1.34	2.6	282,471	2,815	1,040.88
2014	1,136,280	2,957,931	2,902,608	55,323	0.95	2.6	298,818	2,824	1,047.59
2015	1,154,004	2,983,484	2,925,815	57,669	0.86	2.6	312,905	2,847	1,047.87
2016	1,171,399	3,002,172	2,943,069	59,103	0.63	2.6	324,255	2,789	1,076.40

주1) 외국인 세대수 제외(1998년부터 적용)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원자료 : 정보화담당관실)

- 다음 <표 3>의 인천시 주간인구 지수를 보면 중구가 가장 높음. 주간인구지수가 100이상인 지역은 업무지역, 100미만인 지역은 주거위주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중구의 경우 인구가 적은 편인데, 상주인구 대비 유출인구는 적고(18.8%) 상주인구 대비 유입인구는 많음(76.4%). 이는 후술하는, 인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차이나타운, 월미도, 개항장 등 중구 지역을 찾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표 3〉 인천시 상주/야간/주간인구(2015년)

단위 : 명, %

	상주 인구	유입 인구 계	유입인구 (통근)	유입인구 (통학)	유출 인구 계	유출인구 (통근)	유출인구 (통학)	주간 인구	주간 인구 지수	상주인구 대비 유출인구 비율(%)	상주인구 대비 유입인구 비율(%)
시	2,803,495	195,082	170,050	25,032	414,566	351,534	63,032	2,584,011	92	14.8	7.0
총구	108,859	83,140	77,659	5,481	20,491	17,914	2,577	171,508	158	18.8	76.4
동구	69,781	27,988	23,956	4,032	22,326	19,227	3,099	75,443	108	32.0	40.1
미추홀구	393,408	76,545	53,311	23,234	115,847	101,744	14,103	354,106	90	29.4	19.5
연수구	307,333	68,245	52,309	15,936	88,838	77,167	11,671	286,740	93	28.9	22.2
남동구	510,768	112,841	108,541	4,300	144,708	124,079	20,629	478,901	94	28.3	22.1
부평구	531,285	82,328	76,535	5,793	162,590	141,390	21,200	451,023	85	30.6	15.5
계양구	319,905	42,319	36,834	5,485	108,681	95,298	13,383	253,543	79	34.0	13.2
서구	482,650	79,383	77,694	1,689	131,535	114,399	17,136	430,498	89	27.3	16.4
강화군	61,341	7,012	6,421	591	5,674	5,050	624	62,679	102	9.2	11.4
옹진군	18,165	1,958	1,934	24	665	485	180	19,458	107	3.7	10.8

자료 : 2017년 인천시 통계연보 참고 재구성

(2) 지역 내 경제상황

-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2012년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시가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를 포함한 각종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 다소간의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 인천시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당해년 가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총구	10,050,025	11,050,328	10,705,901	10,694,508	11,496,161	12,129,982
동구	3,032,225	3,667,148	3,397,622	3,127,109	3,361,515	2,605,831
미추홀구	5,822,142	4,722,373	5,357,672	5,354,525	5,755,897	5,098,091
연수구	4,208,733	5,810,718	5,078,320	5,283,538	5,679,588	8,262,065
남동구	12,521,385	12,320,404	12,610,777	14,357,406	15,433,627	15,094,588
부평구	8,498,536	7,913,953	8,333,841	8,760,707	9,417,404	9,321,503
계양구	4,031,397	3,115,997	3,632,401	3,435,703	3,693,241	3,807,871
서구	10,482,073	11,403,372	11,104,793	11,686,714	12,562,742	17,957,917
강화군	1,636,411	1,532,522	1,609,060	1,637,797	1,760,565	1,005,645
옹진군	425,125	317,536	377,489	316,173	339,873	391,344
인천시	60,708,051	61,854,353	62,207,877	64,654,180	69,500,613	75,674,836
	증감률(%)	1.9	0.6	3.9	7.5	8.9

자료 : 2017년 인천시 통계연보

(3) 지역 내 관광산업 및 연관산업 현황

-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인천시의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음. 특히 가족호텔업은 2011년 45개에서 2016년 68개로 증가하여 비교적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5> 인천시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2016)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일반	국외	국내	국내외여행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식당유출음식점업	사내순환관광업	관광패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합계	113	220	174	104	68	2	1	6	6	14	59	9	1	9	9	67
중구	18	6	4	9	28	1	-	-	4	4	8	-	1	-	1	22
동구	1	7	5	-	-	-	-	-	-	-	1	-	-	-	-	-
미추홀구	6	34	28	24	1	-	-	-	-	1	10	-	-	-	-	1
연수구	10	21	19	15	0	-	-	-	-	-	-	-	-	-	-	-
남동구	16	51	41	-	12	-	-	-	-	2	18	6	-	-	-	2
부평구	16	35	28	17	-	-	-	-	-	-	11	-	-	-	-	4
계양구	8	12	6	12	5	-	-	-	-	-	2	-	-	-	-	-
서구	14	28	17	13	5	-	1	-	-	-	4	-	-	-	1	8
강화군	2	4	5	4	2	-	-	4	-	5	-	-	-	8	6	-
옹진군	1	1	12	-	-	1	-	1	2	-	-	-	-	1	1	-
경제청	21	21	9	10	12	-	-	1	-	2	5	-	-	-	-	30

주1) 국제회의업의 경우 경제청에 시설업 1개, 기획업 5개 업체가 있으나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주2) 여타 지역에는 있으나 인천에는 없는 사업체 : 카지노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종합휴양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출음식점업, 관광사진업, 관광계도업 등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 참고 재구성

- 관광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천시의 경우 관련 산업의 생산물 부가가치 수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참고로 인천시는 전국 렌터카의 53%, 리스차량의 38%가 등록돼 있을 정도로 리스·렌터카 등록 점유율 전국 1위인 지역으로, 이를 통해 8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2018년 상반기 현재 리스·렌터카 관련 지방세 확보액은 작년 동기 대비 8.5% 증가).³⁾ 세수 확보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렌터카업을 관광업과 연계하는 것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3) 2018년 7월 9일자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92576Y>

<표 6> 경제활동별 인천시내 생산물 부가가치(당해년 가격)

단위 : 백만원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기타 서비스업
2010	360,046	15,862,732	2,131,355	3,981,888	1,349,469	7,222,292	1,069,049	2,533,565	6,302,921	2,859,388	2,011,227	2,020,818
2011	365,361	16,865,562	1,937,058	3,747,517	1,432,842	6,402,160	1,056,803	2,698,043	6,714,865	2,989,523	2,141,872	2,226,721
2012	360,167	16,145,088	2,119,486	3,370,672	1,475,460	6,472,485	1,098,011	2,583,356	7,018,876	3,052,558	2,337,839	2,385,179
2013	359,977	16,594,454	2,672,448	3,522,272	1,546,886	6,737,325	1,151,247	2,423,991	7,369,558	3,291,454	2,499,738	2,510,388
2014	378,929	17,441,525	4,449,590	3,442,883	1,645,074	7,236,809	1,243,867	2,648,729	8,033,252	3,436,247	2,704,923	2,204,288
2015	360,368	19,412,315	5,268,493	3,614,929	1,775,128	8,576,319	1,208,903	2,617,584	8,500,931	3,496,530	2,905,935	2,226,763

자료 : 통계청 「2015 지역소득」

<표 7> 인천시 문화재 연관 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사업체 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1	21,067	66,630	30,726	84,097	5,874	15,183
2012	23,373	67,697	31,667	88,303	5,924	15,827
2013	22,735	65,633	32,199	91,976	5,835	16,137
2014	23,041	71,656	33,121	97,135	5,695	15,841
2015	23,243	76,389	33,312	99,680	5,421	15,846
2016	24,243	76,399	34,312	102,448	6,082	18,149
총 구	2,413	26,577	2,772	10,192	302	1,969
동 구	734	2,588	798	1,789	92	256
미추홀구	3,873	9,773	4,986	13,094	887	2,100
연수구	2,275	5,232	3,374	13,743	651	2,381
남동구	4,587	7,492	6,048	19,006	1,151	3,407
부평구	3,656	6,936	5,524	15,814	1,152	2,981
계양구	2,693	5,480	3,208	9,075	708	1,768
서 구	3,587	11,504	4,915	14,175	955	2,773
강화군	364	633	1,705	3,666	131	420
옹진군	61	184	982	1,894	53	94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원자료 : 정보화담당관실)

2) 자연환경

(1) 위치 및 기후

- 한반도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126°37'E, 37°28'N) 인천은 대륙성 기후에 속하면서도 황해에 접하여 있어 해양성 기후의 특성도 일부 가지고 있으며 기온의 연교차가 적은 편임
- 화중지방에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 유입이 많아지면 해상의 안개가 짙어지고 낮 기온 상승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함
- 또한 황사현상이 타 지역에 비해 빈번히 일어나고 발생 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은 인천시민 혹은 인천을 찾는 관광객이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2) 지형, 면적 및 조림

- 인천의 산지는 마니산(469m)과 계양산(395m), 삼각산(343m) 등 10여개의 산을 제외하고는 해발 300m이내의 구릉성 산지임
- 따라서 큰 하천의 발달도 없어, 한강으로 유입하는 굴포천(11.5km)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 연장이 10km미만
- 인천의 해안은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으로 해안선이 길고 복잡하며 섬이 많음. 또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갯벌이 발달함. 섬이 많고 갯벌이 발달한 자연환경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임

〈표 8〉 인천의 해안선 및 도서

	해안선 ¹⁾ (km)			도서 현황					
		육지부	도서부	도서(개)	유인도	무인도	면적(km ²)	세대 ²⁾	인구(명) ²⁾
2010	1,051.54	338.06	713.48	150	39	111	119.95	12,675	25,811
2011	1,051.49	338.01	713.48	151	39	112	292.14	13,238	26,440
2012	1,047.81	327.18	720.63	148	38	110	291.93	13,238	26,434
2013	1,047.96	327.18	720.78	162	36	126	289.87	14,029	27,819
2014	1,047.31	322.52	724.79	163	35	128	289.99	14,542	27,549
2015	1,031.38	345.29	686.09	162	36	126	290.10	14,804	27,833
2016	1,033.87	323.09	641.80	150	34	117	241.95	13,667	25,168
중 구	147.77	116.52	31.25	12	3	9	10.95	473	829
동 구	11.16	10.02	1.00	-	-	1	0.07	-	-
미추홀구	-	-	-	-	-	-	-	-	-
연수구	37.00	-	-	-	-	-	-	-	-
남동구	31.84	-	-	-	-	-	-	-	-
부평구	-	-	-	-	-	-	-	-	-

	해안선 ¹⁾ (km)			도서 현황					
		육지부	도서부	도서(개)	유인도	무인도	면적(km ²)	세대 ²⁾	인구(명) ²⁾
계양구	-	-	-	-	-	-	-	-	-
서 구	-	-	-	-	-	-	-	-	-
강화군	264.78	148.23	116.55	25	8	17	58.74	1,572	2,988
옹진군	541.32	48.32	493.00	113	23	90	172.19	11,622	21,351

주1) 해안선은 실제 접안 길이임- 중구의 영종-용유도를 도서에 미포함.

주2)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

- 인천시의 큰나무조림 현황을 보면 특히 옹진군의 비중이 압도적임

〈표 9〉 인천시 큰나무조림 현황(2016년)

	면적 (ha)	본수 (천본)
합계	70	33.2
연수구	5	21
남동구	4	0.6
부평구	2	0.7
계양구	2	0.3
서구	5	3.3
옹진군	52	7.3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

- 한편 후술할 문화체육관광부의「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관광의 이유로 '자연경관 감상(28.6%)'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를 고려할 때, 조림이 잘 되어 있어 자연을 즐기기에 좋지만 문화유산은 다소 적은 옹진군 같은 경우, 중구의 차이나타운·개항장 관광과 옹진군 조림관광을 연계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음. 이를 통해 여러 지역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문화유산환경

1) 역사적 정체성 및 문화재 현황

(1) 역사적 정체성⁴⁾

○ 선사시대~고대

- 인천은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서해안의 중심이었음.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 곳곳에 구석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사회문화적 유산은 신석기·청동기시대를 거쳐 기원 전 1세기경에 '미추홀(彌鄒忽)' 전설로 이어졌음
- 백제 지배 하에서 인천은 대외교통의 창구가 되는데, 해상으로 중국과 교류해야 했던 백제가 수도를 충청도 공주로 옮길 때까지 100여 년 동안 능허대(凌虛臺, 연수구 옥련동)를 항구로 중국과 교역했다는 전승이 있음
- 통일신라는 인천에 군진(혈구진(穴口鎭))을 설치하여 외적 방어와 해상교통 기지로 삼았음

○ 고려~조선

- 해상교통 거점으로서의 인천의 역할은 대외관계에 개방적이었던 고려왕조 하에서 더욱 확대되었음. 고려는 개성에 이르는 수로(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강화·고동·자연도 등을 중심으로 대외교통의 거점을 개발·정비하는 한편, 이를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개성의 남쪽을 방어할 안남도호부를 부평 [수주(樹州)]에 설치하였음
- 19세기 중엽 서양 여러 나라가 조선에 통상(通商)을 요구해 오자, 인천 연안에서 강화에 걸친 군사시설은 서양세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최전방 방어시설로 기능하게 되었음. 결국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가 일어나 강화도는 다시 전쟁의 주무대가 되었음
- 쇄국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조·일수호조규(1876, 강화도조약)를 맺고, 제물포 개항으로 외세와 이질적 문물이 들어옴에 따라 갈등이 일어남. 일본이 인천을 식민지 경영의 발판으로 삼아 다른 지역보다 많은 토지와 인력을 수탈하면서 대부분의 농민이 몰락하였음. 몰락농민은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보조적 노동인구(부녀자·아동들)를 증대시켜 조선인의 노동여건을 악화시켰음

○ 일제시대

-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이주자가 크게 늘어 공단과 거주지를 건설하고, 일제가 김포·부평평야를 식량공급지로 삼았음. 이로써, 개항 직후 제물포 중심의 작은 항구도시·상업도시였던 인천이 거대 항만도시이자 농·공단지를 배후에 두는 산업도시로도 변모함. 그러나 인천은 철저히 일본인 중심의 도시로 변하여 값고 일본인의 억압과 수탈은 심해졌음
- 1919년 3월 6일 원인천에서 시작하여 부평·김포·강화 등으로 확산되며 한달 넘게 독립만세를 불렀고, 192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조선물산장려운동과 금주·단연(斷煙)운동이 인천조선물산소비조합

4) '인천의 유래와 연혁' 자료 참고(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posts/1216>)

(1923)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신간회와 근우회 인천지회가 조직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광복에 이르기까지 저항과 투쟁을 지속하여 간 것은 노동운동과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운동이었음

○ 광복 이후

- 인천은 한국전쟁 휴전(1953.7.27) 후 20여 만 명의 이북 피난민을 수용했음
- 정부는 인천항을 수·출입 창구로, 배후공단을 주요 가공 공단으로 하였음



<그림 1> 1959년 인천항 모습

자료 : 2015년 8월 11일자 인천일보(www.incheonilbo.com)

- 인천의 본격적인 성장은 19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이루어짐. 원인천의 임해공단들과 부평공단에 대한 집중 투자가 수출 위주로 전개되면서 각종 기간시설 및 편의시설이 확대되었고, 이는 인구 증가를 가속화함
- 인천시는 이미 1960년대 말에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4대 도시로 성장하였고, 1981년에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세계화·정보화 및 중국의 개방으로 인천지역의 지정학적 비중이 더욱 높아지자 1995년 3월 1일 광역시로 확장·승격됨
- 현재 인천광역시는 서울의 관문인 항만·상업도시이자(원인천) 농·공업도시(부평)이며, 송도, 영종, 청라 지구가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으로 지정되면서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 도시가 되었음. 또 농·수산물 문화·관광의 보고(寶庫)인 강화와 옹진에 동북아시아의 허브 인천공항까지 위치해 물류 중심지, 산업·정보단지, 관광·휴양단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됨

(2)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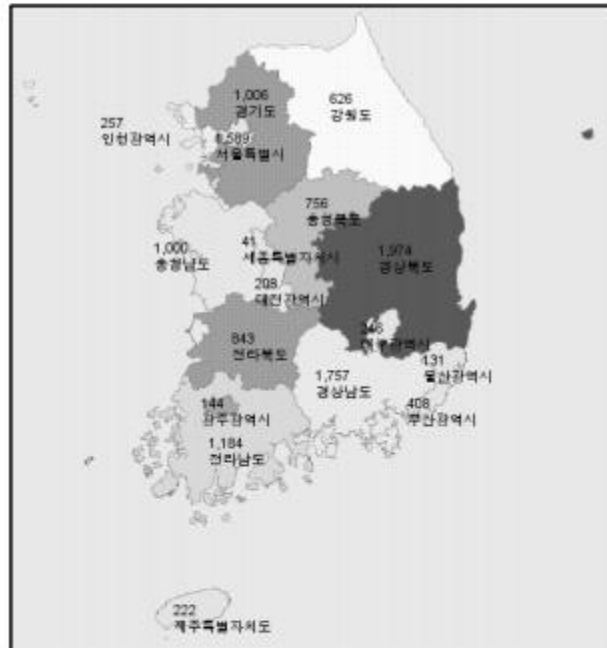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인천의 문화재는 257건으로,⁵⁾ 서울시(1,589건), 부산시(408건), 경기도(1,006건), 경북(1,974건), 경남(1,757건), 전남(1,184), 전북(843건), 충남(1,000건), 충북(756건), 강원도(626건) 등에 비해서는 적지만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들과 비교하면 문화재가 많은 편으로 문화재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큰 지역임

5) 인천시 통계에 의하면 2015년의 문화재 건수가 264건으로 되어 있으나, 통계청 유형별 지정·등록 문화재 건수(2015)에 따르면 257건으로 되어 있어, 타 지역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이 수치를 활용함

〈표 10〉 2015 유형별 지정·등록 문화재 건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2,484	1,589	408	246	257	144	208	131	41	1,006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626	756	1,000	843	1,184	1,974	1,757	222	92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2〉 전국 문화재 지도(2015년 기준)

자료 :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sgis.kostat.go.kr>)

○ 2018년 1월 현재 인천의 지정문화재는 264건임.⁶⁾

-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인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을 비롯하여, 강화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향약제생집성방 권6 등 보물 28점을 보유하고 있음
- 18개의 사적들 중 강화산성, 강화 참성단, 강화 부근리 지석묘, 강화 초지진, 강화 외성 등 많은 사적이 강화에 집중되어 있고, 웅진 백령도 두무진은 유일한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음
- 천연기념물은 14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강화갯벌·저어새 번식지, 웅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꿩이갈매기 번식지, 웅진 백령도 사곳사빈(천연비행장), 웅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등 강화와 웅진에 주로 분포하며, 특히 강화 저어새번식지가 유명함
- 은율탈춤,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 황해도 평산 소 놀음 굿, 화각장 등 국가무형문화재로 6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특히 은율탈춤은 최근 일반시민대상 강좌를 여는 등 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6) 지정문화재의 자세한 현황은 [부록1] 참고

- 이외에 인천 선린동 공화춘, 대한민국 수준원점, 구 인천부 청사 등 8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표 11〉 인천시 문화재

단위 : 개

	총계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기무형 문화재	소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2011	237	65	1	25	18	1	14	6	145	57	2	62	24	22	5
2012	240	65	1	25	18	1	14	6	148	60	24	62	2	22	5
2013	247	68	1	28	18	1	14	6	150	58	27	63	2	22	7
2014	252	68	1	28	18	1	14	6	152	58	27	65	2	25	7
2015	264	68	1	28	18	1	14	6	164	69	28	65	2	25	7
2016	263	68	1	28	18	1	14	6	163	68	28	65	2	25	7
2018.1.	264	68	1	28	18	1	14	6	163	68	28	65	2	25	8
총 구	28	1			1				19	11	3	4	1	2	6
동 구	8	1						1	5	3	1	1		2	
남 구	19	2						2	16	7	7	2			1
연수구	39	15	1	14					19	16	1	2		5	
남동구	13	1						1	11	1	4	6		1	
부평구	7	3		2				1	4		4				
계양구	10								8	2	1	5		2	
서 구	17	2			1		1		14	2	3	9		1	
강화군	114	34		12	16		5	1	67	26	4	36	1	12	1
옹진군	9	9				1	8								

주1) 기타: 국가 및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시에서 일괄 관리하며 무형문화재 인원이 아닌 지정종목 건수임

주2) 인천시의 국가지정문화재 중 중요민속자료는 없음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 문화재과 201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자료 참고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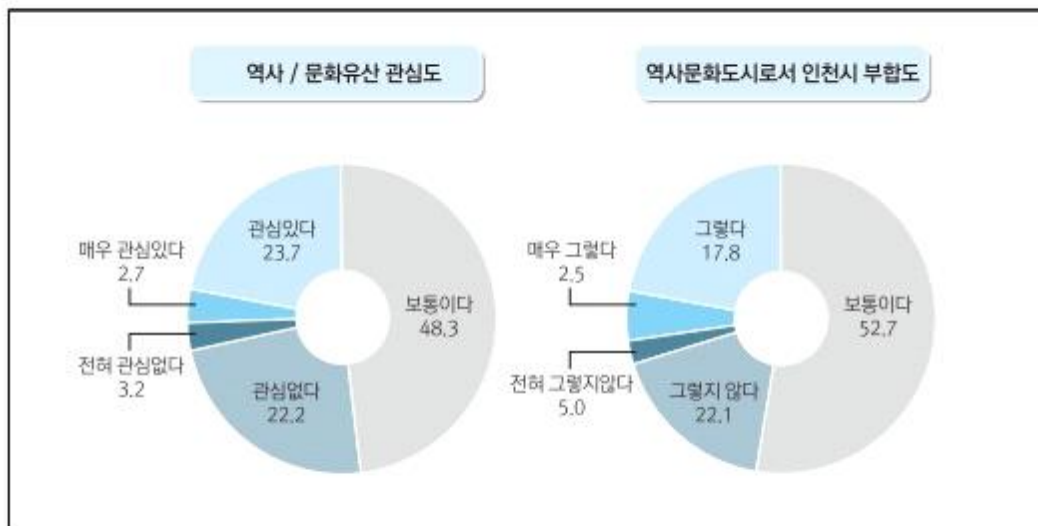
2) 시민의 이해·관심과 향유 수준

(1)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 인천문화재단이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 1,000명(실제 유효표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시 문화유산 이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 인천문화재단. 2018. 「2018년 인천시민 대상 문화유산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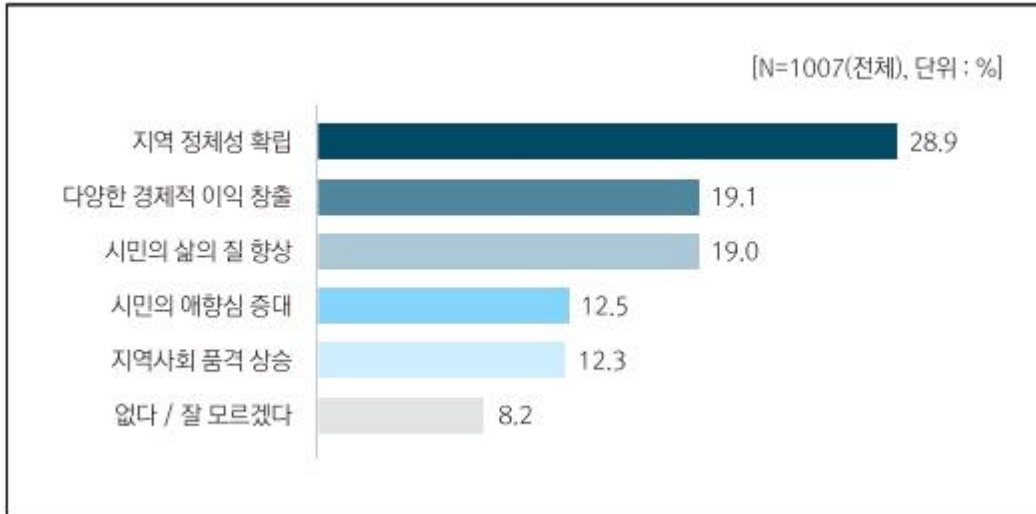
- 인천시민의 역사 및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 정도는 보통 수준(3.00점, 5점 척도)이고, 인천시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정도는 보통을 하회하는 수준(2.91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도 26.4%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연령별로는 20대 2.82점, 30대 2.96점, 40대 3.03점, 50대 3.09점, 60대 이상 3.07점으로, 30대 이하 시민의 관심정도는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거주지별로는 연수구 주민의 관심도(3.30점)가 가장 높았으며, 계양구(3.10), 서구(3.05), 중구/동구/미추홀구(3.00), 용진/강화군(2.97), 부평구(2.94), 남동구(2.81) 순으로, 차이나타운이나 개항장을 보유한 중구, 고인돌이나 사찰, 구한말 유적이 있는 용진/강화군조차 관심도가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음



〈그림 3〉 문화유산 관심도 및 인천시 이미지 부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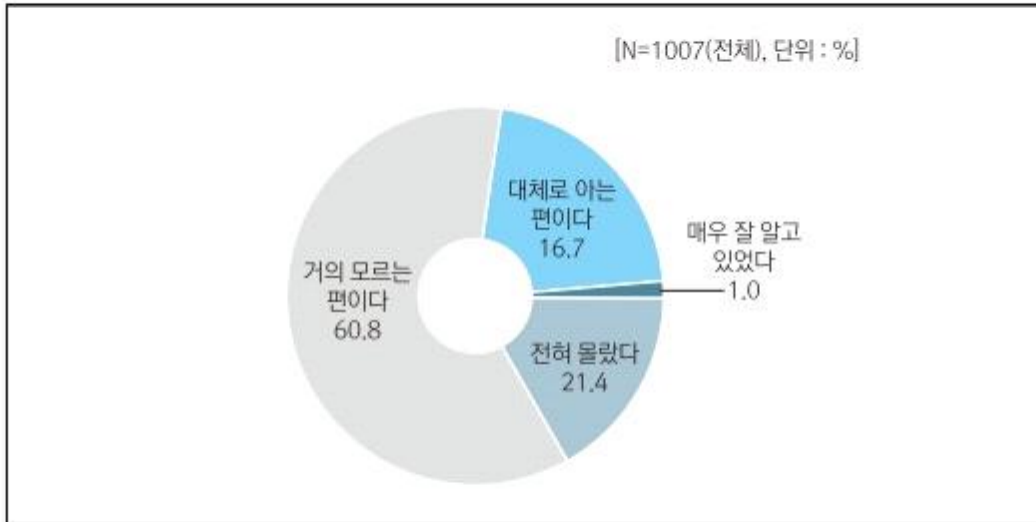
- 한편, 인천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20.3%인 반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1%를 보여, 인천을 역사문화도시로 정립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를 알 수 있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연수구(3.20점), 용진/강화군(3.06점), 계양구(3.05점), 중구/동구/미추홀구(3.04점)는 보통수준을 상회한 반면, 남동구(2.81점), 서구(2.76점), 부평구(2.70점)는 평균(2.91점)보다도 낮게 나타남
-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으로는 '지역 정체성 확립'을 꼽은 비율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19.1%), 시민의 삶의 질 향상(19.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를 제외하고는 지역 정체성 확립을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하였고, 40대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우선으로 꼽았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용진/강화군(38.2%), 계양구(37.5%), 부평구(36.5%), 서구(33.1%), 중구/동구/미추홀구(29.9%)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정체성 확립을, 남동구(52.7%)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연수구(28.4%)에서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문화유산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향후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방향이 될 것임



〈그림 4〉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

-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보면, 인지도는 17.7% 수준이나 만족도는 긍정 비율이 25.0%(3.02점)로, 인지도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높은 편임
- 정책 인지도 측면을 보면, 남성(20.7%)이 여성(14.9%) 대비 정책인지율과 만족도가 모두 높고, 연령별로는 40대(22.2%), 30대(19.3%), 60대 이상(19.0%)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별로는, 계양구가 22.1%로 가장 높고, 서구(20.9%), 부평구(20.3%), 연수구(20.2%) 순이었음
- 하지만 거의 모르는 편이다(60.8%) 혹은 전혀 몰랐다(21.4%) 등 모른다는 응답이 82.2%에 달하여, 인천시의 문화정책은 정교한 수립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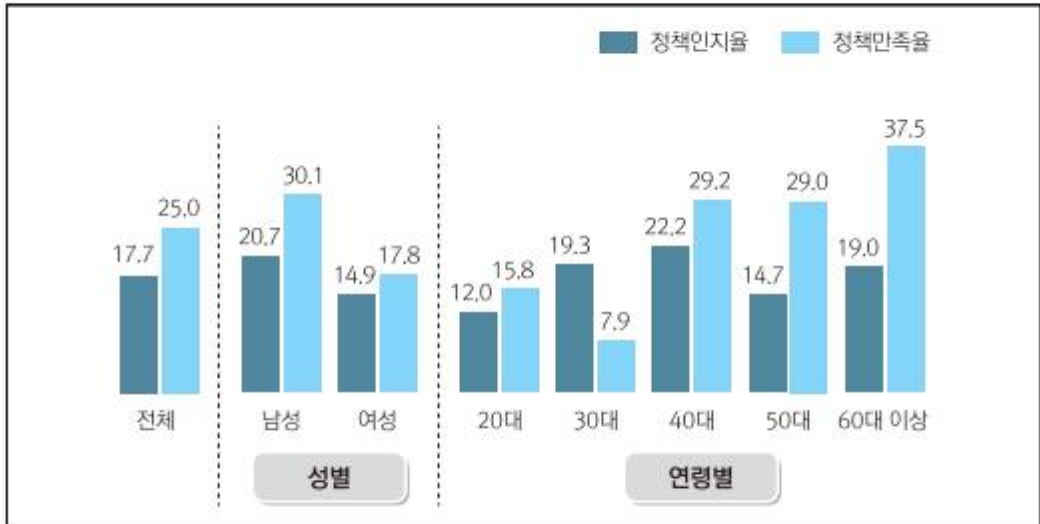
〈그림 5〉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 인지도

- 일례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강화도의 돈대·산성·포대 등 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13.7%에 불과하였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하고, 44.3%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고 하여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해양관방유적의 소재지인 용진/강화군 주민조차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주민들이 23.5%에 불과함

〈표 12〉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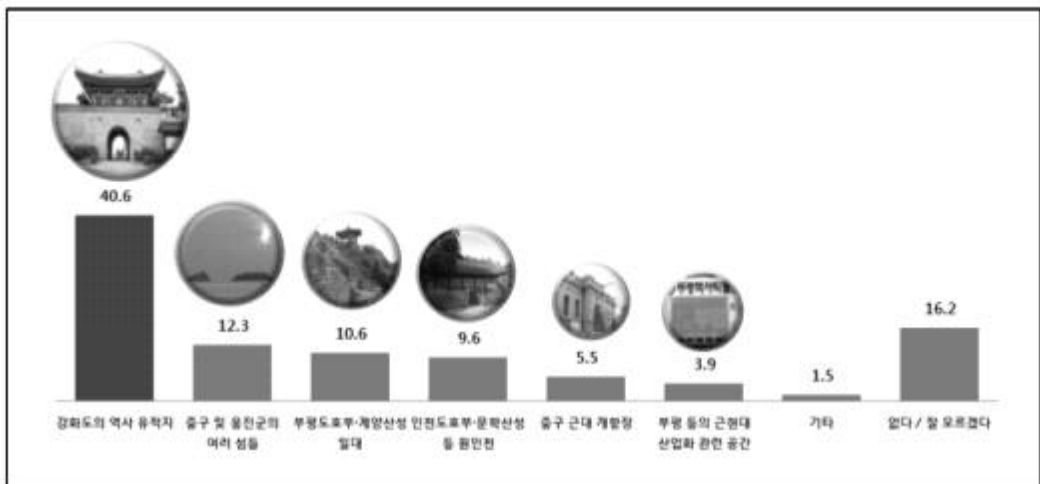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명)	(%)	(%)	(%)	(%)
전체		(1007)	41.1	44.3	13.7	1.0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48.8	38.9	12.3	0.0
	연수구	(109)	20.2	54.1	22.9	2.8
	남동구	(182)	36.5	54.7	5.0	3.9
	부평구	(192)	40.0	43.7	16.3	0.0
	계양구	(115)	55.8	32.7	11.5	0.0
	서구	(164)	44.2	40.5	15.3	0.0
	용진/강화군	(34)	26.5	50.0	23.5	0.0

- 한편,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178명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25.0%로 불만족(20.5%)에 비해 다소 높았음. 남성(3.09점)이 여성(2.93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3.26점), 60대 이상(3.25점), 40대(2.94점) 순으로 나타남. 거주지별로는 용진/강화군(3.60점), 연수구(3.23점), 남동구(3.14점), 중구/동구/미추홀구(3.13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 인천시민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으로 강화도의 역사 유적지를 꼽은 비율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 및 용진군의 여러 섬들(12.3%), 부평도호부·계양산성 일대(10.6%) 순으로 나타남
- 강화도의 역사유적지 및 중구/용진군의 섬들은 4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특히 높았는데, 이를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수립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



〈그림 7〉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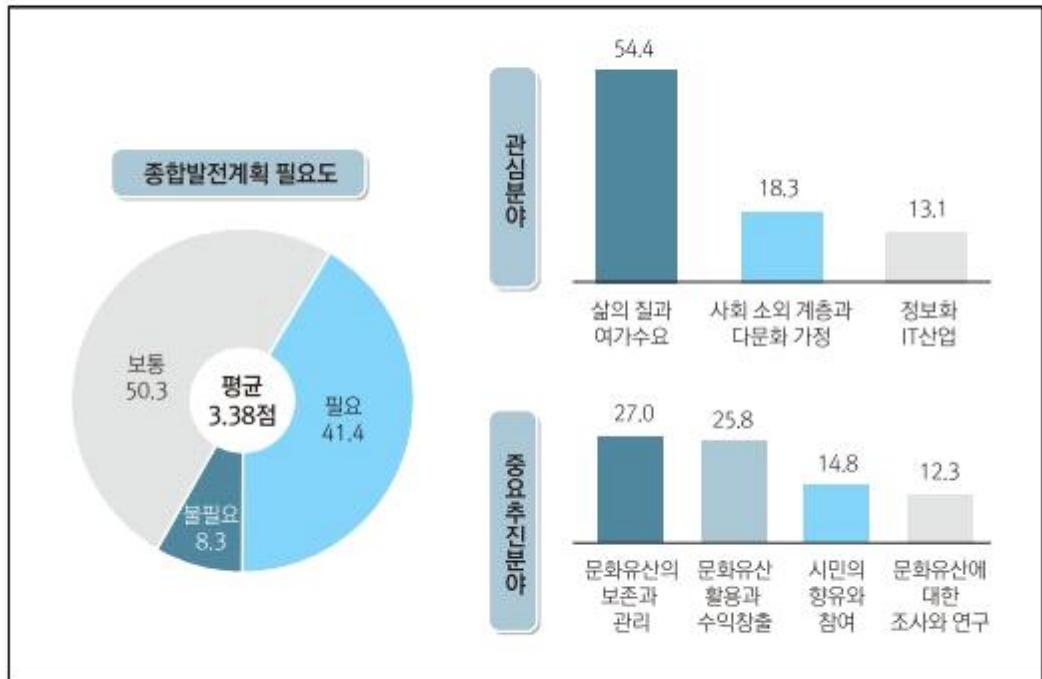
- 위와 유사한 맥락으로, 강화도의 해양관광유적 이외에 추가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할만한 자연 또는 문화유산에 대해, 강화도 등 서해안 갯벌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대곡동 고인돌(18.8%), 중구 근대 개항장(9.3%) 순으로 나타났음
- 강화 갯벌을 선호하는 경향은 성별, 연령,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음

- 시민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거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만한 유산 역시 강화도에 소재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관광객들은 근대 개항장에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서해안 갯벌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 관광객들을 활발히 유치할 필요가 있음



<그림 8> 해양관광유적 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진할만한 자연/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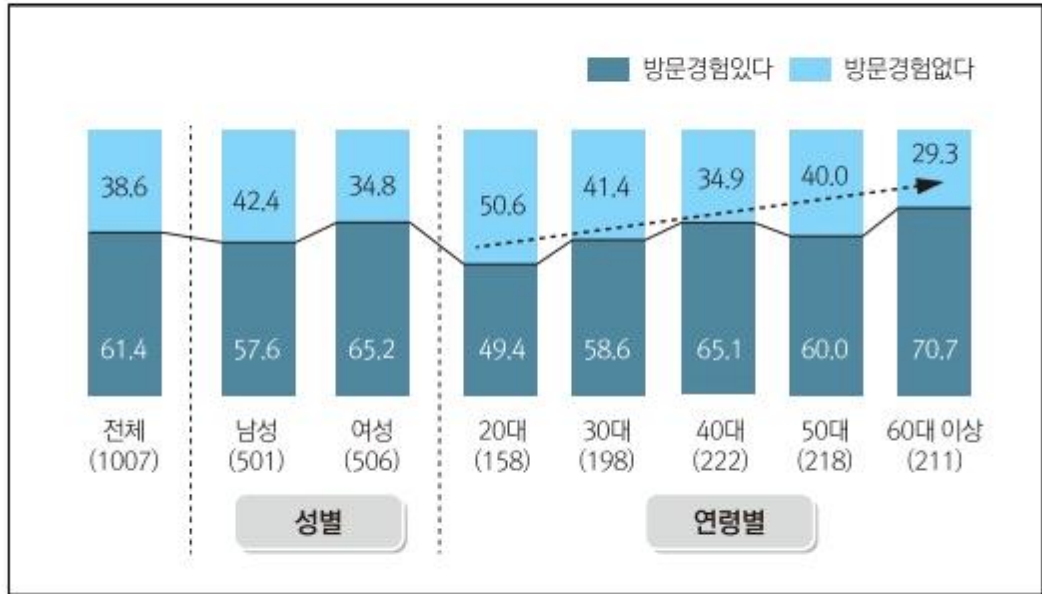
- 인천시의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한가의 설문에서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41.4%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8.3%)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사업) 분야 중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재산권, 지역 개발과의 조화 문제 포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 창출(25.8%), 시민의 향유와 참여(14.8%),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12.3%), 박물관·전시관 등의 운영개선 및 신설(7.6%), (남북간 포함)국제적 홍보·교류(4.4%)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20대(19.1%), 30대(20.3%), 40대(37.3%)에서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창출을, 50대(31.9%), 60대 이상(32.1%)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별로 차이를 보였음
- 거주지별로도,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은 중구/동구/미추홀구(26.8%), 남동구(42.9%), 계양구(26.8%), 용진/강화군(47.1%)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가장 중시하고, 연수구(31.5%), 부평구(27.7%), 서구(30.1%)에서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창출을 가장 많이 선택하여, 문화유산 보유 수준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타났음
- 한편,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삶의 질과 여가수요(54.4%)를 절반 이상이 선택하였음.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시민들이 여가생활에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9〉 인천시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필요도 및 정책 관심분야, 중요추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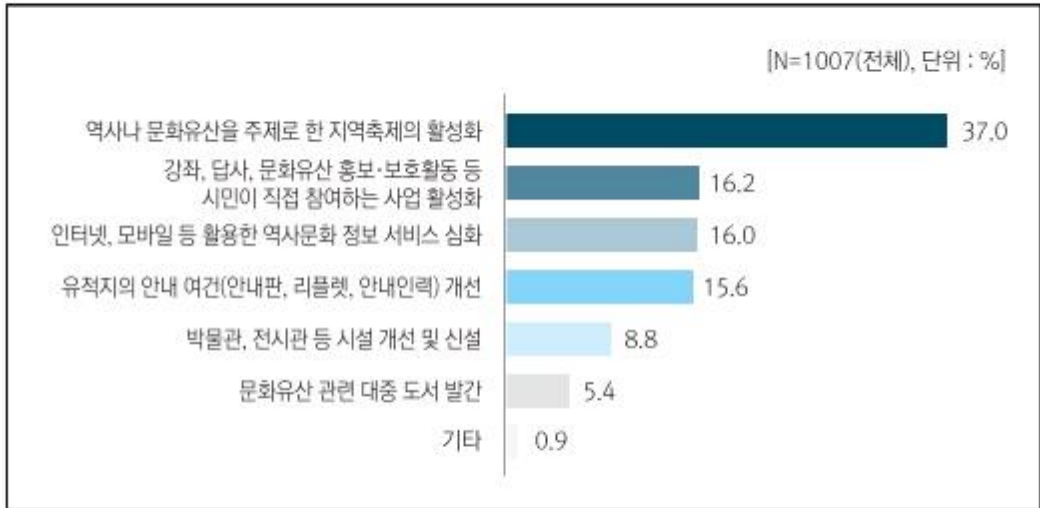
(3) 시민들의 문화유산 관련 참여와 향유

- 지난 1년 간 인천 소재 박물관, 전시관, 유적지 등의 문화유산을 방문한 경험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1.4%가 방문경험이 있다고 하였음
- 방문횟수가 1회~3회라고 대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4회~6회(16.9%), 7~9회(4.1%) 순으로 나타남
- 정책인지도나 만족도 등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던 반면 문화유산 방문경험은 여성(65.2%)이 남성(57.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40대(65.1%)와 60대 이상(70.7%)에서 방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아, 취학연령 자녀를 둔 40대 혹은 자녀가 모두 성장한 60대 이후의 여성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거주지별로는, 용진/강화군 거주자의 방문율이 97.1%로 가장 높고, 중구/동구/미추홀구(70.4%), 서구(69.8%) 순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에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시민들의 문화유산 방문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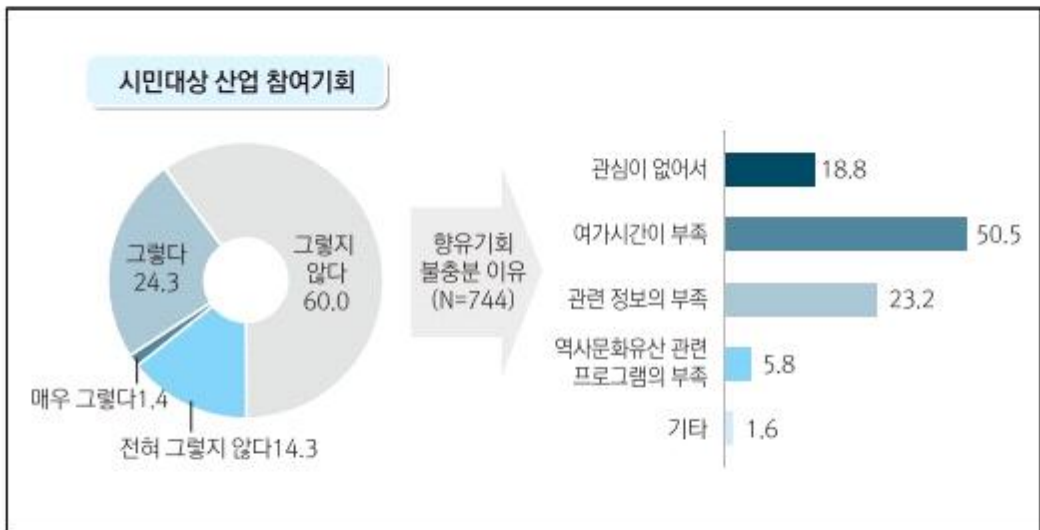
〈그림 10〉 인천 문화유산 방문율

- 지난 1년 간 인천의 문화유산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610명을 대상으로 역사유적지나 박물관의 현장안내판 및 책자 등이 문화유산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 설문한 결과,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47.0%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44.4%), 매우 그렇다(4.8%) 순으로 나타남
 - 안내판 및 책자가 도움되는 정도는 방문횟수 7회~9회(4.10점), 10회 이상(4.00점), 4회~6회(3.72점), 1회~3회(3.37점) 등 방문횟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방문빈도가 높은 시민들이 특히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인천시민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역사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의 활성화(37.0%), 강좌/답사/문화유산 홍보·보호활동 등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 활성화(16.2%),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 정보 서비스 심화(16.0%) 등을 들었음
 -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인터넷/모바일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 정보 서비스 심화(24.8%), 40대는 유적지의 안내 여건(안내판, 리플렛, 안내인력) 개선(23.2%)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음
 - 하지만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나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7.9%에 불과하고, 보통이다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21.3%)는 응답은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음 (2.89점). 특히 40대(3.00점)와 60대 이상(3.00점)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 30대, 5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 문화유산 이해와 관심도 제고는 필요하지만 '내가 그 활동을 하겠다'는 태도는 부족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1〉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필요 사업

- 시민들이 인천시의 역사나 문화유산 관련 시민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74.3%에 달하는 반면 충분하다고 대답한 비율은 25.7%에 그쳤음
-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74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여가시간의 부족(50.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관련 정보의 부족(23.2%), 관심이 없어서(18.8%),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부족(5.8%) 순이었음. 특히 '관심이 없어서'는 30대 이하 저연령층에서 많이 언급하였고, 거주지별로는 부평구(25.4%), 계양구(23.3%), 서구(23.0%), 중구/동구/미추홀구(22.0%) 순으로 나타남
- 관심이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심도 제고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정보가 부족하여 참여기회에 접근조차 못 하거나, 관심이 있어도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해야 함



〈그림 12〉 역사/문화유산관련 시민대상 사업 참여 기회인식 및 불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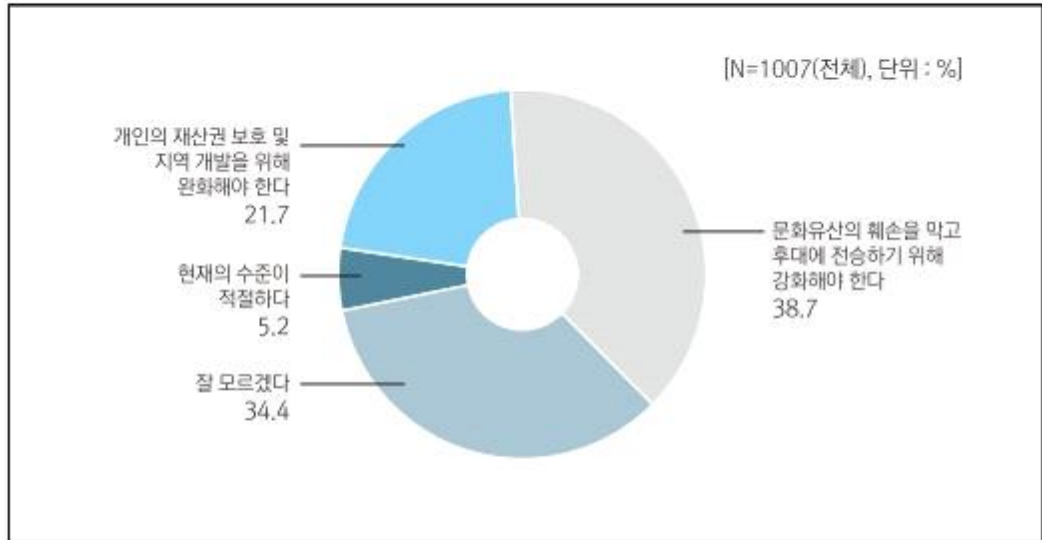
(3)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와 개발·재산권의 조화

- 응답자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으로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41.6%), 도시 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27.3%),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장(16.2%) 등을 들었음
 - 특히 시민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50대 이상이 40대 이하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 40대 이하는 50대 이상에 비해 도시 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지만 개인재산의 합리적 보장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높아서, 고연령층에 비해 재산권에 대해 더 민감하면서도 문화유산의 보존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유산을 고려한 합리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되,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밀한 설계를 해야 함

〈표 13〉 문화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 고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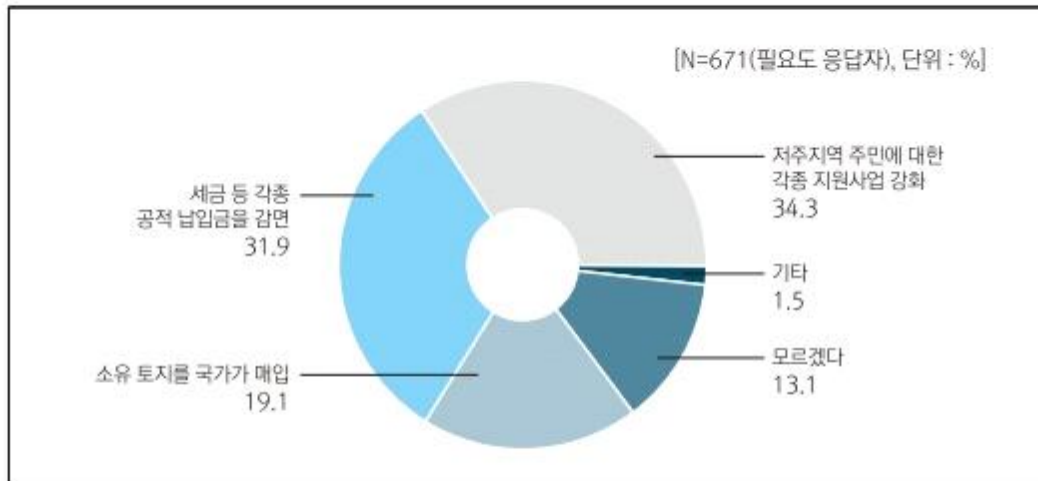
		사례수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장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도시 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
		(명)	(%)	(%)	(%)
전체		(1007)	16.2	41.6	27.3
성별	남성	(501)	18.7	37.6	30.2
	여성	(506)	13.7	45.5	24.5
연령	20대	(158)	16.6	29.3	27.4
	30대	(198)	17.7	38.4	27.8
	40대	(222)	18.6	39.1	32.7
	50대	(218)	12.1	48.4	26.5
	60대 이상	(211)	16.2	49.5	21.9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재의 법적 규제에 대해, 문화유산 훼손을 막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38.7%)는 응답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21.7%)는 응답보다 많았음



〈그림 13〉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재의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

- 연령별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42.1%), 40대(39.5%), 50대(38.0%) 순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개발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가 24.5%로 가장 높고 20대(24.1%), 30대(21.8%) 순으로 나타나, 30대는 문화유산 보존을 특히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부평구(47.6%), 계양구(46.4%), 서구(45.7%), 중구/동구/미추홀구(45.2%)는 규제 강화를 중시하였고, 연수구(38.5%), 남동구(44.5%)는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중시하였음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1%이고(매우 필요하다 24.3%, 필요하다 42.8%), 필요없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하였음
-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671명을 대상으로 보상 방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34.3%)가 가장 선호되었지만 세금 등 공적 납부금 감면 방식(31.9%) 선호와 큰 차이는 없었음
-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19.1%로 낮아, 직접적 보상보다는 간접적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보상방식

- 20~30대와 50대는 세금 등 각종 공적 납부금 면제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40대와 60대 이상은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 방식을 가장 선호함
- 특히,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동구/미추홀구 거주자는 세금 등 각종 공적 납부금 감면(38.8%),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강화(38.8%) 방식을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방식(17.1%)보다 훨씬 더 선호하였고, 용진/강화 거주자의 경우 표본 수가 15명으로 적기는 하지만 국가 매입방식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고,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강화(71.4%)를 압도적으로 선호하였음
-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다소 침해되고 있다 하여도, 주민들은 지원사업 강화 방식의 지원을 선호함을 고려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표 1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 제한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필요성 및 선호 보상방식

		사례수	소유토지의 국가 매입	세금 등 각종 공적납부금 감면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강화
		(명)	(%)	(%)	(%)
연령	20대	(96)	9.4	39.6	31.3
	30대	(137)	16.3	33.3	29.6
	40대	(160)	27.5	18.8	38.1
	50대	(146)	20.4	35.2	31.7
	60대 이상	(132)	17.6	37.4	39.7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131)	17.1	38.8	38.8
	연수구	(90)	35.6	40.0	22.2
	남동구	(121)	0.8	10.8	30.0
	부평구	(133)	26.0	32.1	35.9
	계양구	(83)	25.6	30.5	37.8
	서구	(98)	17.3	42.9	34.7
	용진/강화군	(15)	0.0	28.6	71.4

(4) 소결

- 현재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지도나 만족도, 참여 및 활용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님
- 시민들은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게 전승하면서도 그것을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원하는 경향이 있었음
- 그러나 강화 갯벌이나 역사유적지, 중구 개항장 외에는 인천시 소재 문화유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임
- 학부형 연령대나 고연령층이 박물관이나 전시관 등을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데, 기존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새로운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연령층과 수요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해양관광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물론 인천이 자랑하는 서해안 갯벌 등의 후속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에는 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고려할 때, 인천 시민 포함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어떤 문화유적 관련 행사가 있는지, 체험프로그램의 종류는 무엇인지, 인천시에서 여행하기에는 어느 곳이 좋고 맛집은 어디 있는지 등을 인천시 홈페이지나 문화유산 특화 앱을 통해 안내하고, 안내책자도 발간하여 공항이나 터미널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등에도 비치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민들을 공식 홍보 도우미로 임명하여 활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인천시 문화유적에 대한 인지도나 관심도가 낮은 젊은 층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들은 SNS, 블로그 등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전파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관심도가 낮은 젊은 층을 오히려 홍보도우미로 적극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고연령층은 오프라인 홍보사절, 답사도우미, 안내도우미 등으로 활용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인천시민의 인천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한편 이를 관광과 연계하여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문화유산 정책관련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임

▶▶ 3. 문화유산 정책환경

1) 향유·활용

(1) 인천의 관광지 방문객 수

- 고령화사회 심화와 함께 문화재 향유 인구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의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12년 63.5%, '14년 76.5%, '16년 76.9%)⁸⁾
 - 이에 따라 인천시는 문화재 야행(Culture Night) 프로그램 확대 및 초·중고 대상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추진, 문화재 답사 생생문화재 사업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임
- 한편, 2016년 인천을 방문한 방문객들 중에서는 무료관광지 방문객이 15,561,986명, 유료관광지 방문객이 8,188,795명으로, 무료관광지 방문객 수가 압도적인 상황임(유/무료 관광지 현황은 [부록2] 참고)

〈표 15〉 인천의 유/무료 관광지 방문객 수(2016년)

집계 관광지수 (개소)	유료관광지 방문객수 (명)			무료관광지 방문객수 (명)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21	8,188,795	8,019,910	168,885	15,561,986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원자료 : 관광진흥과)

- 그런데 다음 〈표 16〉을 보면, 강화군 마니산 관광지는 유료이고 용진군 서포리 관광지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방문객이 전자의 1/4 수준에 불과함. 또, 외국인 관광객은 마니산 관광지 18명에 불과하였음. 2011년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은 마니산 364,104명, 서포리 57,181명이었고,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0명이었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외국인 방문객의 유치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

〈표 16〉 마니산 및 서포리 관광지 관람인원 및 관람료 수입(2016)

	조성면적 (㎢)	방문객 (명)	내국인방문객 (명)	외국인방문객 (명)	징수액 (백만원)
합계	1.708	509,645	509,627	18	578
마니산관광지	1.48	407,643	407,625	18	578
서포리관광지	0.228	102,002	102,002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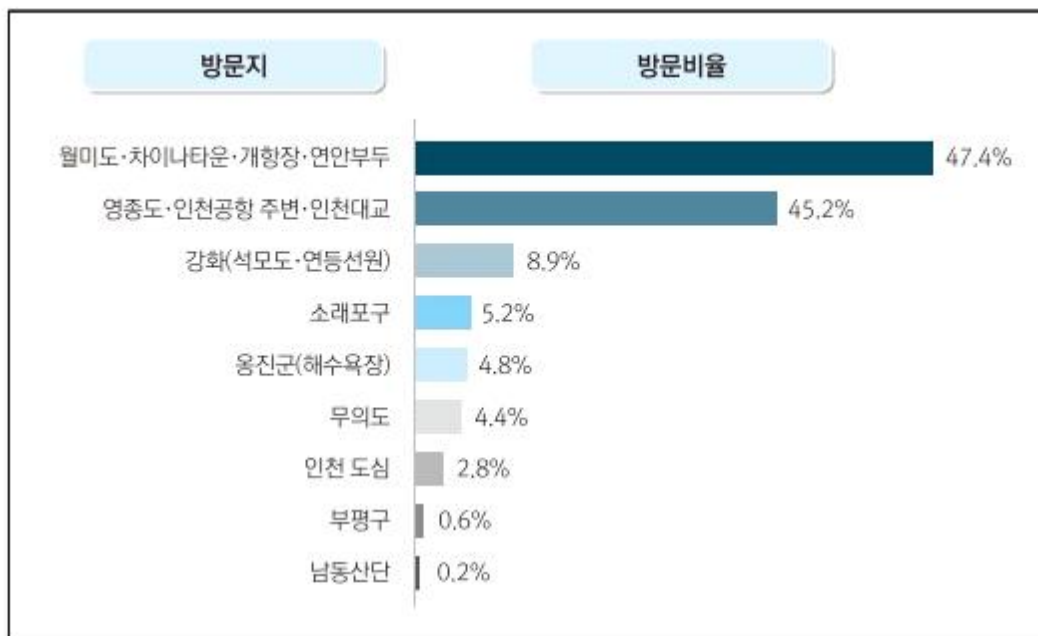
자료 : 2017년도 인천통계연보

- 무료관광지라 하더라도 그 곳에서 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천시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므로, 유/무료 구분 없이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함

8) 「2018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 계획」 참고

(2) 외국인 관광 실태

-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에 인천을 찾은 외래관광객들의 행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음
- 먼저,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이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감소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관광산업의 상황이 좋지 않았음⁹⁾
-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인천을 방문한 비중은 5.0%로 2015년(6.8%)보다 1.8%p 감소하였음
- 2016년 국적별 방한 관광객은 중국인이 50.2%, 일본인이 14.7%로 많았는데, 중국인 방문객들은 서울(73.8%), 제주(34.9%), 경기(7.7%) 순으로 찾은 반면 인천을 찾은 경우는 4.4%에 불과하였음. 일본인 관광객들은 서울(71.0%), 부산(18.1%), 경기(11.5%) 순으로 방문한 가운데 인천방문은 1.7%에 그쳤음
- 한국여행 중 인천 방문율이 높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러시아(15.8%), 태국(10.4%), 중동(10.1%) 순이었고, 인천시내 관광지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은 장소는 '월미도, 차이나타운, 개항장, 연안부두(47.4%)'와 '영종, 공항 주변, 인천대교(45.2%)'인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강화군(8.9%), 소래포구(5.2%), 옹진군(4.8%), 무의도(4.4%), 인천 도심(2.8%) 등지는 상대적으로 방문 비중이 낮았음



〈그림 15〉 2016년 외국인 관광객이 찾은 인천 방문지

자료 : 2017년 6월 7일자 인천일보(원자료 : 문화체육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

9) 2016년 조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였음

2017년 6월 7일자 인천일보 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6216#08hF

- 그런데 「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수가 2016년 대비 25% 증가하고(106만8993명→ 133만6282명), 방문비율 10.02%를 기록함
- 여전히 외래관광객들은 서울(78.8%), 경기(15.6%), 부산(15.1%)을 인천보다 더 선호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 전체규모가 2016년 대비 22%나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인천방문 비율의 증가 폭은 상당히 높은 것임
- 2016년과 달리 인천지역 방문지 중 '공항주변·인천대교·용궁사'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송도' 방문 비율이 2016년 27.3%에서 2017년 32.5%로 증가한 반면 '월미도·차이나타운·개항장·연안부두'는 38.6%에서 30.0%로 감소하였음¹⁰⁾
- 인천시는 외국인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동남아, 일본, 대만, 홍콩 등 전락시장 다변화 및 타깃 상품개발 △박람회, 세일즈플, 팸투어 활용 공격적 마케팅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제휴를 통한 도시 브랜딩 등을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해 펼친 결과로 판단하고 있음
- 불과 1년 사이에 양상이 상당히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인천방문이 급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임
 - 이러한 변화는 2016년 조사와 2017년 조사의 조사방식 및 표본 변화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
 - 대구 및 청주국제공항이 조사 장소로 새롭게 추가되었음
 - 조사국가로 동남아 3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추가되면서 표본수가 2016년 12,003명(16개국)에서 2017년 13,841명(19개국)으로 확대됨. 체재기간이 비교적 짧은 중국 단체여행객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체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베트남인들이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방문비율이 낮은 지역들 중 특히 강화군에 문화유산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의 측면에서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3) 인천시 관광개발 계획

- 2017년 4월에 발표된 '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은 인천을 융·복합 관광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을 담고 있음¹¹⁾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동 계획에 따르면(총 사업비 2979억8300만원), 융·복합 관광사업 중점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유·창의성에 기초한 관광소프트 경쟁력 강화, 동북아 관광중심 도시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10) 2017년 조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였음. 2016년 조사에서 '월미도, 차이나타운, 개항장, 연안부두' 방문비율이 47.4%였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전년의 해당지역 방문비율이 38.6%라고 하고 있으므로 수치에서 차이가 발생함.

2018년 6월 3일자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03010000658>

11) 2017년 4월 24일자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0963

-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마이스(MICE) 산업과 의료관광산업, 관광비즈니스 등을 강화하고 복합리조트·테마파크 조성, 강화군 관광도시 사업, 마니산과 서포리 일대 관광지 개발, 강화종합리조트 관광단지 사업,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 군·구 테마 관광,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심·해양 관광 육성, 마케팅 강화, 관광 교류 협력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임
- 관광단지의 경우 국내 타 지역 시민들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함. 인천공항이라는 좋은 자산이 있으므로 매력적인 관광단지로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임
- 2016년의 경우, 한국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쇼핑(75.7%)과 식도락 관광(51%)을 위해 오지만, 자연 경관을 감상한다거나(28.6%) 고궁/역사유적지를 방문(25%)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 유흥/오락은(15.2%) 가장 후순위였음(단, 지역으로는 서울 방문이 78%로 압도적으로 많음¹²⁾)
 - 2017년은 쇼핑이 72.5%로 소폭 감소하고, 식도락 관광이 58.2%로 증가하였음
 - 쇼핑이 여타 이유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이유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방문에서 가장 좋았던 활동으로 식도락 관광을 꼽는 비중이 최근 들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외국인들의 이러한 방문이유도 충분히 고려하여 관광단지 복합개발을 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아래 <표 17>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인 관광객들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남자보다는 여자, 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정책 설계 시 주요 타겟의 한국방문 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 역사유적지 방문 목적의 방문도 상당한 만큼, 복합관광단지에서는 쇼핑과 먹거리 관광을 하고, 그 바깥으로 나가서는 인천시가 보유한 문화유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펼쳐야 함

12) 지역 선택 중복응답

<표 17> 한국 관광 선택시 고려 요인(1순위, 2016년)

		사 례 수	쇼 핑	자연 풍경 감상	역사 문화 유적	패션 유행등 세련된 문화	음식 미식 탐방	K-POP 한류스타 팬미팅 등 경험	여행 가능한 여가 시간	경제적 여행 비용	잘 갖춰진 휴양 시설	유흥 놀이 시설	가까운 거리	안전 치안	치료 (병의원 방문)	이미용 서비스	숙박 시설 편리한 교통	기타	
거 주 국	중국	5,125	33.7	29.5	4.5	9.9	5.3	2	1.5	1.4	3.8	1.4	3.3	1.2	0.2	0.3	0.2	1.9	
	일본	1,220	24.1	13.2	11.9	3.5	12.1	14.5	5.1	4.1	0.1	2.5	3.6	1.2	0.2	0.5	0.7	3	
	대만	575	23.9	24.4	10.6	13.1	9.3	1.8	1.6	4.3	1.7	2.2	1.7	1.4	0	0.3	0.4	3.2	
	홍콩	444	32.9	22.2	3.4	7	15.1	2.6	2.7	2.8	0.6	2.1	0.8	3.4	0	0.3	0.3	3.7	
	태국	279	27.3	27.8	6.4	5.4	4.9	2	0.3	4.8	12.5	1.5	0.1	1.8	0.5	0.3	1.1	3.2	
	말레이	201	22	34.1	11.9	4.3	3.7	3.7	5.8	2.9	0.2	0.9	0.4	2	0	0.3	0	7.9	
	미국	179	10.4	17.7	26.6	5.1	8.6	5	7	2.2	1	2.4	2.5	0.7	1.5	0.8	0.4	8.1	
	싱가포르	117	40.8	16.5	8.2	1.7	8.3	4	5.8	1.3	0.4	0.7	0.4	2.4	0.1	0.4	0.3	8.7	
	러시아	87	15.2	21.4	14.5	2.2	2.2	1.1	4.7	1.8	8.8	6.1	3.5	5	8.3	0	0.7	4.6	
	캐나다	51	12.4	11.3	23.5	4.5	10.1	2	7	2.2	0.6	1.7	3	0.6	1.1	0.6	1.3	18.2	
	중동	43	24.2	19.9	8.1	2.8	1.9	3.3	4	0.7	0.8	2.2	0	2.2	29	0	0	0.9	
	호주	41	11.8	12.6	21	3.7	8.2	7.9	6.5	5.9	1.1	2.5	5	2.8	0	1.2	2.2	7.6	
	영국	21	10	13.8	31.2	4.2	16.6	1.4	3.9	4.2	0	2.9	5.1	1.1	1.4	0	1.2	3	
	독일	14	6.3	20.2	46.7	1.7	12	3.8	2.6	1.6	0	0	5	0	0	0	0	0	
	프랑스	10	4.5	20.1	56.9	2.5	0	5.8	4	0	0	2	0	0	0	0	0	4.2	
	인도	3	17.1	33.3	22.1	0	0	0	0	0	0	0	11.4	0	0	5.6	0	10.5	
	기타	416	12.2	17.3	28.7	3.5	8.2	5.3	6.3	2.3	0.8	2.6	2.5	1.1	0.5	0	0.6	8.1	
	성 별	남자	3,053	21.2	31.3	10.6	7	8.2	1.6	3.5	2.4	2.5	2.7	3.7	1.7	0.6	0.2	0.3	2.7
		여자	5,774	33.5	22	7	8.7	6.7	5.4	2.1	2.2	3.1	1.3	2.4	1.2	0.4	0.3	0.4	3.2
연 령	15~20	537	25.2	18.2	7.1	12.5	9.9	10.2	4.9	1.4	4.4	1.5	1.2	1.7	0.2	0.1	0	1.5	
	21~30	4,164	32.4	25	6.8	9.1	6.7	3.3	2.2	2.3	3.3	1.5	2.8	1.1	0.3	0.4	0.3	2.6	
	31~40	2,501	30.9	24	9.2	8.4	7	2.9	2	2	2.3	2.1	3.3	1.5	0.5	0.3	0.3	3.3	
	41~50	961	21.1	28.5	9.9	4.2	9.4	6.3	3	3.1	2.4	2.3	2.5	2	0.8	0.1	0.4	3.9	
	51~60	489	18.5	33.3	13.1	2.8	4.8	4.7	5.2	3.1	2	1.6	2.2	2.3	1	0.1	1.1	3.9	
	61세 이상	155	17.3	30	11.3	2.3	8.9	6.2	5.7	0.9	1.7	1.3	7.4	0.1	1	0.2	0.4	5.4	
	모름/ 무응답	20	34.9	11	0	3	9.9	18.4	0	11	3	5.1	0	0	0	0	0	3.5	

주) 20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공항에서 약 1,33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임(총 16,000명)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 교류·협력

(1) 국내

- 국내적으로 문화재를 둘러싼 주민재산권 문제, 2017년 인천시 중구 송월동 옛 비누공장(1930년대 건립 추정) 같은 근대건축물 철거 논란, 부서 간 및 각종 기관들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문화재청은 2018.7.8.~14. 기간 동안 공주, 부여, 익산에서 '백제문화유산주간' 개최(「백제의 시간, 문화유산에 깃들다」)¹³⁾ : 이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주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등 8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는 행사임. 그동안 백제문화유산의 홍보와 활용은 각 지자체나 박물관이 각각 추진하여 그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지 않았기에 본 행사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음.



<그림 16> 백제문화유산주간 포스터

자료 : 유네스코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블로그 blog.naver.com/unescobaekje

(2) 남북관계

- 최근 남북이 화해무드에 들어가면서 역사문화유산에 있어서의 북한과의 교류협력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역사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었음

13) 유네스코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블로그 blog.naver.com/unescobaekje/221306958021

-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문화정책포럼(2013) : 북한의 문화유산 법제 변천 과정, 무형문화유산 남북 교류 협력 방안 검토(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통일부「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방안 연구(2016)」 : 북한 내 민족문화유산 보존·발굴지원을 위한 제도적·물적·인적 인프라 마련 모색, 개성통일박물관 건립, 개성문화마을 조성,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지원 기관 설립, 민족문화유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제시
-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말빠르게 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포럼(2018.7.11.) <계승과 개혁¹⁴⁾ : 새로운 북한의 문화예술> : 북한의 문화유산보호정책, 문화유산 조사 자료,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례, 남북문화유산 교류의 정책 방향 및 과제 탐색
- 최근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시작되었음
 -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 세미나 <관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2018.7.4.)¹⁵⁾> : 남북 문화유산 공동 발굴 현황과 협력 과제 모색,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참가하는 '남북 문화회담'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문화유산 협력 상시적 논의, 공예도성 등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신설 및 문화유산분과 설치 제시
- 북한이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이하여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특별전을 올 초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에 이어 4월과 6월에는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 인천시도 고려건국 1100년을 맞이하여 대몽항전기 수도인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고려 관련 행사를 활발히 기획하고 있음 고려할 때,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그림 17>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자료 : 2018.7.14.일자 시사뉴스 www.sisa-news.com(원출처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4) 2018년 7월 8일자 KNS뉴스통신(경기) 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46356

15) 2018년 7월 3일자 뉴스프리존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64

2018년 7월 14일자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3472>

(3) 국제

-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은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제적 협력은 보통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 및 정책과 관련한 보수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실질적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선린우호관계 형성 및 발전이 가능함
- 한국과 몽골의 경우 1997년부터 문화유산 분야 교류를 해왔음¹⁶⁾
 -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몽골 공동학술조사 20주년 기념 '간의 제국' 특별전을 2018년 5월 개최(몽골의 국보급 문화재 16건을 포함해 536점의 유물 전시. 몽골의 국보급 문화재가 대량으로 해외로 나온 첫 사례)
 - 몽골의 경우 낙후된 문화재 연구 수준으로 인해 한국의 학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교류의 이유가 되었는데, 한반도 내 문화를 이해하려면 주변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2006년 5월, 문화재청-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¹⁷⁾
 - 문화유산보존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 인류 공동 자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용, 건조물 보존관리, 왕경유적 공동발굴, 세계유산 관리, 박물관분야 교류 추진
- 2017년 10월, 인천상륙작전기념관-프랑스 캉 기념관 MOU 체결¹⁸⁾
 - 학술, 국제교류 전시회, 소장품 대여, 국제포럼 등의 활동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의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관 간 콘텐츠 확보
- 2018년 4월, 수원시-스코틀랜드 유로파 'EU 월드시티 프로젝트' 실무회의¹⁹⁾
 - EU 월드시티 프로젝트는 EU지역 도시와 비 EU지역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도시협력 프로젝트임. 수원시와 파트너인 스코틀랜드 유로파는 상호 관심분야로 '역사문화 자원보존'과 '도시재생'을 선정하였음

3) 조사연구와 교육

- 지역 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함
- 그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16) 2018년 6월 8일자 뉴스핌 www.newspim.com/news/view/20180605000448

17) 문화재청뉴스 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092116§ionId=b_sec_1

18) 「2018년 문화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19) 2018년 4월 19일자 머니투데이 news.mt.co.kr/mtview.php?no=2018041909563990768

- 해상과 연결된 인천시는 지형적 특성상 고려시대부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특히 2018년은 고려건국 1100주년으로서 고려의 역사 및 대몽골 항쟁의 중심지였던 강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적 지원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인천역사문화센터를 들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이 센터에서는 강화 고려사 외에 인천의 선사~근현대사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 지원, 강화역사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남북 역사문화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재)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이 2013년에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15년에 인천문화재단과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2016년 말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16.12.14.)'을 통해 인천문화재단 대상사업에 사업 기능을 신설하게 되었음. 이를 통해 센터의 인원도 증원하고(1센터 5명 → 7명) 예산도 대폭 증대되는 등(2013년 5억5천만원 → 2018년 10억원²⁰⁾ 인천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4) 관련 시설 (문화재 및 박물관 등)²¹⁾

- 인천시의 역사문화시설은 박물관, 민속시설, 비영리문화재단법인 등이 있음

〈표 18〉 인천시 역사문화시설

계	박물관	민속시설	비영리 문화재단법인
60	26	5	29

주1) 참고로, 박물관과 민속시설을 포함한 인천시의 문화시설은 총 445개소임. 문예회관11, 미술관4, 공공도서관55, 작은도서관256, 공연장43, 문화원9, 영화관25(스크린 180), 생활문화센터6, 기타5개 등으로 문화시설 중 도서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주2)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이 29개, 문화예술 법인이 88개, 종교 법인이 58개, 영화영상 법인이 1개로, 일반문화예술 법인이 가장 많음(「문화재과 제246회 주요 업무보고, 참고)

- 인천시의 등록박물관은 26개(공립14, 사립11, 대학1), 미등록 박물관(공립6, 사립5)이 중구(5개)와 미추홀구(2개), 강화(4개)에 총 11개가 있으며, 건립 중인 박물관(국립1, 공립1)이 연수(1개)와 계양(1개)등에 있음. 등록/미등록/건립 중인 박물관을 모두 고려했을 때 중구, 강화, 미추홀구 순으로 박물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
 - 2016년 입장객의 경우, 한국이민사박물관 114,371명, 시립박물관 111,452명, 컴팩스마트시티 101,659명, 검단선사박물관 38,942명, 송암미술관(시립박물관 분관) 15,905명²²⁾으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의 입장객 수가 가장 많았음

20)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참고

21) 「2018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 계획」,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참고. 자세한 내용은 (부록3) 참고.

22) 「2017년 인천시 통계연보」(원자료 : 시립박물관)

〈표 19〉 인천시 박물관 현황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 (공립박물관)	37 (19)	12 (7)	1 (1)	6 (-)	2 (1)	3 (1)	2 (1)	-	2 (2)	8 (6)	-	
운영 37 (19)	등 록 박물관	26 (13)	8 (4)	1 (1)	4 (-)	2 (1)	3 (1)	2 (1)	-	2 (2)	4 (3)	-
	미등록 박물관	11 (6)	5 (3)	-	2 (-)	-	-	-	-	-	4 (3)	-
건립 중인 박물관	2 (2)	-	-	-	1 (국)	-	-	1 (1)	-	-	-	

자료 :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

- 중구 舊시장관사를 활용하고 있는 역사자료관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사무실, 열람실, 역사사랑방(세미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²³⁾ 인천시의 문화 홍보 및 문화 인프라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인천 관련 소장자료가 사료·논문단행본 등 약 15,000종이며, 문헌자료, 고문서, 지방사 자료, 사진자료 등의 형태로 소장하고 있음
- 민속시설로는 인천 도호부청사(미추홀구), 은율탈춤전수관(미추홀구), 구·제물포구락부(중구), 인천 상륙작전기념관(연수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미추홀구) 등이 있음
- 한편, 인천시에는 ‘한국 최초’가 붙는 장소들이 상당히 많음.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지(부평구 십정동), 최초의 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가좌인터체인지), 최초의 철도(중구 인천역), 최초 연초공장지(중구 선린동), 최초의 서구식 공원(중구 자유공원), 최초의 성공회(중구 내동), 최초의 한글점자창안자 송암 박두성 생가(중구 율목동) 등 많은 선구지들이 인천에 자리하고 있음
- 전통사찰도 상당히 많은데, 총 8개 중 강화군에 전통사, 보문사, 정수사, 백련사, 청련사, 청수암, 적석사 등 7개가 몰려 있을 정도로 강화군은 전통사찰의 보고임
- 조선시대의 지방 교육기관이었던 향교로는 인천향교(미추홀구 문학동), 부평향교(계양구 계산동), 교동향교(강화군 교동면), 강화향교(강화군 강화읍) 등이 있는데, 역시 강화에 향교가 2개나 있을 정도로 강화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음

5) 보존·관리

- 최근 경주와 포항 지진 등 지진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도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²⁴⁾

23)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

24) 「2018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 계획」 참고

- 눈에 보이는 유형문화재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도 매우 중요함
 - 인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는 무형문화재가 큰 도움이 될 것임
 - 무형문화재의 전승에는 보유자의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므로 저변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함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화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이 2018년 총 사업비 808백만원(국비 404백만원, 시비 404백만원)으로 실시되고 있음²⁵⁾
 - 총 234개소에서 시행(국가지정 29개, 등록 1개, 시지정 67개, 비지정 137개)
 - 이를 통해,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표 20〉 인천시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 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소 계	보 물	사 적	명 승	천 연 기 념 물		소 계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소 계	루/ 정/ 각	성 곽	석 물	사 당	고 인 돌	진/ 보/ 돈	기 타
29	4	13	1	11	1	67	15	41		11	137	8	4	21	15	41	18	30

주1) 기타 30개소=사적지(궁지택지) 21/ 사지 4 / 못·우물 3 / 묘 1 / 수목 1

주2) 비지정 문화재 현황은 [부록 4] 참고

6) 행정체계

(1) 기구, 인력 및 예산²⁶⁾

- 인천시의 문화유산 담당기구는 문화재과로, 1과 4담당('18. 1월 현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18〉 인천시 문화재과 조직도

* 정원 외 현원 T/F 운영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2)

-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25)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자료 참고

26)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 「2018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 계획」참고

〈표 21〉 인천시 문화재과 인적 구성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4급	5급	6급		7급 이하		연구사
				일반	일반임기	일반	사무운영	학예연구사
정 원	24	1	4	9	2	6	1	1
현 원	22	1	3	7	2	8	1	0

※ 문화재정책팀 9명, 문화재팀 8명, 문화재시설팀 4명, 박물관건립팀 3명

※ T/F 운영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명), 경현원에 공무원직 제외, 휴직 1명

○ 2018년 예산규모는 18,167백만원으로, 2017년도의 17,334백만원에 비해 4.8% 증가하였음

〈표 22〉 인천시 문화재과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문화관광체육국	287,924	264,517	23,407
문 화 재 과	18,167	17,334	833

자료 : 「문화재과 제246회 주요업무보고」

(2) 사무분장(2018.1.2. 현재)

- 문화재정책팀이 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등 문화재 정책에 대한 전반을 다룸
 - 인천에는 2018.1월 현재 34개 국가(6개) 및 인천시(28 : 예능20/기능8)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재 팀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병행 운영하고 있음
- 자세한 사무분장 현황은 다음 〈표 23〉과 같음

〈표 23〉 2018년도 인천시 문화재과 사무분장

구 분	업무
문화재 정책팀 (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인천역사문화센터 운영 • 고려 강도의 꿈 실현(총괄 및 담당자 지원) • 강화역사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운영 지원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및 국립화 • 전통편사놀이, 도호부대제 개최 • 향교업무(명륜학당 운영지원 및 기로연 행사지원, 재산처분허가 등) • 전통문화시설 위탁운영(은율탈춤전수관, 도호부청사, 구)제물포구락부) • 문화재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 등록 • 지명위원회 운영 및 지명관련 업무 • 한국민속예술제 지원

구 분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역사문화 사료수집, 보존, 자료집 발간, 역사문화 강좌,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역사자료관 운영 및 관리 제반 업무 • 시사편찬위원회 운영 • 인천 최초최고 역사문화탐방길 운영
문화재팀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유·무형)지정·해제 및 지정내역 관리 • 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 등의 등록관리, 동산문화재 관리(문화재 사범처리 포함) •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 매장문화재 보호관련 조사 및 개발협의 • 문화재보호조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조례 및 규칙 정비 • 1문화재 1지킴이 • 「강도의 공 실현」중요문화재 ‘국보’ 승격 추진, 강화 고려궁지 범위 조사, 평화대장경 간경 • 전통민속 전수학교 운영 •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은율탈춤전수관 전통민속놀이공연 운영, 전통상설공연(얼췌) 운영 • 차문화 협회 행사 등 지원 및 관리 • 충장공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업무 • 문화재 활용(생생문화재,야행,프로그램,지역문화유산교육) 사업 추진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공연, 전시, 견학, 공연장 관리, 운영지원(조명, 무대, 토목, 조경 등)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 도호부청사 전통문화한미당 운영
문화재 시설팀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박물관·전시관 등) 건립·확충 • 전통사찰 등록, 변경,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설계검토 및 승인, 건축허가, 감독 등 • 국가(등록)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명승지역 보존관리 • 강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거점 조성사업 • 문학산(성) 개방 및 주변 정비 관련 •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기록화사업 • 유(有)형문화재 보존·관리, 공사현장 조사, 기술지도 및 감독 • 문화재수리업자 및 기능자 등록 관리 •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안전관리 전반 - 국가안전대진단, 자연재난대비 등 • 문화재 돌봄사업 관리 및 지도감독 •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및 방재시스템 관리,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관리 • 문학산상 음악회
박물관 건립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문자박물관 건립 지원 • 인천유지엄파크(시립박물관) 조성 및 지원사업 • 강화 세계기록유산 자료관 건립·운영 • 고려역사문화단지 조성

자료 :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

(3) 위원회 현황

-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현재 6개의 위원회 조직을 운영 중임. 위원회 현황은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인천시 문화재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	위원회 설치 근거	설치연도	위원회 기능
문화재 위원회	19명 위원장: 민간	· 문화재보호법 제8조 ·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8조	1981.07.01. (임기 2년)	· 시 지정문화재 지정과 해제 · 시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 시 지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 · 시 지정문화재의 환경보존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
무형문화재 위원회	14명 위원장: 민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21조	2016.05.19. (임기 2년)	· 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시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의 인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시사편찬 위원회	17명 위원장: 시장	· 인천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조	1975.12.12. (임기 3년)	· 시경자료 및 향토역사, 문화의 수집보존연구 편찬 · 시사편찬과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지명위원회	9명 위원장: 부시장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 인천시지명위원회조례 제2조	1981.11.19. (임기 3년)	·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 관할구역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8명 위원장: 민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008.07.02. (임기 2년)	· 전통사찰 지정 해제 신청 ·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 기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10명 위원장: 민간	·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2조	2017.03.23. (임기 2년)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경비보조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자료 : 「문화재과 일반현황(2018.1.)」 참고 재구성

▶▶ 4. 문화유산 정책 성과평가

1) 최근 3년간 성과²⁷⁾

(1) 총괄

-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은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일반인이나 학생 대상 상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일회성 혹은 단기 공연·축제 및 지역행사 개최, 문화재 등록·승격 및 관리, 타 기관 운영 지원, 축제 및 대회 출품 지원, 학술·편찬 사업, 박물관·전시관·역사관 등 조성·운영 및 지원, 무형문화재 관리 등임
- 상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향교 명륜학당 운영 지원, 일반인 및 학생 대상 인천 역사문화 유산 탐방단 운영,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 규방다례 차(茶)행사 지원, 초중고생 대상 전통민속전수학교 운영, 생생문화재 사업(문학산, 계양산 답사, 강화갯벌체험 및 저어새 탐조여행), 일반시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반시민과 학생(단체) 대상 무형문화재 교육체험 프로그램(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학생 전통문화 진로체험)
- 공연, 축제 및 지역행사 개최
 - 고려역사문화제, 노인 대상 향교 기로연 재현(고전무용, 공연, 음식집대 등),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얼쭈”, 문화재 야행(Culture Night),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및 전시, 문학산상 음악회
- 문화재 등록, 승격 및 관리
 -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방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시 기념물 계양산성 사적 승격, 국가·시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이정표 정비,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명예관리인 보상
- 타 기관 운영 지원
 - 인천문화재단,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등록사립박물관,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분야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무형문화재 단체 지원
- 박물관·전시관·역사관 등 조성, 운영 및 지원
 - 역사자료관 및 시사편찬위원회 운영(향토사강좌, 역사사진전), 테마별 마을 박물관 조성(근대 문화유산과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계양 산성박물관 건립, 문학산 역사관 조성, 문학산성 복원,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지원, 인천뮤지엄파크(시립박물관) 조성 및 지원,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27) 「2018 문화재과 업무기본서(편람)」참고. 종합계획 수립이나 (위탁)관리, 현상변경심의 업무 등은 제외하고 사업 위주로 판단. 2017년 이전에 계획이 수립된 사업으로, 2018년 상반기 현재 진행 중이면 포함.

- 축제 및 대회 출품 지원
 - 한국민속예술축제 일반부, 청소년부 출품 지원
- 학술·편찬 사업
 - 인천광역시사 편찬,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정기학술대회 개최
- 무형문화재 관리
 - 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전승자 인정·지원,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외부(기관) 사용허가

2) 평가

(1) 긍정적인 점

- 인천시의 문화재정책의 최근 3년간 성과는 정량적 측면에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체험·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연중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상시성을 확보, 프로그램 참여인원 증가
- 전국단위의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품을 지원
 - 2017년의 경우 19개팀 참가 중 인천의 일반부 '쑥대고잔지경다지기보존회'의 「인천 쑥대고잔지경다지기」 작품이 은상, 청소년부 '범패와작법무보존회'의 「범패와작법무 현충재 작품」이 신명상 수상
- 특히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얼쭈", 문화재 야행(Culture Night), 문화산상 음악회 등 야외공연이나 축제에서 강점을 보임
 - 인천개항장 축제 밤마실 「Culture Night」의 경우,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문화재 야행 사업 부분'에서 전국 22개 사업 중 2017년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재청장상 및 포상금을 받았음
 - 동 기간동안 인천개항장 문화재문화시설 무료개방 조치로 시너지 효과 달성(총 관람객 7만5천명)
- 노인요양원 입소자 등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2017년 한 해에만 24회(24곳) 개최하여 1,900여 명이 관람
- 문화재 관리는 그 성격상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필요성을 크게 느끼기 어려운 분야인데, 위협에 대비한 예방적 관리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국가·시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매년 보수정비하고,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지·보수하며, 천연기념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치료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부분에서 인천시의 관리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문화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의 적실성이 높다고 판단됨
- 학술·편찬 사업은 눈에 보이는 '총서'나 '논문'이라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활동을 통해 인천의 역사문화를 정리하고 보전하며 후대에 전승해서 인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데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인천광역시사 편찬사업은 10년을 주기로 5차례 진행되었는데 2017년에는 권⑧『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상,하)를 편찬하였음. <인천역사문화총서>는 83~85호(3종)역주 집필 및 발간되었으며, 정기학술대회는 매년 1~2회 개최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는 다소 생소한 이름의 기관을 외부(기관)에 사용하도록 하여 인지도를 제고한 것은 긍정적임
- 2017년에는 공공기관, 문화관련 단체, 보육시설 단체(어린이집, 유치원), 금융기관 등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대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2017.12.21. 현재 2015년 대비 방문인원이 210% 증가함

(2) 보완할 점

- 상시 교육체험프로그램은 주로 향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넓은 인천지역에 향교가 4개 뿐이고 그 중 두 곳은 강화군에 소재하여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 모두 상시적으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최초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데, 일반인들은 '훈맹정음'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임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평생을 바친 박두성 선생을 기리는 뜻깊은 작업이지만 훈맹정음 자체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무형문화재 교육체험 프로그램 정도인데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 있음
-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명륜학당의 경우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프에서 시각화된 홍보물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포털에서도 '명륜학당'을 치면 지리산 청학동 명륜학당이 가장 상위에 검색되고 인천의 명륜학당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음
 - 미추홀구 문화동 문화산 정상부에서 개최하는 산상음악회의 경우, 1년에 1회 개최인데 해당 시기가 되어도 미추홀구 지역에서조차 오프라인 홍보자료를 거의 볼 수가 없음.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앞서 살펴보았듯 유료보다 무료관광지 방문객 수가 압도적인 상황인데, 무료관광지라 하더라도 그 곳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무료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외 방문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해야 함
 - 한국관광공사가 SK텔레콤과 스마트폰 기반 내비게이션 T맵의 2015~2017년 여름철 야외관광지 검색 결과를 분석한 결과,²⁸⁾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해수욕장으로, 전국 인기 해수욕장 50곳 중 낙산해변, 협재해변 등 강원도와 제주도 해수욕장이 상위권에 올랐음
 - 2017년의 경우 광명동굴, 재인폭포 등 폭포·계곡·동굴과 동막해수욕장캠핑장, 석모도자연휴양림 등 캠핑장·자연휴양림의 방문 건수도 2015년과 비교해 각각 58.6%, 48.1% 증가하였음

28) 2018년 7월 11일자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3369460>

- 또한 과천과학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방문 건수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신한카드 판스퀘어 등 전시장·공연장 방문 건수는 각각 169.3%와 186.3%로 크게 늘어 여행이 일상화되었음을 확인
- ‘맛집’도 상위를 차지했음. 식도락 관광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도서지역의 휴양림과 갯벌, 해변을 보유한 인천은 여행객들의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만큼 이를 고려하여 관광지를 개발해야 함
- 각종 박물관, 역사관, 문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역사문화를 더 자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러한 장소를 단순히 전시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에는 향교에서 하던 체험 프로그램들도 적극 수용하여 향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도 역사문화 자원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문화재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학생들은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쉽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수용성과 접근성에 있어서 이러한 장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폐쇄적으로 전승되어 전승단절 위기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오픈된 공간에서 진로체험을 하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폐쇄적 전승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임

▶▶ 5. 중앙정부 및 타 지역 주요정책 비교분석

1) 중앙정부

(1) 문화재청의 정책 분석

-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다음과 같은 법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기본계획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 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17-2021)」
 - 문화재 정책의 가장 상위 계획인 동 계획에서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정책 구현’을 비전으로 ‘현장중심, 지역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른 4대 추진전략과 12대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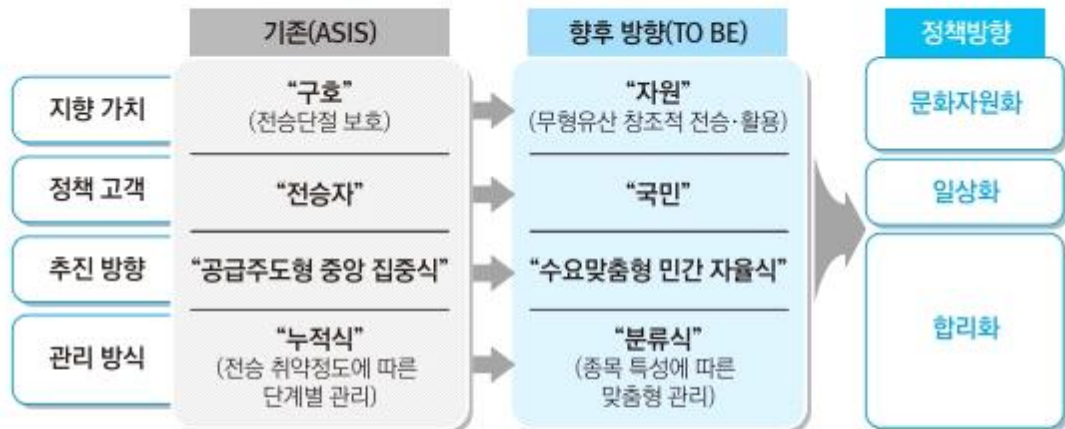
〈표 25〉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정책 과제

추진 전략	정책 과제
I. 문화재로 국민에게 다가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 • 교육을 통한 새로운 문화재 수요창출 •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
II. 보존 패러다임을 바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문화재 합리적 보존 • 보존을 위한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 • 지원을 통한 문화재지역 적극 조성
III. 국가브랜드, 문화재로 만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유산등재 및 보존·활용 • 국제 교류협력 강화 및 남북교류 활성화 • 고도유적 및 궁궐 복원 정비
IV. 문화재 기반을 튼튼히 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변화 대응 및 기록정보 고도화 • 시대변화를 읽는 문화재행정 • 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기존 문화재 정책에 비해 향유, 교육, 지역발전 자원으로서의 문화재 가치에 주목하고 좀 더 국민 중심의 문화재 정책이 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음

②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17~2021)」

○ 무형문화재 5개년 계획은 기존의 구호, 전승자, 중앙집중식, 누적식 정책방식에서 자원, 국민, 민간 자율식, 분류식의 향후방향을 통해 문화자원화, 일상화, 합리화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그림 19〉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의 미래 정책 방향

○ 이러한 방향을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음 세대로의 온전한 계승을 위한 맞춤형 전승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라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3대 전략과제와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였음

- 기존과 달리 주목할 점은 시대 변화에 따른 전승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종목 특성별 분류 및 관리체계 도입', '시대변화에 맞춘 전승자 역할 재정립 및 전승자 예우방안 마련',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합리화' 등 종목 특성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점임

〈표 26〉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의 전략과제, 핵심과제, 세부과제

전략과제	핵심과제	세부과제	
무형문화재의 생태계 구축	무형문화재 보전의 다양화	무형문화재 종합조사 실시	
		생활 속의 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무형문화재 '전승공간' 보호와 활용	
	문화자원 기반 구축	문화자원 기반 구축	개방적, 체계적인 전수교육 환경 조성
			경쟁력 있는 이수자 양성
			무형문화재 기록보존 지식지원화
			전수교육시설 확충 및 활용 활성화
	무형문화재 네트워크 조성	무형문화재 네트워크 조성	지역무형문화재 협업체계 구축
			무형문화재 국제 협력 강화
시대변화에 적합한 전승 체계 개편	종목 특성별 맞춤형 관리	종목 특성별 분류 및 관리체계 도입	
		시대변화에 맞춘 전승자 역할 재정립 및 전승자 예우방안 마련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의 합리화	
	무형문화재 관리 고도화	무형문화재 관리 고도화	보유자 인정조사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국가간급보호무형문화재 관리
			무형문화재 전승자 체계적 관리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	무형문화재의 가치 공유	무형문화재의 공연전시 활성화	
		무형문화재의 세계화	
	무형문화재 교육 확대	무형문화재 교육 확대	맞춤형 무형문화재 교육 활성화
			재외동포 협력 사업

③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2019~2023)

-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지만 전년도 연구는 추진한바 있음. 동 내용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안이지만 개략적 현황파악을 위해 전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함
-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은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역량 강화'를 비전으로 수리현장의 합리적 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기술 선도, 전문성 있는 인력·조직·데이터 확보, 수리기반 확대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를 통해 4개의 대과제, 8개의 중점과제, 20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음. 특이할 만한 점은 지자체의 문화재수리를 체계화하고, R&D 활성화, 책임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임

〈표 27〉 문화재청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안)의 대과제, 중점과제, 세부과제

대과제(4)	중점과제(8)	세부과제(20)
수리현장의 합리적 제도 구축	문화재수리 정책의 내실화	문화재수리 기준의 현실화
		문화재수리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강화
		문화재수리 설계 개선
	문화재수리 행정체계 정비	문화재수리 행정의 합리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기술 선도	문화재수리 가치 계승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수급
		문화재수리 전통기법 계승
	문화재수리 기술 고도화	문화재수리 연구개발(R&D) 활성화
		문화재수리 연구기관 지원
전문성 있는 인력, 조직, 데이터 확보	전문인력 및 조직 육성	문화재수리 우수인력 양성
		문화재수리 인력 전문성 제고
		문화재수리 전문기관 육성
	종합정보 시스템 운영	문화재수리이력시스템 구축 및 활용
문화재수리 종사자 정보 DB 구축 및 활용		
수리기반 확대 및 지속가능성 제고	문화재수리 책임성 확보	문화재수리 현장의 건전한 문화 확립
		문화재수리 품질관리 체계화
		문화재수리 외연 확대
	문화재수리 산업 육성	문화재수리업 활성화 지원
		문화재수리 관련 일자리 창출
		수리계획과 연계된 문화재 활용 강화

④ 최근의 문화재 정책 여건과 추진방향²⁹⁾

❖ 문화재 정책 여건

- 지방분권,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중시 정책 기조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국정목표 천명
 -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청년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총력 매진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미래 국가경쟁력과 혁신성장의 모멘텀으로 주목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월)」 발표
-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승여건 개선 시급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고령화로 전승단절 우려
 - 차세대 전승자인 이수자의 전승여건 개선 필요
- 훼손·멸실 우려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체계 강화 필요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 간 갈등 지속
 -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확충 필요

29) 문화재청 2018 주요업무계획에서 정리

- 지진의 상시화·대규모화에 과학적·체계적 대응 요구 증가
 - 국내 지진 발생 빈도 급증과 대규모화에 따라 문화유산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여, 문화유산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문화재 정밀 내진진단 등 연구·조사 필요
- 문화재 보존의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보존관리 필요성 증대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제도 개선 지속 요구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및 문화재보호구역 재조정 필요
- 세계유산 등재 환경 악화 및 주변국의 견제 현실화
 - 세계유산위원회의 연간 등재 심사건수 축소 결정(17.7월) 등 등재환경 악화
 - 세계유산 등재 관련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및 견제 격화

❖ 추진방향

- 문화재청은 '삶 속에서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비전으로 보존, 향유, 안전, 세계를 4대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중점사업을 추진

〈표 28〉 최근의 문화재 정책 추진방향

키워드	의미	중점 과제
보존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 복원과 고도·역사문화환경 정비 •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 • 문화재 보존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향유	더불어 즐거운 문화유산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교육 진흥 • 문화유산자원 발굴 및 가치 확대 • 참여하며 즐기는 문화유산 보호활동
안전	안전하고 선진적인 문화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대응 강화 및 방재 인프라 고도화 •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 고도화 •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세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확대 및 활용 강화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다양화

⑤ 인천시와 연계된 주요 사업

❖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평가에서처럼 문화재청과 연계되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보존 영역
 - 인천 중구의 개항장 주변이 근대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는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 무형문화재 관련 사업의 경우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법률에 근거하여 단체 지원, 영상기록화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 중
 -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역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과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 향유 영역
- 인천시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생생문화재 사업 3건,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건, 문화재 야행사업 2건을 지원받음
 - 문화유산자원 발굴과 지정확대를 통해 가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인천시 기념물인 계양산성을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 안전 영역
- 인천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계된 안전관리사업은 문화재청의 안전기준과 등 해당 부서의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
 - 문화재 상시관리 일자리 사업은 문화재 돌봄사업 역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의 매년도 지원을 통해 광역 단위의 관리활동을 하고 있음
- 세계 영역
- 우리나라 문화재의 세계유산 등재가 늘어남에 따라 인천시는 해양관방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사업이 문화재청 세계유산팀과 연계되어 있음

〈표 29〉 인천시와 연계된 주요 사업

	문화재청의 중점 과제	인천시의 국비 연관 사업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 복원과 고도-역사문화환경 정비 •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 및 활성화 • 문화재 보존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 • 무형문화재 단체 지원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지원 •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및 교육 진흥 • 문화유산자원 발굴 및 가치 확대 • 참여하며 즐기는 문화유산 보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문화재 사업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천향교, 교동향교) • 문화재 야행 (중구, 강화군) • 시 기념물 계양산성 사적 승격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대응 강화 및 방재 인프라 고도화 • 문화재 상시관리 강화 및 수리체계 고도화 • 문화유산 관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국보, 보물에 한정)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 • 문화재 돌봄사업 •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확대 및 활용 강화 • 국외문화재 보호·활용 활성화 •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방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2) 타 중앙부처

- 타 부처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식문화를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K-Food Plaza의 운영을 사업으로 제시함. 홍보관과 식품관으로 구성되며 전통 상차림 등 전통문화나 무형문화유산과 연관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평화 유산 창출을 위해 문화올림픽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 평화올림픽을 지속하기로 계획함. 이 외에도 문화도시 시범도시 선정 및 지원, 유희산업시설 등 쇠퇴 공간의 문화예술 공간화, 전통문화 체험 확대가 문화유산과 연계되어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하향식 추진모델이 아닌 상인 주도의 상향식 추진모델로서 전통시장을 혁신하는 계획을 제시
- 해양수산부는 경관, 문화역사를 활용한 어촌테마마을을 2022년까지 전국 10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함

〈표 30〉 타 부처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

부처	주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Food Plaza 운영(전통 상차림 홍보 등) • 전통주 시음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평화 유산 창출 - 문화올림픽: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을 발굴, 미래가치 창출 - 평화올림픽(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 • 유희산업시설 등 쇠퇴 공간의 문화예술 공간화 • 문화도시 시범도시 선정, 지원 • 전통문화 체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주도로 전통시장 혁신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문화역사를 활용한 어촌테마마을 조성

자료: 2018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2) 타 지역 사례 분석

- 타 광역자치단체 사례로는 서울시 역사도시 5개년 계획(2017-2021)과 제주도 문화재 기본계획(2013-2017)을 제시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역사도시 계획의 핵심을 문화유산으로 보고 있어 사실상 문화유산 5개년 계획이 대부분임
- 제주도는 작년까지 마친 계획이기는 하지만, 문화유산 단독으로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자치단체가 거의 없어 선례로 일반적 문화유산 계획체계나 세계유산 등재 등을 벤치마킹하기가 좋다고 판단되었음

(1) 서울시 사례

- 서울시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을 주제로 한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함
- 이 계획에서는 “서울의 2천년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역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①정체성 확립, ②역사자원 발굴 및 보존, ③역사자원 활용 및 향유, ④역사 연구 및 교육, ⑤역사 교류 및 공유를 중심으로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함
- 목표 :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
- 추진방향 : (과거) 역사를 품은 서울, (현재) 역사를 누리는 서울, (미래) 역사를 만드는 서울
- 중점과제 :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
- 발굴·보존은 문화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문화재 발굴, 역사영향평가, 보존 가이드라인, 무형유산 기반, 정보화 시스템 마련을 세부사업으로 설정하였음
- 활용·향유는 박물관 설립, 무형유산센터 건립, 공간정보시스템, 시민 중심의 활동, 관광자원화, 콘텐츠화 등 시설이나 기술을 접목한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함
- 연구·교육은 서울역사연구원 설립,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사문화교육정보센터 설립 등 연구소, 교육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정함
- 지역·세계는 주변지역과의 협력, 세계 역사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에서의 서울시 위상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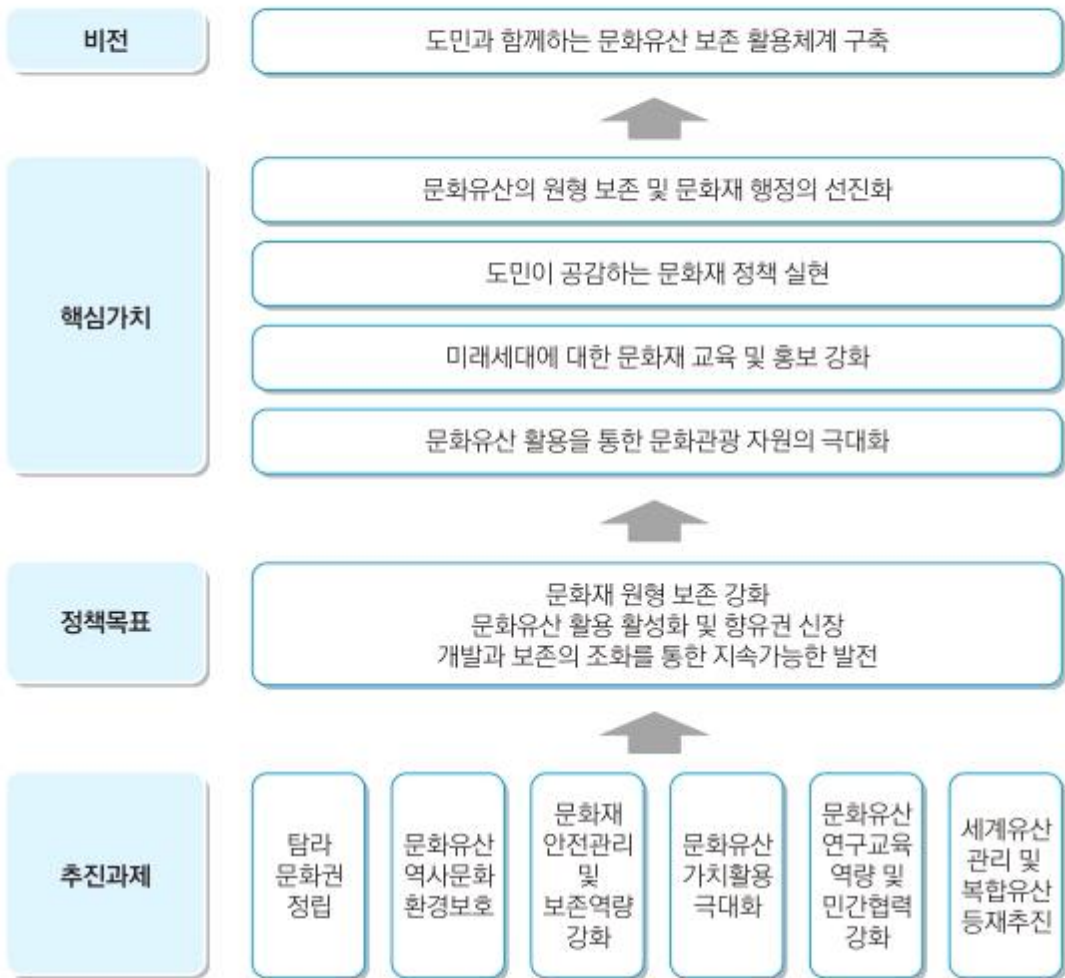
〈표 31〉 서울시의 역사도시 기본계획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중점 과제	세부사업
발굴·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보존과 도시개발의 공존체계 마련 • 미래 향유할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 • 문화재 보존을 위한 능동적·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사후복구에서 사전 예방적 일상관리 체계로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한 도시재생·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조사공영제' 서울 전 지역 확대 • '역사영향평가제' 도입 • 역사문화자원 보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 한성백제왕도유적 발굴 및 복원 • 조선시대 및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복원 • 다양한 무형유산의 발굴 및 전승기반 마련 •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설립 • 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 기록관리, 안전시스템, 시민활동
활용·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속에서 충분히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역사문화자원 가치 발굴·향유 • 역사와 문화로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테마 박물관 설립 • 서울무형유산센터 건립 • 시계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 시민의 능동적 역사문화자원 발굴, 연구, 향유 • 관광자원화 • ICT 융합 콘텐츠화
연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토대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 • 시민 역량 강화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역사도시 서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역사연구원 설립 및 연구성과 활용 •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역사문화교육정보센터 설립
지역·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협력을 통한 세계속 역사도시 서울의 위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주변지역과의 협력 강화 • 세계 역사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는 법·기구 정비와 조직확대 및 예산확보를 통해 이 계획을 실천하고자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정(2016.03),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각 분야 전문가, 시민 등), 문화본부 확대 개편 및 역사기획관 신설, 이행과제 56개의 실행예산 7,404억 원 확보에 노력

(2) 제주도 사례

- 제주도는 「문화재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한바 있음. 동 계획은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존 활용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문화재 행정의 선진화', '도민이 공감하는 문화재 정책 실현', '미래세대에 대한 문화재 교육 및 홍보 강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관광 자원의 극대화'를 핵심가치로 설정하였음



〈그림 20〉 제주도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과제

- 이에 따른 정책목표는 문화재 원형 보존 강화,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향유권 신장,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발전으로 설정하고, 7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표 32〉 제주도의 문화재 기본계획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중점 과제	세부사업
탐라문화권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문화재 정비 • 탐라사 연구진흥 •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 • 제주성 발굴 및 복원사업
문화재 역사문화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지정조사 지속 실시 •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 매장문화재 보호 강화 • 문화재 실측 및 모니터링 사업
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 문화재 돌봄 사업 • 문화재 긴급보수비 확대 • 개별 문화재 경상관리 강화 • 문화재 애호 홍보 강화 •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
문화재 보존 정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보수 정비 총괄 • 동산문화재 과학적 보존 • 건조물 문화재 항구적 보존 • 사적문화재 보수 정비 •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전 기반 강화 • 자연문화재 보존 활용 • 민속문화재와 민속마을 보존 활용 • 근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문화유산 가치 활용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활용 극대화 •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문화유적지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연구교육 역량 및 민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 유관기관 공동학술 조사 •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시민단체 협력 강화 • 문화재 사업 민간위탁 활성화
세계유산 관리 및 복합유산 등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리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인류무형유산 관리 • 세계복합유산 등재 추진

▶▶ 6. 시사점

1) 문화유산 환경 분석 관련

- 역사문화유산을 여타 광역시들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보유한 인천은 고령화와 함께 문화재 향유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외부 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 패러다임이 도래함에 따라 가족, 건강, 사회활동, 경제적 상황 등이 노년의 중요한 지표가 됨. 인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7년 기준 11.7%로, 전국 평균(14.7%)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현재 약 14.4%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63년생)가 65세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³⁰⁾
 - 그들은 전후의 빠른 경제성장기를 경험한 세대로서 교육수준, 경제활동, 사회적 인식 등에서 기존의 노인세대와 다른 특성을 보이므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그러한 점에서 역사문화환경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더욱 커짐
- 인천 외부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 스스로도 인천을 서울의 베드타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도시 구축으로 인천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어떠한 행사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 일반 시민들, 학생들에게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그 참가자들을 통해 그 주변에도 체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의 품질이 담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하드웨어들을 확충하는 정책에 지나치게 경도되기보다는 우수한 교육·체험프로그램 교수자들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홍보에는 각급 학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17 인천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인천의 학생 수는 387,589명, 교직원 수는 28,885명임(유치원~고등학교). 약 42만 명이 각 가정에 가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역사문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면 큰 효과가 기대됨
- 2016년도에 비하여 2017년에는 중구 차이나타운·개항장을 제치고 '송도'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 점(2016년 27.3%에서 2017년 32.5%)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송도에서는 가을에 불빛축제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축제가 열리므로 외국인들에게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서울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면 쉽게 갈 수 있으므로 국내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도 접근성이 좋음

30) 2018년 3월 16일자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612490770584



〈그림 21〉 송도불빛축제 포스터

자료 : 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2510015

- 다채로운 불빛으로 야경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클래식, 인디밴드 등 포함), 미술, 연극 등 풍부한 문화예술 잔치, 소원등불 쓰기, 하트 메모 등 체험프로그램도 많다는 평을 듣고 있음
- 인천이 새로 개발하는 복합관광단지들도 교통조건,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활동 등이 어우러져야 함
- 다만, 「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의 단체여행 비중은 25%에서 11.6%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개별여행 비중은 67.4%에서 82.8%로 급증했는데, 복합단지를 개발할 때 너무 대규모의 단체관광 위주의 시설에 편중해서는 안 됨
- 현재 인천은 중구나 동구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재생프로젝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원도심에 근대 건축물 등의 문화유산이 많아 철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
- 구도심 도시재생 및 관광활성화에 있어서는 물리적 인프라 개발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를 담을 수 있는 콘텐츠 발굴이 더욱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함

2) 중앙 및 타 지역 정책 분석 관련

- 첫째, 인천시 문화유산 사업은 문화재청의 지원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적지 않았지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이나 보존, 향유, 안전, 세계 영역 등에서 미진한 사업을 향후 수립될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보존의 영역에서는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등록’과 더불어 중구 개항지처럼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3곳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하였음³¹⁾
 -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는 경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 관련 사업을 지원받게 됨
- 문화재를 활용한 향유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점점 사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 ‘14년 30억 → ‘18년 122억
 -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비 40%~50%를 보조받음. 특히,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수혜가 없으니 신규로 추진할 필요성 제기

〈표 33〉 인천시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수혜 현황

세부사업	인천시 수혜
생생문화재 사업	3건(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건(인천향교, 교동향교)
문화재 야행사업	2건(중구, 강화군)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없음

- 특히 생생문화재 사업의 경우 무형문화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인천시가 가진 예능 위주의 국가/시무형문화재를 활용해 시민에게 향유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임
 - 이것이 활성화될 경우 무형문화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전승, 시민의 지지 등 자연스레 일상 속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것임
 - 무형문화재 대상의 생생문화재 사업 우수사례는 경남 고성오광대를 들 수 있으니 벤치마킹이 필요
- 또한 남북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북한에 인접해 있는 만큼 남북교류 사업이나 세계유산 공동 등재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음

31) 문화재청 보도자료(2018.08.08.)

- 둘째, 타 부처 사업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평창올림픽에 의한 남북 문화교류 사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화유산의 경우 겨례말큰사전 공동편찬,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인천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유산 사업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문체부는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분류해 추진 중인데 인천시는 '역사전통 중심형'으로 접근하는 방법 고려

〈표 34〉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분야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 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의 '경관, 문화역사를 활용한 어촌테마마을 조성'을 강화, 옹진 등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음
- 셋째,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시는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 2016년 3월 제정 및 공포했으며, 시민 및 전문가, 정책토론회, 역사도시 서울위원회 구성을 통해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방향성을 수립하였음
 - 이는 5개년 계획에 대해 충분히 현장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계획에 대한 추진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점임
- 또한 서울시의 계획이 대체로 문화재청의 계획과 유사할 수 있으나 서울무형유산센터 건립, 시민의 능동적 역사문화자원 발굴/연구/향유, 한성백제왕도유적 발굴 및 복원 및 조선시대/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복원사업처럼 서울시만이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처럼 인천시 역시 강화의 고인돌처럼 인천시만의 문화유산 계획의 사업을 대상에 따라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
- 서울시는 또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역사문화교육정보센터 설립처럼 교육,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큰 과제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천시 역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과거-현재-미래 문화유산을 발견할 수 있는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등과 협업하는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역사도시라는 큰 프레임을 제시하고 해당 프레임 내에서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접근하고 있음. 이처럼 인천시 역시 역사도시와 같은 큰 그림을 그리고, 큰 방향성 내에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임
- 전통문화, 문화유산, 역사문화 등의 큰 방향성이 필요하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
- 서울시는 또한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지역의 생활유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역유산에 대한 보호 장치로써 의미가 있음
- 특히 등록문화재의 기준(50년 이상)에 부합하는 근대건축물의 소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미래유산에 등재된 지역유산의 경우 관광효과도 발생하고 있음
- 인천시 역시 근대건축물이나 문화유산이 아니지만 지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유산을 발굴하여 가장 '인천 미래유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미래유산에는 유형적 유산뿐 아니라 무형적 유산을 포함
- 제주도의 계획은 문화재청의 법정 5개년 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탐라문화권 정립'이라는 중점과제를 통해 지역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적임
 - 계획의 현실성을 고려해 연구기관 설치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둔 점과 문화재에 대한 애호를 위해 홍보 강화를 세부사업으로 설정한 점이 차별적임
- 또한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관리,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인류무형유산 관리, 세계복합유산 등재 등 세계유산 관리 및 복합유산 등재 추진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성과를 가져왔음
 - 제주해녀문화는 2013년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에서 신청종목으로 선정한 후 3년만에 이뤄낸 쾌거임
 - 더불어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된 '해녀' 역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었음
 - 인천시 역시 제주도의 지속적인 세계유산 등재, 관리, 활용 노력처럼 세계유산에 대한 과제를 중점과제로 설정해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밖에 앞선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볼 때 문화유산 종합계획을 문화유산 개별 단위가 아닌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처럼 좀 더 큰 개념으로 접근해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방법도 있음

▶▶ 7. 종합평가(SWOT분석)

〈표 35〉 인천 문화유산 정책의 SWOT 분석

인천 문화유산 정책의 환경과 추진 방향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외부 환경	내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국제교류 증대 - 인천공항, 항만 등이 위치한 국제 관문 도시 - 자연유산, 선사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 해양관방유적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문화유산 보유 - 우리나라 최초 개항지로서의 역사성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적 풍부한 문화유산 보유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불분명 -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정립, 마케팅, 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된 행정조직인력 취약, 전문성 및 예산 부족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인천시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가진 낮은 관심도와 인지도 및 정책 이해도 	
	기회요인 (Opport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동남아 등과의 다양한 분야 교류 증대 - 중앙정부의 지방화분권화 정책 심화 -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 -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옴로(YOLO : You Only Live Once),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 추세 및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 	SO전략(우선수행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지역 역사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방안 마련 - 다양한 남북, 국제 역사문화 교류 추진 -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무형 문화유산 정책 수립 	WO전략(우선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민들의 인천 문화유산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문화재 정보제공 심화 - 역사문화유산 관련 마케팅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조직 정비, 전문인력 확보 - 역사문화유산 정책연구 강화
위험요인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인근 지역과의 경쟁 과열(서울, 경기 등) - 해외 관광객들이 인천시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 정도로 인식 - 전반적인 역사문화유산 행정에 대한 미약한 대국민 신뢰수준 	ST전략(RISK해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있는 역사문화유산의 관광 자원으로써 개발과 홍보 강화 - 역사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안전관리, 조사·연구활동 강화 	WT전략(장기보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역사문화유산의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신규 시설의 건립과 운영

▶ 1. 인천의 역사문화비전

- 인천은 시대 변화에 따라 주목되는 시기가 달라져 온 도시임. 1990년대까지는 공업도시로서 발전상이, 2000년대 들어 개항기의 각종 유산이 주목되면서 중구 개항장 일대에 대한 재발전, 재인식과 근대문물의 유입으로 인한 개방도시로서 이미지가 부각되었음. 또 근래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강화의 고려시대 유적이 남북역사문화교류의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처럼 '인천광역시'를 구성하는 공간 변화에 따라, 그 공간에 담긴 시간의 역사, 인간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모두 인천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여전히 인천시민 스스로 인천을 역사문화의 도시로서 인식하는 경향은 약함. 여러 원인들 수 있으나, 개항과 6.25전쟁, 60~70년대 산업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외지 출신이 이주하여 자리잡은 도시 형성과 발전의 역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음
- 선대가 뿌리내린 고장이 아니므로 시민의 기억 속에 인천은 아무리 올라가도 2대 이상을 넘어서기 힘든 측면이 있음. 물론 인천에도 수백년 대대로 세거해온 집안과 그 집안 출신의 시민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그이들의 인식이 시민 다수의 인식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움
- 이런 점은 서울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도 대체로 마찬가지이나, 서울의 경우 조선시대 궁궐 유적, 성곽, 기타로 상징되는 유산이 시각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개개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유서 깊은 도시로 인식할 수 있음. 부산이나 광주 등은 해당 지역의 중심지로서 일찍부터 기능해 온 점이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있고, 지방의 중요 행정 단위로서 유적의 규모가 인천보다 크다는 점이 있음
- 반면에 인천은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역사유산이 적거나 없고, 특히 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내륙에서 흔적을 발견하기 쉽지 않음. 강화에는 조선시대 성곽을 비롯한 여러 유적이 있으나 시민 전체의 일상적 경험으로서 인식되기 어려운 지리적·정서적 환경에 놓여 있음
- 이렇게 볼 때 인천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하고,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기 어려우며, 교육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 때문에 인천의 역사문화,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주체로서 인천광역시는 '시민 접근성 향상을 통한 내 고장 문화유산에 대한 일상적 경험'을 핵심 목표로 상정하여야 함
- 시민 다수가 내용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동의하지 못하는 '역사문화도시'는 그저 시 정부의 일방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일상적 경험을 통한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을 인식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정책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이런 비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여, 시대의 조류에 따라 흔들리거나 영합하지 않는 품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주로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민 일반의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욕망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 인천만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곤란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비전을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인천”으로 제시함

▶▶ 2. 핵심가치

-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인천”을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로서 조화와 공존을 내세우고자 함
- 1995년 출범한 인천광역시시는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인천도호부 권역(중동미추홀연수남동)’, ‘부평도호부 권역(부평, 계양, 서)’, ‘강화유수부 권역(강화)’과 분단 이후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과정에서 편입된 ‘해양도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각 권역은 역사적 공동체로서의 독자성과 함께 인천광역시의 구성 부분으로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물리적, 정서적 거리가 상당한 것이 사실임.
- 한편 문화유산 관련 정책 수립에는 몇 가지 장애가 존재함. 가장 큰 것은 문화유산 자체에 대해서는 소중하고 보호·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부분의 시민이 동의하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보존관리를 위해 일정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은 매우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 특히 도심화가 이미 이루어진 중구 개항장 일대와 곳곳에 문화유산이 산재한 강화군은 이런 경향이 심함
- 또 인천광역시를 구성하는 10개 군구간 문화유산 분포비율에 큰 차이가 있어, 시민 전체의 일반적 입장에 근거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립박물관과 가천박물관 등에 소장된 동산문화재를 제외할 경우 부동산문화재의 70% 이상이 강화군에 밀집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부평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부동산문화재가 단 한건 없는 게 현실임
- 문화유산의 범주와 개념 변화도 인천광역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임. 통상 50년 이상된 것을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삼아온 시기에서, 유형문화재 지정의 일정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 비중을 높인 ‘등록문화재’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음
-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확대에 따라 바로 최근의 건축물이나 자료도 문화유산에 비견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넓어지고 있음. 서울특별시의 경우 ‘미래유산제도’를 통해 문화재보호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오래된 가게, 거리 등 나중에 문화유산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보호·보존하는 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 인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산업화 정책의 중핵을 담당한 지역으로서 부평의 수출 4공단, 주안의 수출 5·6공단, 남동구의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이 자리 잡아 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친 대한민국 산업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음

- 산업과 노동에 대한 가치 재발견에 발맞춘 문화유산 정책이 특히 인천에는 절실히 필요하며, 이런 의미 있는 현대의 건물과 자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시야의 제도 마련과 개선을 통해 인천을 인천답게 만드는 문화유산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임
- 이상과 같은 인천의 특징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 역사문화 정책의 핵심가치는 ‘조화’와 ‘공존’일 수밖에 없음. 시민과 문화유산, 문화유산과 인천이라는 도시, 오래된 것과 최근의 것, 있는 곳과 없는 곳,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 동산과 부동산, 국가지정과 시지정·군구지정 등 형태와 가치, 장소를 떠나 ‘조화를 이뤄 공존하는’ 인천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함

▶▶ 3. 대전략분야

- 조화와 공존을 바탕으로 인천이 지향하는 역사문화비전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전략 분야를 설정함

1) 문화유산과 인천 브랜드

- 인천의 문화유산 전체를 동시에 같은 수준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그 바탕위에 다른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전략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인천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시민과 전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유산에 주목할 수밖에 없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일컫는 강화의 문화유산, 개항을 통한 근대문물의 집산지 역할을 했던 중동구 개항장 일대의 근대유산과 부평·미추홀·남동의 현대 산업유산을 핵심 선도 유산으로 제시함
- 핵심 선도 유산의 가치를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국제적 평가와 인정, 유사 유적간 비교 연구·활용을 통한 국내외 교류, 남북관계 진전에 발맞춘 강화-개성 연계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인천의 문화유산을 중심에 놓고 주변과 연계하는 블록형 설계를 상정할 수 있음
 - ‘인천 문화유산 블록(IHB : Incheon Heritage Block)’은 일극화가 아니라 다극화, 일원적이 아니라 다원적, 단층적이 아니라 다층적 접근을 추구하며, 전근대 중심(강화), 근대 중심(중동), 현대 중심(부평·미추홀·남동 산업유산)을 3대 기간 축으로, 계양산 일원과 문학산 일원, 소래산 일원을 전근대 3대 보조 축으로, 조병창-에스컴시티 일원, 인천국제공항 일원, 용진 도시 일원을 근현대 3대 보조 축으로 삼아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체계를 설정함
- ‘인천 문화유산 블록’의 확산을 위한 주요 연계망으로는 고인돌 유산(중국 요녕성, 북한 황해도-강화-검단), 고려시대 유산(강화-북한 개성), 조선시대 도성 방어 유산(북한 개성-강화-수원-광주), 침략

과 향전 유산(프랑스-미국-일본-강화), 환황해 교류 유산(중국 천진-중국대련-북한 신의주-북한 남포-북한 해주-인천-군산-목포-일본 후쿠오카) 등을 하부 단위로 배치할 수 있음

- 또한 인천 내 권역별 특성을 살린 '인천 주민유산(IRH : Incheon Resident Heritage)' 제도 도입을 검토함. 내 주변에서 문화유산을 발굴하자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시민'보다는 '주민'이 적합한 용어라 생각되므로 이렇게 작명함. 주민유산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공감하는 유산(시기, 형식 무제한)을 대상으로 시 정부에서 일정한 보호·보존·활용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 미래유산제도의 인천형 변형이라 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구조 설계와 실천을 통해 인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서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런 활용을 통해 역으로 '역사문화도시 인천'에 대한 시민의 동의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임

2) 인천형 문화유산보호 패러다임 구축

- 원론적으로 문화유산보호는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별도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음. 특히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보호든 활용이든 모든 계획과 행위를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다수 시민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유산이 국가지정문화재이므로 시 지정문화재 이하에 대해 시 정부가 독창적이며 의미있는 보호 방침을 세워 실행해도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인천형 문화유산보호 패러다임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령 체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인천의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되어야 함. 그런 구체적 방안으로 '박제형 보호'에서 벗어난 '활용형 보호'를 제시함
- 문화재와 시민 사이에는 대부분 철책 등의 차단막이 있음. 문화재는 보기만 하는 대상이지, 만지거나 올라가거나 할 수 없음. 인천은 이런 현상을 인정하되, 사람의 온기가 없는 문화재는 결국 박제나 마찬가지로 인식의 바탕으로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활용이 곧 보호가 되는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는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의 융합, 마을과 문화유산의 결합 등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이 요구됨. 예를 들어 '인천 문화유산 콘서트(IHC : Incheon Heritage Concert)'란 이름으로 인천 곳곳의 문화유산에서 음악회를 열어 시민이 문화유산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강화군의 경우 돈대가 있는 마을마다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 돈대 주변 정화 및 방문객 대상 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관리에는 근대건축유산과 현대산업유산을 중심에 놓아 인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함. 근대건축유산과 현대산업유산은 현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유자 또는 소유기업과 협의하여 일정 범위의 협력을 약속하는 약정을 맺을 수 있을 것임

-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개관을 통해 보존의 기초는 갖추었으나 여전히 공연 기회가 적고 시민이 관심이 적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개선 대책이 필요함. 현행 지원제도 유지를 기반으로 보유자와 이수자, 시민이 함께 보존하는 인천의 무형문화재를 기치로 시민과 무형문화재의 연결고리 마련과 확산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공연형 무형문화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형식을 빌어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능형 무형문화재는 시민, 학생의 실습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모색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과 문화유산 사이에 접점이 폭넓게 형성되는 사회 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현행 제도의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개편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위에서 새로운 시도와 활동을 접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3)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 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높게 평가받기도, 낮게 평가받기도 하며 보존과 방치, 철거의 경계를 오가기도 함. 이점은 문화유산과 시민의 연결이 없으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인천은 생활반경 내에서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가 많은 도시가 아니므로 시민과 문화유산을 연결시키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접근 가능한 문화여가생활의 양상이 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역시 마찬가지임. 따라서 시민이 문화유산을 찾는 전통적 접근과 문화유산이 시민을 찾는 창의적 접근을 조화롭게 모색해야 함
- 문화유산이 시민을 찾는 창의적 접근의 쉬운 예는 '삼량성 역사문화축제'처럼 다중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프로그램임. 인천에는 각 군구별로 역사와 문화유산에 기반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동구의 화도진축제, 연수구의 능허대축제가 그런 예이며, 넓게 보아 부평구의 부평풍물대축제도 포함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축제 내용에 해당 군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하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시민과 함께 즐기는 방향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키되, 이런 대규모 집중 축제를 보완하는 소규모 분산 축제를 음악회, 전람회, 발표회 형식으로 문화유산 현장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 한편 오프라인의 만남과 접촉 못지않게 온라인 생활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역시 온라인을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함. 시민이 관심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직접 찾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문화유산 플랫폼을 마련해야 하며, 인천문화재단(역사문화센터)에서 인천대(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는 '인천역사 아카이브'가 그 대책이 될 수 있음

-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이 높은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과 역사 관련 문화시설, 문화시설과 문화시설사이의 협력체계, 즉 거버넌스의 마련도 중요함. 인천은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1990년대에 비해 대폭적인 시설 증가를 이룬 도시임
- 시립, 구립의 공립박물관의 증가는 전국적으로도 단연 수위권이며,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사립박물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지방정부의 직영 또는 보조를 통해 운영되는 공립박물관과 달리 사립박물관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이 적지 않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 해도, 유물의 보존관리와 전시를 꾸준히 지속해 나가기에 적절한 수준이 아님
- 따라서 인천광역시 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공사립박물관이 협업,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박물관을 통해 문화유산을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다른 한편으로 여러 박물관의 유물을 학교와 직장에서 전시하는 이동 전시 등을 통해 시민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
- 시민들이 문화유산 보호보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생생문화재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처럼 정부의 지원에 적극 응모하는 한편, 자원봉사제도와 연계한 시민의 문화유산 보호, 관찰을 장려하여 '인천 문화유산 시민지킴이' 형식의 제도 마련도 필요함. 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부심이 높아진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은 곧 그만큼 인천문화유산의 보호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서 매우 중시하여야 함

4) 문화유산 교육과 연구

- 시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확대를 위한 강좌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일시에 대폭 확대할 수 있으므로, 인천시 차원에서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한 유형무형문화유산 강좌 개설을 지원해야 함
-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 1명이 1년에 1개 문화유산 강좌를 수강하는 '인천 문화유산 111' 캠페인도 가능하며, 1직장 1년 1문화유산 강좌 개설을 통해 직장인들이 직장 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음
-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보조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교원, 공무원 대상 문화유산 기초, 심화교육을 제도화 필요도 있음
- 시민 대상 문화유산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의 모색과 도입을 통해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꾀해야 함
- 인천은 역사,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는 도시로서 지역 내 인력으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원사업의 설계와 시행이 매우 중요함
- 개항의 경과 등 인천으로서 중요한 사건이나 연구가 충분치 않은 분야는 기획공모로, 나머지는 자유공모로 하여 꾸준히 시행하면 인천 관련 역사, 문화유산 연구의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두터워진 기반위에서 성과를 강좌 등 시민참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련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임

-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절대 부족한 인천의 현실이지만 인하대 사학과, 인천대 역사교육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등 지역 대학의 역사, 문화유산 관련 학과와 협력하여 해당 학과 재학생이 인천의 문화유산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획과 체계의 마련도 필요함
- 인천대 역사교육과에서 주관하는 역사과거대회 급제자 강화 답사 프로그램, 인하대에서 대학 차원으로 진행한 강화해양관방유적 도보순례와 같은 프로그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인천 문화유산 안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심층, 심화교육과 견문확대를 위한 비교 답사 등 재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마련 역시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접근성 향상의 예가 될 것임

▶▶ 4. 추진방향

1)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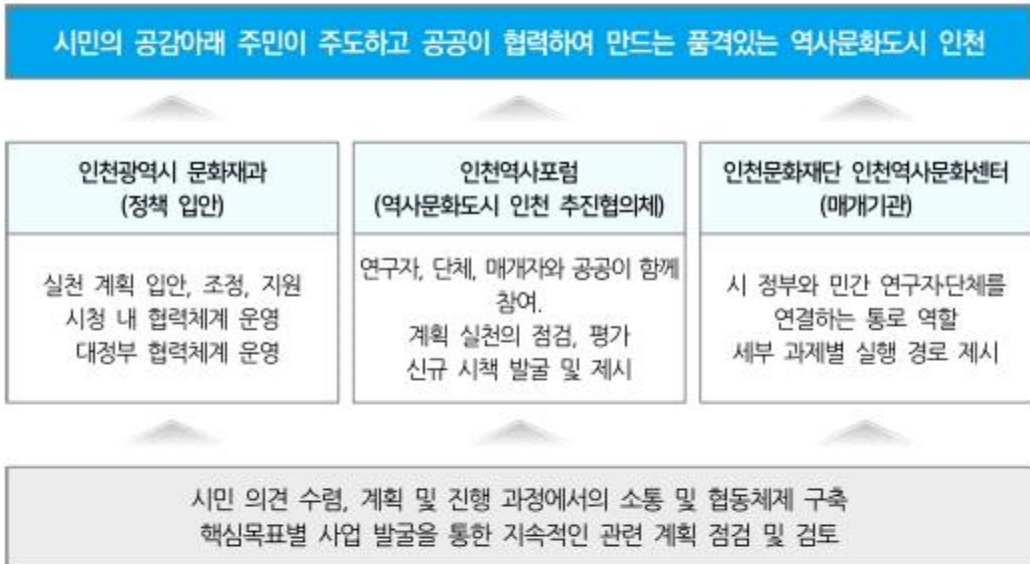
- 문화유산 종합발전계획의 추진 방향은 1개 비전, 1개 핵심가치 아래 2개의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2개씩 총 4개의 대전략분야, 각 대전략분야별 2개의 소전략 분야를 편제하였음
- 이 계획은 비전으로부터 소전략 분야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재정 계획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이 자리매김하는 중장기 종합 계획의 성격과 위상을 가짐
- 이 계획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계획에 따른 실행 중이라도 시민의 요구와 제도 변화 등의 추세에 맞춰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야 하며, 최소 3년에 한번은 보완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함

<표 36> 문화유산 종합발전계획 체계

비전(1)	핵심가치(1)	핵심목표(2)	대전략분야(4)	소전략분야(8)
품격있는 역사문화도시 인천	문화유산과 인간, 도시의 조화공존	문화유산을 통한 도시가치의 제고	문화유산과 인천브랜드	인천 유산의 세계화
				인천 유산의 가치 보존
			인천형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 구축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제고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관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확대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확대
				문화유산 거버넌스의 확립
문화유산 교육과 연구		학교 및 시민 교육 활성화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2) 추진체계

- 역사문화도시 인천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체계의 마련과 지역내 기관·단체간 협업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과 유지는 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적 요소임. 정책 입안과 조정, 지원자로서 인천시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인천역사문화센터의 매개역할 강화, 역사문화관련 연구자와 단체의 상설적인 의견 개진 구조를 마련해야 함



〈그림 22〉 문화유산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

- 특히 인천광역시 문화재과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영역을 넓게 사고하여, 시청 내 타 부서 업무 및 정부의 관련 계획과 본 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내부 논의·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관련 연구자 및 단체가 본 계획의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함께 토의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발언권을 보장하고, 개별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함

▶▶ 5. 추진단계

1) 계획의 위상 및 추진 단계

- 본 계획은 기본계획 성격이 강하며, 문화유산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실천계획의 수립이 중요함.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명칭과 방식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이 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행할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최소 2년 단위의 중간 점검을 통한 조정과 변경이 불가피할 것임. 다만 최소 5년간은 이 계획에서 제시한 비전과 핵심 가치, 핵심 목표를 바탕으로 두고 꾸준히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계획은 모색기 2년, 확산기 2년, 안정기 1년으로 목표 연도를 설정하였으며, 각 시기별 마지막 연도인 2020년, 2022년에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획의 수정과 조정, 보완하는 것으로 편제함
-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종합 평가를 통해 시민과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는 한편 2024년부터 2028년의 2단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유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함



〈그림 23〉 시기별 추진단계

2) 계획 추진전략

① 다원성

- 인천은 공간적, 산업적, 역사적으로 다양한 지역이 모여 하나의 거대 도시를 이루고 있음. 300만 시민 역시 개인의 생애라는 측면에서 이질성이 상당함. 때문에 인천 역사문화의 특징과 시민의 특성을 감안할 때 서로 다른 요소와 요소의 독자성, 개별성을 폭넓게 인정하되, 인천이라는 큰 우산 안으로 수렴되는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본 계획을 통해 분명히 제시해야 할 핵심 가치임

- 과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사와 문화유산 관련 정책이 지나치게 불균형해져서는 안되며, 특정 공간과 시기가 인천을 과대 대표하는 이미지로 고정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② 지속성

- 계획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으며, 그럴듯한 용어와 표현으로 선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 계획의 중요성에 비해 실천의 중요성이 훨씬 크며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발전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계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획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시민의 공감각이 전제되어야 함. 장기지속체계는 곧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다는 생각의 공유가 필요함

③ 연계성

- 역사와 문화유산은 단절적,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선후, 공간적 연결을 통해 다른 역사, 다른 문화유산과 연계되었을 때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음. 이런 특성 속에서 하나의 유산을 다른 유산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함
- 또 이 계획은 인천광역시 차원의 계획이므로 담당 부서인 문화재과는 시청내 다른 부서의 사업과 이 계획을 연계하여 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나아가 정부의 문화재정책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천과 외부의 연계, 시와 시민, 연구자단체의 연계를 안착화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함

▶▶ 1. 문화유산과 인천브랜드

1) 인천 유산의 세계화

(1) 강화 역사유산의 세계화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강도 역사문화단지 조성 및 고려역사문화 특구 지정을 통해 강화 고려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강화의 고려 역사 연구, 유산 발굴 및 보호 향유를 위해 고려역사문화 특구 지정 필요
 - 강화도 고려 유적을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발굴, 재건, 단지 조성, 집중 보호 필요
 - 강화에 한국사 전체를 아우르는 선사 및 역사 유적들이 있지만 고려 궁궐 유적을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장기적으로 집중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주목을 받게 하고 인천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필요
 - 남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에 고려 유적이 많으며 또한 강화는 몽골침략 시기 고려의 도읍으로서 역할을 했으므로, 정통적인 고려 궁궐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고려 왕실 문화를 재현할 수 있음
 - 강화도의 고려 역사 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 강도 역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음
 - 현재 강화도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여러 유산들을 연결하는 탐방 프로그램과 탐방로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지 못함
 - 강화도의 고려 역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 필요
-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강화 고려사 박물관, 주변을 강화 고려역사문화특구 신청 등과 연계하여 시민 참여 축제를 연례화하여 고려 역사 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고려 문화축전을 연례행사화하여 강화의 고려 역사 정체성을 확립
 -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주최로 강화 문화재 야행에 이어 강화고려문화축전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7월 28일에서 29일까지 진행되었음
 - 축전의 성격과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명실상부한 연례행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 조사 연구 성과를 역사교육 차원에서 대중과 공유할 필요
 -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축전을 통해 인천, 특히 강화의 문화 유산 가치 제고할 필요

- 고려의 도움 역할을 한 강화도에 고려사 관련 국립박물관을 유치하여 고려 역사 문화 세계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인천 역사의 독특한 성격을 고려할 때 역사박물관도 필요함
 - 부산, 대구, 광주, 공주, 청주, 전주 등 광역시를 포함한 여러 시에 국립박물관들이 있으나, 인천에는 국립박물관이 없음.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인천 연수구에 있음
 - 공주나 부여 등의 국립박물관은 백제, 경주의 국립박물관은 신라 등을 특화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각 국립박물관은 그 지역의 독특한 유물이나 유적과 관련한 특화된 전시물이 있음. 예를 들면 청주는 직지심체요절
 - 강화는 고려궁궐, 왕릉, 도성, 사찰터 등 유적이 살아 숨쉬는 곳이므로 강화에 고려사를 특화한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필요
- 강화와 개성을 연결하는 남북 고려 역사 교류를 통해 강화 고려 역사 문화를 세계화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남북이 화해무드에 들어가면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북한과 교류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최근 북한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일 과업을 이루는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인천시가 통일 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남북한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은 북한과 인접해있고 고려사라는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리적 측면에서나 역사 문화적 성격에서 남북 역사문화 교류를 주도하는데 유리함
 - 남북 역사문화교류를 통해 도시 재생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며 남북역사관광 사업에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남북 교류 진전 및 통일 대비를 위한 역사 서술 및 교육 준비가 필요함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강화 고려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을 고려역사문화특구로 신청
 - 인천이 역사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과 인천시민 간에 공존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역사문화단지 조성 및 집중 육성을 목적으로 함
 - 강화도의 고려 궁지를 인천의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선정하여 인천을 문화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고려 궁궐 재건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인천의 고려 역사문화를 인천 시민의 역사적 정체성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 그 가치를 되살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고려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강화의 역사문화사적에 대한 발굴 및 재건 추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하는 방안 강구
- 강화의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도모
- 강화산성 내 관공서, 주거시설 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강화 산성 내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 강도시기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고려·조선시대의 강화역사 전반을 보여주는 국내 대표 역사문화단지 조성
- 특히 고려 역사문화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를 기반으로 강화를 고려시대 대표 문화 유적지로 조성
- 고려 문화유산의 이미지 창출
- 강화 고려 궁궐의 스토리화와 의미화
- 고려문화축전 프로그램을 연례행사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 일회적이고 소비적인 형식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국립박물관 유치
 - 강화에 국립박물관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확산
 - 타지역 국립박물관과 구별되는 고려사 박물관 정체성 확립 및 유물들 수집
 - 북한과 정기적인 학술 교류 행사 기획을 통해 고려사로 특화된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기본 구조 설계 연구
- 강화만의 독특한 고려사 교육 프로그램 검토, 보완, 개발
- 남북 역사 서술과 역사 문화 학술 및 교육 방안 공동 연구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강화는 고려사 연구를 위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어 연구 자료로서, 문화재 향유의 장으로서 가치가 높음
 - 고려사 교육의 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다양한 역사자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인천 시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유적이거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유산 역시 강화도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 시민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으로 강화도의 역사 유적지를 꼽은 비율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 및 용진군의 여러 섬들(12.3%), 부평도호부·계양산성 일대(10.6%) 순으로 나타남
 - 강화도의 역사유적지 및 중구·용진군의 섬들은 40대 이상에서 선호도가 특히 높았는데, 이를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수립 및 홍보·활용할 수 있음

- 인천의 문화제는 2015년 기준 257건으로(정책연구원 조사 자료)인데 보물의 상당 수, 18개의 사적 중 상당 수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이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 고려시대 강도 관련 유적이 강화도에 남아있음
 - 고려 고종 19년(1232)에서 원종 11년(1270)까지 39년간 고려의 수도였음
 - 고려궁지, 흥왕리이궁지, 정족산성, 왕릉, 사찰 등이 남아있음
 - 원종의 비 순경태후의 무덤 가릉, 희종의 무덤 석릉, 강종의 부인 원덕태후의 무덤 곤릉, 고종의 무덤 홍릉 등 총 4기 축조
 - 사찰에는 전등사, 보문사, 적석사, 정수사, 선원사 등
 - 강화 선원사지에서 고려대장경 판각
 - 충렬왕 12년(1286)년에 문성공 안유가 공자상을 최초로 봉안한 교동향교 위치
 - 최근에도 계속 고려시대 고분,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강화 석릉 주변서 친도 전후의 다양한 고려 고분 확인” 보고 (news 1, <http://news1.kr/articles/?3392414>)
- 인천연구원에서 2012년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음
 -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세계와 사회 변화를 감안한, 고려사를 세계화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연구를 보완할 필요
 - 보고서에 의하면 계획 실행 목표연도가 1단계 2017년, 2단계 2022년, 3단계 2025년임
 - 보고서에서 제안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 보고서는 선사부터 근현대까지 총괄하여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음
 - 우선적으로 강화 고려 문화를 세계화하는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강화 고려 역사의 가치 제고 및 세계화 : 현재 ‘강도의 꿈’ 프로젝트 진행중임
 - 2017년에 ‘강도(江都)의 꿈’ 실현 계획(안)을 수립하고, 20여 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제도 개선 및 주민 수용 방안 마련 후 사업 추진. 2018년 6월 이후 사업 추진
 - 인천문화재단(2018)에 의하면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역사문화도시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기억하는 문화유산도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하기 어려움. 이러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고려 강도의 꿈’임
 - 강화 역사문화 단지 조성이 가져올 주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 경제적 실효, 기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과업을 수행중임
 - 2018년 7월에 고려 시대 강도의 실체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음. 이 학술회의는 강화군에서 주최하는 ‘강화고려문화축전’과 연계한 행사로, 옛 수도였던 강화도에 남아 있는 고려 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강도의 역사적 가치를 지역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했음.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해 고려시대 강도에 대한 학술적인 의미를 재고하였음

-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도 2018년 4월과 11월 인천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함. 인천역사문화센터 관계자는 "두 차례의 학술회의를 통해 인천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심화된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학문적 성과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음.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고려 건국 1100주년 '강도, 고려왕릉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서 개최
 - 이미 인천시에서 강화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을 진행했음(2015-2017)
 - 강화대교~초지대교, 석모도 둘레길
 - 탐방로 데크 및 쉼터 조성, 포토존 및 조형물, 안내판 설치, 야간 경관 시설 설치
 -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단지> 조성 사례
 - 신라문화단지(경북 경주, 1972)
 - 백제문화단지(충남 부여, 1994)
 - 경주도시기본계획 사례
 - 신라왕경복원
 - 경주 보문·불국지역정비
 - 한옥마을 정비
 - 고려문화축전 연례행사의 2018년 주제는 "고려 왕도, 찬란한 문화를 누리다"로서 고종 행차와 팔만대장경 이운행렬, 팔관회 재현 행사, 삼별초 항쟁 재현 퍼포먼스 등의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했음
 - 이외에 개막축하공연, 연희단 전통놀이, 전통 줄타기 공연, 우리가락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은 고려 문화의 특징이 잘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부대 프로그램으로 강화 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 고려 1100주년 기념 학술 강연회, 고려문화 그림 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 등이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했음
 - 인천 내 국립박물관 유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립박물관은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을 의미함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08년 개정 제10조 1항에 국립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 2. 29.>”

- 그리고 4항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즉 10조 4항에 따라 강화에 국립 고려사 박물관 유치가 가능함

- 강화군에서 2012년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 계획과 관련하여 인천연구원으로부터 용역 보고서를 받음. 이 연구를 기초로 하되, 국립 고려사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정당성,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강화에 국립 고려사 박물관을 유치하여 고려사 관련 세계적 역사문화교류, 남북한 역사문화 교류의 거점 장소로 역할을 하게 할 필요성과 가능성 및 효율성에 대해 인천 시민과 강화 주민의 공감대 형성

- 강화의 고려사 박물관 건립을 통해 고려 관련 유물을 한 곳에서 수집, 조사, 연구, 보존, 전시 및 문화 향유의 필요성 인식 제고

○ 고려역사와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 계획 수립 및 전략 개발

- 고려시대에 세계에 Korea라는 이름을 알렸고 실제 이슬람 세계 및 유럽의 사료와 지도에 고려에 대한 서술을 많이 찾을 수 있음. 또 고려시대 사료에도 고려의 국제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서술이 많음.

- 남한의 다른 곳보다 고려시대 유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화에 고려사 박물관을 세워 세계적인 수준에서 고려 역사문화 연구 및 교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함
- 남북교류협력법(1990. 8. 1. 시행) 여러 차례 개정, 2010년 12월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30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교류 진행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북한과의 역사문화유산 교류협력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오고 있었음
-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문화정책포럼(2013) : 북한의 문화유산 법제 변천 과정, 무형문화유산 남북 교류협력 방안 검토(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 통일부「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방안 연구(2016)」 : 북한 내 민족문화유산 보존·발굴지원을 위한 제도적·물적·인적 인프라 마련 모색, 개성통일박물관 건립, 개성문화마을 조성,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지원 기관 설립, 민족문화유산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성 제시
-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발빠르게 하고 있음
 - 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포럼(2018.7.11.) <계승과 개혁 : 새로운 북한의 문화예술> :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정책, 문화유산 조사 자료,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례, 남북문화유산 교류의 정책 방향 및 과제 탐색
- 최근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시작되었음
 - 통일을 준비하는 문화 세미나 <관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의 과제와 전망(2018.7.4.)> : 남북 문화유산 공동 발굴 현황과 협력 과제 모색.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참가하는 '남북 문화회담' 개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해 문화유산 협력 상시적 논의, 궁예도성 등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 신설 및 문화유산분과 설치 제시
- 북한이 고려시대 고려황궁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특별전을 2018년 초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에 이어 4월과 6월에는 서울에서 개최하였음
- 인천시도 고려건국 1100년을 맞이하여 대몽항쟁기 수도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고려 궁궐 재건 및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 2017년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에서 작성한 '고려 강도의 꿈 실현 계획'을 보완하는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강화산성 내 관공서, 주거시설 등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강화산성 내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 → 강도시기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고려·조선시대의 강화역사 전반을 보여 주는 국내 대표 역사문화단지 조성.

▶ 추진기간 : 2017년~2045년 (단계별 추진)

▶ 사업내용

- 강화읍 중심 공간 이전 및 동락천 복개 철거 등 자연지형 회복

※ 동락천 복개 철거 후 병풍 하천으로 조성

- 정밀 고종과 타당성 검토 후 동락천을 경계로 북측에 고려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공궐관아 체험시설, 남측에 숙박휴양시설 건립

【1】 고려역사 문화지구 지정 또는 고도 지정(2017~2022)

▶ 기본구상 수립(인천발전연구원 정책과제) : 2017~2018

예) 문화지구 지정 절차 진행 : 2019~2022

- (강화군) 문화지구 지정 검토 및 신청(안) 작성

-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화지구 결정·고시

- (강화군) 문화지구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 청취, 승인요청

- (인천시) 관리계획 승인, 시세 감면 조례 개정

【2】 동락천 복개 철거(2023~2026)

▶ 타당성조사 및 설계보고서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 사업자 선정

▶ 철거(보상) 및 복원

【3】 신도시 조성(2023~2032)

▶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개발 구역지정 고시

▶ 도시개발사업 시행

▶ 보상 등 실시

▶ 신도시 조성 및 입주

【4】 지표 및 발굴조사(2033~2037)

▶ 문화재청 승인, 지표조사

▶ 문화재청 승인, 시·발굴조사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와 협의 추진

【5】 고려역사문화단지 조성(2038~2045)

▶ 종합개발계획 수립·확정

▶ 기반시설공사 착·준공

▶ 공공시설 착·준공

▶ 단지 조성 및 개장

-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설계 : 2012년에 이루어진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 계획」에 기초하면서도 변화된 조건과 여건을 고려하여 ‘강화 고려 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 및 기본 틀 개발 연구
- 고려강화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려 강도의 꿈’ 종합 발전 계획 연구 : 현재의 2017년 인천광역시 문화재과에서 작성한 ‘고려 강도의 꿈 실현 계획’을 보완하는 종합 발전 계획 수립. ‘고려 강도의 꿈’ 프로젝트 방향과 가치 정립. 고려 강도의 꿈 프로젝트에서 고려 강화 역사의 정체성, 고려 강화 유산의 가치 브랜드 만들기. 종래 대몽 항쟁이라는 이미지를 확장하여 ‘평화와 일상의 꿈’, ‘외세에 대한 저항 의지’, ‘희생에 대한 위로와 위대한 문화유산 기념’이라는 가치가 투영될 수 있게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역사문화단지 정체성 연구 : 국립 강화 고려사 박물관과 연결. 지붕 없는 박물관(open air museum)의 개념에 기초하여 고려 문화 세계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역사 문화 단지 정체성 마련, 브랜드화. 학계는 물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 문화의 가치를 다양성과 통합, 포용으로 정의함. 그러나 강화의 고려시대 유적, 고려궁지는 종래 “외세의 침략에 저항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과 국난 극복”을 대표하는 장소로 강조되어 왔음. 전쟁 중의 도움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살아날 수 있게 강화의 고려 역사문화 공간의 가치 제고. 2017년에 이루어진 학술연구용역의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이 시기 인명과 문화유산의 손실, 기념비적인 문화적 업적, 전쟁 중 일상 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고려역사단지를 조성하고 재현. ‘강도의 꿈’을 구체적으로 정의. 강화에서 고려의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위대함을 기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강화를 고려 왕실은 물론 고려의 신분고하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일상을 이어갔던 공간이었으며, 희생을 위로하고 평화를 갈망했던 곳으로 형상화
- 신도시로서 역사문화단지 설계 : 정체성에 기초하여 강도 역사문화단지 조성 연구 체계 마련
 - 역사, 문화예술, 문화재, 박물관, 관광개발, 전시, 건축, 디자인, 교육 등의 전문가들이 함께 박물관 개발 방향 연구, 워크샵, 공청회 등 진행하여 역사 문화 단지 설계. 전시 관람, 체험, 휴양문화, 운동 오락, 상업 숙박, 공익 편의, 교육 시설 설계 및 전시, 체험, 휴양, 오락,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
-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을 홍보하고 주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강화 고려 역사문화’의 대표 이미지, 대표 가치에 대한 연구 및 개발(브랜드화, 시각화, 청각화 등)
- 주민 참여 방안 개발 : 강화역사박물관,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통해 연구체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문화 단지에서 지역들이 적극 참여하여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고려 궁궐 재건 및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시 문화재 관련 법령·조례 검토 및 보완. 단지 조성 과정에서 재산권을 제한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연구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도의 공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평가 진행 중인 팔만대장경 판당지에 대한 조사 연구, 판당 건립 검토.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강화 역사문화단지 종합 설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2] 강화의 '고려역사문화 특구' 설정 및 발전 방안 연구

○ 고려역사문화 특구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강화 고려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을 특구로 신청하기 위한 기초 연구. 고려사 연구 및 교육 특구 운영 종합 계획 마련

- ▶ 지역발전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이 강함.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 지역특구가 되면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해 줌.
- ▶ 특구 지정 절차 : 계획작성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중소기업청으로 지역특구 지정 신청, 특구위원회 심의, 특구 지정.
- ▶ 강화는 고려사유적과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고려시대의 수도
 - 고려대장경 문화
 - 고려 금속활자 기술
 - 고려 문학(이규보 등)
 - 고려 왕릉
 - 대몽항쟁지
- ▶ 문화재청이 고려 대몽항쟁, 서구 열강의 침입 항정, 국방 역사유적지의 7대문화권 중 하나로 강화를 선정.
- ▶ 강화에 테마별 관광코스 및 교육프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음 : 강화역사박물관, 인천시 등에서 운영. 강화군 내 주요 관광지에 관광 안내 서비스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음.

- 연구에서 지역 역사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전략 개발 : '고려사 연구와 교육 특구'로서 성격 부각 및 홍보
 - 고려사 연구 및 교육 특구 운영 종합 계획 마련
 - 특구 조성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계획 수립
 - 특구 운영 방안
 - 전문가 투입 및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특구 신청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인천시와 강화군 협력을 통해 특구의 범위와 특화사업
 - 기대 효과 등을 분석
 - 특구 신청 및 운영을 위한 핵심 역사 문화 자산 검토
 - 특구 지정이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특구 지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구 지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특구에 고려 역사문화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전시관, 체험관, 공예관, 판매 시설 등 유치 혹은 확장 방안
 - 관련 법 및 조례 검토
 - 사유지 매입 방안
 - 부대시설 및 문화 힐링 타운 조성 혹은 확대 방안
 -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등을 갖춘 지역 상권 구축 방안 등 연구
- 특구 계획서 작성 및 신청
 - 특구 종합 설계, 조감도 제작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 중소기업청으로 지역특구 지정 신청

❖ 다른 지역의 특구 지정 사례

- 청주시의 직지 특구 조성 : 2007년 고인쇄 박물관 주변을 직지 특구로 지정
- 대구 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 서울 중랑구 역사문화교육특구

❖ 특구 조성 사례

-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경우 5만1109㎡(1만 5460평)에 중앙정부와 시에서 578억원 투입하여 체험 기반 역사문화 교육 장소로 개발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고려역사문화 특구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3-4년차	• 고려역사문화 특구 신청의 타당성 검토 • 고려역사문화 특구 종합 설계 및 중장기 계획 수립
5년차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3] 강도 역사 경관 길 개발 및 강도 역사 콘텐츠 개발

- 역사 경관 길 개발을 위해 유적, 자료 등 조사, 스토리 개발
 - 독일이 로맨틱 가도를 여러 개로 개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강화 혹은 강화와 인접의 다른 지역을 연결하여 몇 개 권역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
 - 현재 강화 나들길이 권역별로 개발되어 도보길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역사와 관련해서는 능묘 가는 길, 호국순대길, 심도역사문화길, 고비고개길, 화남생가 가는 길, 교동도 다울새길, 강화도령 첫사랑길 등이 개발되어 있음
 - 강화 고려 역사문화단지, 고려 강도의 길과 관련된 자료 발굴 및 조사, 콘텐츠 개발
 - 역사 테마 중심 강화도 탐방 길, 탐방 지도, 역사 콘텐츠를 연결하여 개발하는 연구
 - 고인들의 길
 - 관방유적의 길
 - 강화 고려 왕의 길
 - 고려의 강도 문화 길 개발. 복원된 고려 궁지, 왕릉, 사찰, 향교 등을 잇는 '고려 강도 길' 개발. 일상, 저항, 기념비적 문화, 그리고 권력욕과 횡포(무신정권)와 희생 등 여러 주제를 동원하여 고려 역사문화 단지를 조성하고 고려 강도 길들을 개발. 고려 강도의 길은 주제와 동선 및 구역 단위로 연결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정책 연구 수행. 현재 고려 궁궐 유적이거나 도성을 비롯하여 몽골항전 유적만이 아니라, 고려인의 일상과 관련된 유적, 희생 등과 관련된 유적 발굴 및 개발
 - 조선의 강도 선비 문화 길(가칭) 개발. 강화도에서 조선시기 학자의 가옥 등을 비롯하여 조선 역사 유적을 따라 탐방할 수 있는 경로 개발
 - 유배의 길(가칭) 개발. 광해군 일가를 비롯하여 강화도에 유배 온 많은 사람들의 유배지 복원, 표지석 건립, 콘텐츠 개발 작업. 유배길을 따라 조선의 유배의 문화와 의미 탐방할 수 있게 함
 - 병자호란의 길
 - 양요의 길
 - 역사적 여성의 길
 -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하여 강도의 길들을 스토리들로 엮을 수 있게 콘텐츠를 개발. 역사적 인물은 물론 여성, 노비, 천민, 군사 등의 이야기들을 발굴
- 이야기가 있는 역사 경관 길 조성 및 운영
 - 역사 경관 길 조성을 위한 유적과 유물 재조사 및 표지석 건립
 - 역사 경관 길 조성
 - 역사문화단지와 역사경관 길들을 연결하는 교통편 지도 제작. 걷는 길과 버스길 연결
 - 인삼 등 고려와 관련된 대표적 상품들이나 먹거리, 자연 생태 경관, 체험 공간, 숙박·휴양 시설 등도 개발하여 연결함으로써 대표적인 역사 관광 사업화
 - 역사 경관 길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강도 역사 경관 길 지도 제작 및 콘텐츠 개발 연구
3-4년차	• 이야기가 있는 강도 역사 경관 길 조성(표지석 보완, 이야기 패널 설치 등)
5년차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4] 연례행사 ‘고려문화축전’ 프로그램 개발

- 고려문화축전을 연례행사화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고려 정체성이 부각되는 연례행사 개발
 - 고려문화축전 연례행사를 위한 콘텐츠 연구 : 고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대중역사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 수행. 고려문화축전의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 국내 학술행사뿐 아니라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고려 역사문화 세계화 추진. 세계 속의 고려, 고려 속의 세계를 주제로 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려 문화의 세계화 추진.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북한 등을 연결하는 고려사 연구의 세계적 네트워크 마련. 연구 네트워크로 시작하여 상품성을 검토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
 - 고려문화축전의 프로그램 개발 : 일회적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는 고증이 부족한 연례행사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될 수 있는 독특한 고려 문화 축전 행사 프로그램 개발. 고려는 불교 및 다양한 종교들의 복합 문화를 자랑함. 불교, 도교 등의 복합문화 성격이 드러나는 행사에 대한 연구 개발
 - 강도의 유적들과 결합하여 고려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고려 문화 축전에서 ‘고려 강도의 해’를 주기적 행사로 마련하여 한국 관광 상품과 연결, 관광, 쇼핑, 체험 등의 행사와 연계
 - 팔만대장경 이운 등의 행사 등 고려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프로그램 개발
 - 왕실의 역사, 과학기술사, 생활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행사 고안
 - 왕실의 역사 : 고종 행사, 왕실 그리고 대몽항쟁 중심 고려 역사와 문화 향유를 넘어 고려문화축전을 상징하는 고증된 고정 프로그램 마련
 - 생활사적 접근 : 문학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또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넘어 고려시기 강화에 살았던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문화, 행사, 의례 등을 이해하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 팔관회, 연등회 등 재현
 - 과학사적 접근 : 목판인쇄술, 금속활자 인쇄술 등과 관련된 체험 행사
 - 시설 유치 : 문화 축전에 참여할 전시관, 체험관, 공연관, 판매 시설 등 유치. 고려역사문화 특구와 연결하여 경제적 효과 증대 방안 모색
 - 시민 참여 다각화 방안 모색 :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자원봉사, 고려 미술·문학·요리 경연, 여러 프로그램에서 재현에 배우로 참여, 재현을 위한 기구 제작, 고려 역사 프로그램 제작까지 여러 층위에서 고려 문화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기회 제공할 수 있게 기획. 시민 스스로 고려 문화에 대해 탐구하여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모제도 활용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고려문화축전 연례행사를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
3-4년차	• 고려문화축전 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5년차	• 프로그램 시범 운영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5] 강화·고려사 관련 국립박물관 유치

- 국립 강화 고려사 박물관 유치를 위한 기초 연구
 - 박물관 건립 유치 및 건립 추진체계 마련, 박물관의 정체성, 건축, 디자인, 전시, 유물 수집 및 보존, 교육 등 전문가 확보
 - 연구 및 종합 계획 수립 : 협업적 연구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박물관의 정체성, 건축, 디자인, 전시, 유물 수집 및 보존, 교육 등 전문가 확보, 계획수립 법령과 조례 검토 등 협업적 연구를 통한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과 협력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예산 수립. 다른 지역 사례 검토. 예를 들면 국립 청주 박물관, 인천시의 문화재관련 조례 검토 등
- 주민과 소통 : 국립박물관 유치의 필요성 인식 제고.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한 강화를 비롯한 인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국립박물관 유치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 강화 국립박물관의 정체성, 필요성 및 가능성, 구체화 전략 및 방안 토론
- 국립 강화 고려사 박물관 유치 추진
 - 입지 선정 및 건축 설계 공모, 건축 추진 계획 수립
 - 박물관의 기본 구조 설계 연구 : 박물관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팀 구성(전시 전문가, 유물 수집 및 보존 복원 전문가, 고려사 전문가, 박물관 교육 전문가, 건축, 디자인 등)
 - 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원
 - 전시 계획, 모형 및 기타 물품 제작 계획 수립
 -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시민단체 활동 지원
 - 유물 수집 (구입, 기증, 대여 등)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국립박물관유치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기초 연구
3-4년차	타당성 검토 및 종합계획 수립
5년차	종합계획 검토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6] 고려 역사문화 중심 남북 문화 교류

-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강화와 개성 간의 도시간 협력 추진체 마련 및 협력 체제 구축
 -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통일 과업을 이루는데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인천시가 통일 지향적인 문화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남북한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사, 문화, 예술, 건축, 고고학, 과학 기술, 복식, 음식, 종교,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화 개성 도시 협력 추진단 구성
 - 고려의 지성과 감성을 총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 고려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알릴 수 있게 고려사의 사료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학자들 초청하여 고려사에 대한 학술 토론회 및 고려사 사료 전시 구체화 방안 등 논의
 - 고려 궁궐 재건을 방향 등 고려 역사문화 사업에 대한 논의 : 개성의 고려 궁궐과 비교하면서 강화 궁궐 유적에 기초하여 궁궐 재건. 고려 강화 역사 정체성이 드러나게 재현. 고려의 '개방, 통합, 포용, 평화'의 가치를 품을 수 있게 재현
 - 팔만대장경 판각의 전통에 따라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담은 평화대장경봉안 사업 논의
 - 강화와 개성에서 궁지, 왕릉 등을 포함하여 고려 유산 남북 합동 발굴, 조사, 연구 계획 수립
 - 남북 합동 고려사 연구 및 교육 국제 학술대회 개최 논의
- 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고려 왕도 역사 문화 지구 구상
 - 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고려 왕도 역사 문화 지구 구상을 위한 기초 연구, 학술 교류, 인천과 개성의 대학 역사문화 연구자들 중심 민간 교류 및 협력 추진
 - 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역사 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사업 연구
 - 강화-개성 고려 왕도 역사 탐방 코스 개발 및 스토리 개발
 - 고려 문화 중심 남북 공동 역사문화 축전 개최
 - 민간이 참여하는 고려 생활 문화(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행사 마련
 - '세계에서 고려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 세계 여러 지역에 고려의 흔적을 찾아가는 고려의 길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 고려문화 세계화와 연결
 - 남북 역사 서술과 역사 교육 방안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 :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주로 발굴, 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음. 통일대비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를 중앙정부 부속 교육기관들이 하고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함. 주로 남한 학자들이 북한 학자들과 교류 없이 통일대비 역사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고려사 교육을 중심으로 남북 공동 역사교육 학술회의 개최
- 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고려 역사 문화유산 공동 발굴 및 자료 조사와 DB 구축, I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
 -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하여 고려 왕조의 도읍지였던 강화와 개성을 연계한 남북역사교류사업 지원
 - 고려 역사 문화유산 DB화와 디지털화 사업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강화와 개성 간의 도시간 협력 추진체 마련 및 협력 체제 구축 및 기초연구
3-4년차	• 인천과 개성을 연결하는 고려 왕도 역사 문화 지구 구상
5년차	• 검토 및 보완

■ 사업효과

- 인천의 역사성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
- 인천 시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 남북교류 협력 강화에 기여
- 인천의 도시 가치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소요예산 : 3,29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고려 궁궐 재건 및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240백만원	개선
강화의 '고려역사문화 특구' 설정 및 발전 방안 연구	400백만원	신규
강도 역사 경관 길 개발 및 강도 역사 콘텐츠 개발	400백만원	신규
연례행사 '고려문화축전' 프로그램 개발	800백만원	개선
강화 고려사 관련 국립박물관 유치	350백만원	지속
고려 역사문화 중심 남북 문화 교류	1,100백만원	개선

(2) 국제 역사문화교류 발전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전쟁을 기억하는 기념관보다는 평화와 인권 등을 추구하는 기념관 건립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 강 기념관과 교류하면서 인천도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비롯하여 6·25 전쟁과 관련된 여러 유적지를 평화와 인권 지대로 개발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필요가 있음
 - 강 기념관은 세계 최초의 전쟁 기념관이지만 '평화 기념관(Mémorial pour la Paix)'이라고 불림 : 강 기념관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희생을 추모하기도 하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곳으로, 인권 가치의 회복을 꿈꾸는 곳으로 기념관의 성격을 바꾸어 가고 있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를 휘감은 냉전의 그늘과 핵무기의 공포, 그 장벽을 깨뜨려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관도 마련했음
 - 동아시아 한중일의 정치경제적 갈등 극복 및 상호 협력할 필요 : 정치적 갈등을 넘어 공통의 역사적 경험 공유를 통한 동아시아 의식 향상할 필요. 개항도시 거점 경제 및 관광 네트워크 형성할 필요
- 인천 관광사업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필요

- 인천의 도시 가치를 세계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문화적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이 필요함
- 최근 들어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제적 협력은 보통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제도 및 정책과 관련한 보수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실질적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간, 도시간 선린우호관계 형성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을 부각시켜 관광상품화 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전쟁, 평화, 인권 국제 학술회의 개최
- 양 도시 대학간의 문화유산 포럼 개최
- 양 도시 전쟁기념관 간의 전시 및 교육 상호 협력 및 교환을 위한 기초 연구
- 강 기념관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의 전시 및 행사 공동 기획과 교환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2017년 10월, 인천상륙작전기념관-프랑스 강 기념관 MOU 체결
 - 학술, 국제교류 전시회, 소장품 대여, 국제포럼 등의 활동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노르망디상륙작전의 전승을 기념하는 기념관 간 콘텐츠 확보

❖ 사례

- 한국과 몽골의 경우 1997년부터 문화유산 분야 교류를 해왔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한-몽골 공동학술조사 20주년 기념 '칸의 제국' 특별전을 2018년 5월 개최(몽골의 국보급 문화재 16건을 포함해 536점의 유물 전시. 몽골의 국보급 문화재가 대량으로 해외로 나온 첫 사례)
 - 몽골의 경우 낙후된 문화재 연구 수준으로 인해 한국의 학술적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 교류의 이유가 되었는데, 한반도 내 문화를 이해하려면 주변 문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임
- 2006년 5월, 문화재청-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체결
 - 문화유산보존 제도·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 인류공동 자산에 대한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 구축,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용, 건조물 보존관리, 왕경유적 공동발굴, 세계유산 관리, 박물관분야 교류 추진
- 2018년 4월, 수원시-스코틀랜드 유로파 'EU 월드시티 프로젝트' 실무 회의
 - EU 월드시티 프로젝트는 EU지역 도시와 비 EU지역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경험·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도시협력 프로젝트임. 수원시와 파트너인 스코틀랜드 유로파는 상호 관심분야로 '역사문화 자원보존'과 '도시재생'을 선정하였음

- 한중일 3국간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기치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및 교류행사 개최 합의 ('12. 5. 5.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 인천은 현재 여러 도시들과 교류 협약을 맺고 있음
- 2009년에 인천이 세계도시축전을 개최
 - 2009년 도시축전에는 해외 105개 도시와 국내 32개 도시 등 모두 137개 도시가 참가. 이들 도시의 참가자들은 '세계도시관'에서 각자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자랑하고 다른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는 등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감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유네스코가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성으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 도시를 말함. 구체적으로 문화적 도시환경과 문화·예술·지식정보산업 분야에 인적 자원 등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도시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독자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가 이에 속함.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음식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도시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창의도시는 소수의 정치 참여,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문화적 풍부함 등 다양한 측면에 집중함. 창의도시가 되면 문화·창의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교류하고 국제적 명성을 얻을 수 있음
 - 현재 한국에서는 경기도 이천(2010, 공예와 민속 예술), 서울(2010, 디자인), 부산(2014, 영화), 전북 전주(2012, 미식), 경기 부천(2017, 문학), 광주(2014, 미디어아트), 경남 통영(2015, 음악), 대구(2017, 음악) 등의 도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있음
[네이버 지식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세계 주요 역사문화도시와 네트워크 형성

- 인천과 비슷한 특징의 역사문화로 특화된 세계 도시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류 전파 지역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음
 - 대학과 민간 차원의 역사문화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 역사문화 교환 관련 다자간 네트워크 형성 주도를 위한 연구 및 학술대회
 - 대학과 민간 차원의 역사문화 네트워크 형성 기반 마련

❖ 동아시아 개항 도시 교류

- 개항이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역사문화 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초 연구
 - 중국, 일본, 한국의 개항도시들에 대한 역사문화교육 국제학술회의 개최
 - 개항도시들 관광 사업 연계 -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가능성 탐색
 -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관광 상품 유치 방안 모색

❖ 고려사 세계 네트워크 형성

- 고려사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국내외의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
- 멀게는 지도를 제작했던 유럽의 스페인, 고려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이슬람 지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등까지 고려의 기록과 흔적을 연결하여 세계적인 고역 역사 문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연구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개항 도시 네트워크 운영 방안 연구 • 고려 역사 세계 네트워크 형성 방안 연구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개항 도시 국제학술대회 • 고려 역사 세계 도시들 발굴 및 교류 협력 추진 • 역사문화도시 네트워크 국제학술대회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도시들과 교류 협력 추진

[세부과제 2] <노르망디 강 기념관>과 교류

- 노르망디 강 기념관과 학술 교류
 - 전쟁, 평화, 인권 국제 학술회의 개최 : 전쟁, 평화, 인권 등을 재현하고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학술 연구 및 국제학술 회의 양 도시 공동 개최
 - 강 기념관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전쟁 기념관들의 최근 전시 및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강 기념관과 국제교류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강과 다른 인천의 고유한 경험에 기초하여 전쟁 기억, 재현, 교육의 학문적 담론을 만들어 강 기념관과의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전쟁이나 갈등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함.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국가 간 전쟁이나 국가 내 내전으로 인한 갈등의 기억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해외(프랑스, 독일 등) 연구가 활발함에 비해 국내 연구는 저조함. 인천이 중심이 되어 역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에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연구를 주도할 수 있음

- 특히 인천이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쟁, 평화, 인권 등을 전쟁 기념관에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 또 그와 관련된 기억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양 도시 대학간의 문화유산 포럼 개최
- 전쟁기념관을 포함하여 양도시의 문화유산 발굴, 보존, 관리,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 및 교육적 교류
- 양 도시 전쟁기념관 간의 전시 및 교육 상호 협력 및 교환을 위한 기초 연구
- 강 기념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비교 연구
- 강 기념관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의 전시 및 행사 공동 기획과 교환
 - 인천상륙작전 및 노르망디상륙작전에 대한 공동 학술 연구
 - 소장품 및 자료 대여를 통한 전시 교환
 - 전시나 행사 공동 기획
 - 양 기념관의 간행물 교환 및 사례 연구 교환
 - 기념관 리모델링, 전시 기법, 교육 프로그램 교환
 - 연구 자료와 콘텐츠 교류
 -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공동 개발
 - 양 기념관간 연구 및 교육 인력 교환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과 인천의 대학간 문화유산 포럼 개최 •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탕 기념관 간 학술교류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 기념관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의 전시 및 행사 공동 기획과 교환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 및 보완

Ⅱ 사업효과

- 인권과 평화도시로서 인천의 이미지 형성
- 인천 문화의 세계화
- 인천시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장
- 세계적 도시로서 인천시의 경쟁력 강화

Ⅲ 소요예산 : 50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세계 주요 역사문화도시와 네트워크 형성	240백만원	신규
<노르망디 캉 기념관>과 교류	260백만원	개선

2) 인천 유산의 가치 보존

(1) 근대유산의 가치 보존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이미 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에서 인천시, 중구, 인천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여러 행사를 진행하여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려 하며 역사와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개항 이후 근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주거 및 상업 지역의 노후화와 지역 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근대유산 특별 유적지로 보존 관리 할 필요가 있음
- 근대 유산 특별 유적지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마련, 도시 관광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미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한 영주, 목포, 군산 등의 사례를 학계의 ‘근대사’를 보는 시각과 ‘근대역사도시’에 대한 최신 연구에 기초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사례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근대유산 특별 유적지 개발의 모델을 인천이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인천 개항장 일대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역사의 흔적과 문화를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라는 점을 잘 재현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최근 사학계의 근대사와 근대도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살아나도록 재조성
 - 최근 학계의 근대를 보는 시각, 한국 근대사, 근대역사도시 등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 목포, 군산 등의 근대 역사도시의 재현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을 통해 탈식민지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의 근대, 그리고 인천의 근대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인천 근대역사공간을 보완하여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독특한 역사성이 살아나는 근대 공간
 - 최근 연구 성과를 검토해서 인천 근대역사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로 재현할 것인가 연구하고 새로운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종래 인천의 근대역사공간이 매우 제한적이고 산발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어 한국 ‘근대도시’, 특히 인천의 특수한 근대도시의 특성이 잘 재현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근대 및 근대역사도시에 대한 연구들 반영하여 개발



〈그림 24〉 근대(역사도시)의 특성

- 인천의 '근대'에 대해 다시 상상하여 근대역사공간 구축하고 콘텐츠 개발
 - 근대도시 인천의 재구축 방향은 이미 2000년대 초에 논의되기 시작했음. 이와 관련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근대도시, 인천의 재구축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이현식(2001)의 발표가 있었음. 종래 인천의 근대역사 공간은 주로 차이나타운,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인식되고 재현되었으며 그 일대가 주요 관광지로서 상업화되고 향유되었음. 근대역사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인천, 군산, 목포처럼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근대도시의 복합적인 성격은 한국의 근대도시에 대한 관점 정립을 어렵게 함
 - 근대도시에 대한 설명이 난해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점 때문임. 첫째는 한국의 근대도시가 일제의 필요에 의해 건설되면서 다른 어떤 점보다 식민지성을 크게 가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 도시들이 대부분 해방 이후 급속하게 쇠퇴하면서 도시적 저발전과 정체성을 겪어왔다는 점임. 종래 식민지 수탈론이 한국의 근대도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틀이 되어왔음. 식민지 수탈론은 식민지근대화론에 저항하는 내적발전론과 동일한 관점을 취함. 즉, 근대도시가 식민지 근대화의 과정에서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인 핵심공간이 되었고, 바로 그 이유가 배후지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는 방식임(원도현 2016) 이러한 관점에서 군산, 인천 등의 도시사가 저술되었음
- 인천의 관점에서 근대의 기점 재고하고 근대 역사공간을 현재의 개항장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탐방 코스로 개발하고 인천의 근대 서사로 구성
 - 인천은 19세기 후반이후 '근대' 이행의 최첨단 지역으로서 역할을 해왔음
 - 한국 근대의 기점을 보는 이견이 있음. 김재호(2016)에 따르면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하는가를 두고 18세기 후반, 개항 이후, 해방 이후로 크게 나뉘기도 하였지만(한국경제사학회, 1970), 근년에는 1860년대, 1876년, 1894년으로 범위가 개항 전후로 좁아졌음(도진순 외, 1993). 각기 제너럴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신미양요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개항과 세계 자본주의체제와의 접촉, 그리고 갑오개혁에 의한 근대적 제도의 도입이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경제사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본과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체결하여 부산을 개항한 1876년이 근대의 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근대의 기점을 1860년대부터 설정하던 1876(강화도 조약)년으로 설정하던 인천은 한국의 '근대'를 시공간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요한 장소로서 독특한 역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
- 그러나 근대를 1860년대, 특히 고종의 즉위년(1863)부터 볼 경우,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도 포함하게 되어 인천의 '근대 역사'의 공간과 내용이 확장되며 풍부해짐. 크게 보면 양요는 조선 정부가 서구 열강과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사건이고 이것이 조선 정부의 서구 열강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요의 장소까지 근대 역사 공간에 포함하여 콘텐츠화 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인천의 근대도시 공간을 개항장을 중심으로 구축하면서도 강화를 비롯하여 인천 내 여러 지역을 연결하여 인천의 근대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탐방로 개발
- '근대'와 관련된 인천의 도시서사의 관점과 범위를 수정
 - 현재 억압과 수탈, 발전과 변화의 이미지가 조화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별도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
 - 인천의 근대역사공간은 주로 차이나타운과 조계지 중심으로 재현되었고 관광 상품화되었음
 - 종래 인천의 근대 이미지는 제물포 개항이후 갈등의 공간, 일본의 식민지 경영의 발판으로서 무기력하게 일제에게 수탈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조선의 농민이 몰락했던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음. 또한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도시로 변모되었으며 인천은 철저히 일본인 중심의 도시로 변하여 갔고 일본인의 억압과 수탈은 심해졌다는 내러티브로 이 시기 인천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음
 - 인천의 일제식민지 시기는 일본의 대륙침략정책을 위한 식량공급지로서, 일본인 중심 산업도시로 변모됨. 인천은 거대한 항만 도시이자, 농공단지를 배후에 두는 산업도시로 변모했지만, 일본인의 억압과 수탈이 심해졌던 측면이 부각됨
 - 그런데 다른 한편 서구 문물을 수용한 것을 '발전'이라고 해석하면서, 인천을 외부 문물의 수용을 통해 근대로 전환하여 발전했던 공간으로 그리고 근대 문물을 다른 지역으로 전달한 통로로 이미지화하고 그 역할을 강조해 옴
 - 개항 이전과 조선 사회의 움직임과 개항 이후 조선 사회의 변화를 역사적 연속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게하는 한편 역사학계의 논의의 틀 내에서 시간적으로 근대의 범위를 넓혀서 '근대'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근대를 백과사전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1863년에서 1945년 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특징을 테마화하면서 근대 역사를 재현하고 콘텐츠화할 필요. 특히 콘텐츠 개발에서는 장소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측면의 최초 강조
- 근대건축물 보존과 창의적 재생을 최우선 목표로 공간 조성 및 콘텐츠 개발
 -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을 포함한 어떤 지역보다 인천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력이 앞서 있었음. 사람들이 근대건축물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시절에 인천은 이미 근대건축물을 집대성한 '개항과 양관역정'을 발간했고,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시립박물관을 개관했음. 인천시는 근대문화

유산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했고, 시민사회는 강좌와 답사를 통해 근대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렸음

- 100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근대건축물이 구조안전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철거되었음. 예를 들면 조일양조장, 동방극장, 애경사와 같은 인천의 상징적 근대문화유산이 철거되고 현재는 터를 알려주는 비석만 남았음

- 근대건축물 활용이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보존에는 크게 신경쓰지 못했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멸실된 근대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근대건축물 후세에 어떻게 물려줄 건가 고민해야>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 지리적 스케일을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및 세계로 확장하여 이동, 이주,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인천의 근대를 한층 큰 범위에서 이해하는 방향. 인천은 20세기 대외 교류만이 아니라 이민의 역사와도 밀접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특징이 살아나는 방향

- 개항 이후 인천지역에 각국조계지가 설정되어 일본 뿐 아니라, 구미 각국의 문화가 유입되면서 과거와는 상이한 모습의 새로운 문화 공간이 만들어짐. 개항장이 국제적이고, 혼종적인 공간이 되었으며 개항장 일대는 인천만의 독특한 개항기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개항기 유산의 특징이 살아나는 방향

- 근대문화유산자원의 연구 기반 산업화와 상업화

- 근대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을 추구하면서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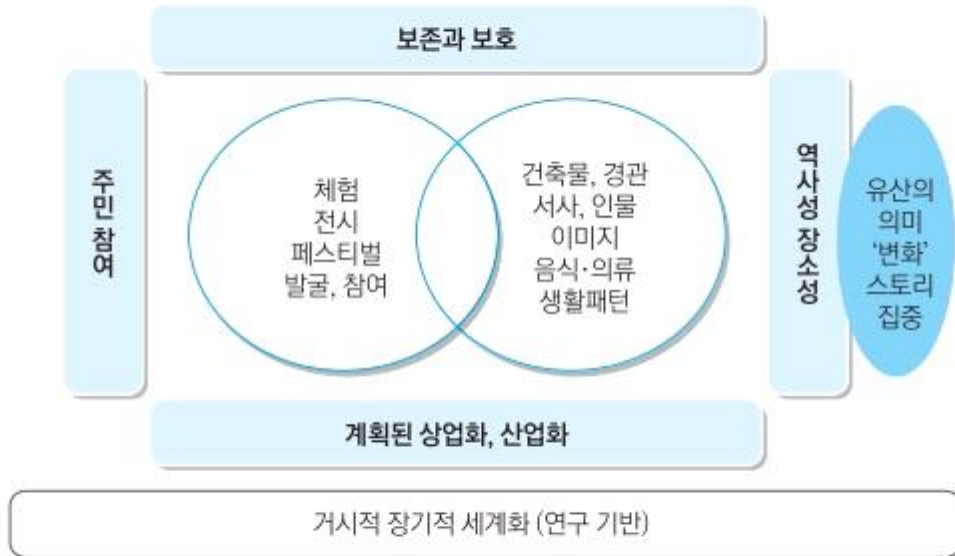
-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함께 담고 있는 건축물이나 기타 근대문화유산의 상품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기초하여 산업화와 상업화를 추진해야 함

- 인천 근대역사공간에서만 살 수 있는,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담은 독특한 상품 개발 필요. 단순히 현재 남아있는 일본풍이나 서구풍 건축물 모형을 미니어처로 제작하여 상품화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개별 근대유산이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변화'했는지 스토리에 집중할 필요

- 소비적이고 일회적인 관광 중심의 산업화와 상업화 지양

- 지자체 사업으로서 일회성적 성격 극복하고 지속적인 지원 체제 마련



〈그림 25〉 근대역사문화자원 상품화산업화 방향

-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보호를 강조하는 관광자원화
 - 근대역사문화 자원의 역사성과 장소성 복원을 통한 관광자원화, 문화유산 산업화
 - 지역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상업화
 - 거시적 계획을 통해 인천의 고유한 근대성을 부각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 산업화 추구
- 역사성과 장소성 고려한 콘텐츠의 상품화
 - 건축물과 역사 경관 활용 상품화: 개별 건축물 활용, 근대건축물과 그 주변 가로 환경을 활용,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블록단위의 지역을 활용
 - 근대 서사, 인물, 이미지 활용 상품화
 - 음식과 의류 등 생활 문화와 패턴 활용 상품화
- 4차산업혁명과 연결시키는 산업화 연구

Ⅱ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문화재청의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 문화재청은 2018년 8월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맥락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처음으로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등 3곳을 문화재로 등록 고시 (문화재청, 2018. 8. 8).
 -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 집적된 지역을 뜻한다.”
 - “새로 도입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점(點)'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결여, 가치 활용도 제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

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문화재청, 2018 08 08)

- 등록문화재 제도 특징: 원형보존, 진정성 유지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정문화재 제도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배제 등 규제는 최소화하고 활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문화재청, 2018 08 08)
- 인천시와 중구, 인천관광공사는 개항장 일대의 문화재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인천 개항장 야행(밤마실)’ 행사를 열고 있음. 인천 개항장 야행은 개항장의 근대문화재와 문화시설을 야간에 무료 개방해 개항시대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행사
- 인천광역시가 이미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인천 중구 내항, 개항장, 월미도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에서 진행
 - 2016년 도시재생일반지역 국비지원을 받아 ‘상상플랫폼 리모델링 설계 착수’
 - 전국 최초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도시경제재생의 성공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사업 진행 중
- 신진범과 김지선(2014)은 인천시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항창조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융합관광 육성방안을 제안했음. 이 연구에서 ‘개항창조도시 융합관광’이라는 개념- “개항창조 도시의 플랫폼 전략과 연계하여 관광과 예술·문화·누들 등의 타 영역 간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자산에 기반한 차별적인 관광콘텐츠 개발과 지역관광의 창조성을 제고하는 관광”- 에 기초하여 개항창조도시의 융합관광 육성 방안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 현재 개항 테마와 관광을 결합한 테마공원이 완성되었음
- 김정신(2012. 7. 3. 문화유산채널)은 인천 개항장 일대의 개항기와 일제강점기의 역사 흔적이 어떻게 잘 보존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음
(<http://www.k-heritage.tv/brd/board/275/L/menu/256?brdType=R&bbIdx=3030>)
 - 인천은 근대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비교적 높고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임.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것만도 사적 2건, 유형문화재 14건, 기념물 1건, 문화재자료 3건, 등록문화재 5건 등 25건에 이룸. (비지정 80건을 포함해 현존하는 근대건축유산은 약 105개로 추정) 이 중에서 과반이 개항장이 설치되었던 중구일대에 집중되어 있음
 - 인천제물포항은 부산(1876), 원산(1880)에 이어 세 번째로 1883년 1월에 개항. 개항장 내에 일본인 전관조계지와 중국인 전관조계지, 그리고 각국공동조계지가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조계지를 바탕으로 조선인마을, 일본인마을, 중국인마을, 서양인마을이 형성. 당시 단위주구는 30×120m를 기본으로 도로 폭은 4m 이상이었으며, 이를 몇 개의 필지로 나누었는데 도로에 접한 길이 : 대지 안 길이가 1:2 이상이 되는 세장형 필지였음. 도로를 경계로 지역을 구분하고 공원과 같은 공공용지를 설정하는 등 서구식 도시계획기법으로 도시를 계획.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존 획지선을 지정하여 당시의 필지모양을 거의 보전하고 있음



〈그림 26〉 개항창조도시 통합관광 육성 기반 및 동향 검토 종합 (신진범·김지선 2012에서 인용)

- 청국과 일본전관조계지의 경우, 자국의 영사관을 중심으로 정연하게 구획된 대지 위에 1층 혹은 2층의 주상병용주택을 준비하게 세웠으며, 각국조계지를 중심으로 사택, 양행, 별장 등 서구풍의 건축물이 들어섰음. 다른 개항장에 비하여 외국인들의 상거래가 활발하였던 인천형에는 각국의 상관과 주택들로 넘쳐났음. 비교적 평탄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일본과 중국의 전관조계지에는 점포주택이 들어섰고, 서구인의 대표적 상관인 독일의 세창양행, 미국의 타운센트양행, 영국의 홈링거양행 등은 비교적 넓은 대지를 차지하였음. 각국공동조계지인 송학동 일대의 구릉지를 끼고서는 인천각, 오래당저택 등 인천의 상권을 장악한 부호들의 주택과 별장이 있었음
- 인천시와 중구청은 신포동과 북성동, 동인천동 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항장이 갖고 있는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지원하여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과거 일본조계지와 각국조계지 일대의 '개항장타운'에는 오랫동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구인천부청사(현 중구청), 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현 인천개항박물관) 등 일본계 은행들, 조계 내 외국인들이 상호 교류를 위해 설립한 제물포구락부(현 중구문화원), 대한성공회 내동교회, 천주교 답동성당, 구인천우체국(현중동우체국) 등 근대건축물들이 온전하게 남아있음
- 또한 해안동 일대에 세워진 구일본우선주식회사를 비롯한 항만창고 등 13개동의 건물군을 창작스튜디오, 공방, 자료관, 교육관, 전시장, 공연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인천 아트플랫폼이란 이름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중구청 앞 제물포조약길 일대(옛 일본인 조계지)의 도로변에 면한 건물의 입면을 일본풍으로 장식하여 개항기 일본거리를 재현하기도 하였음

- 인접한 청국조계지는 최근 복원된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을 비롯한 중국식 주택, 상가, 화려한 패부와 붉은색 간판이 집중된 '차이나타운'으로 재생되어 '한국 속의 작은 중국', '다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근대공원인 자유공원이 배후에 있어 인천항과 황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음
-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는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탄생한 성공적인 사례. 이곳 개항장 일대는 과거의 역사를 보존하되 현재적 가능성을 재해석함으로써 거대한 스트리트 뮤지엄으로 확장되어나가고 있음
- 김정신(2012)의 묘사대로 현재 인천개항장 일대의 건축물이나 도로 등은 개항당시와 일제식민지 시기를 재현하고 있지만, 각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나 건축물과 공원등에 대한 설명, 향유하는 방식은 식민지 경험과 근대의 경험의 미묘하고 복잡하면서도 복합적인 측면, 삶의 공간으로서 식민지 근대 도시를 잘 재현하고 있지 못함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인천 근대 유산 특별 유적지 보존 관리

- 인천 개항장 일대 근대 유산 특별 유적지를 문화재청의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에 따라 선·면 단위 문화재로 신청하여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초 연구
 - 역사성과 장소성 제고를 통한 관광상품성 향상
 - 문화재 보수 정비, 역사경관 회복
 - 건축물만이 아니라 인천 근대 도시의 정치적 구조에서 부터 근대인의 일상까지 근대도시의 다채로운 경관을 사료에 근거하면서도 창조적으로 복원하여 역사성과 장소성 향상
 - 개항 및 근대 테마 관광 도시로서 도시경제재생 추구
 - 현재의 상태에서 목포나 영주 근대 역사 지구와 다른 개념의 인천 근대역사경관을 만들 수 있게 보완하는 방법 연구
 - "우리가 알고 싶은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인천광역시청)"에서 묘사하고 있는 '변화하는 근대의 정경'이 살아날 수 있게 인천근대도시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방안 연구
-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무형의 유산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DB화 및 연구를 통해 등록 신청 준비
 - 문화재로 지정 등록된 것 : 사적 2건, 유형문화재 14건, 기념물 1건, 문화재자료 3건, 등록문화재 5건 등 25건
 - 문화재 비지정 80건을 포함해 현존하는 근대건축유산은 약 105개로 추정(김정신, 2012)
 - 105개 이외에 더 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을 발굴, 그 가치를 연구하고 홍보하여 문화재 등록 추진
- 3·1절 100주년 관련 인천 항일운동 유적지 조사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문화재청의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에 따라 선·면 단위 문화재로 신청하여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초 연구
3-4년차	• 문화재청의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에 따라 선·면 단위 문화재로 신청하여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초 연구 계속 • 근대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무형의 유산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DB화 및 연구를 통해 등록 신청 준비
5년차	• 검토 및 보완

[세부과제 2] 근대 역사 공간의 조성 및 콘텐츠 구성

○ 근대역사시설 및 시설지 조사와 DB화

- 인천문화재단 (2018)에 따르면 2016 군구 근대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했음

<표 37> 인천 군구 근대건축물 조사 실태 조사 결과(2016)

구분	업무시설	주거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기타	계
총계	51	106	17	9	23	4	210

※ 총 건축물 조사목록 현황(210건) : 인천 중·동구 82%(172건)

※ 근대건축물중 문화재 지정 현황 (19건) 답동성당, 인천우체국 등

- 2016. 11 ~ 12월 : 활용 가능한 건축물 23건 전문가 조사 실시
- 권역별 조사 및 발굴, DB화 및 보존
- 인천 근대 공간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개항장 이외에 여러 종류의 근대유산을 인천 권역별로 근대 유산 조사 및 발굴, DB화 - 새로운 구술 및 문서 자료와 시설, 역사적 장소, 인물, 서사 자료 등 조사 및 발굴
- 새로운 역사적 장소 발굴 및 DB화. - 시설, 건축물, 가옥, 유적 등을 조사하여 역사적 장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이를 위해 우선 기초 조사 필요
-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 근대 기획전 추진 :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사진, 생활유물 등), 이야기, 정보 등 수집 공고, 심사를 거쳐 선정 및 전시 여부 결정
- 기존 인천 근대 박물관 활용 전시
- 수집한 유물 보존 및 전시 활용 공간 마련
- 최근 연구에 기초하여 현재 인천의 유무형의 근대유산과 근대 역사 장소 재현 방식 검토 수정 보완
 - 종래 장소와 유적의 표지, 설명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완 및 수정

- 표지 설명 및 콘텐츠 수정 및 보완
- 학계의 새로운 연구에 기초하여 근대 역사 공간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여러 유무형의 유산들 재현 방식 수정 방안 마련. 역사적 장소와 관련하여 현재 목록화 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표지, 설명 등 조사 분석하는 연구 실시
- 구술 자료 수집 및 정리 : 생존해 있는 근대시기를 경험한 분들을 인터뷰하여 구술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 그들이 기억하는 일제시기 인천의 모습, 인천의 특별한 건축물, 가옥, 시장과 같은 장소,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함
- 서사 자원 발굴 조사 및 DB화 : 종래 서사 자원은 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에 기초하여 개발했는데, 이러한 자원들의 서사화는 앞서 지적했듯이 민족 운동과 최초주의 중심의 근대적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음. 이러한 인물들은 인천을 대표한다기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임. 개항장, 차이나타운, 항만, 상업지구나 공장지대, 이외에 김관사와 하상기, 김구 등 여러 인물들 관련된 장소들이 일제의 침략과 수탈, 한국의 저항, 일제의 국권 및 경제적 침탈과 한국의 독립 투쟁이라는 국가 수준 거대 서사에, 서구 문물 도입을 통한 근대의 태동과 발전이라는 서사로 재현되고 있는데, 이 두 서사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재현되고 있음. 즉, 근대의 공간과 수탈의 공간이 분리되어 근대의 공간은 '발전'을 수탈의 공간은 '침탈'로 재현되고 있음. 또한 도시 서사자원과 서사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창수·홍승연, 2017)는 인천 개항장을 대표하는 서사자원을 <표 38> 로 요약하고 있음. 이러한 위인 중심 서사 이외에 일반 민중의 삶, 기쁨, 슬픔, 분노, 성취, 일제 협력과 저항 등의 구분을 넘어 우선적으로 서사 수집 차원에서 그 시기를 살았던 의사, 교사, 지방 관료, 목사, 노동자, 상인, 농부 등등의 이야기, 일본 유학생, 화교, 외국인 등등과 관련된 서사를 인천의 특별한 장소와 관련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및 정리

<표 38> 인천 개항장 대표 서사자원 (김창수·홍승연,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자원 활용 방안』 IDI 연구보고서 2017-13, p. IV.)

	항목	내용
1	김관사와 하상기	하상기는 인천부윤과 인천감리를 역임하였으며, 김관사의 교육과 애국 활동을 지원함. 김관사는 여성 교육의 개척자이자 독립운동가임.
2	김구	김구는 인천에서 민족지도자로 다시 태어났으며 유원우, 김주경 등 인천 인물과 관련이 깊음.
3	자유공원(각국공원)	한국 최초로 계획 하에 설계된 최초의 근대식 공원임.
4	차이나타운(청관)	청국 조계지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를 말하며 인천 화교의 자원이 풍부함.
5	대불호텔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중화루의 전신임.
6	하와이 이민	1902년 한국 최초의 공식 이민으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였으며 인천과 한국 사회에 공헌이 많음.

- 인천의 일본인 가옥의 변천사 조사 및 콘텐츠화 : 인천의 일본인 가옥들이 이국적인 분위기의 커피숍, 레스토랑 등 여러 방식으로 향유되면서 사람들에게 모순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가옥들이 일본인 가옥이었다는 점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가옥의 변천사를 통해 인천의 근현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 타 지역의 근대역사도시사업들의 과정, 절차,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 방안 모색
- 타 지역의 근대역사도시사업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음. 목포, 영주, 군산 등이 근대역사문화 사업을 진행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2018년 8월 6일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718호로 지정되었음.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포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대한제국 개항기에 ‘목포 해관’ 설치에 따른 근대기 통상 항만의 역사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의 생활사적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로서 근현대를 관통하는 목포의 역사문화와 생활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보존과 활용할 가치가 우수한 지역”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철도역사와 그 배후에 형성된 철도관사,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요소를 간직한 건축물이 집적되어 있는 관사골에서 광복로 일대의 거리로서, 영주의 근대생활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간으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

- 목포와 영주 두 지역은 모두 정치사나 경제사보다는 생활사를 공간 구성의 중심 주제로 잡고 있음. 이외에 군산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도시 사업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한국의 근대도시들은 대체로 일제 식민지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시의 식민지성과 근대성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런데 근대역사도시들이 이러한 고민을 제대로 담지 못해서 근대성은 부각되지만 식민지성은 탈각되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임
- 그렇다고 근대역사 공간을 치욕적인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여, 그러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게 교훈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대중역사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음. 대중역사교육은 좀 더 넓게 시야에서 여러 층위의 역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현재 인천의 근대 공간, 건축물, 서사 등과 관련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
- 새로운 콘텐츠 제작 :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적 장소들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 시민 참여를 통해 유산 발굴. 발굴된 유물 콘텐츠화 공모
- 근대 역사 장소 지도 제작 및 탐방로 개발
- 근대 역사 장소 지도를 구체적으로 제작하여 개별적으로 탐방할 수 있게 함
- 근대 역사 장소를 잇는 교통 및 편의 시설 개발 및 홍보
- 근대 역사 장소 탐방 사업 육성, 자원봉사 문화해설사 참여 유도, 교육기회 제공
-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설명 보완 및 수정
-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들의 언어 설명을 통해 외국인 유입 유도(중국어, 일본어, 영어)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종류의 근대유산을 인천 권역별로 근대유산 조사 및 발굴 • 최근 연구에 기초하여 현재 인천의 유무형의 근대유산과 근대 역사 장소 재현 방식 검토 수정 보완을 위한 기초연구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역사 시설 및 시설지 조사와 DB화 • 새로운 시각에서 역사적 장소들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검토 및 수정 보완

[세부과제 3] 근대 건축물 등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상품화

- 식민지성이 내포된 건축물, 음식이나 의류 등 생활 문화와 생활 패턴은 그것이 현대로 오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스토리 구성 및 상품화를 위한 연구
 - 근대유산이 상품화된 것을 사용하면서 그 상품에 담긴 식민지성 때문에 '불편한 느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상품화 할 수 있음
 - 최초 및 근대적인 것(음악, 건축)
 - 식민지적인 것의 전유를 통한 생성과 창의성 강조
 - 융합, 전유 통한 변화
 - 그 유산에 담긴 '최초'의 의미보다는 '변화'와 '전유'의 의미를 부각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근대문화 유산의 상품화는 근대문화유산의 재해석과 새로운 의미부여 작업을 함께 해야 함. 일제강점기는 물론 일제의 철수 이후 인천인의 전유를 통한 새로운 의미 생성을 부각시켜야 함
 - 건축물과 역사 경관 스토리화를 통한 상품화 : 개별 건축물 활용, 근대건축물과 그 주변 가로 환경을 활용,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블록단위의 지역을 활용
 - 페스티벌과 연계한 상품화
 - 이미 인천 음식문화축전 등이 열리고 있으며 인천시에서 여러 공모사업을 통해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산업화 가능성 연구
 - 시범적 상품 개발
- 근대 유산 상품 공모
 - 스토리 발굴 및 창조 공모를 통한 상품화 - 현재처럼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책, 영화 등 여러 방식의 재현 부분 지원 방식
 - 전시 체험 연계 상품 공모 : 근대 서사, 인물, 이미지 활용 상품화 + 전시 체험 연계.
 - 박물관, 전시관 등의 뮤지엄 속에서 팔수 있는 소품 개발

- 생활소품 : 박물관 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연필, 에코 백, 부채, USB, 컵, 안경집, 우산, 명함집, 필통, 텀블러, 스카프, 넥타이, 손수건, 쟁반 등의 한국문화재단에서 제작하여 판매하는 여러 생활용품도 인천의 근대 경관, 인천의 공장, 인천이 최초로 생산한 상품, 인천의 옛 지도, 인천의 현재 관광지도, 인천의 인물, 인천의 근대 서사, 인천의 근대 사진 등을 넣어 디자인할 수 있음
- 인천역사 화보, 스토리, 사진
- 생활문화나 생활패턴 관련 구술 자료나 사료 + 전시·체험, 발굴·참여와 연계
 - 구술 자료, 근대 시기 일기, 이미지, 지도 등의 사료를 상품화
 - 당시의 음식 문화 재현을 통한 인천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 이미 유명한 먹거리의 브랜드화 및 새로운 인천 브랜드를 근대 생활 패턴과 연결하여 개발. 예를 들면 '인천 퍼스트(first) 커피'
 - 구술자료, 일기, 이미지, 지도 등의 상품화된 사료들에 기초한 체험객들의 창의적 제작 및 공작을 유도하는 공모 활용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근대건축물 등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기초 연구
3-4년차	• 근대유산 상품 공모전
5년차	• 시범적 상품 개발

Ⅱ 사업효과

- 인천의 고유한 근대 문물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
- 인천 근대 공간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Ⅲ 소요예산 : 1,87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인천 근대유산 특별 유적지 보존 관리	1,050백만원	신규
근대 역사 공간의 구성과 콘텐츠 구성	400백만원	신규
근대건축물 등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상품화	420백만원	개선

(2) 권역별 대표 문화유산(가칭 주민유산) 선정 :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Ⅲ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시 전역에는 선사와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문화유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인천시민은 인천시를 문화유산도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인천시는 현실적으로 국보급 문화유산이 많은 편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강화에 집중되어 있거나, 근현대문화유산 역시 차이나타운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 보호함으로써 시민적 주목을 받게 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인천 대표 문화유산 선정을 통해 인천을 문화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인천이 역사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과 인천시민간에 공존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인천 시민 스스로 인천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대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보호 기반을 마련함
- 대표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선정함으로써 인천 소재 문화유산 성격을 권역별로 특징짓고 권역별 인천 대표문화유산의 보전 및 향유 범위를 확대해 감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국가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의 특징
 - 인천의 문화재는 2018년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 76건 및 시도지정 188건으로, 여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나 광역시 기준으로는 부산, 대구에 이어 3번째인 점에 비추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필요성이 큼
 - 보물 및 사적 중 상당 수 그리고 천연기념물 등이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이 집중된 인천시 중구에 주로 소재한 특징이 있음
 - 반면에 박물관에 소장된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많다고 하기는 어려움
- 인천시민들이 인천을 문화유산도시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기억하는 문화유산도 인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하기 어려움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48.3%이고 관심 있다(매우 관심 2.7% 포함)는 의견이 26.4%에 불과함
 -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이 부합하다는 견해도 긍정하는 견해도 인천을 문화유산도시로 생각하지 않는 설문조사 결과 그렇다 17.8%, 매우 그렇다 2.5%에 불과함
 - 근현대문화유산을 조계지, 차이나타운 정도로 인식
- 인천에 대해 문화유산도시라는 공감대 형성이 시급함
 - 인천시의 경우 인천 출생자가 많지 않고 인구의 전출입이 많으며 생활을 수도권 범위에서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천시민으로서 정체성 함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문조사 결과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인천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인천 대표문화유산은 국가 또는 시도 지정과 등록 문화재(무형문화재 포함) 중 매년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선정하여 집중 보호함
- 인천을 역사문화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종합적 발전 계획이 없고, 문화유산 관련 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18년 문화재정책 목표를 (1) 고려 강도의 꿈 실현 추진, (2) 인천만의 역사문화유산 가치 창조, (3)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 (4)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착실한 추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인천을 역사문화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종합적 플랜은 보이지 않음
 - 강화역사문화단지 조성, 계양산성 박물관,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문학산 역사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계획 등은 점 단위, 시설 단위의 정책으로 인천 문화유산과 연계성이 미흡함
- 세계유산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함
 - 세계유산의 종류

〈표 39〉 세계유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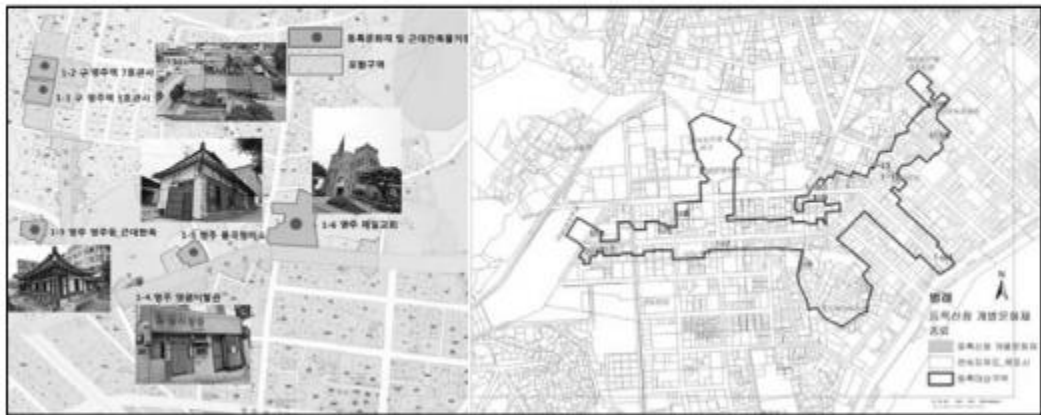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조각품 및 회화,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요소 또는 구조물, 금석문, 동굴주거 및 조형물의 결합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건조물군 : 독립 또는 연결된 건물의 집단으로서 그의 건축술, 균질성 또는 풍경내의 위치로 인하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유적 : 인조물 또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자연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 지질학적 및 지문학(地文學)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복합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각국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의 성격 및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음
- 한국의 고인돌은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만들어진 선사시대 거석기념물로 무덤의 일종이며, 고창, 화순, 강화 세 지역에 나뉘어 분포하고 있음. 한 지역에 수백 기 이상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형식의 다양성과 밀집도 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움.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고인돌 문화의 형성 과정과 함께 한국 청동기시대의 사회구조 및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문화 교류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유산으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2018년 우리나라의〈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음.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거나 장기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문화유산종합계획의 연계성 제고
 -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 역시 일부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2025 도시기본계획에 비추어 문화도시의 명문화가 사라지고 그보다는 녹색도시, 경제활성화, 해양도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인천의 역사문화 기반을 고려한다면 역사문화에 기반을 둔 창의도시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 되어야 할 것임
 - 사람 중심의 국제, 문화,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이 필수적임
 - 중부생활권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목표에 따라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근대역사·해양문화 자원을 활용한 친수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내항~개항장 문화지구~월미도 관광지구를 연계하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게 될 것임
 - 동북생활권 역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매력 증진이라는 목표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주변 수변공간, 계양산 일원, 부평 역사박물관 등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매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계양산성 및 역사공원, 경인아라뱃길을 연계한 “경인아라뱃길~계양산~부평” 역사·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 및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축의 부평·계양, 동인천·구월과 평화벨트축의 강화는 문화유산 기반의 도시계획이 기대됨
- 서울시 미래유산(futureheritage.seoul.go.kr)
 - 미래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서울사람들이 근현대를 살아오면서 함께 만들어온 공통의 기억 또는 감성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할 유산임
 - 선정기준은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 등을 이해하는데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서울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또는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으로서 서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서울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현저하게 도움이 되는 것 등임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미래유산을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유무형의 것으로 확대하였으나,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한정하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것은 제외함
 - 동 조례 제2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음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미래유산은 홈페이지나 SNS, 커뮤니티맵 등을 통한 상시 시민제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고, 미래유산의 발굴과 신청은 시민주도에 의해 상향식 방식이 원칙이나, 서울시 또는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청함
 - 인천의 경우 서울시의 미래유산을 벤치마킹한 주민유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보다는 인천을 대표하는 유산을 우선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의 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고, 대표유산이 주민친화적 성격으로 유도된다면 이를 대표유산이 아닌 주민유산으로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임. 물론 인천대표 문화유산이 반드시 국가나 시도지정 또는 등록문화재에 한정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인력배치 참고 필요
- 운영지원팀 6명
 - 세계유산보존팀 5명
 - 세계유산활용팀 5명
 - 공원관리팀 8명
- 근대 문화유산을 통한 도시 재생
- 문화재청이 새로 도입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 점(點) 단위 개별 문화재 중심의 단선적·평면적 보존관리에 따른 정책의 연계성·통합성 결여, 가치 활용도 제약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문화유산이 도시재생의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점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됨
 - 전북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3곳
 - 문화체육관광부를 시행 기관으로 하여 사업비 1,000억 원(국비 700억, 도비 150억, 시비 150억)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근대문화 자산을 활용해 침체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근대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임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는 문화재청이 역점 구상 중인 역사문화자원 기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구역 내 근대경관 보존·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 지원



〈그림 27〉 (좌)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문화재청 제정 추진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논의 중에 있음
 - 근현대문화유산을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보전할 수 있도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근현대문화유산을 면단위로 보호하면서 보전 및 활용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 신법 제정 이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 중임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 2016년 12월 제안한 이동섭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4259)으로 2018년 12월 7일 국회에서 수정 가결됨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4항)

다.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 및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에 대비
 - 현행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미경과로 인해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 보호제도 도입(제2종 등록문화재)
 - 국회의사당(1975. 9.) 등 1960~1980년대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과 세계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작·형성된 다양하고 많은 사회문화적 유산 등
 -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통해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확대 및 지자체의 근대유산 보호·등록 및 지역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 제도 마련(시·도등록문화재) 대비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인천시 권역별 대표문화유산 선정(주민유산 100선)

- 1차적으로 인천 문화유산 지도 작성 및 특성화
 - 전문가들에 의한 인천시 문화유산 권역 선정 위원회 조직
 -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과 밀접한, 주민들의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 선정
 - 문화유산 지도 작성을 통해 인천 대표 문화유산 선정 및 연계 방향 설정
- 인천 대표 문화유산은 세계유산 및 그 등재 추진 대상 권역과 문화유산 발굴·활용 및 시민의 향유 권역 등 2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권역에 따라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함
 - 인천시 문화유산 권역은 전문가들과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겠으나, 본 연구 과정 중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① 강화권역, ② 중구 근대 개항장 권역, ③ 부평도호부 계양산성 일대, ④ 인천도호부 문학산성 권역, ⑤ 부평 근현대 산업화 권역, ⑥ 중구 및 용진군 도서관 권역 등을 고려할 수 있겠음
 - 권역의 구분은 1차적으로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2차적으로 인천의 문화유산 특성과 향유를 균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인천의 문화유산 권역을 5-6개로 구분한 후 각각의 권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
 - 세계유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육성함
- 역사문화도시 인천을 대표하고 시민의 문화유산 향유를 증가할 수 있는 권역을 5-6개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육성 계획을 수립함
 - 각각의 육성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침
- 인천시를 5개 문화유산권역으로 나눈다면, 각 20여개의 대표문화유산을 선정
 - 유형문화유산 이외에 무형문화유산 또는 스토리텔링 등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유산 선정으로 주민유산이라고 이름붙여도 무방할 것임

- 인천 문화유산 대표 100선 선정 및 상징 아이콘 활용함
 - 2018년 인천 최고 100선 상징 아이콘 설치 상반기 중 20개소 설치 중에 있음
 - 2017년 22개소, 2018년 20개소, 2019년 46개소 상징 아이콘 설치 예정
 - 100선 선정을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하되,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함
 - 경우에 따라서는 100선에 한정될 필요가 없으나, 가급적 몇 가지를 집단적으로 선정하는 듯 100선을 원칙으로 한다면 그 가치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2025인천 도시계획 중 도시재생축, 평화벨트축에 문화유산 고려
- 연도별 단계별 추진
 - 5년 동안 단계적으로 100선 선정
 -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보급, 보물급, 시도문화재급 이외에 주민들의 애착이 가는 문화유산(가칭 주민유산) 발굴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유산 개념 설정 • 권역별 문화유산 가치 및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 지도 작성 • 1년차 지역 구분 및 대표문화유산 선정 • 2년차 각 지역별 10개 내외 문화유산 선정 • 상징 아이콘 논의 • 문화유산 관련 시설 파악 및 지역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 • 권역별 세부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 구체화 • 보존 및 활용 방안 구체화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조례 제정 • 권역별 특성화된 문화유산 보호 및 향유 체계 정립 • 지역유산 활용 모델 구축 및 우수 사례 보급 • 인천 문화유산 대표 100선 선정 및 상징 아이콘 활용 본격화 • 권역별 문화유산 정비 사업, 시설 건립 또는 정비 본격화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2] 권역별 문화유산 센터 선정

- 권역별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센터 선정
 - 각 권역별 문화유산 정보 제공, 방문자 센터, 교육 기능 등을 담당하는 센터 운영
 - 해당 지역에 센터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신설도 고려함
 - 주로 박물관 또는 전수교육관 활용
 - 부평의 경우 노동자 박물관 설립 고려하고 설립 후 현대 문화유산 센터를 부설로 운영

- 권역별 문화유산센터에 기능과 권한을 구체화함
 - 문화유산센터는 독립된 법인을 지정할 수도 있음
 - 문화유산센터에 5-6명의 직원을 상주시키도록 함
 - 학예직 또는 문화유산 전공자가 1명 이상 연구직으로 종사함
- 중부생활권에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근대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개발
 - 개항장 일대 근대역사자원 파악 및 이들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문화유산 센터 선정
 - 대표적인 모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가 직영하는 것을 고려함
- 강화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함
 - 여러 기관이 분산관리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계유산에 걸맞는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함
 - 세계문화유산 현장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아울러 강화생활권의 문화유산 및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복합유산 고려한 접근
 - 예를 들어 강화역사박물관을 센터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
 - 강화역사박물관이 강화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을 종합한 마스터플랜을 수립
 - 현재 소장, 팀장, 학예연구사, 공무원, 청원경찰 등으로 조직되어 있음
 - 역사도시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고도(문화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 : 2018년 용역비(160백만원), 과업공간범위(강화읍 강화산성 일원) 예정으로 과업 내용은 고도 또는 문화지구 분석, 검토사항, 후속조치 제시 등임
 - 2017년 제4회 학술연구용역 심의(2017. 10. 11.) 결과, 주민 수용방안 마련 후 사업 추진(조건부 가결)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중 주민의견 수렴함
 - 갯벌 등 장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함
 - 고인돌을 활용한 다양한 활용,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를 강화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문화유산 관련 시설 지도 작성, 주민 접근성 검토 • 권역별 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 기관 파악 및 활용도 점검 • 권역별 문화유산 센터 1차 지정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시설 정비, 향유 프로그램 다각화, 문화유산 교육과 연계 • 문화유산 센터 체계적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주민 자발적 운영 프로그램 지원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브랜드화

[세부과제 3] 문화유산 관련 시설의 체계적 운영

- 기존 공립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등의 체계적 운영
 - 기존 역사문화시설 60개소(2018년 현재 박물관 26, 민속시설 5, 비영리 문화재법인 29) 현황 및 역할과 기능 파악
 - 기존 공립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인력 충원
 - 문화유산콘텐츠 확충 및 보존 관리 충실화 함
- 박물관협의회 사업 지원 및 민간 역사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구체화
 - 민간 역사문화시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되, 인력, 교육프로그램,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
 - 민간 역사문화 시설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중 지역 주민들에게 기여가 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함.
 -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협의회 사업 지원을 지속하며, 사립박물관 도록발간·박물관 축제 등을 지원함
- 작은 박물관 지원
 - 작은 박물관에 대한 전시·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등록 사립박물관 12개소 중 공모·선정 지원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립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등의 체계적 운영 • 작은 박물관 지원 사업 확대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협의회 사업 지원 및 민간 역사문화 시설에 대한 지원 구체화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박물관 관광 자원화

[세부과제 4]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지속 추진

- 계양산성 박물관 건립
 - 삼국시대 때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대표적 성곽유적으로, 현재 동문과 북문 및 수문이 존재하던 터가 남아 있음
 - 위 치 : 계양구 계양산로 105번길 11(현 연무정)
 - 규 모 : 대지면적 6,739㎡, 연면적 1,999㎡(지하1층, 지상2층)
 - 추진기간 : 2015~2018년(사업비 9,500백만원)
 - 착공(2017. 6. 23.), 준공(2018. 6.), 개관(2018. 9.)
-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건립
 - 2011년 이승훈 묘역을 시 지정 기념물 제63호로 지정하여 관리 중임

- 한국 교회 첫 영세자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이 있는 인천 장수동
- 이승훈의 묘역 일원을 역사체험과 성지순례 명소로 개발해 조성함
- 2018년 3월 현재 건립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위치 : 장수동 산135번지 일원(이승훈 묘역 일원)
 - 규모 : 부지면적 48,032㎡(공원면적 45,831㎡), 연면적 1,363㎡(지상1층)
 - 추진기간 : 2017~2021 (사업비 13,849백만원)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요청(2017. 11. 14. 시설계획과)
 - 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도로) 등 행정절차 이행(2017. 11.~2019. 12.), 공사(2020~2021)
- 2018년 9월 문학산 역사관 개관
 - 문학산성 복원사업을 추진해 길이 577m의 문학산성과 성내 자리 잡고 있었던 안관당, 봉수대 등 문화유산의 원형을 복원 중임
 - 문학산 역사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
 - 위치 : 남구 학익동 78-24 (문학산 정상 군부대 박사)
 - 규모 : 150㎡(지상1층)
-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 송암 박두성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조성 사업회 지원 필요함
 - 복원사업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인천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위치 :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 일원
 - 규모 : 대지면적 2,244㎡, 연면적 82.5㎡(지상1층)
 - 추진기간 : 2018~2019 (사업비 1,100백만원)
 - 발굴 및 기초조사·부지매입·설계·인허가(2018), 복원(2018. 9.~2019. 2.)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립사업 지속 추진
 - 건립 후 충실한 운영을 위한 사전 연구의 필요성이 큼
 - 위치 : 연수구 송도동 24-8(센트럴공원 내)
 - 규모 : 부지 19,418㎡, 연면적 15,650㎡(지하3층·지상1층)
 - 주요시설 :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체험관, 수장고 등
 - 추진기간 : 2016~2021 (사업비 81,618백만원)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및 계약(2017. 5.~11.), 기본·실시설계(2017. 11.~2018. 10.)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공간 조성 계획 및 사업 결과 평가 미완공 역사문화공간 조성 지속 추진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공간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강화 역사문화공간 전문인력 충원 미완공 역사문화공간 조성 지속 추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문화공간 네트워크 강화 미완공 역사문화공간 조성 지속 추진

[세부과제 5]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및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
- 문화재청 지원사업인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및 도시재생 재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함
 - 지역의 근대유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함 : 문화유산을 카페, 커뮤니티 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머물며 다양한 역사, 문화, 음식 등 문화체험과 지역문화 창조가 가능한 인천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 거점 공간 구축
 - 근대건축이 갖는 이국적 특징을 살려 내외국인의 지역 여행 거점으로 브랜드화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 근현대유산의 체계적 조사와 발굴, 등록 다양화
 - 다양성을 지닌 근·현대유산의 체계적 조사로 새로운 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문화재 등록을 통한 다양한 문화유산 자원 확충

■ 사업효과

-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 확립
- 권역별 문화유산 특징을 도시계획에 연계
- 강화, 개항장 등 인천 상징 문화유산 권역의 집중 보호 및 향유 체계 수립

■ 소요예산 : 56,7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인천시 권역별 대표문화유산 선정	250백만원	신규
권역별 문화유산 센터 선정	500백만원	신규
문화유산 관련 시설의 체계적 운영	1,000백만원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지속 추진	55,000백만원	지속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및 도시재생	-	신규, 문화재청 사업 용도

▶ 2. 인천형 문화유산 보호 패러다임 구축

1)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제고

(1)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및 세계유산등재 추진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보물 전등사 대웅전의 국보 지정 등을 통해 국보급 보물 소재지로서 의의와 시 기념물 계양산성의 사적 지정을 통해 지역 문화재의 국가적 보호
-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유산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음
- 강화 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한 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이전에도 강화 지역 전체를 예고 뮤지움,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조성할 수 있는 상황임
 -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체계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노력 강화
 - 5진 7보 54돈대 등 조선시대 해양관방유적은 세계문화유산 기준에 적합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시지정문화재 중 역사성과 향토성·예술성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우수한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함
- 향토문화보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자료 중 그 가치가 우수한 문화재를 조사하여 시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등급을 조정함
-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등급조정을 위해 시문화재위원회 업무추진을 보다 원활히 하고 관련 연구 지원을 강화함
- 인천지역 사적 등 문화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을 거쳐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되면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위상과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자연스럽게 세계적인 홍보가 이뤄져 관광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2018년 지정 문화재 통계

<표 40> 2018 인천시 지정 문화재 통계

국 가 지 정(76건)								시 지 정(188건)						총 계
소 계	국 보	보 물	사 적	명 승	천연 기념물	중 요 무 형 문화재	등록 문화재	소 계	유 형	기 념 물	무 형	민속 자료	문화재 자 료	
76	1	28	18	1	14	6	8	188	68	65	28	2	25	264

○ 위원회 현황

<표 41> 2018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구 성 현 황	설 치 근 거(심의내용)	위촉일(임기)
문화재위원회	20명 위원장:민간	•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8조(위원회의 설치)	2017. 8. 19. (2년)
무형문화재위원회	14명 위원장:민간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20조(위원회의 설치)	2017. 8. 19. (2년)
시사편찬위원회	17명 위원장:시장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	2015. 6. 1. (3년)
지명위원회	9명 위원장:부시장	• 인천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4조(기능)	2016. 3. 3. (3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8명 위원장:민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통사찰 보존위원회)	2017. 7. 1. (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10명 위원장:민간	•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4조(위원회의 기능)	2017. 3. 23. (2년)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절차 및 노력 강화 방향

- 세계유산 : 한양도성(2017년 등재결정) 등 등재 추진
- 국가별 매년 2건으로 제한(문화유산, 자연유산 포함) → 1건으로 제한(2018년). 한국의 전통산사
- 인류무형유산 : 씨름(2018년 등재결정) 등 등재 추진
- 세계기록유산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제보상운동기록물(2017년 등재 결정) 등 등재 추진
-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한 적극적 대응 강화가 필요한 바, 세계유산의 경우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문·심사기구(ICOMOS, IUCN)와 당사국간 직접 면담 등 공식적 절차화 → 심사기구와의 네트워킹 강화 필요 : 관련 민간단체 지원 예산 확대 필요하고, 세계유산 자문·심사기구 면담, 당사국 설명회, 세계유산위원회 OT, Info Session, Working group meeting 등 각종 관련 회의의 적극적 참석을 통한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강화 : 관련 국제회의 참석 확대 필요함
- 세계유산 등의 등재 환경 악화에 따른 관련 대책 등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등재 과정 명확화 및 고도화
- 2016년 현재 잠정목록 15건 중 경쟁력 있는 잠정목록에 대한 잠정목록 연구지원 국고보조사업 실시(OUV 도출 연구 등 지원) 중인 바, 인천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발굴 강화
- 한국의 서원, 서남해안 갯벌, 가야고분군 등(내역사업 : 세계유산잠정목록 연구지원, 국비 지방비 5:5)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강화 갯벌에 대한 관심 필요
- 문화재청은 향후 관련 사업예산의 확대를 통한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한 유산 지원 확대 중이고, 잠정목록 점검 및 재검토로 향후 신청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 중임
- 기 등록된 잠정목록 중 경쟁력이 없는 유산은 재검토 대상이므로 인천 지역 잠정목록 후보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가치가 큰 유산들을 향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정식 등재하는 예비목록으로, 최소 1년 전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하고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짐
- 고창, 순천 등 서남해 갯벌 세계유산 등재 공조
 - 전북 고창군이 건강한 갯벌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
 - 순천만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및 가치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은 와덴 해(海)의 날(Wadden Sea Day)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는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와덴해 갯벌은 독일·네덜란드·덴마크 3개국에 접한 세계 최대 규모의 갯벌임. 와덴 해의 갯벌은 국제적인 협력으로 건강한 갯벌의 보전과 이용의 모범적 사례로 꼽힘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시 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 승격

- 문화재의 국보 및 사적, 보물로 승격 지속 추진
 - 보물 「강화 정수사 법당」, 「전등사 대웅전」의 국보 지정 지속 추진
 - 市기념물 「계양산성」, 「정족산사고 및 정족산성진지」의 사적 지정 지속 추진
 - 市유형문화재 「원대철제범종」 등 5종의 보물 지정 지속 추진
- 인천 대표문화유산 선정을 통해 국가 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대상 발굴
- 인천의 국보급 문화유산 발굴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및 연구자 지원
- 시지정 문화재 가치 재발굴 및 문화재 지정 정비
-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및 보호 체계 재정립
- 인천 소재 박물관 컬렉션 확충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국가지정 승격 대상 문화재 선정 및 연구 • 시지정 문화재 확대
3-4년차	• 국가지정 승격 위한 문화재 정비 및 승격 본격 추진
5년차	• 향후 국가지정 승격 대상 선정

[세부과제 2]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016년 문화재청 심의 보류 의견에 대한 재검토 및 강화해양관방유적의 가치 홍보
- 문화재청 세계유산 확대 및 활용 강화 정책과 협업

- 강화해양관방유적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책 협의
- 해양관방유적(강화산성·강화외성·삼랑성·돈대 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계획은 다음과 같음
 - 잠정목록 등재 관련 강화군과 지속협의, 돈대(3개소) 정밀실측(100백만원)
 - 가치홍보(50백만원) : 라디오 프로 주제별 제작(15회), 시민답사(4회) 등
- 2015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활성화
 -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추진단을 둘 수 있고, 세계유산추진단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방유적 정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 추진단 본격 활동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방유적 잠정목록 등재 추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관방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부과제 3] 강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전라남도에서는 갯벌 등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신안 중도 및 무안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순천만, 보성 벌교, 무안 신안 등 서남해안 갯벌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중임
- 전라북도 역시 2012년경부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세계유산 등재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부안·고창의 갯벌이 최종 등재 추진지역으로 확정되도록 기초자치단체,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음
- 그러나 강화의 경우 군과 주민들이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 인해 잠정목록 신청조차 하지 못해 왔음
- 갯벌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와덴 해 뿐인데, 강화갯벌(서해갯벌)은 와덴 해와 함께 세계 3대 갯벌에 해당함
- 최근에는 남북 화해 분위기에 따라 인천 강화도 갯벌과 북한 황해도 갯벌을 동시에 유네스코 (UNESCO)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제안도 있었음
- 순천-보성, 고창, 군산, 서천 등과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한국 내 갯벌 등재 추진 네트워크 형성
3-4년차	국내 협조체계 완비 및 국제적 등재 노력
5년차	자연유산 등재 본격 추진

Ⅱ 사업효과

- 인천지역 국보 및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건수 증대로 인해 역사문화도시로서 품격 제고
- 강화 지역 세계유산 확대 및 강화 에코 뮤지엄 기반 마련
-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체계적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 자원으로 자리매김
- 인천지역 문화유산이 국가지정 또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경우,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

Ⅲ 소요예산 : 98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시 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 승격	30백만원	지속
강화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750백만원	지속
강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200백만원	신규

(2) 인천 무형유산의 정체성 재정립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 무형유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무형유산 및 무형문화재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삼고자 함
- 인천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타 시도 및 국가와 비교하여 정체성을 확립함
- 2016년 새롭게 정리된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재 지정된 무형문화재 종목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의 새로운 정책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함
- 신규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 종목을 발굴, 지원을 확대하여 인천 무형문화재의 다양성을 확보함
-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중 국가 무형문화재로 상향 지정될 종목 현황 및 지정 가능성을 파악함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을 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특성을 파악함
-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정책의 방향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Ⅱ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일부개정 2016. 12. 20)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본 원칙이 원형에서 전형으로 바뀜.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 과거의 것을 그대로 지키는 원형중심에서 벗어나, 개인간 지역간 편차를 어느 정도 반영한 전형중심으로 변모함. 아래 법률 3조를 참고

※ 제3조 (기본원칙)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새로운 법의 제정에 따라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및 범주가 확대됨. 과거에는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이 아니었던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이 새롭게 추가되었음. 아래 법률 14조 1항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

※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예술 등
-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 마. 절기풍속(節氣風俗),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전통적 생활관습 등
- 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의례 등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중에서 일부 기준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가.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
 - 나.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다. 표현미, 형식이 등이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라. 제작 기법 및 관련 지식이 전통성과 고유성을 지닌 것으로서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마.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 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새로운 법의 제정에 따라 시도 무형문화재도 국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앞으로 국가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점을 가지고 수립,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무형문화재 분류안에 따른 지정 현황 파악 및 비지정 무형유산 세부 목록 작성

-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목록 : 현재 모두 28종목이 지정되어 있음. 7호 가곡과 10호 범패와 작법무는 각각 복수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음

〈표 42〉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목록

지정 번호	종목 이름	지정 번호	종목 이름
1	삼현육각	14	단청장
2	단소장	15	인천수륙재
3	인천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16	인천근해도서지방 상여소리
4	대금정악	17	완초장
5	주대소리	18	서곶 들노래
6	대금장	19	갑비고치농악
7	1-남창가곡 2-여창가곡	20	휘모리잡가
8	강화 외포리고창굿	21	경기12잡가
9	대금장·일반대금	22	목조각장
10	1-범패와 작법무(바라춤) 2-범패와 작법무(나비춤)	23	판소리 고법
11	규방다례	24	꽃맞이굿
12	강화용두질소리	25	지화장
13	자수장	26	부평두레놀이

- 지정 범주에 따라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와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단순 비교해보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는 놀이 축제 분야에 지정 종목이 없음. 전통지식 및 구전전통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표 43〉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범주별 현황

구분	공연예술	전통기술	생활관습	사회의식	놀이축제	전통지식	구전전통	계
숫자	46	51	7	18	16	2	0	140
비율(%)	32.8	36.5	5.0	12.9	11.4	1.4	0.0	100

〈표 44〉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범주별 현황

구분	공연예술	전통기술	생활관습	사회의식	놀이축제	전통지식	구전전통	계
숫자	11	8	3	6	0	0	0	28
비율(%)	39.3	28.6	10.7	21.4	0	0	0	100

- 타 시도 무형문화재 종목과의 비교를 통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종목의 특성을 도출해도 놀이축제 분야의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정됨

<표 45> 시도별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보유자, 조교 현황 포함)

구분	전통공연 예술			전통 기술			전통생활 관습			의례 의식			전통놀이 무예			전통 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계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지정	보유자	조교
서울	12	18	4	22	18	5	3	4	-	8	70	3	4	5	5	-	-	-	-	-	-	49	52	17
부산	5	5	17	9	9	8	-	-	-	3	7	15	7	23	45	-	-	-	-	-	-	24	44	85
대구	12	11	17	4	3	6	1	1	-	-	-	-	-	-	-	-	-	-	-	-	-	17	15	23
인천	11	15	12	8	7	1	3	1	3	6	5	7	-	-	-	-	-	-	-	-	-	28	28	23
광주	10	9	3	7	8	-	-	-	-	2	4	1	1	1	1	-	-	-	-	-	-	20	22	4
대전	8	8	4	7	8	2	4	3	1	4	2	2	1	1	-	-	-	-	-	-	-	24	22	9
울산	-	-	-	4	2	1	-	-	-	1	-	-	-	-	-	-	-	-	-	-	-	4	2	1
경기	13	14	9	36	32	20	4	4	2	7	4	3	6	2	4	-	-	-	1	1	1	67	57	39
강원	8	15	18	11	12	3	1	1	-	5	2	4	4	4	10	-	-	-	-	-	-	29	34	35
충북	4	4	12	17	20	5	3	3	-	3	1	-	-	-	-	-	-	-	2	1	-	29	29	17
충남	11	9	11	18	14	2	8	7	3	9	9	8	5	8	8	-	-	-	1	1	-	52	48	32
전북	22	28	4	26	39	-	5	4	-	3	1	-	6	1	-	-	-	-	-	-	-	62	73	4
전남	24	22	7	16	14	3	2	2	-	5	7	-	2	1	4	-	-	-	-	-	-	50	46	14
경북	15	11	29	16	19	16	5	4	9	-	-	-	1	-	-	-	-	-	-	-	-	37	34	52
경남	17	17	48	8	8	5	1	1	-	8	12	46	5	8	12	-	-	-	-	-	-	39	46	111
제주	9	8	6	5	4	5	2	-	2	5	1	2	-	-	-	-	-	-	-	-	-	21	13	15
세종	1	1	-	1	1	-	-	-	-	-	-	-	1	1	-	-	-	-	-	-	-	3	3	-
계	182	195	201	215	218	82	42	35	20	69	125	91	43	55	89	0	0	0	4	3	1	555	568	481
아북5도	8	10	4	-	-	-	-	-	-	4	4	5	3	4	7	-	-	-	-	-	-	15	18	16

-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비지정 무형유산 목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염두에 둔 종합조사를 진행하여야 함
- 비지정 무형유산 중 지정 가능성이 높은 목록 작성을 위해 타 시군의 목록 작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국립 무형유산원의 주관과 협조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비지정 무형유산 목록을 작성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46> 시군별 비지정 무형유산 중 지정 가능성 높은 종목 목록

경남 진주	숫대쟁이 놀이, 진주향제줄풍류, 시조창, 이선유 동편제 판소리, 탈 공예, 장석장, 은어늬시와 은어밥, 구전전통 이야기들, 진주 냉면, 진주 비빔밥, 진주유림계, 우제, 명석각 향례, 이차순제, 의암별제, 소싸움놀이, 개천예술제, 유등놀이
충남 당진	안섬 배치기, 대호지면 농요, 남사당과 새납쟁이, 당진의 마을농악, 지역별 친목농악단, 짚풀공예, 대장장, 침쟁이와 침술요법, 물리적 자극을 병행한 복합요법, 주술적 민간요법, 동식물을 활용한 약물요법, 구전전통 이야기들, 호박치, 실치회무침, 짚가리술, 연도, 당진무속, 한진리 당제, 상공원 노신제, 남이홍장군 불천위 제사, 벼가릿대 거북놀이, 농기문화
전북 남원	조갑녀류 살풀이춤, 강도근류 단가, 남원 시조창, 부절리 짚풀공예, 남원 방구부채, 남원 옹기, 남원 키, 남원 식도, 구전전통 이야기들, 남원기교회, 내촌 음성과 여근곡, 남양방씨 칠석 거풍제, 부사 김희와 유애묘 제향, 남원 와돌이 제사, 남원 사직단제, 지리산굴 돌벽수, 평촌마을 당산제, 감석마을 당산제, 불천위 제례, 남원 마을축제 달집태우기, 춘향제, 춘향놀이, 상동굿놀이
전북 전주	여성농악, 부채도배, 대장장이, 장항, 복숭아재배, 전주미나리재배, 구전전통 이야기들, 기령당, 전주 과하주, 전주공나물, 전주페백음식, 관우신앙, 독경, 생전예수재, 전주재수굿, 조정단대제, 단오물맞이, 전당리백중술맥이, 전주대사습놀이

- 세부 목록 작성을 위한 종합 조사 필요성 대두
- 타 시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인천지역은 다음과 같은 무형유산에 대한 우선 조사 필요

<표 47> 무형문화재 지정 가능성이 높은 무형유산 일람

음식 분야	인천 해안 지역의 다양한 음식 문화 유산, 중국 음식 유산, 인천의 독특한 술 유산
공예 분야	인천의 다양한 공예 분야 유산
농경어로 분야	인천 연근해의 다양한 어로 기술 유산, 인천의 전통 농법 재배 유산
마을 신앙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한 마을 신앙 유산
예술 분야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국악 및 무용 유산

- 서울시 미래유산, 각 시도 대표 무형유산 목록 등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무형문화재 종목 중 국가 무형문화재로 상향 지정 가능성 종목 발굴 및 신청
 - 28종목 중에서 보편성을 가진 종목을 우선 발굴
 - 기록화 도서의 우선 간행 및 영상물 확보
 - 지역 전문가와 협의하여 국가 무형문화재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자료 확보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현황 파악 • 무형문화재 개별 종목 종사자 파악 • 인천과 타 시도의 유사 종목 현황 파악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유산 종합 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비지정 무형유산 중 지정 가능한 종목 발굴 •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확장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지정 시행 • 유사 종목의 통합 및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세부과제 2] 권역별 무형유산 정체성 확립

- 인천의 무형유산 권역 설정의 필요 : 내륙 지역, 해안 지역, 섬 지역으로 세분화 구분 필요
- 인천의 무형유산 중 무당굿을 대상으로 한 권역 설정의 예

1. 인천 내륙굿의 양상

- ▽ 인천내륙굿은 서울지역과 가까운 지리적인 탓으로 서울굿과 닮은 점이 매우 많음. 인천에서 주로 활동하는 무속인 장○근씨의 '나는 굿을 인천에 거주하는 신아버지에게 배웠다. 하지만 나중에 서울을 나가보니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안 서울지역으로 굿을 청배나가기도 했지만, 일을 나갈수록 서울굿에 대한 의문이 들어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청배나가는 것을 멈추었다. 그 이후 나름의 인천굿을 전승시키기 위하여 인천굿을 찾아 배우려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히 서울식으로 굿을 하는 무당들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도 서울굿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전언을 바탕으로 분석
- ▽ 하나는 인천굿이 서울굿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천굿이 서울굿과는 변별성이 있다는 것임
- ▽ 인천과 서울의 무속음악은 유사성이 매우 높음. 1984년 인천 연행굿 장단과 2005년 서울 연행굿 장단의 유사성이 높음

<표 48> 인천굿과 서울굿의 장단 비교

굿거리	인천 정영숙 연행 굿 장단(1984년)	서울 김영석 연행 굿 장단(2005년)
부경청배 가망청배	청배장단	청배장단
장군거리	도도리, 별상장단	도도리(상산장단), 별상장단
대감거리	굿거리, 당악	굿거리, 당악
제석거리	만수반이, 굿거리, 당악, 타령	만수반이, 굿거리, 당악, 타령
성주거리	굿거리, 당악	굿거리, 당악
창부거리	굿거리, 당악, 타령	굿거리, 당악, 타령

▽ 곳거리는 명확하게 독자성이 있음.

<표 49> 인천 진오기곳과 서울 진오기곳의 비교

인천 정영숙 진오기(1988년 연행)	서울 신현주 진오기(2005년 연행)
1. 부정거리(부정 청배, 가망청배)	1. 부정 가망 청배
2. 잠군거리(잠군, 성제, 별상, 초영실, 신장)	2. 상산거리
	3. 별상거리
	4. 초영실
	5. 신장거리
3. 대감거리	6. 대감거리
4. 창부거리	7. 창부거리
5. 뜯대왕거리(시왕가망, 종디, 말명, 사제)	8. 뜯대왕
	9. 사제삼성
6. 말미	10. 말미
7. 뉘보냄(도령, 길가름, 상식, 훗영실)	11. 도령돌기
	12. 길가름
	13. 상식
	14. 뒷영실
	15. 시왕군웅
8. 뒷전	16. 뒷전

<표 50> 인천 재수곳과 서울 재수곳의 비교

인천곳(2005년 김형근 연행)	서울곳(2005년 박명호 연행)
1. 주당물림	1. 주당물림
2. 부정 가망청배	2. 부정 가망청배
3. 진작	3. 진작
4. 불사거리	4. 불사거리
5. 산거리	5. 산거리
6. 가망 대신 말명거리	6. 조상거리(가망 대신 말명 조상)
7. 대안주(상산 별상 신장 대감)	7. 대안주
8. 조상거리	8. 제석거리
9. 제석거리	9. 성주거리
10. 성주거리	10. 창부거리
11. 창부거리	11. 뒷전
12. 서낭거리	
13. 창부거리	

2. 인천 해안국의 양상

▽ 강화도 외포리의 독자적인 인천국의 존재

- (1) 수살맞이굿 (2) 우물굿 (3) 돌돌이 (4) 당오르기 (5) 거리부정(선부정) (6) 부정거리 (7) 조상거리 (8) 제석거리 (9) 성주거리 (10) 장군거리 (11) 별상거리 (12) 왕신거리 (13) 대감거리 (14) 창부거리 (15) 선주굿 (16) 기내림 (17) 군웅굿 (18) 막뒤놀이 (19) 뒷전

▽ 굿거리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1) 굿청 정확하고 준비하기 : (1)수살맞이굿 (2)우물굿 (3)돌돌이 (4)당오르기 (5)거리부정(선부정)
 2) 여러 신령 청배하기 : (1)수살맞이굿 (6)부정거리
 3) 신령에게 공수듣기 : (7)조상거리 (8)제석거리 (9)성주거리 (10)장군거리 (11)별상거리 (12)왕신거리 (13)대감거리 (14)창부거리
 4) 풍어의 직접적 기원 : (15)선주굿 (16)기내림 (17)군웅굿 (18)막뒤놀이
 5) 굿 마무리 : (19)뒷전

▽ 새로운 흐름으로 황해도국의 인천 해안국에 정착 : 국가 무형문화재82-2호 서해안대동굿 및 배연신국의 존재

3. 인천 남부 화랭이 무속의 잔존

▽ 경기도당국의 존재, 경기남부와 인천남부의 동질성을 확인

▽ 국가 무형문화재 90호로 지정되어 활동 중

- (1) 당주굿 (2) 거리부정 (3) 안반고수례 (4) 부정굿 (5) 도당모셔오기 (6) 돌돌이 (7) 장문잡기 (8) 시루말 (9) 제석굿 (10) 본향굿 (11) 터벌림 (12) 손굿 (13) 군웅굿 (14) 도당모셔다 드리기 (15) 중굿 (16) 뒷전

이러한 도당굿의 거리별 의미는 다음과 같음

- 가. 굿판 정확하기 : 당주굿, 거리부정, 안반고수례, 부정굿
 나. 도당신 모시기 : 도당신모시기, 돌돌이
 다. 군웅신 대접하고 확인기 : 장문잡기, 시루말(칠성굿)
 라. 여러 신 모셔 복 나누기 : 제석굿, 본향굿, 손굿, 군웅굿
 마. 놀면서 굿판 축제화하기 : 터벌림, 중굿
 바. 굿의 마무리 : 뒷전

4. 인천 무속의 존재 양상

해 안 국	황해도국	
	인천 내륙국	서울국과 유사한 국
	화랭이국	

〈그림 28〉 인천 무속의 권역별 존재 양상

5. 인천 무속의 존재 양상을 기반으로 한 인천 무형유산 권역 설정

도시 해안지역	인천 북부 지역	
	인천 서부 지역	인천 동부 지역
	인천 남부 지역	

〈그림 29〉 인천 무형유산 권역 설정의 예

- 이러한 권역 설정을 위해서라도 인천 무형유산 종합조사가 필요
- 다양한 항목 설정 후 조사를 실시. 이후 권역 설정. 유형유산, 시민유산 등과 연계하여 복합적인 권역 설정 필요
-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권역 설정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타 사업과 연계 시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유산 종합 조사 실시 • 각 권역별 조사 항목 및 질문지 작성으로 준비
3-4년차 (타사업과 연계 시 5년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유산 종합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권역 구분 • 권역별 무형유산 현황 파악 및 조사 연구
5년차 (타 사업과 연계 시 5년 차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유산 권역별 특성 반영한 텍스트 발간 •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육 자료 계획 수립

■ 사업효과

-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가능

■ 소요예산 : 228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무형문화재 분류안에 따른 지정 현황 파악 및 비지정 무형유산 세부 목록 작성	178백만원	신규
권역별 무형유산 정체성 확립	50백만원	신규

2)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 관리

(1) 문화유산 보존과 재산권의 조화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재산권 보장 간의 다양한 갈등 요인 지속
 - 문화재보호와 도시계획간 정합성 제고, 현상변경 허가권한 지방 이양 지속 확대, 합리적 주민보상 대책 마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활용을 통한 규제에서 공존으로 정책 전환 필요
-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수조사 등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 사업
- 인천지역 미등록 문화재의 실태조사 및 가치 평가 이전의 멸실에 따른 문제 등이 발생³²⁾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사업자 부담, 검증절차 장기화 등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필요
 - 소규모 발굴조사, 민간 지표조사 등 국가 지원을 통한 부담 경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절차 개선을 통한 보존관리 강화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건축문화재의 항구적 보존 강화
- 규제합리화를 통한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의 조화
-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
- 개항장 내 건축물이 가로 경관 등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어 특별한 보전과 지원이 필요(지원금, 용자에 대한 이자 등), 단, 무료 개방 등 공적 사용을 전제
- 문화재청의 역사문화환경 관련 법령 지침 재개정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문화유산 보존 정책 수립
- 자연재해에 대비한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등 추진
- 인천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합리화 및 신뢰도 제고(지역 주민 의견 진술 기회 확대)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2017년 5월 옛 비누공장(애경사) 건물 철거
 - 중구 송월동 인천역 원편에 있는, 1930년대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인 옛 비누공장(애경사)이 철거되었는데, 철거 이유는 근대건축물이 모여 있는 마을인 동화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함이었음

32) 윤태현, “주차난에 사라진 115년 근대건축물 인천공단 최초 건물 철거”, 연합뉴스, 2017.05.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111700065.HTML?input=1195m>)

- 애경사는 인천지역 공단의 시초로서 가치가 있었으나, 인천시 중구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보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철거를 강행함
- 인천역은 1960년에 만들어진, 수도권 전철 역사로는 유일하게 그 원형을 간직한 곳이지만, 코레일은 인천역을 철거하고 25층의 복합역사를 신축하겠다고 함
- 과거에도 문화재로 예고되었던 대한증권거래소, 스카라 등이 무단 철거되는 사례가 있었음
- 애관 극장은 1894년 무렵 우리나라 최초 활동사진 상설관 협률사로 시작하였고, 1925년 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증가 및 보호 체계 구축
 - 근대건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의 조례들은 대상의 설정에 있어 등록문화재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한계 및 보다 다양한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 등록문화재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수량이 등록되었으며, 전남이 77건, 경기도 69건, 전북 59건, 충남 51건 순으로 확인됨(2017년 현재)
 - 서울, 경기, 충남의 경우 박물관 소장 동산 문화재가 많기 때문이고, 인천, 전북(군산), 전남(목포, 고흥-소록도), 충남(강경) 등 건조물인 등록문화재가 집중

〈표 51〉 등록문화재 지역별 현황

구분 \ 지역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681	185	18	11	7	13	21	6	0	69	37	27	51	59	77	36	42	22

- 현재 문화지구로 선정된 곳은 서울 인사동, 서울 대학로,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제주 지지예술인 마을 등 5개임. 이 중 「근현대문화유산법」에 의거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와 가장 유사한 문화지구로는 인천 개항장을 들 수 있음. 다른 문화지구와 달리 인천 개항장은 한국 근대문화의 발상지로서 근대 문물의 최초라는 역사성을 부여받은 유산들이 건조물의 형태로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임 (임초롱·정상우 외, 2017)
- 2010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공공기반시설 확충 부문에 62,108백만 원, 지역문화 공간화 및 활성화에 7,079백만 원을 예상하고 있음. 이 중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과 관련 있는 예산만을 분류하면 거리 조성 등 8,266백만 원임. 여기서 총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4,133백만 원이 소요됨
- 근대건조물 보호 또는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부산, 대전, 광주, 창원, 통영 등 5곳 :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공주시, 창원시, 통영시 등에서 근대건조물 보호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2010.07.07. 시행)」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2011.04.08. 시행)」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15.12.28. 시행)」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15.02.16. 시행)」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16.09.28. 시행)」

○ 조례 간 비교

- 조례의 목적 및 지정 기준, 지정 주체 및 절차, 지원 정책 등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
- 시기에 대한 지정 기준은 거의 동일하지만, 대전광역시 조례가 보다 구체적
- 지정 절차는 심의를 거쳐 지정, 소유자 등과 협의 및 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 다만 통영시의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는 없음

○ 근대건조물 보호 관련 조례와 등록문화재 제도의 비교(임초롱 외, 2015)

- 지정(등록) 기준: 기준 유사, 근대건조물 보호 조례는 지정·등록문화재 제외
- 규제: 근대건조물은 현상변경 시 신고 등의 규제 내용 없음
- 관리 및 수리: 근대건조물은 관리 및 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음
- 지원: 근대건조물은 세계 혜택은 없으며, 보존·관리를 위한 매수 비용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통영시의 경우,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 가능)
- 기타 특례: 근대건조물은 기타 특례 없음

○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 등이 조례 제정 근거
- 조례에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와 주민협의회 규정이 되어 있는 바, 활성화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천시 중심의 지원책 마련 필요

○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 고도(古都)의 경관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사업시, 고도 지정지구내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 사업비 보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사업비 보조를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 중임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는 바, 주민지원 사업에는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고도 주거가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위해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건축양식) 건축 시 최대 1억원 지원

〈표 52〉 국가별 고도(古都) 보존대책(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6)

나라별/지역	관련제도/보존대책
오스트리아 빈	• 1972년 보전지구 제정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1967년 고도시보전법 제정
스페인 톨레도	• 199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영국 에딘버러	• 세계유산('95년) 등재 • 신도시 보전과 구도시 재정비 추진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
일본 가나자와	• 1968년 전통환경보존조례 제정 • 1989년 전통경관조례 제정 • 역사문화환경을 연계한 전통문화 활성화
일본 아스카무라	• 1980년 아스카법 제정 • 아스카무라 전역 보존지구 지정
일본 나라	• 특별보존지구 지정 등 엄격한 행위규제 및 주변 경관관리

Ⅰ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재산권 침해 논란 관련 주민 설득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최근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기준 고시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조정되어 왔음
- 문화재 보존시설 등 불가피 시설을 제외하고 고시된 구역별 허용기준 이상의 건설공사 시 제반행위가 심의를 통해 부분별 제한으로 조정되어 왔음
- 그러나 여전히 재산권 침해 논란이 많은 지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주민 설득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함
- 문화재청을 통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비교형량함
- 문화재 보존구역과 현상변경 관련 개선안(지역별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합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마련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청취
3-4년차	• 재산권 침해 논란 지역 선정 및 기준 재검토, 문화재청 기준과 비교검토
5년차	• 주민 수용 가능한 합리적 현상변경기준 마련

[세부과제 2] 강화지역 보존에 따른 재산권 보장 : 지표조사 발굴조사 공영제 확대 ——

-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 지역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절차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관리에 따라 시행도면 등 고시함.
 - 발굴조사 허가제 개선 및 매장문화재조사 현장관리 및 지자체 역할을 강화함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전반(지표조사-처분-발굴조사) 연계 검증 시스템 운영·공개함(문화재청 2017년부터 실시)
 - 매장문화재 보호 홍보, 전문인력 교육 및 발굴현장 모니터링 등 민간협력
-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보존유적 관리 및 활용지원 등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를 통한 주민 편익 제고
-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존지역은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발굴조사 필요 지역 선정 및 현재 조사지원 예산 재검토
3-4년차	•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확대
5년차	• 평가 및 향후 계획

[세부과제 3]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 방안(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의 조화) ——

- 등록문화재 및 근현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 프로젝트
 - 건조물 중심의 역사문화자산 전수조사(2018년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진흥시행계획 수립 연구)
 - 안전성 및 수리 등 지원 필요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
 - 개화기 건축유산뿐만 아니라 항만, 부두, 포구참고건물 등, 한국전쟁 관련 건조물, 산업화 시기 건축 공장과 산업 인프라 등 조사
 - 등록문화재 및 근현대건축물 보전 목록을 작성하고 활용 대상 선정
 - 입법 추진 중인 시도등록문화재 등록 예정 근대건축물 조사 및 연구
 - 실태조사 결과 기록화 및 DB화 주기적 조사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를 최근 논의 중인 근현대등록문화재 지구로 활성화
 - 인천 개항장에 대한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 인천 대표 문화유산 선정 정책과 연계
 - 지원에 대한 특례 확대(세제 지원, 보조금, 건폐율과 용적률)
 - 성공 사례 확대

- 철거 예정 또는 훼손 위험시 긴급보호 조치 구체화
- 인천지역 근현대문화유산 수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전문가 육성
- 근대건축문화재에 대한 연구 지원 시스템 확보
 -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 공법
-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원
 - 개인 소유자, 관리자의 보존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개인 소장자, 소유자, 관리자 대상의 보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문화재청과 연계하여 실시
-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보전 및 활용 프로그램
 -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시민단체 활동 지원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훼손 또는 철거 대비 문화재 전수조사(경비 지속)
3-4년차	- 훼손 예방 및 문화재 보전 방안 마련
5년차	- 평가 및 향후 계획

Ⅱ 사업효과

-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한 주민 설득으로 사회통합 기능 기대
- 문화재 보존과 재산권 보장으로 문화재 활용 활성화
- 문화재보존과 지역개발의 조화로 갈등 예방 및 문화유산 도시의 이미지 구현

Ⅲ 소요예산 : 2,00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재산권 침해 논란 관련 주민 설득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	지속
강화지역 보존에 따른 재산권 보장 : 지표조사 발굴조사 공영제 확대	500백만원	개선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 방안	1,500백만원	개선

(2)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체제의 정비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재안전관리 상시관리 활동 역량 지속 강화했으나 한계
- ICT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현장 24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중점보호주의에 따른 비지정문화재 관리 미흡
 - 지속적 조사 및 지정 확대를 추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필요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인천 소재 문화재 상시관리, 전수조사 등 예방적 문화재관리대책 구축
- 근대건축물 철거 논란으로 건축부서 및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협업 추진
- 문화재돌봄사업 제도 법제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및 돌봄사업 운영 전문화, 고도화
 - 돌봄사업의 지도·감독 기능 강화
- 화재 위주 대책에서 지진 등 복잡 다양한 자연 인위재난에 대비할 필요
- 방재인프라 및 관리체계수요 대비 지원
- 문화재 가치 제고 및 인천시민 자긍심 제고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 모니터링
 - 사업 목적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문제점 상시 사전 점검 및 사후 조치 철저히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유산 관리현황 정보 수시 공유 및 조치로 세계유산 관리 적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 2012년부터 세계유산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시범조사를 이미 시행하였음
 - 2015년부터 역사마을과 종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고인돌은 2016년부터 시행 중임
- 고도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 신라왕경 핵심유적(8진) 정비·복원을 통한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회복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임
 - (궁궐권역) 정밀학술 발굴 및 연구·고증, 정비·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월성·동부사적지구 등) 체계적 학술발굴 및 연구·고증 추진, (동궁과 월지) 체계적 학술발굴 및 정비·복원(서편 건물터 등) 추진 중임
 - (황룡사지) 정밀학술 발굴 및 연구·고증, 정비·복원 등
 - (대릉원 일원) 정밀학술 발굴 및 유적 정비(탐방로, 전시관 건립 등) 추진
 - (신라왕경) 토지매입, 정밀학술 발굴 및 연구·고증 추진
 -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 계획(2014~2025/ 9,450억원(국비 6,915억))
- 문화재돌봄사업
 - 문화재 돌봄사업의 범위 :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인위적·자연적 재난시 신속 조사 및 응급 조치, 비지정 문화재 경미수리
 - 문화재돌봄비(문화재 돌봄사업 전문인력) 임무 : 문화재에 대한 정기·긴급·전문 모니터링, 문화재에 대한 경미수리, 문화재와 주변환경을 정비·정화하는 일상관리, 문화재 돌봄사업에 필요한 예방관리 등

○ 현대적 문화재 방재 정보 통합시스템

- 문화재청 : 문화재 재난안전 관련 각종 정보의 종합 수집 분석 틀 구축함
- 현장별 안전상황과 방재설비 가동상태, 안전경비원 노무관리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평상시 예방대책 수립 가능
- 재난이력, 방재사업 추진 실적 관리와 NFC, 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발생 소지가 높은 위험요소 사전제거 가능
- 기상정보 : 온도, 습도, 풍속, 풍향, 강수량 등 최근 기후 변화 반영한 정보 수집
- 지형정보 : 지형특성, 산림환경 등 정보 수집
- 방재정보 : 방재설비, 안전경비원, 방충 및 방염 정보 수집
- 재난정보 : 산불위험, 태풍경로, 강풍, 지진 발생 등 정보 수집
- 유관기관 정보 :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등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ICT 기반 및 과학적 문화유산 보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문화재지도 및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문화유산 보호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 문화재 공간정보 확충 및 규제지역 공간정보 제공으로 과학적, 합리적 문화재 보존관리 행정업무 지원시스템(문화재 공간정보 GIS)을 인천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건축문화재의 과학적 보전방안 마련 및 관리상태 최적화 도모
 - 구조안전진단 신뢰성 확보 및 수리범위·방법 최적화로 건축문화재 관리체계 과학화
 - 전문장비 활용한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수준향상으로 선제적·예방적 대응전략 마련
 - 정밀실측보고서, 설계·수리보고서 등 CAD 도면에 기초한 DB구축 체계화로 자료활용성 극대화
 -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지방자치단체, 관계전문가와의 협업체계 완비로 현장 대응성 및 기동성 확보
 - 건조물 문화재 유형별 분류 특성에 맞는 보수·정비
 - 건조물 문화재 정밀안전진단
- 평상시, 재난 시 문화재 현장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문화재청의 중요 목조문화재 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책을 인천 지역에 우선 적용
-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비행의 시대에 맞는 방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방범 경보설비 간 쌍방향 신호 전송에 의한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함

○ 국가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 2018년 계획

- 사업대상 : 강화 정수사 법당 등 22개소
 - ▶ [국가지정] 강화 정수사 법당 외 7개소 [시지정] 인천도호부청사 외 13개소
- 사업내용 :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유지관리 등
- 총사업비 : 134백만원
 - ▶ [국가지정] 80백만원 [시지정] 54백만원
- 추진계획
 - ▶ 2018. 1.~12. : 예산확정통보,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지도감독

- 중요한 문화재 현장에 방재전문인력 또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함.
- 안전경비원 또는 재난방재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경비원이나 방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 문화재별 방재 매뉴얼을 구축하고 숙지하도록 유도함.

○ 강화 발굴현장 공개 및 ICT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 강화 유적지 발굴현장 및 보존관리 현장 공개.
- 강화 주요 유적지 전시, 교육, 홍보에 첨단 전시 기법 반영
- ICT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타 권역에도 보급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국가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지속
3-4년차	문화재지도 및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문화유산 보호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
5년차	평가 및 향후 계획

[세부과제 2] 문화재 일상에방관리 체계 구축

○ 전통사찰 보수정비

- 2018년 사업대상 : 2개소(중구 용궁사, 강화 청수암)
- 2018년 사업내용 : 용궁사 대응보전 이축, 청수암 미륵전 및 산성각 등 단청 보수 정비

○ 국가·시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 사업대상 : 15개소 26명(주간 10, 야간 16) 배치
 - ▶ [국가지정] 강화 정수사 법당 등 3개소 : 6명(주간 2명, 야간 4명)
 - ▶ [시지정] 용흥궁 등 12개소 : 20명(주간 8명, 야간 12명)
- 총사업비 : 792백만원
 - ▶ [국가지정] 167백만원 [시지정] 625백만원
- 추진계획
 - ▶ 2018. 1. : 2018년 예산확정통지 및 사업계획서 제출안내(시→군구)
 - ▶ 2018. 1.~12. : 보조금 교부, 안전경비원 채용·배치로 사전 예방적 상시관리 실시

○ 문화재 돌봄사업

- 2018년 계획

- 사업대상 : 236개소
 - ※ 국가지정 31, 등록문화재 1, 시지정 67, 비지정 137
- 총사업비 : 768백만원
- 시행기관 : 사단법인 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 사업내용 : 상시관리를 통한 문화재 예찰 및 안내판 정비 등
- 추진계획
 - ▶ 2018. 1.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시→문화재청)
 - ▶ 2018. 1.~12. : 보조금 교부(월별) 및 관리대상에 대한 돌봄사업 수행

- 문화재 돌봄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도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관리 지원을 강화함
- 인천지역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들에 대한 특화된 돌봄사업 내용을 마련함
- 인천시와 돌봄사업단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사업단의 연계 강화로 현장 중심의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

○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 2018년 계획

- 사업대상 : 162건(정기조사 160건, 정밀실측 1~2건)
- 사업내용 : 시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정밀실측도서 작성
- 총사업비 : 170백만원(정기조사 50, 정밀실측 120)
- 추진계획
 - ▶ 2018. 1. ~ 2. : 대상선정 및 계약의뢰
 - ▶ 2018. 3. ~ 8. : 용역 사업추진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문화재 돌봄사업, 안전경비인력 배치,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사업 등 지속
3-4년차	• 인천형 문화유산 보존관리 모델 구축
5년차	• 평가 및 향후 계획

[세부과제 3] 동산문화재 소장자 등 관리책임 강화 및 체계적 보존·관리

- 개인 소장자관리자의 보존관리 전문성 제고 및 책임의식 강화
- 국공립 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협의체 운영 통해 보존관리 기술력 제고
- 개인 소장자관리자 대상으로 보존관리 역량강화 교육 운영 지속 실시(문화재청 연계)
- 국공립 박물관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기술력 제고
- 다양한 유형의 동산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보존처리체계 마련
- 국공립 박물관, 대학박물관, 사찰 등 문화재 다량 소장 및 관리자와의 협력관계 지속적 유지 및 지원 확대
- 국공립 박물관 문화재 보존 관리 담당자 충원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국공립 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협의체 운영 통해 보존관리 기술력 제고
3-4년차	• 다양한 유형의 동산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보존처리체계 마련 • 문화유산 관련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5년차	• 평가 및 향후 계획

[세부과제 4] 비지정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 추진

- 비지정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한 목록화로 훼손·멸실 사전예방과 학술연구 및 지정조사 자료 활용
 - 불교 관계문화재 등 동산문화재 지속 추진
 - 무형문화재 범위확대에 따른 종합 조사 추진
 - 근현대문화유산 중 근대건축 및 시설물 체계적 조사 발굴
 - 사회·문화·체육·종교 단체 등의 현대 동산문화재 지속 발굴(예비문화재 제도 도입에 대비)
 - 교육 관련 문화시설 중 역사문화유산 발굴
 - 사진, 기록물 관련 문화유산 목록화 및 발굴 보존

○ 예비문화재

- 문화재청 제정 추진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된 것으로 하고, 예비문화재는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함
- 동 법안에서 예비문화재는 등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까지 등록되지 않으면 예비문화재에서 취소 혹은 해제되는 방안을 고려함
- 문화재보호법 개정 안 중 예비문화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최근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문화재 등이 유지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보전되지 못하고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등록문화재 제도는 만들어진 후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래에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 또는 문화재가 될 것이 예측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는 문화재청장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예비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문화재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현대의 건축물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발의됨(안 제53조제2항 등)(2018년 11월 6일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예비문화재 및 비지정문화재 목록화 사업(단계적 실시)
3-4년차	• 시지정 문화재 목록 정비
5년차	• 평가 및 향후 계획

Ⅱ 사업효과

- 문화재지도 및 ICT 기반 인천 지역별 문화유산 보호 통합관리 체계 구축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시관리 및 특별관리(보수정비)
- 문학산성(시지정기념물 제1호) 복원
- 천연기념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
-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 정밀실측조사 및 실측도서 작성
 - 문화재 일상예방관리 체계 구축 : 문화재 돌봄사업 지속 확대와 모니터링, 인천 지역 문화재 특성에 맞는 문화재 보존관리 매뉴얼 발간
 - 국가지정문화재 방법 및 방재시설 정비 확대와 안전경비인력 배치 확대 및 지속 : 국보 또는 보물, 사적, 목조건축문화재 등
-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유형문화재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 소요예산 : 4,50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ICT 기반 및 과학적 문화유산 보호 통합관리 체계 구축	1,000백만원	신규
문화재 일상예방관리 체계 구축	2,500백만원	개선
동산문화재 소장자 등 관리책임 강화 및 체계적 보존·관리	500백만원	신규
비지정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 추진	500백만원	개선

(3) 인천 무형문화재 진흥 모델 구축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모델의 구축의 필요성 대두
-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이수자 배출의 공정성 유지 및 수준 향상 필요
- 인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관리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전수교육관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보유자 및 전수조교의 엄정한 지정 및 관리 방안 모색
- 지정 종목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발전 방안 마련
- 이수자 인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수자 수준 향상
- 공개행사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전수교육관 활성화 방안 마련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문화재청의 2018년 용역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다양한 무형문화재 정책 방안 마련
 - 무형문화재 범주별 맞춤형 보호
 - 무형문화재 종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전수교육제도의 확대
 - 보유자 종신제의 개편

- 효과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 전승자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 무형문화재 제도와 유사한 제도 운영 사례 검토
 - 명장 제도 : 매년 20여 명 선정하여 일시 장려금 2천만원 지급, 현재 630명. 최고 숙련 기술을 보유한 이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대상으로 함. 계속 종사장려금을 연차별로 구분하여 215만원에서 405만원 지급
 - 명인제도 : 매년 10여 명 이내 선정하여 식품 제조 가공 조리에 필요한 시설 및 식자재 구매 자금 지급. 해당 분야 20년 이상인 자로 현재 76명이 인정되어 활동함
 - 예술원 : 100명 정원으로 운영. 예술적 공적이 높은 자를 선정하여 4년 임기로 연임 가능하게 활용. 매월 정액 수당 180만원을 8년간 지급함
 - 프랑스 예술의 거장 제도 : 90여 명을 인정하였고 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 독일 마이스터 제도 : 500여 명을 인정하였고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훈련비 제공, 대학 특기자 지원 기회 제공
 - 중국 비 물질문화유산 : 3000여 명 활동. 매달 150만원 평생 지급
 - 일본 무형문화재 : 공예 분야 인정자에게만 연간 2000만원 평생 지급
- 국가 무형문화재 제도에서는 전수교육의 의무화, 법 25조 참조

※ 제25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육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도에서는 공개행사의 의무화, 법 28조 참조

※ 제28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절차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무형유산 전승 지원 모델 구축

-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종사자의 전승 환경에 변화가 있음
 - 기능 예능 중심에서 놀이 음식 무예 등으로 확장되었다가 여기에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전통생활 관습 등이 새롭게 추가됨
- 종목 지정, 전승자 인정, 전승활동 지원이라는 삼각 축으로 운영되어야 함
- 종목 특성에 따라 지원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
- 종목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 1
 - 공연, 예술, 기술 분야: 가치가 높은 것을 지정 기준에 반영, 보유자, 전수조교를 인정하여 주도적으로 종목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공연, 예술, 기술 분야 이외: 전형 유지성을 지정 기준에 반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종목 구성원의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종목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 2
 - 긴급 보호 무형문화재: 전승 취약 종목을 대상으로 하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전승이 더욱 취약해져서 전승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록화 후 해지도 가능하게 함
 - 지정 무형문화재: 대부분의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법 안에서 모든 지원책 강구
 -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 여건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이 있다면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자유롭게 존치하게 함.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 없이 자생력을 도모하게 함
- 전수교육 권한의 확대가 필요. 보유자 중심에서 벗어나 전수조교 및 이수자 경력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도 전수교육 권한을 부여하여 활성화에 기여함
- 문화재청에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종목 정기조사를 인천시에서도 수용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기조사 방안
 - 인천광역시 28개 종목을 5그룹으로 나누어 5년 주기로 1회씩 정기조사를 실시하게 함
 - 전문가를 각 종목 정기조사 조사요원으로 위촉하여 조사 및 평가하게 함
 - 종목의 현황 및 보유자, 전수조교의 건강, 기예능 숙련도, 시설 실태 등을 파악하게 함
 -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활용하게 함

(앞쪽)

인천시무형문화재(보유자·보유단체) 정기조사 결과

문화재명칭				지정 연월일
보유자전수 조교 성명 (보유단체명)		대표자 성명 (보유단체의 경우)		인정 연월일
주 소				연 락 처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	
조사 결과	기능·예능			
	전수교육			
	전승자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종합의견				
조사 일시: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첨부서류	1. 증명서류 사본(전수교육일지, 전수생 등록대장 등) 2. 현황 사진(전승자, 전수교육, 전수교육시설, 공연·실연행사·전시 등)			

210mm×297mm[백상지(150g/m²)]

(뒤쪽)	
세부 점검 내용	
기능·예능 현황	
전수교육 현황	
전승자 현황	
전수교육 경비	
전승활동 현황	
전수교육 시설 현황	
특기사항	

- ◆ 세부과제 추진 단계 : 이 세부 과제는 다년 준비 과제가 아니라 당해년에 즉각 실시할 수 있는 과제임. 인천광역시청에서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세부과제 2] 이수자 관리 및 배출의 체계화를 통한 전승자 확대

- 과거 이수자 인정제도가 보존회 및 보유자에게 있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함
- 현재는 이수자 인정 제도를 인천광역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이수자 인정이 엄정해질 것으로 예상함
- 이수자 인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
- 이수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함.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기획공연전>, <우수이수자 지원사업> 등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이수자 지원을 위해 지역 소재 학교와 전통문화 교육 연계 사업 추진이 필요함. 방과후 활동, 실기 강사 활용 등 교육 사업 구상이 필요함
- ◆ 세부과제 추진 단계 : 이수자 관리 제도는 다년 준비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

[세부과제 3] 인천 무형유산 특징에 적합한 공개 행사 점검 기준 설정 및 시행

- 인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은 1년 1회 공개행사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함
- 공개행사에 대한 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개행사의 과정을 사례 삼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
 - 매년 연초에 공개행사 계획서를 각 무형문화재 종목 단체로부터 수합
 - 계획서에 따라 1년간 공개행사 및 모니터링 제도 운영안 준비
 - 모니터링 전담 인력 충원 및 운영
 - 해당 종목 전문가에게 모니터링 의뢰를 공개행사 1달전에 완료.
 - 공개행사 당일에는 모니터링 전담요원 및 평가요원 현장 참가하여 비공개로 평가
 - 모니터링 전담요원은 아래표와 같은 항목에 따라 해당 종목의 실태를 파악함

인천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인터뷰 기록지

종목번호	제 호	종목명		인터뷰어
보유자명		보유단체명		
공개행사 장소		인터뷰일시 (인터뷰시간)	201 년 월 일 시(00분간)	
시연내용 및 주안점 자체 평가				
건의 사항				
종목 현황 파악				
기타 사항				

- 모니터링 평가요원은 아래표에 따라 공개행사를 평가하여 공개행사 1주일 이내에 보고함

인천무형문화재 공개 점검 평가서

【공개개요】

지정번호/명칭				
조사자	성명		주관자	
	소속			
기 간			지원액	
장 소			관람객	

【평가표】

평가 사항		평가등급 및 점수
사업 계획서(10)		
장소(10)		
공개수준(10)		
보유자 없는 종목 (10)	호응도	
실연내용 평가 (60)		
총점		
전체평가		
* 포스터, 리플릿, 공개 사진 등 증빙자료로 이미지 자료 제출		

- ◆ 세부과제 추진 단계 : 공개행사 모니터링 관리 제도는 다년 준비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

[세부과제 4] 전수교육관 운영 실태 파악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인천광역시 소재 전수교육관 현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에 소재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시설현황
 - 시설규모 : 사업면적 8,710.3㎡, 연면적 6,982.3㎡ (3개동)
 - 시설현황
 - 공방실 27개 : 예능장 16개, 기능장 10개, 강화 합동공방 1개
 - 대강당 : 353㎡(188석-장애인석 5석 포함), 야외공연장 : 630㎡
 - 홍보관 : 216㎡, 상설전시장 : 162㎡, 기획전시실 : 74㎡
 - 전통문화체험관 : 146.1㎡(별관)
- 현재 지하층부터 3층까지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국가 무형문화재 인천 소재 종목이 입주하여 활동 중
- 각 단체는 전시 및 공연 행사를 정기적, 주기적, 수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는 교육 및 체험이 있으나 2018년의 경우에는 3회만 시행됨. 2018 상반기 시민대상 전통문화예술 교육·체험 강좌 수강생 모집,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무료 체험교

실 여름방학 수강생 모집, 2018 하반기 시민대상 전통문화예술 교육, 체험 강좌 수강생모집이 전부
로 매우 부진한 활동임

-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의 입주 및 활성화에는 나름대로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민과의 연계는 매우 부진한 편임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입주 단체에 정기적인 교육 및 체험활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정기공연 및 공개행사를 개최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문화기관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조 체계 구축
 - 역할 분배 및 상호 협조 방안 마련
- 유관 종목 간 합동 공연 활성화
 - 공연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합동 공연 추진
 - 합동공연으로 예산 및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음
- 지역 축제 및 각종 행사와의 연계
 - 지역 축제, 지자체 공연이 있을 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과 협조하는 체계 마련 필요
- 네트워크를 통한 조직적 홍보
 -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로 시민 참여 유도
- 인천 관내 대학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활용 교육 및 체험활동을 위탁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
- ◆ 세부과제 추진 단계 : 전수교육관 내실화 방안 마련은 다년 준비 사업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

■ 사업효과

-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전수를 통한 활성화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무형유산 전수 환경 조성

■ 소요예산 : 12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무형유산 전승 지원 모델 구축	-	신규
이수자 관리 및 배출의 체계화를 통한 전승자 확대	-	신규
인천 무형유산 특징에 적합한 공개 행사 점검 기준 설정 및 시행	-	신규
전수교육관 운영 실태 파악 및 내실화 방안 마련	120백만원	개선

(4) 인천 무형문화재 기록 및 활용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무형문화재의 체계 기록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기록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 당대의 무형문화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후대에 물려줄 책무가 있음
- 아카이빙 구축을 위한 원천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함
- 도서, 영상 자료,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인천 소재 각 학교에 무상 배포하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함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 종목의 기록화 시행
- 인천 무형문화재 전 종목의 기록 도서 및 영상 간행 및 배포
- 기록화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인원 확충 필요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성과

〈표 53〉 인천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성과

지정 번호	도서명	필자 및 간행 연도
인천광역시 제9호	대금장(일반)	김혜정(2014)
인천광역시 제18호	서곶들 노래	김혜정(2013)
인천광역시 제4호	대금경악	김혜정(2013)
인천광역시 제21호	경기12잡가	유대용(2012)
인천광역시 제6호	대금장	김혜정(2012)
인천광역시 제20호	취모리 잡가	홍은주(2011)
인천광역시 제14호	단청장	임영주(2011)
인천광역시 제11호	규방다례	심요섭(2010)
인천광역시 제8호	강화도 외포리 곶창굿	강영경(2010)
인천광역시 제10-가호	범패와 직방무(바리춤)	홍윤식(2009)
인천광역시 제12호	용두레질소리	김순제, 김혜정(2009)
인천광역시 제16호	인천 근해 도서지방의 상여소리	김순제(2008)
인천광역시 제7-가호	남창가곡	김혜정(2008)

- 28종목 중 13종목 완료. 16종목 미완. (대금장은 일부만 기록화 완료)
-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충청남도의 기록화 사업임. 충청남도는 대부분의 종목을 기록화하여 성과를 내고 있음

〈표 54〉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성과

지정 번호	도서명	집필자(간행 연도)
충청남도 제19호	금산 인삼백주	정혜경(2017)
충청남도 제30호	청양 구기자주	우나리아(2017)
충청남도 제3호	한산 소곡주	홍서연(2017)
충청남도 제11호	아산 연엽주	장명선(2017)
충청남도 제43호	연기 공인	김일환(2011)
충청남도 제44호	서천 침선장	조선희(2011)
충청남도 제26호	서산 박찰지놀이	주강현(2011)
충청남도 제13호	서천 저산팔음 갈쌈놀이	김효경(2011)
충청남도 제14호	연산 백중놀이	이수자(2011)
충청남도 제28호	세도 두레풍장	강성복, 박종익(2011)
충청남도 제37호	공주 선학리 지게놀이	이걸재(2011)
충청남도 제6호	보령 남포 벼루제작	이찬희, 정동찬(2011)
충청남도 제24호	태안 설위설경	임승범(2011)
충청남도 제22호	부여 용정리 삼여소리	김혜경(2011)
충청남도 제23호	공주 봉현리 삼여소리	이윤정(2011)
충청남도 제16호	금산 물페기농요	안용산(2011)
충청남도 제20호	결성 농요	김영운(2011)
충청남도 제1호	한산 세모시짜기	심연옥(2011)
충청남도 제25호	청양 춘포짜기	심연옥(2011)
충청남도 제21호	서천 부채장	장경희(2011)
충청남도 제31호	홍성 땃뎡이장	장경희(2011)
충청남도 제2호	지승 제조	장경희(2011)
충청남도 제35호	당진 안섬 당제	오석민, 최진아(2011)
충청남도 제41호	대장장	주경미(2011)
충청남도 제38호	용기장	이한승(2011)
충청남도 제32호	금산 농바우끄시기	강성복(2011)
충청남도 제29호	부여 내지리 단잡기	오문선(2011)
충청남도 제18호	소목장(창호)	최공호(2011)
충청남도 제42호	공주 목소장	최영숙(2011)
충청남도 제36호	홍성 수룡동 당제	이관호(2010)
충청남도 제12호	황도 봉기풍어제	이필영(2010)
충청남도 제9호	청양 정산 동화제	강성복(2010)
충청남도 제8호	공주 탄천 장승제	김효경(2010)

- 전라남도는 가기도 멀치잡이노래(전남 제22호, 나승만 집필), 담양 죽림장(전남 제23호, 최공호 집필), 진도 흥추(전남 제26호, 신말식 집필), 화순 한천농악(전남 제6호 이경엽 집필) 4종류만 간행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국가와 시·도무형문화재 전체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책을 1권으로 간행
- 세종자치시는 용암강다리기(세종 제2호, 석대권 집필) 1권만 간행
- 서울특별시시는 성동구 행당동 아기씨당굿(서울 제33호), 강동구 암사동 바위절호상놀이(서울 제10호) 등 4종목 기록화 사업 완료. 2018년 3종목 추가 진행 중

■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기록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종목 중 기록화가 되지 않은 종목 연차별 실시 추진

<표 55> 인천시 무형문화재 중 향후 기록화 대상 종목

지정 번호	종목 이름
1	삼현육각(음악)
2	단소장(기능)
3	인천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음악)
5	주대소리(음악)
7	2-여창가곡(음악)
9	대금장-일반대금(기능)
10	1-범패와 작법무(바라춤)(무용)
13	자수장(기능)
15	인천수륙재(의례)
17	원초장(기능)
19	갑비고차농악(음악)
22	목조각장(기능)
23	판소리 고법(음악)
24	꽃맞아굿(의례)
25	지화장(기능)
26	부평두레놀이(음악)

- 음악 종목에 대한 전문가 협의 및 기록화 진행 필요
 - 1년차 : 삼현육각, 인천 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 2년차 : 주대소리, 여창가곡
 - 3년차 : 갑비고차 농악, 판소리 고법
 - 4년차 : 부평두레놀이

- 무용 종목에 대한 전문가 섭외 및 기록화 진행
 - 4년차 : 바라춤
- 기능 종목에 대한 전문가 섭외 및 기록화 진행
 - 1년차 : 단청장, 대금장
 - 2년차 : 자수장, 완초장
 - 3년차 : 목조각장, 지화장
- 의례 종목에 대한 전문가 섭외 및 기록화 진행
 - 5년차 : 인천수륙재, 꽃맞이굿
- 기록화에 인천무형문화재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적극 활용 필요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음악 4종목, 기능 4종목 실시
3-4년차	• 음악 3종목, 무용 1종목, 기능 2종목 실시
5년차	• 의례 2종목 실시

[세부과제 2] 기록화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방안 수립

- 인천 무형문화재 기록물 토대 사업 발주
 - 무형문화재 기록화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화
 - 각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 각 자료의 분류 체계 마련
 - 인천 소재 대학에 토대 사업 발주 및 결과물 납품
- 인천 무형문화재 기록화 결과물 영상 편집본 제작
 - 각 종목 전체 기록물을 10분, 20분, 30분 등 다양한 시간으로 편집 제작
 - 내레이션을 넣은 교육 홍보물 제작
 - 전시물 제작 및 전시
 - 기록화 영상의 인천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방영
- 콘텐츠 방안 마련 및 모색
 - 인천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한 UCC 제작 공모 및 시상
 - 인천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한 다양한 공연물 공모 및 시상
 - 인천 무형문화재 유튜브 올리기 운동 실시
 - 인천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물 공모 및 시상

◆ 세부과제 추진 단계

연차 구분없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화 결과물 수합 및 데이터 아카이빙 • 영상 편집본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대 사업 발주 및 수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대사업 성과물을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공간 구축 • 인천 관내 공공 시설에 방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모 제도 시행 및 시상 	

※ 특기 사항

항목	소요예산
토대사업	아카이브 구축 및 메타데이터 작성 1억원
영상 편집본 제작	26종목 각 300만원 7800만원
각종 공모대회	교육청과 연계하여 비용 절감 가능

[세부과제 3] 기록화 결과물 보급 및 보존사업과 연구에 활용

○ 기록화 결과물 보급

- 인천 소재 각 학교에 무상 배부
- 전국 주요 무형문화재 관련 기관에 배부
- 각 학교에 무형문화재 연구반을 동아리로 편성하는 방안 마련
- 각 보존회에 배부하여 전수교육에 활용하도록 조치

○ 기록화 연구 활용 방안

- 인천 소재 주요 대학과 무형문화재 연구 협약 체결 필요
- 중점 연구소 1개 설정 필요
-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무형문화재 교육 실시 방안 마련
(이론과 실기를 고루 배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이수증 부여)
- 인천민속학회, 인천 거주 연구자와의 협약 강화

◆ 세부과제 추진 단계

- 각 단계별 구분 없이 동시에 진행
- 인천 소재 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결 고리는 즉각 가동하도록 함
- 인천 소재 대학 연구소 지정도 즉각적으로 가능함

※ 특기 사항

- 기록화 결과물 보급에는 큰 비용 발생 없음
- 연구 역량 강화는 각 대학과 연계하여 협조 체계 구축 후 예산 편성 및 활용

■ 사업효과

- 인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심 증대
- 기록화 결과물을 시민 대상 사업에 활용

■ 소요예산 : 978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기록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	800백만원	신규
기록화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방안 수립	178백만원	신규
기록화 결과물 보급 및 보존사업과 연구에 활용	-	신규

▶▶ 3.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1)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확대

(1) 시민참여형 역사문화 축제 활성화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역사문화 관련 생활문화축제 지원을 통한 시민 개개인 삶의 만족도 향상
- 축제를 통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과 적극적인 참여 기회 제공으로 인천 역사문화환경의 가치와 인식 제고
-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객 증가,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 문화관광축제의 경제 유발 효과는 2001년 4,418억에서 2005년에는 1조 172억 원으로 132.2% 증가
 - 축제로 인해 매출, 숙박, 음식, 판매, 고용 등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가격 형성 등 부가가치 효과 발생
- 지역 축제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공헌
 - 우리나라 축제산업의 지출 규모는 3조 4,826억 원으로서 영화산업 전체 매출 규모와 비슷(2012년 한국관광공사 축제인식도 국민의견조사)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2011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제 예산 지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3만 6,300명, 10억당 283명의 고용효과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시민 참여 중심의 역사문화 축제를 통해 역사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를 구축
-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시민 참여 축제를 통해 인천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인천의 역사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지역 축제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축제 성장기, 폭발기, 경쟁기를 거쳐 현재는 축제 조정기에 들어섬
- 최근 5년 간 추이를 살펴봤을 때 인천시의 지역 축제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군구별 축제 종류를 살펴보면 강화군에 가장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26건의 축제 중에서 '문화예술' 축제가 10건, '전통역사' 축제가 8건으로 많이 나타남

〈표 56〉 전국 지역 축제 개최 계획 (단위 : 건)

구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전국	886	733	693	664	555	752
인천	26	19	22	10	12	29

〈표 57〉 인천시 공공 축제 종류(2018) (단위 : 건)

운영주체	문화 예술	전통 역사	주민 화합	지역 특산물	생태 자연	기타	합계
시	2			1		1	4
강화군		4		2	1		7
미추홀구	1	1					2
남동구				1			1
동구		1					1
부평구		1					1
서구	1		1				2
연수구	1		1				2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1						1
중구	4	1					5
총계	10	8	2	4	1	1	26

<표 58> 인천시 공공 축제 목록(2018)

(단위 : 건)

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2018 메인페스티벌, 송도세계문화관광축제, 인천음식문화박람회
강화군	고려산진달래축제, 개천대축제, 삼랑성역사문화축제, 강화도새우젓축제, 강화고려인삼축제, 강화고려문화축전, 강화 문화재 아행(찬란한 고려왕도에 흥뿜 쫓다)
미추홀구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인천 원도사계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동구	화도진축제
부평구	부평풍물대축제
서구	서곶문화예술제, 정서진피크닉클래식
연수구	인천송도해변 여름대축제, 연수 능허대문화축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송도불빛축제
중구	인천개항장 아행(밤마실),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 9.15인천상륙작전축제, 연안부두축제, 무의도 춤축제

- 인천 지역 축제는 공공 주도의 축제 개발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형식적이고 이벤트적인 행사 진행되어,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성장은 만족스럽지 못함
 - 또한 축제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천 시민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역사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의 활성화(37%)라고 생각함(2018년 인천시민 대상 문화유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유산을 활용한 국·내외 우수 축제들을 살펴보면, 축제 개최 장소가 지니고 있는 유·무형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공하는 축제의 대부분이 민간 주도 축제로 지역과 마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의 기본을 중요한 원칙으로 여김
 - 진주남강유등축제는 1592년 충무공 김시민장군의 진주대첩에서 왜군을 저지하고 병사들이 가족에서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용하였던 '유등'을 활용하여 '강 위에 띄운 등'이라는 독특하고 차별화된 야간형 소재로 부각, 2011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 해미읍성축제는 해미읍성의 복원계획과 연계한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재 보존차원을 넘어 활용 차원의 인식전환
 - 미국 게티스버그 전투(Annual Gettysburg Civil War Reenactment) 재현 축제는 1863년 7월1일~3일 남북전쟁의 가장 참혹한 전투(51,000명의 사상자, 7천명 사망)를 재현한 행사로, 관람방식과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당시 시대재현을 통한 생활 체험 가능

- 프레데릭스 하운의 돌덴스키올드 축제는 돌덴스키올드라는 역사 속 해전영웅을 활용한 축제로, 지역주민을 스토리텔러로 육성하여 전통시대 복장으로 시대를 재현하며 자유롭게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이야기를 전하는 퍼포먼스방식 운영

■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역사문화축제 지속 확대

- 기존 역사문화축제 축제의 지속 활성화 필요
 - 인천시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축제(26개)의 약 30%(8개)가 역사문화축제로 남구, 동구, 부평구, 중구에서 각 1개씩, 강화도에서 4개의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함

〈표 59〉 인천시 역사문화축제 (2018년 기준)

축제명	주관	개최기간	주요내용
강화 마니산 개천대축제	강화군문화축제 추진위원회	매년 10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천대제 • 단군 인형극 공연과 퓨전국악공연 •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
삼량성 역사문화축제	삼량성역사문화 축제조직위원회	매년 10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조사 다례제 • 가을음악회 및 종견작가 전시회 • 삼량성 글쓰기대회 • 지역예술단체 공연 등
강화고려문화축전	인천광역시, 강화군	매년 7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희단 전통놀이 • 팔관회 재현행사 • 삼별초 항쟁 재현 퍼포먼스 • 고종할례 행차&팔만대장경 이운행렬
강화 문화재 야행 (찬란한 고려왕도에 흠뻑 젖다!)	인천관광공사	2018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토리텔링 역사 도보 프로그램 • 소창 스탬프 체험 • 꽃마차 투어 • 고려궁지 별자리 음악회 등
인천 원도사제 낙성축제	사단법인 인천사연구소, 원도사제 및 낙성축제추진위원회	2018년 10월	(전통마당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사제 • 청황때놀이 • 전통연희 버스킹 • 소망의 퍼레이드
화도진축제	인천광역시 동구	201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영대장 축성행렬 • 한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 재현 • 화도진 성곽살기 체험 • 동구관광콘텐츠 체험관 등
부평풍물대축제	부평구축제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부평문화원	매년 10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평 대동놀이 • 부평풍물 타고사, 고유제, 신주빚기 • 남사당놀이 여섯마당 원판 • 거리난장(퍼레이드형 공연)
인천개항장 야행(밤마실)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관광공사	2018년 9월,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항장 문화재 및 주변 문화시설 야간개방 • 체험,음악공연,저장거리 운영 • 도보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인천시 역사문화축제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축제는 화도진축제(2018년 제29회)와 부평풍물대축제(2018년 제22회), 삼량성역사문화축제(2018년 제18회), 개천대축제(2018년 제11회)임
 - 이 축제들은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해당 공간에 적합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함
- 신규 역사문화축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
 - 인천시 역사문화축제 중 50%는 2018년 기준으로 1회~3회를 맞이하는 신규 축제임
 - 강화 문화재 야행과 강화고려문화축전은 2018년 제1회를 개최하였고, 인천개항장 야행(밤마실)은 제2회를 맞았으며, 인천 원도사제는 제3회째 개최된 축제임
 - 이 축제들은 고려에서부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인천의 대표적인 역사 소재를 활용함에도 신규축제라는 점에서, 인천의 역사문화축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및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역사문화축제 지속 확대 및 전문화 지원 • 역사문화축제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역사문화축제 발굴 및 확대 • 역사문화축제 향유 프로그램 다각화, 문화유산 교육과 연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세부과제 2] 인천 역사문화도시 대표 축제 선정 및 육성

- 역사문화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문화관광축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축제를 선정하여 육성
 - 인천시 역사문화축제 중에서 화도진축제는 인천 최고 군영축제로 자리 잡았고, 부평풍물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삼량성역사문화축제는 불교산사예술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음
 - 중구 개항장, 강화 고려역사 관련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브랜드화 필요
- 진주남강유등축제 또는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와 대등한 수준의 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진주대첩에서 활용되었던 ‘유등’이라는 차별화된 야간형 소재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진주남강 유등축제와 같이 인천만의 독특한 역사적 소재를 발굴하여 축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또한 해미읍성축제와 같이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축제 참여자들에게 인천 고유의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인천 역사문화축제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 중심의 인천 역사문화해설사 양성 및 역사문화축제 운영요원 활용
 -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박물관 도슨트 자원봉사 등 인력 연계 모색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축제 발굴 및 육성 • 인천시 유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과 결합한 역사문화축제 고유의 향유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역사문화축제 전문인력 양성(기획, 운영, 평가 등) • 기존의 역사문화유산 활용 인력 연계 및 인천시 문화유산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역사문화 축제의 브랜드화

[세부과제 3] 시민 참여 중심의 역사문화축제 육성

- 인천 역사문화 관련 시민단체 지원 사업 운영
 - (사)해반문화사랑회, 스페이스 빔 등 인천 문화유산 관련 단체들의 문화행사 연계 지원
- 시민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인천 역사문화 프로그램 지원
 - 인천 역사와 관련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하는 문화활동, 문화체험행사의 지원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 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의 우주인 프로젝트 등 인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시민 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이 역사문화축제와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역사문화축제에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 게스티버그 전투(Annual Gettysburg Civil War Reenactment) 축제 사례와 같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재현 행사를 관람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시대재현을 통한 생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인천 역사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을 응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주민 스토리텔러 육성 및 활용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중심의 인천 역사문화 프로그램 발굴, • 역사문화축제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인천 문화유산 관련 시민단체 지원 사업 운영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축제 중심 인천 시민 네트워크 구축, • 역사문화축제 참여 주체간 파트너십 강화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역사문화축제의 시민 참여 활성화

[세부과제 4] 역사문화축제의 평가(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 역사문화축제 평가 주체로서 시민 중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민 참여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평가지표 마련
 - 시민 중심의 모니터링 요원/팀 모집 및 운영
 - 축제 평가의 정량적 평가(설문조사) 및 정성적 평가(전문가 FGI) 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위한 다면적이고 항시적인 모니터링 채널 운영 : 인천 문화유산 모바일 플랫폼 연계
- 역사문화축제 추진 과정에서 인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지점에 대한 시민 합의 도출
- 역사문화축제 모니터링 요원의 전문성 강화로 평가의 질 관리
 - 인천 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연계하여 역사문화축제 모니터링 전문요원 활동 관리
 - 역사문화축제 모니터링 요원의 책임과 의무, 권리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요원 위치의 안정성 확보
- 역사문화축제 평가 정보의 DB 구축
 - 인천 역사문화축제의 연차별 변화 추이 분석 : 누적된 연차별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인천 역사문화축제 발전상황 파악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축제 시민 모니터링 평가지표 개발 • 시민 모니터링 요원/팀 모집 및 운영 • 모니터링 채널 개발 및 항시 운영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축제 평가 정보 DB 구축, • 연차별 평가 자료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반영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역사문화축제 환류체계 정착 및 제도화

Ⅱ 사업효과

- 역사문화도시로서 인천의 정체성 확립
- 시민 참여 중심의 역사문화 축제를 통한 역사도시로서 인천의 브랜드 구축
-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지역축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Ⅲ 소요예산 : 8,8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역사문화축제 지속 확대	5,200백만원	개선
인천 역사문화도시 대표 축제 선정 및 육성	1,050백만원	신규
시민 참여 중심의 역사문화축제 육성	750백만원	개선
역사문화축제의 평가(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1,850백만원	개선

(2)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시민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을 고려한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식
 -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사회적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정(18.3%)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2018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실태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문화유산을 잘 알고 있으며, 문화유산을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득이 낮고 고령층일수록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문화유산의 향유에서의 접근성 역시 낮아짐
 - 사회적 소외계층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문화향유 향유의 사각지대에 위치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가구 소득 수준은 2,421천원으로 전국 3,617천 원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관계부처 합동협의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2017 관광진흥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고령층, 소외계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여행' 활성화 지원 확대와 인력양성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문화유산 향유에서도 대응 필요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재 향유 여건 개선
- 문화유산 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의 다양화, 접근성 향상, 맞춤형 정보 제공
-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쾌적한 문화유산 관람환경 구현(문화재 정보제공 환경 개선)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향유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문화재청은 문화사각지대의 어린이 및 장애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 '문화유산 3.0'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왕실태교 교육 프로그램은 소외계층이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선 왕실의 고품격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
 -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 3D 점자 자료 구축 예정
- 인천시는 문화재과를 중심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뿐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임

〈표 60〉 인천시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구분	사업 개요
사업명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지원
대상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장소	노인요양원 등 24개소
예산	18백만원
내용	인천시민 및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을 실시하여 인천의 무형문화재를 알리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자료 : 2018 문화재과 업무기본서(편람)

-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한 국·내외 사례들은 무장애의 문화유산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on/off-line의 접근성 향상의 노력을 기울임
 - 성남시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www.snart.or.kr),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www.snaf.or.kr), 사랑방문화클럽 홈페이지(www.clubs.or.kr)의 콘텐츠를 시각장애인들이 화면낭독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은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임
 - 프랑스는 VArt(Volontariat et Soutien par l'Art) 문화여가 동행제도를 통해 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와 어른, 노인, 소외지역의 청소년, 장애인, 수감자, 노숙자를 대상으로 예술을 통한 자원봉사 단체를 운영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확대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요구조사 실시
 -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소외계층(장년·노년층,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인식 및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 문화유산 향유 요구조사 주요 내용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문화유산 활용 실태, 문화유산 서비스 만족도,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문화유산 정보채널 인지/활용 등으로 구성
 - 인천지역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조사하여 문화유산 활용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등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외국 유학생 대상 모국과 한국 문화유산 비교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 기여
- 찾아가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인천시민 및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인천 관내 근지역(강화군, 옹진군 등) 농어촌에 찾아가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유산투어버스』와 같이 주제별(개항장, 강화 해양관방유적, 고려궁지 등) 찾아가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시행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실태조사 •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별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대상별 문화유산 향유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세부과제 2] 사회적 소외계층 정보서비스 설계 및 제공

- 다양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제공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자료 보완
 -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발
 - 다문화 가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화유산을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소개하는 영상 제작 및 보급
- 문화재 시설, 박물관 등 문화유산 정보의 접근성과 안내체계 개선
 - 인천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 및 안내체계(안내판) 실태조사
 - 문화재 추가 정보 서비스(QR코드, 점자안내 등) 보완
 -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개선
 -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독성 향상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자료 보완 • 문화유산 정보 접근성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문화유산 정보의 접근성과 안내체계 실태조사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정보서비스 설계 및 제공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정보의 접근성과 안내체계의 종합적인 개선

[세부과제 3]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선

-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 전문인력 양성
 - 장애인 대상 장애 유형별 문화유산 매개자 양성
 - 장애 유형별 문화유산 향유 수요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역사문화환경 디지털 접근성 향상
 - 장애 유형별 온라인 접근성 개선 : 시각정보, 소리정보, 장애인용 QR코드 및 NFC 서비스 등 확대 활용
 - 장애 유형별 오프라인 접근성 개선 : 장애 유형별 접근 경로 개발 및 지역 커뮤니티 연계 지원
- 인천 문화유산 무장애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현재 문화재청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유적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무장애공간 문화유적지' 조성 확산을 추진 중임
 - 인천시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장애인 경사로 신규·교체 설치, 시각장애인 촉지도식 안내시설 설치 등 시행 필요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문화유산 향유 수요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인천 문화유산 무장애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웹 콘텐츠 개발(시각, 소리, QR, NFC 등)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대상 장애 유형별 문화유산 매개자 지속 양성

■ 사업효과

- 문화유산 활용의 사회적 가치 적극 실현, 공공성 강화
- 사회적 제약으로 문화 체험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사회적 관심 고양,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 발전
-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통한 문화유산보호 인식 제고
 - 누구든지 장애 없이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 시스템 구축

■ 소요예산 : 2,4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확대	350백만원	개선
사회적 소외계층 맞춤형 정보서비스 설계 및 제공	1,250백만원	신규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선	850백만원	개선

(3) 전통문화유산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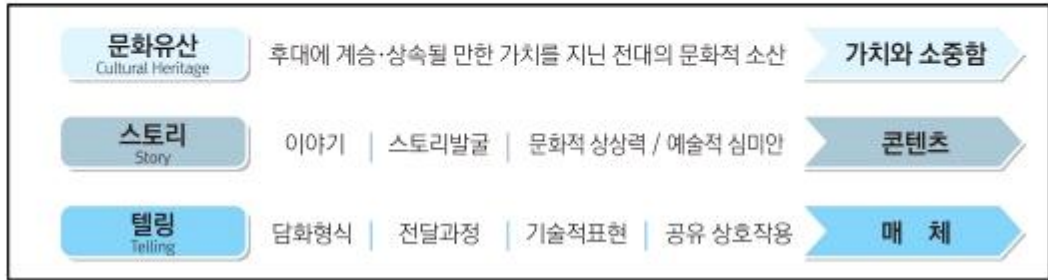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 및 산사 체험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영상정보 제공 및 활용 필요
- 문화재 이야기자원, 자연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고부가가치 실현
- 국가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에서 스토리텔링 발굴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문화재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추세
 - 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한 '문화유산 관광이 만나는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을 진행
 - 또한 한국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우리 문화유산을 다양한 동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 전문 미디어(www.k-heritage.tv)'를 운영함
- 문화유산을 편하고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 인천의 역사문화자원과 그 가치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인프라 시스템 마련 필요
- 인천의 역사성, 진정성,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AI시대 문화유산 향유의 효과적인 방법 필요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전통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로 시민들의 전통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 인천 전통문화유산의 공공장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전통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천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며 인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은 인류의 과거로부터 집적된 유무형의 총체적 문화 자원에 얽힌 이야기들을 말하는 행위로서, 문화유산에 담긴 원형적 이야기를 사용자와 매체에 따라 수정, 변형하여 감동과 재미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함
 - 문화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회복 :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그 속에 녹아 있는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인지와 기억은 역사적 사실과 정보를 통해서가 아닌 '스토리 체험'을 통해 이루어짐
 - 따라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스토리를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그림 30〉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개념

자료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2011)

- 현재 인천시는 전통문화 향유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표 61〉 인천시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인천 민속문화 유산 발굴 및 콘텐츠 개발	「2019 인천민속문화의 해」로 지정하여(협약체결 '17.9.21), 인천 민속 관련 10개 학술조사 및 마을박물관 전시, 민속학자대회, 선포식 2017~2019, 주관 인천사국립민속박물관
인천 개항장 야행	5~6월,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찬란한 고려왕도에 흠뻑 젖다	9~10월, 강화 고려궁지 주변
생생문화재 사업	3~12월, 미추홀구계양구강화군 주관 문화유산 답사
역사문화유산 탐방단	3회, 시 주관 문화유산 탐방
문학산상 음악회	1회(9월), 문학산 정상
고유명절 문화 및 민속놀이 계승	도호부청사, 상설민속놀이전통민속체험(공연)명절축제 등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알쭉'	5~10월(일요일), 전수교육관 등, 전통판소리퓨전국악 등 공연
전통판사놀이 공연	전통무예 보급
규방다례 차 행사	차인 큰잔차인설차 문화전
석전대제 행사 재현	유교 전통행사 명맥 보존 : 5~8월, 4개 향교, 공자에 대한 제례 행사
인천도호부사에 대한 제례봉행	10월, 인천도호부청사, 제례봉행 외 대취타공연 등

자료 : 인천시 2018 주요업무계획

- 또한 '인천역사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인천시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역사 연구자와 손잡고 인천의 다양한 역사콘텐츠를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시민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함
-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제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문화산업에 연계시킴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전략을 구사한다는 데 있음

- 영국 National Trust는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유산을 매입, 보존, 활용하고, 활용사업과 관광사업 등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 영국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로 성장
- 미국 Preserve America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이 역사보존자문위원회(ACHP)와 협력하여 교육, 기획, 진흥사업 및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조사와 기록화(documentation)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동산 지가 상승, 역사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친화적 변화, 낙후된 도시의 재생효과 기대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들 뒤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실시를 위해 효과적 방침으로 일본의 문화·전통이 담긴 이야기를 '일본유산(Japan Heritage)'으로 인정하고, 「문화재 활용·이해 촉진 전략 프로그램 2020(가칭)」을 실시하여 일본유산을 중심으로 한 1000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재를 관광 거점으로 한 200개 거점의 정비사업 추진
- 싱가포르 문화유산 계획(SG Heritage Plan)은 설문조사, 페이스북, 그룹세션 등 다양한 기반의 시민의 견을 수렴하여,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한 것으로 커뮤니티를 계획의 주요한 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여 참여자, 자원봉사, 자발적 활동, 디지털 방문 활성화 방안 제시
-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의 동향을 살펴보면 단순한 시각적 체험을 지양하고 증강현실(AR)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오감만족 프로그램으로 문화유산 체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유물수비대: 게임을 즐기면서 문화유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스마트폰용 교육용 게임
 - 내 손안의 궁 모바일 통합 서비스: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문화유산을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4대궁종묘 통합 앱 서비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모바일 서비스: 세계 문화유산을 여러 사진과 음성 안내로 즐길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어플
 - 코리안 헤리티지 프로젝트: 경기도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숙명여대 박물관 등 9개 문화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구글 아트 앤 컬처를 통해 2,500점 이상의 왕실 유물과 2만 8천여 점에 달하는 민속 유물,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 등 유적지 18곳의 사진, 영상, 텍스트 자료가 소개됨
- 최근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 일본 만화영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원령공주>와 같은 콘텐츠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활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국가의 브랜드 구축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산업은 사회, 경제에 강한 파급효과를 발휘하며 국가의 문화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국가적 과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관광 확대

-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 개최 시간 확대 및 야간체험 활성화
 - 문화재 야간개방 사업을 확대하여 일상적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인천시는 '2018 인천 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통해 개항장 근대 문화재의 야간특별개방, 도보여행, 저잣거리 체험 등 다양한 야간체험 프로그램 진행
- 전통문화유산의 일상공간화
 - 전통문화유산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재를 역사공원으로 조성
 - 인천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연결하는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2018년~2022년) 활용 : 인천시 녹색 종주길 연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 전통문화유산과 공공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 전통문화유산 환경 개선 및 스토리텔링 사업 확장
 - 전통문화유산 범주 내 지역주민의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경관 정비와 스토리텔링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문화재 보호 및 활용 기반 강화
- 문화유산 주변을 역사관광지로 조성
 -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인천 중구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연계 문화유산 관광 프로그램 개발
 - 강화도 호국역사 관련 해양관방유적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야간개방 사업 확대 • 문화유산 야간체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전통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확대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를 역사공원으로 조성 • 인천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사업 연계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주변 역사관광지 조성 및 관광 프로그램 확대 개발

[세부과제 2]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뱅크 구축

- 인천시 문화유산 이야기 DB 구축
 - 인천시 문화유산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고유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스토리뱅크를 구축하고 역사문화콘텐츠 활용
 -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인천문화통신 3.0의 인천문화 아카이빙 연계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이야기 자원 발굴 연구 결과물로 발간된 『서울·경기·인천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자료 활용 :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 스토리마당에 탑재된 ‘인천’ 이야기 30건.
- 인천시 문화유산의 테마별 스토리 범주화 및 문화교류 활용
 - 개별 문화유산의 스토리들은 인천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몇 가지 테마(주제)로 범주화 될 수 있음(예컨대, 강화 40년 고려 왕조, 개항장 근대역사지구, 민주화 운동 등)
 - 이와 같은 문화유산 스토리의 범주화를 통해 국·내외 역사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 남북문화교류, 세계 개항도시들 간 관광 산업 연계 등
- 인천시 비지정문화재 목록화 및 이야기 발굴
 - 현재(2018년) 인천시 문화재 돌봄사업에서 비지정문화재 138개소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되지 않은 국가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며 인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은 2015년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스페이스 빔 기획·진행)’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중구·동구 일대의(비지정문화재포함) 문화유산을 목록화 하고 관련 이야기를 조사하여 정리함 : 인천 시민들이 직접 도시 공간 속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장소나 건물, 유희시설 등을 조사하여 매핑(지도 제작)하고 아카이브(자료집 제작) 구축
 - 인천시 비지정문화재 목록화 및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콘텐츠 및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음
- 시민 참여형 기록화 사업 확대 시행
 - 인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생산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인천시의 일상과 삶을 기록한 시민들의 다큐멘터리 공모전, 작은 영화제 상영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
 - 인천 시민 아키비스트(archivist·기록활동가) 양성 사업 확대 : 생애사 집필, 생애구술사 채록, 옛 사진 공모, 마을 생활사 기록, 마을지도 복원하기 등 시민들 스스로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사 자료들을 수집함
 - 현재 시민 참여형 기록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인천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수도권산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의 확대 시행 가능
 - 인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천생활문화센터 칠뫼마당’에서 인천시민문화대학 문화강좌로 2017년 9월~11월 <말하고 기록하는 삶 ‘당신과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록하다’> 강좌를 진행하였음
 -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前인천도시인문학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인천에서 살아온 시민의 생활사를 복원하는 작업으로 ‘인천시민 구술 생애사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음 : 『파도 위의 삶, 소금밭에서의 생』(2013), 『검바위 사람들』(2014), 『송의동의 목공장인』(2015), 『도원동의 철공장인』(2018)
 -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은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 지역인 송림동의 생활사를 1년간 조사해 『인천의 오래된 동네 송림동』(2018)을 발간하였으며, 이후 수도권산과 수문동이 있었던 송현동, 배다리마을이라고

블리턴 금곡·창영동 등 인천 동구의 모든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2021년까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사업 시행 • (기존 연구자료를 활용한) 인천시 문화유산 이야기 DB구축 • 인천시 비지정문화재 목록화 사업 시행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비지정문화재 이야기 DB구축 • 인천시 문화유산 테마별 스토리 범주화 및 활용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형 기록화 사업 확대 시행 및 인천 문화유산 스토리뱅크 지속 확장

[세부과제 3]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 인천시 문화유산 디지털 관광 자원 개발 및 활용 계획 수립

- 인천 문화유산 영상 제작 등 콘텐츠 비즈니스 기업 육성 방안 마련.
- AR, VR, 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방안 마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도 기반의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로 문화유산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 체험할 수 있으며, 위치 기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가치 설명 가능

○ 인천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자료 개발 및 보급 확대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은 인천시의 문화유산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인천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자료를 개발하여 on/off-line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보급함으로써 2·3차 콘텐츠 가공의 가능성을 높임
- 현재 인천시는 권역별, 주제별, 유형별 다양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음 : 『테마로 찾아보는 인천 개항장 역사기행』(2007), 『골목살아(사라)지다』(2014), 『동인천이었다』(2015), 『우리가 알고 싶은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2015), 『인천문화재 탐방길』(2015) 등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 또한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유무형의 인천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으로 역사·문화 총서 집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만국공원의 기억』(2006), 『화교 문화를 읽는 눈 짜장면』(2012),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2013), 『시대의 길목 개항장』(2016) 등 2018년 현재까지 총 22권의 총서 발간

- 인천시 문화유산의 원천 콘텐츠(기록 기반 1차 콘텐츠)를 활용하여 강연, 연극, 영화, 게임 등 2차 콘텐츠로 가공하여 부가가치 극대화
 -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인천시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강좌 및 체험 콘텐츠 지속 제공
 - 인천시 역사자료관에서는 매년 격월로 인천향토사강좌를 운영하고,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문화유산 및 인천 도시사를 주제로 연령별·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천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인문도시사업을 지원받아 원도심 인문학(2014~2017) 및 산업유산 인문학(2018~2021)을 기획하여 다양한 체험 및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함
 - 또한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역사에 대해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인천을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함 : 최근 인천 개화기 역사 보드게임 <모던인천>(화수분제작소, 2018년) 출시
- 인천 문화유산을 활용한 영상 촬영, 드라마 세트장 등으로 이용 시에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유산을 영화 촬영 및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문화·경제적 효용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하지만 문화유산에서 드라마와 영화 촬영 등이 과도하게 진행돼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심각한 훼손이 진행돼 긴급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는 사소한 실수로도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위 인원과 장비가 동원되는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문화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이에 따른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따라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영상 촬영 및 세트장 이용 시에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자료 개발 및 보급 확대 : 인천시, 인천문화재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속 및 개발된 스토리텔링 자료 보급 활성화 •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 2차 콘텐츠 가공 활성화 : 인천시 역사자료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도시역사관, 인천문화재단 등 기존 사업 지속 및 새로운 2차 콘텐츠 개발 장려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활용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계획 수립 • 문화유산을 활용한 촬영 가이드라인 마련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

[세부과제 4] 인천시 문화유산 포털 개발 및 정보제공 활성화

- 인천시 문화유산 정보포털 개발 및 활성화
 - 온라인 정보포털 개발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교육 및 관광에 활용
 - 최신기술을 반영한 모바일 어플 개발로 인천 문화유산 정책 홍보, 문화유산 정보 제공
 - 지능정보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시기별·관심사별·지능형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문화재청,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인천시 문화유산의 안내판 디자인 및 스토리텔링 개선
 - 문화재청에서 권고하는 안내판 디자인을 수용하되, 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문화재의 구조와 명칭을 제시하고, 관내 유사한 건축구조를 가진 문화재를 사례로 제시하는 알기 쉬운 안내판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제작 필요
 - 안내 문안은 인천시민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이를 위해 시민 중심의 문화유산 안내문안 구성 협의회 구축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개선 : 점자 안내판, 음성지원 안내판 등
 - 디지털 베이스를 통한 정보와의 연계 및 안내정보 통합 개선 : NFC 및 QR code 등을 통해 안내판의 정보량에 대한 한계 보완
 - 인천 시민 및 관광객의 이해에 기여할 스토리텔링을 발굴 및 개발하여 국영문 안내문안 개선 필요
 - 인천 시민이 문화유산 안내판의 내용과 훼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필요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인천시 문화유산 정보포털 구축(문화재청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과 연동 설계)
3-4년차	• 인천시 문화유산 안내판 디자인 및 스토리텔링 개선 (문화유산 안내문안 구성 협의회 구축, 문화재청 사업연계)
5년차	• 인천시 문화유산 정보포털 활성화(시민참여의 장 확대)

Ⅱ 사업효과

- 공급자 관점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수요자 관점의 알고 싶은 내용 제공으로 문화유산 관람 만족도 제고
- 인천 시민들의 전통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천 가치의 재발견,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 인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기회 제공

■ 소요예산 : 4,6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관광 확대	650백만원	개선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뱅크 구축	900백만원	신규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1,250백만원	개선
인천시 문화유산 포털 개발 및 정보제공 활성화	1,850백만원	신규

2) 문화유산 거버넌스 확립

(1) 문화유산 시설 확충 및 거버넌스 지원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 시민들은 문화유산 시설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면서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음(2018년 인천시민 대상 문화유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문화유산 향유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안내·해설 체계 개선을 포함한 문화유산 활용 전문기관인 문화유산 시설 건립이 중요
-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등 문화유산 활용의 기반이 되는 시설들이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등의 시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도 활용하는 중추적 기관이자 기반시설로 문화유산 대중화에 이바지함
- 문화유산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활용 공급자와 문화유산 향유자 사이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민간 소장 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개인이나 문중 등 민간 소장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숨겨진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중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인천 고유의 역사 공간 발굴 및 확대를 통해 역사도시 가치 제고
 - 인천이 가진 고유한 역사문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시 가치 제고와 관광 자원화를 실현함
- 문화유산 시설 확충 및 복원을 통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확장
- 지역 문화유산 시설 건립으로 통한 문화유산 활용 기반 강화
- 지역의 소규모 박물관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
- 인천 문화유산 활용 관련 주체들 간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II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전시관, 개인이 설립한 소규모 테마 박물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인천시에는 등록박물관 26개소, 미등록박물관 11개소로 총 공립박물관은 37개소가 있음
 - 인천 개항장이 있는 중구에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고(12개소), 강화군(8개소), 미추홀구(6개소), 남동구(3개소) 순으로 나타남
 - 현재(2018년 12월) 기준으로 계양산성박물관(2018년 개관 예정), 국립세계문자박물관(2021년 개관 예정)이 건립 중에 있음

〈표 62〉 인천시 박물관 일반 현황

구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계(공립박물관)	37(19)	12(7)	1(1)	6(-)	2(1)	3(1)	2(1)	-	2(2)	8(6)	-	
운영 37 (19)	등록 박물관	26(13)	8(4)	1(1)	4(-)	2(1)	3(1)	2(1)	-	2(2)	4(3)	-
	미등록 박물관	11(6)	5(3)	-	2(-)	-	-	-	-	-	4(3)	-
건립 중인 박물관	2(2)	-	-	-	1(국)	-	-	1(1)	-	-	-	

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일반현황 2018

- 인천시는 박물관 진흥기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협의회 사업과 작은 박물관에 대한 전시, 교육, 시설 개선을 지원함
 -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소속 박물관은 가천박물관,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전쟁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국제성서박물관, 녹청자박물관, 범패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애보박물관, 옥도끼우주센터,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송암미술관, 인천근대박물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어린이박물관, 인천역사자료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재미난박물관, 초연대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전통음식박물관, 해든뮤지움, 혜명단청박물관 등이 있음

〈표 63〉 인천시 박물관 진흥기반 거버넌스 구축 지원

지원대상	지원사업
(사)인천광역시 박물관협의회	시립박물관 소장유물 도록 제작 지원
	국내외 선진박물관 견학 및 탐방
	협의회 모바일용 홈페이지 개발 및 연중 홈페이지 유지보수
	다함께 돌자 박물관 한바퀴 : 참여 회원 박물관을 모두 관람한 우수 관람객 시상
	어울림 한마당 : 회원 박물관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천박물관인대회 : 협의회 사업결과 보고 및 유공자 표창 등
가천박물관	조선시대교육체험 및 교육유적지 견학
범패박물관	3D기법 활용 전통문화 및 범패관련교육
애보박물관	옥상 방수 공사 및 2층 연결통로 보수

자료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8 주요업무계획

- 인천시에는 역사자료관 1개소, 각종 테마 전시관 7개소가 있지만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협치 체계를 구성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교류는 부재함

〈표 64〉 인천시 자료관 및 전시관 현황

명칭	주요시설 및 기능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시 역사자료관은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 자료실, 열람실, 연구실, 역사사랑방(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 역사문화의 체계적 정립을 통한 인천의 정체성 확립, 지역 문화 홍보 및 문화 인프라 구축의 기능을 수행함
인천개항장근대건축 전시관	일본제18은행으로서의 업무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기록이 없는 상태이며, 1936년 조선 식산은행인천지점, 1954년에 상공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으로 발족한 한국흥업은행 지점으로 사용된 이후, 1992년까지 카페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중구생활사 전시관	대불호텔 전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생활사 전시관에서는 1960~1970년대 인천중구의 생활사를 볼 수 있음
황산도 어촌 전시관	황산도 어촌전시관은 2008년 겨울 새롭게 단장한 어판장이 개장하면서 함께 문을 열었고, 어촌전시관은 황산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잠시 둘러 볼 수 있는 공간임
한국역사문화 전시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성한 이 전시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는 공간에 마련되었고,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국보급 유물(복제품)을 전시하고, 디지털 터치패드로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함
선원사 유물 전시관	선원사 유물 전시관에는 진명원오원감혜감국사 진영과선원사에서 출토된 각종 기와와 청자, 맷돌, 지정원년명 옥등과 발굴관련 사진자료 등 모두 3백39점이 전시되어 있음
화도진전시관	화도진지를 기본으로 복원한 각 동(棟)의 모습은 작은 민속촌이라 할 수 있고, 공원으로 조성된 주변 환경과 더불어 역사교육의 학습적 기능과 함께 휴식, 문화관광의 기능을 함
부평구청 향토사료 전시관	1997년부터 부평구에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자료찾기 운동을 펼친 끝에 1997년 7월 11일 부평구 주민으로부터 1,000여 점의 자료를 기증받아 문을 열었으며, 부평구청 지하 1층에 전시실을 마련하여 생활도구·농기구·고서화·교과서·향토사진·숫대·불상 등 1,3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음

자료 : 인천광역시 자료관 및 전시관 홈페이지(2018.12.05. 검색)

- 또한 역사적 인물을 주제로 한 기념관, 축제 등 지역자치단체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 시설들을 건립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매개로 활용하고 있음
 - 인천시는 인천 정명 60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인천의 정신을 구현하고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인천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역사의 큰 업적을 보여준 인물을 선정하여 〈인물로 보는 인천사〉를 발간함
 - 인천인물은 인천에서 출생하거나 성장, 활동한 인물 가운데 지역 사회,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 문화·역사·학술·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 그리고 인천의 역사와 지역사회 변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인물로 정의함
 - 인천시 홈페이지에 DB로 제공되는 '인천의 인물'에는 2002년도 『인천광역시사』에서 발췌하여 기록한 409명의 인천 인물을 수록함

-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 연합 단체로는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인천민예총 등이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사)인천민예총은 1994년 지역 예술인들의 상호연대와 다양한 예술적 실천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만국공원 복원 관련 세미나 개최, 중구 지역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수행함
 -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2002년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 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소속된 인천시 문화원은 10개소로(강화문화원, 부평문화원, 연수문화원, 서구문화원, 중구문화원, 미추홀학산문화원, 남동문화원, 계양문화원, 화도진문화원, 옹진문화원 등)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연구 및 계승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함
- 국·내외 문화유산 활용 시설 및 단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유산 시설 조성 및 활용은 관광자원으로 이어져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문화적 자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음
 - 미국 보스턴 프리덤 트레일(Freedom Trail)은 16개의 역사적 명소가 가득한 보스턴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보스턴 관광객 중 3백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서, 연간 10억 달러를 상회하며 6억7000만 달러의 주세와 지방세 및 127,215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KOTRA, 2012)
 - 요코하마 모토마치 상점가(Yokohama Motomachi Shopping Street)는 개항 당시 거주하던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하여 여러 점포들이 모여들며 형성된 150년 역사의 쇼핑 거리로 바닥에 방향표시 및 모토마치 거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의 노력으로 오늘날까지 패션과 유행을 선도하는 쇼핑지로 각광받고 있음
 - 안동 전통문화콘텐츠 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디지털 박물관(다양한 유무형의 전통문화를 디지털로 체험할 수 있는 RFID 기반의 체험형 콘텐츠)으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그 지점에 대한 다양한 시청각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디지털 정보 제공은 그 방법이 다양해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힘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문화유산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 인천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소규모 박물관 및 전시관 확대 및 지원
 - 인천기념물 제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문학산성을 복원하고 산상음악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내 대표 산상음악회로 자리매김한 사업 계속 지원
 - 인천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양 산성박물관,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인천생활사 박물관 건립 지속 추진
 - 개인 소장 유물, 활용되지 않은 채 보관되고 있는 문화유산과 전통적 요소 등을 소규모 박물관(또는 지역 박물관)에서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이를 전시하여 관광자원 및 교육 자료로 활용

- 타 지역으로 인천시 문화유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박물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미술관, 전시관, 문화원 등)을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 필요
- 문화유산 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 동질의 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고자 할 때 문화유산 단지(zoning) 형성 가능
 - 고려역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가치 재조명을 위한 <고려 역사 문화 단지 조성> 지속 추진
 - 2010년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근대건축물 보조금 지원, 경관개선사업 등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지 조성 지속 추진
 - 이 밖에 ‘(가칭)인천 산업유산 지구’, ‘(가칭)인천 민주화 운동 지구’ 등 인천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을 반영하는 주제로 문화유산 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 검토 필요
-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시설 건립 지원
 - 인천시 비추홀구는 문학산 정상 군 막사 1개 등에 ‘문학산 역사관’을 설립하여 인천 태동지인 문학산의 역사에 관한 콘텐츠 소개
 - 이 역사관은 평시에 비어 있는 군 시설을 전시관으로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고 시민에게 문학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시민들로 구성된 전문 해설가를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전시해설 서비스를 제공
 - 이와 같이 인천시 내 유희시설을 활용한 문화유산 시설 건립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산성 복원 및 산상음악회 사업 계속 지원 • 계양 산성 박물관, 한국천주교 역사문화체험관, 인천생활사 박물관 건립 지속 추진 • <고려 역사 문화 단지 조성> 지속 추진 •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지속 추진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유산 단지 조성 사업 검토 • 인천시 문화유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박물관 및 관련 기관 지원 사업 검토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문화유산 시설 지원 지속 강화

[세부과제 2]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유산 시설 조성

- 인천에 있는 근대 산업유산을 문화유산 시설로 조성하여 인천의 문화 인프라 구축
 - 인천은 한국 산업화 100년의 역사를 내포하고 있는 곳으로, 특히 한국 근대산업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구에는 유희산업시설물이 다수 존재함
 - 인천시 동구는 배다리 옛 동인천 건물(1917년 설립된 조선인촌(주) 성냥공장이 있던 자리로 우리나라 근현대 성냥산업을 이끌었던 원동력임)을 활용하여 성냥을 테마로 한 마을박물관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배다리 관광테마거리 조성 구축을 계획함

- 이외에 문화유산 시설로서 유류산업시설을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화에 기여해온 인천의 역동적인 역사와 다층적인 기억을 담을 수 있는 ‘(가칭)산업문화자료관’ 등 문화유산 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인천시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테마 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 인천시가 2016년 근대건축물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1880년 개항기부터 1950년대까지 지어진 근대 건축물은 210곳이며, 그 중에서 개항장 주변 원도심인 중·동구에 82%(172곳)가 밀집돼 있음
 - 인천시는 1888년 지어진 舊일본우선주식회사(등록문화재 제248호)를 비롯한 근대 개항기 건물과 1930~40년대에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스튜디오, 전시장,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인천아트플랫폼을 조성함
 - 또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일본 제1은행을 리모델링하여 ‘개항박물관’을 조성하고 1883년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시작되는 1910년 이전까지의 유물을 전시함
 - 이와 같이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할 시에는 과거의 역사를 현대적, 문화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일례로 인천시 부평구는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출사택’을 리모델링하여 ‘미쓰비시(삼릉·三稜) 출사택 생활사 마을 박물관’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 된 사례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동구 성남전시관 조성 지속 추진 •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공간(아트플랫폼 등)의 활성화 • 인천 산업유산문화유산 시설 조성(예컨대 산업문화자료관) 검토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근대건축물(산업유산 포함) 활용한 테마 문화공간 조성 확대 추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문화유산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세부과제 3]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유산 시설 복원

- 인천시 역사의 상징적 공간 복원 및 문화공간 활용
 - 인천시 역사의 상징적인 공간 및 경관을 복원함으로써 도시의 역사성과 공간특성을 살려 문화적으로 활용
 - 인천시 중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알려진 대불호텔의 터 대불호텔의 외관을 재현하여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불호텔 터를 전시관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역사 고증 없이 문화재를 복원하는 예산 낭비성 사업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시민 단체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였음

- 문화유산 시설 복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역사적 고증과 복원과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민주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인천 대표 인물 중심 문화유산 시설 복원 및 활용 방안 마련
 - 인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상징적 위치에 있는 인물 선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일제강점기 이후 시각장애인들에게 '맹인의 세종대왕'으로 존경받고 있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 복원 사업 계속 추진
 - 문화유산 시설로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는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이를 통해 어떻게 혼맥정음을 알리고 강화도의 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청년 김창수가 백범 김구로 성장하는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청년 김창수 역사 거리 조성' 등 인천시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 100년 백범 김구 역사 복원 사업 지속 추진
 - 백범 선생과 같이 인천시 역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을 재조명하여 인천의 문화 자산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친일인사, 월북인사, 외국인 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점을 설정할 것인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할 것임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인천 역사 인물의 문화유산 시설 복원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 복원 사업 지속 추진) (백범 김구 역사 복원 사업 지속 추진)
3-4년차	• 복원된 문화유산 시설의 활용 방안 마련 및 활성화
5년차	• 인천 문화유산 시설 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평가

[세부과제 4] 문화유산 시설 및 단체 간 거버넌스 지원

- 인천시 문화유산 시설 및 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
 - 인천 문화유산의 다각적인 활용을 위한 박물관, 전시관, 자료관 등 시설 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 (사)인천민예총 등 단체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사업 지원 확대
 - 문화재청, 인천시, 작가, 기획자, 예술 제작자, 민간단체, 주민단체, 지역주민 등 역량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천 문화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협력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축
 - 문화유산 거버넌스 시설 및 단체의 각 주체 간 역할을 적절히 설정하고, 권한과 의무, 책임 등을 명확히 제시
- 인천시 문화유산 시설·단체 간 역사문화 특화 사업(아카데미, 전시, 답사, 캠프 등)의 공동 주최 및 활성화

- 인천시 문화유산 시설·단체들은 역사문화 특화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주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
 - (사)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에서 주최한 2018년 '다함께 돌자 박물관 한바퀴'는 인천시민의 관람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관내 25개 박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한 사업임
 - 또한 인천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2018년)은 일본문화연구소,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 인천시립박물관 도시역사관, 인천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도시사 및 산업유산 관련 다양한 강좌·체험·답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단체 간 역사문화 특화 사업의 공동 주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광역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
- 인천시 문화유산이 내포한 성격 중에서 범주화 할 수 있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역사도시 간 문화유산 광역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인천시 강화에 40년간 왕조를 건설했던 고려사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왕릉·고분·사찰 등을 함께 연구하는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를 구상할 수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근현대 문화유산의 경우 국외에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을 중심으로 국외에서 한국 근현대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과 정보 공유 및 문화 교류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음
 - 2021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인천에 건립됨에 따라 세계문자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인천세계문자포럼>(2018년 3회 개최)과 같이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계 도시들과 학술 교류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시설 및 단체 간 거버넌스 구축 • 문화유산 시설·단체 간 역사문화 특화 공동주최 사업 기획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광역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개발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문화유산 시설 및 단체 간 거버넌스 강화

Ⅱ 사업효과

- 인천 시민의 역사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유희시설 활용을 통한 문화유산 시설 건립 예산 절약
- 지역의 역사적 가치 제고 및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제공

■ 소요예산 : 3,2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문화유산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250백만원	개선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유산 시설 조성	350백만원	개선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유산 시설 복원	1,750백만원	개선
문화유산 시설 및 단체 간 거버넌스 지원	900백만원	개선

(2) 민간 영역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사업 확대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유산이 지역공동체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고 인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최근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 문화의 확산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과 활동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문화재보호운동에 시민단체의 활동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임에 반하여, 이를 지원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문화유산의 참여를 지원하는 데 있어 문화재 행정의 인력·예산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민간 영역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사업의 확대를 통해 시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문화유산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시민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확대를 통해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및 인식 확산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주제별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과 민간단체 참여 기반 조성
- 문화유산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도록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의 기반 마련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문화재 활용사업이 모든 영역에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향유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경복궁 등 궁궐과 종묘 관람객은 1,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문화재 야행’ 등 지역문화 활용사업 관람객은 270만 명 기록(2017년 기준)
 - 문화재 활용의 대표사업인 2008년 생생문화재 사업 이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2014년 향교서원 활용, 2016년 문화재 야행, 2017년 전통산사문화재 등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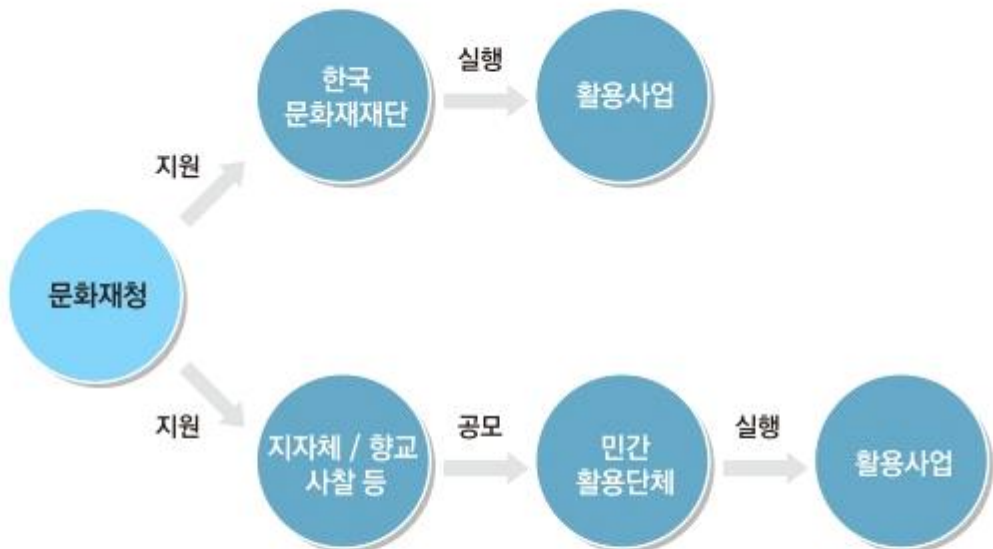
- 문화재 활용사업(예산 266억원)을 통해 1,537억 원의 경제효과를 얻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적 활용단체도 증가

<표 65>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원예산과 건수('13~'17)

(국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생생문화재	45건/12억	70건/18.3억	103건/20.5억	88건/20.7억	120건/28억
향교서원문화재	-	38개소/12억	71개소/21.2억	77개소/22.2억	87개소/28억
문화재야행	-	-	-	10개사업/30억	18개사업/45억
전통산사문화재	-	-	-	-	25개소/10억
합 계	45건/12억	108건/30.3억	174건/41.7억	175건/72.9억	250건/111억

- 문화유산 활용을 기반으로 한 민관의 협력체계 역시 확대되고 있음
 -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국민신탁·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의 시민운동, 지역단체 등 민간조직의 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
 - 현장 실행주체에 따른 문화유산 활용 체계는 주로 한국문화재단과 문화재청의 지원사업에 의한 사회적 기업 등 민간단체로 구성
 - 문화재청은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
 - 2017년까지 총 36개 업체가 문화재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문화유산의 체험, 교육, 관광, 상품개발, 관리, 시공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문화재 활용분야에 많이 활동



<그림 31>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활용체계

- 인천시는 민간 영역에의 역사문화 시설 및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66〉 인천시 민간 역사문화 시설 및 활동 지원 사업

유형	사업 내용
생생문화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으로 육성 3월~12월, 남구(문학산 답사,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 계양구(계양산 답사, 3색 매력 우리고을), 강화군(갯벌체험 및 천연기념물 저어새 탐조여행)
문화재 여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의 특화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야간형 문화재 및 문화관광 콘텐츠로 재창조 : 문화재 및 주변 문화시설을 개방, 체험공연·교육 프로그램 연계 5월~10월, 중구(인천개항장 야행, 밤마실), 강화군(강화 문화재 여행 「친란한 고려왕도에 흠뻑 젖다!」)
향교문화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교 문화재 활용을 통한 선조들의 지혜와 삶 체험 : 「인천향교 삼색강동」 가족캠프, 공감음악회 등 3개 사업, 「섬마을문화바람, 교동향교」 어린이 선비 놀이터 등 11개 사업 향교 기로연 재현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고양 : 11월, 4개 향교(인천부평·강화·교동), 민요부채춤 등 향교 명륜학당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 4개 향교, 청소년·주민 대상, 흥효예절서도·한문교실 등 운영
문화재 돌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 사전 방지 및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 정비 부담 경감 사업대상 234개소, 위탁단체 (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위탁기간 2016.1.1.~2018.12.31.

자료 : 인천시 2018 주요업무계획 및 내부자료

- 국·내외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유산 활용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함을 알 수 있음
- 미국 히스토릭 호텔스 오브 아메리카(Historic hotels of America)는 50년 이상의 오래된 곳이며 국립 사적지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은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플랫폼 구축

- 문화유산 민간 참여 홍보
 - 관 주도의 문화유산 관리는 문화유산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많았음
 - 민간영역은 문화유산에 대한 향유 수요자인 동시에 향유경험을 확산시키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존과 활용이 동시에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이에 민간영역의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참여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 문화유산 관리 활동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지원
 -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직접적인 관리 참여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
 - 문화유산은 해당 문화유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존환경과 관람환경으로 구분하고, 환경별 대상과 방법을 마련해야 함
 - 문화유산의 관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육안으로 특이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과 문화재 주변 관람환경에 대한 정화활동이 있음
- 문화유산 활용 활동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지원
 - 문화유산 활용에 참여하는 방법은 보존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비하여 제한이 없음
 - 1차적으로는 개인 및 민간단체가 문화유산 보존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방법이 있겠고, 2차적으로 참여 결과를 활용하여 UCC를 제작하거나 교안을 작성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음
- 문화유산 활용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플랫폼 개발
 - 민간영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활동 참여 결과를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군구별 문화유산 관광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링크를 통해 인천 문화유산의 홍보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리 활동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 문화유산 활용 활동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 문화유산 홍보 플랫폼 개발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민감 참여 홍보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지원 및 활성화

[세부과제 2] 문화유산활용단체 중심의 문화유산 거버넌스 강화

- 문화유산활용단체의 활동 현황 실태 조사
 -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조사하여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지원 방안 마련
- 문화유산활용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활용단체 실태조사를 근거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활용단체의 역량 강화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
 - 문화유산활용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인큐베이팅 제도를 실시
- 민간영역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 민간영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자체, 지역대학, 민간단체 간 거버넌스 및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활용단체 활동 현황 실태 조사 • 민간영역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활용단체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활용단체의 역량 강화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 문화유산 활용 협의회 활성화 지속 지원

[세부과제 3] 문화유산형 사회적 기업 육성

○ 문화유산형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한 사업적 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현재(2018년 기준) 문화재청 사회적 기업은 3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인천에서는 1개 기관이 일자리형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인천에는 (주)한국공예전승협회가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고용노동부 인증 받은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전통공예인 자개, 한지, 칠보 등의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며 초·중·고대 학생과 일반인,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형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형 사회적기업 지속 발굴과 육성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문화유산형 사회적기업 지원 및 활성화

Ⅱ 사업효과

- 인천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정책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방식 제공
- 인천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
- 시민이 주체적으로 문화유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재 활용 및 자긍심 고취

■ 소요예산 : 1,6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플랫폼 구축	900백만원	신규
문화유산활용단체 중심의 문화유산 거버넌스 강화	450백만원	개선
문화유산형 사회적 기업 육성	300백만원	신규

(3) 인천 무형유산과 시민 연계 사업 활성화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6건과 시·도무형문화재 28건 및 비지정 무형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주로 낮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승자 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성인 대상의 향유 프로그램이 계획될 필요 있음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형유산 시민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자산을 홍보하고 대중화할 필요 있음
- 주5일 시행 이후 생활 속 여가문화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형유산의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시민 연계 사업을 통해 향유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인천시 무형문화재 홍보를 넘어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및 체험 프로그램 증설
- 인천시 전통문화의 친숙화 및 일상화
- 인천시 무형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일반 국민들이 무형문화재 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의 일상화가 정책적으로 지원됨
 - 문화재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전승 단절을 방지하는데 집중했던 과거의 소극적인 정책노선을 탈피하여 무형문화재를 ‘자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바뀜.(그림 19)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의 미래 정책 방향 참조)
- 인천시의 국가무형문화재는 궁시장, 은울탈춤,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황해도평산소놀이굿, 완초장, 화각장이 있으며, 부문별로는 기능이 3건, 예능이 3건임

- 인천시 무형문화재는 종목별로 기능 9건, 예능 19건이며, 지역별로는 강화군 2건, 미추홀구 24건, 부평구와 서구에 각각 1건씩 분포함
- 인천시는 문화관광체육부에 문화재과를 두어 인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직접 운영하고 유·무형의 문화재를 총괄적으로 관리함
 -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미추홀구(인천시 관할)와 서구(서구 관할)에 각 1곳씩 위치해 있음
 - 전수교육관의 수는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편이지만 입주 종목 수는 28개에 이르러 대부분의 종목이 교육관에 입주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는 전승지원금 지급 및 전수교육관 입주와 같은 직접지원 사업과 무형문화재를 활용한 공연·교육·체험 사업을 주로 시행함

〈표 67〉 시·도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2018.04.16. 기준)

(단위 : 개)

행정구역	전수교육관 수	입주 종목 수		전체 입주 종목 수
		국가지정	시·도지정	
서울	4	21	24	45
부산	4	3	9	12
대구	0	0	0	0
인천	2	5	23	28
광주	1	1	0	1
대전	4	0	19	19
울산	0	0	0	0
세종	0	0	0	0
경기	17	5	14	19
강원	14	3	11	14
충북	10	3	7	10
충남	17	5	15	20
전북	13	6	12	18
전남	22	15	18	33
경북	16	5	12	17
경남	22	19	21	40
제주	5	6	5	11
전국 합계	151	97	190	287

자료 : 문화재청, 문화재관리현황(<https://www.cha.go.kr>)

- 인천시는 무형문화재의 대상별 맞춤형 향유 프로그램을 시행함
 - 찾아가는 맞춤형 무형문화재 공연(2018.4~10), 전통민속 전수학교 운영(2018.3~11),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2018.1~12) 등

- 또한 인천시는 무형문화재 가치 확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함
 - 타 시·도 무형문화재 문화교류(2018.4~5), 차(茶) 문화행사(2018.5~9), 시 무형문화재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활용(2018.5~10), 무형문화재 전승공연 및 전시(2018.3~12),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연·전시(2018.3~12),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2018.4~9), 단절된 전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018.3~11) 등
- 국·내외의 무형유산을 통한 시민 연계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승환경 악화와 소멸 위기에 창의적으로 대응하여 민관협력의 시민주도형 무형유산 프로그램 운영 및 향유 확대를 통해 무형유산의 생산-소비-재생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함을 알 수 있음
 - 가나자와 시의 우타츠야마 공예공방은 1989년에 설립된 전통공예 교육기관으로서 공예공방의 시민 교육은 시민들에게 전통공예의 좋은 점을 알리고 창작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함
 - 2016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전주야행 천년벚담'은 문화재 야간관람 등 문화프로그램, 역사체험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등 공연·시연 프로그램,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문화 숙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향유 및 참여 확대와 수요 창출의 계기를 마련함
 - 또한 전주비빔밥축제는 지역 내 상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조직해 무형문화재인 전주비빔밥을 효과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인천시 무형문화유산 시민참여형 홍보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목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및 수행
 -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활문화동호회의 활성화에 따라 무형문화재 종목별로 관심을 가지는 개인 및 단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목별 공연 및 행사의 홍보 타겟을 설정하고, 미디어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홍보 전략에는 매체별 베껴쓰기식의 보도자료보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호감도 제고를 위해 흥미로운 메시지로 구성된 매체별 보도자료 작성 매뉴얼 마련과 무형문화재 행사시 각급학교, 직업전문기관, 문화예술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에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 체계 또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무형문화유산 홍보 서포터즈 운영
 - 무형문화재 재능기부 차원에서 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인, 가족, 민간단체가 행사 당일에 행사장 내외부에서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무형문화유산 홍보 서포터즈 운영
3-4년차	• 무형문화유산 종목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및 수행
5년차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세부과제 2]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예술 공연 및 체험행사 확대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만족도 조사 시행
 - 지역별 무형문화재의 분포가 다른 만큼 시민의 생활수준과 추구하는 삶의 질에 따라라도 전통문화에 대한 요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이에 매년 무형문화재 공연 및 체험 행사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통예술 공연 및 체험행사에 적용하여 시민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행사 도입
 -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연 1회 해당 예능이나 기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개행사 제도가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음
 - 이에 일반시민이 무형문화재를 쉽게 이해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이수자 혹은 전문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행사를 도입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만족도 조사 실행
3-4년차	• 해설이 있는 무형문화재 행사 도입
5년차	•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체험행사 지속 확대

[세부과제 3] 생활 속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무형문화재 세부 종목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 전주시의 사례처럼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수한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생활 속에서 무형문화재를 체험하는 방법은 일반인 대상과 동호인 대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의 경우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포괄적인 향유 가능
 -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다 전문적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맞춤형 향유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민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보임

- 무형문화재 지속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기존의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단순관람형이 주를 이루었으나, 향후 개발될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참여형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기능과 예능의 특성과 체험유형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체험 프로그램은 방문객이 참여한 결과물을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이에 기능뿐만 아니라 예능종목에서도 체험결과물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무형문화재 세부 종목 대상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3-4년차	• 무형문화재 지속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년차	• 무형문화재 지속형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 사업효과

- 무형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 지역 전통문화 전승 및 발전 기여
- 인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전통문화 향유 저변 확대
-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인천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소요예산 : 1,1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인천시 무형문화유산 시민참여형 홍보 지원	250백만원	신규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예술 공연 및 체험행사 확대	400백만원	개선
생활 속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500백만원	개선

▶▶ 4. 문화유산 교육과 연구

1) 학교 및 시민 교육 활성화

(1)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풍부한 문화유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교육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부족
- 국가적 문화유산이 아닌 인천 소재 문화유산에 기반하여 지역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마련 필요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학생 또는 시민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개발
- 학생 또는 시민이 직접 창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향식 교육콘텐츠 개발
- 교육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및 시민사회에 보급 체계 활성화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법령 및 정책에서 지역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강조
 - 교육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현장 제3항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 학교교육에서 창의체험활동이 활성화되었고, 자유학기제 시행 등으로 교육의 패러다임과 기능이 변하기 시작함
-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 <문화유산 여행>

- 문화재청은 2016년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시간에 활용할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재를 신청한 중학교에 배포한 바 있음.
- <공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은 한 학기용으로 활용할 문화유산 수업 교재(학생용 활동서/교사 지도서)로 개발되었으며, 총 5개 주제와 17차시 프로그램(주 1회, 2시간 수업 기준)으로 구성되었음.



〈그림 32〉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

- 자유학기제 문화유산 교육 교재는 역사 과목 등에서 간접적으로만 배우던 문화유산을 만들기, 글짓기, 그리기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문화유산이 지닌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끼를 발휘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었음
-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표 68〉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의 구성

주제	내용
문화유산에서 꿈을 키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납토성과 고인돌, 신안선 등을 통해 본 1차시 문화재 발굴 - 땅속과 물속의 타임캡슐을 찾아서 • 문화재 보존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2차시 문화재 보존과학 - 문화유산을 치료하고 되살리기 • 수원 화성으로 살펴보는 3차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 2011년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를 통해 본 4차시 문화재 환수-잃어버린 문화유산 되찾기
소망과 아름다움을 일상에 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합총서>와 <식료찬요>로 보는 5차시 예방과 치유를 추구한 음식 • 청자와 백자로 살펴보는 6차시 기술 혁신을 통해 만든 그릇 • 소재원, 창덕궁 후원 등 전통건축을 통해 본 7차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 민화, 주칠공예 등 우리 전통 장식을 알아보는 8차시 소망을 담은 장식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대인들의 서찰과 그림으로 보는 9차시 믿고 아끼는 마음의 표현 • 마을 전통 행사로 살펴보는 10차시 '다름'에 대한 열린 자세 • 11차시 '차이'를 넘어 함께하는 마을 행사
자연을 존중하고 사람을 이롭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시 하늘의 뜻과 천체의 움직임 • 13차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한 발명 • 14차시 자연 탐구의 다양한 방법
미래를 설계하고 새 문화를 창조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산 김정호의 서울 지도 '수신전도'와 조선 시대 석조성곽인 한양도성으로 보는 15차시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 불국사, 도산서원, 다산초당에 담긴 선대인들의 꿈과 염원을 알아보는 16차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 17차시 변형을 통한 새 문화 창조

- 해당 교재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토론, 체험, 제작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펼치며 자기 주도적 학습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교재의 교육성과를 분석하여 학교 현장의 문화유산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재 개발이 필요함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학교 연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융합형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융합형 문화유산 교재 개발
 - 문화재청 자유학기제 교재 <문화유산 여행>을 모델로 한, (가칭) <인천 문화유산 여행> 개발
 - 해당 교재는 지역·권역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함
 - 권역별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박물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문화유산과 함께, 역사, 예술, 인문, 과학 등 종합한 통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역 대학교 및 교사 참여를 통한 교재 개발
 - 교재를 개발하여 각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문화유산 교육에 직접 활용하게 함
- 교사 대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공모 시행
 -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련 교과수업 교안, ICT를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수업자료 공모 실시
 - 지역 내 교사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능
 - 공모전 시행 전 교사 대상 문화유산 활용 창의융합형 문화유산 교육 연수 시행해 관련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교사들의 공모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문화유산 교육 관련 교사 모임 지원 등의 유인책 마련 필요
 - 공모를 통해 채택된 교육 프로그램을 문화유산 교재에 포함할 수 있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공모 시행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시범 사업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평가 및 교재 개선

[세부과제 2]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 초등학교 : 문화유산을 지역 지도와 이미지를 활용한 보조교재 개발 또는 헨즈 온 문화유산 활동 개발
 - 초등학생들의 학습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론교육보다는 체험형 활동을 제공하는 학습자료 개발 필요
 - 초등학생들의 생활, 경험 반경을 고려하여 재학 중인 학교 주변에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지역별 맞춤형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예 :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문화유산을 탐색해볼 수 있는 지도와 이미지를 담은 브로슈어 제공 등)

- 교과 수업 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자료 비중이 많은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필요
- 독서교육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읽기자료 개발 및 보급
- 교실 환경 구성 시 상시 비치하여 학생들이 일과 중 친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구 개발 및 보급
- 중학교 : 범교과 융합형 교재개발 및 자유학기제 교재 ‘문화유산 여행’을 모델로 한 인천 지역 또는 권역별 문화유산 교재 개발
 - 중학교용으로 (가칭) <인천 문화유산 여행>을 시범개발
 -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운영 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문화재청과 협조)
 -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지역 대학 연구 지원)
 - 권역별 교사 및 학생 사제동행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담당교사 연수
 - 문화유산 관련 분야 진로체험 기회 확대(무형문화재 전승자, 문화재 수리기술·기능자, 학예연구사 등의 직업정보 제공)
- 고등학교 :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교재 또는 프로그램 개발
 - 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구성 및 활동 활성화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동아리 구성 및 프로젝트 비용 지원 등)
 - 문화유산 교육 활동 관련 우수 동아리 운영 사례 발굴 및 공유 세미나 개최
 - 문화유산 관련 동아리 페스티벌, 경연대회, 사진전 등 개최
 - 동아리 지도 교사 대상 연수, 온라인 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학교 : 문화유산 관련 강좌 개발 지원
 - 주요 대학 내부 유관 연구 기관 및 교수학습개발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 문화유산 관련 교과목(전공 및 교양) 공모전 시행
 - 문화유산 관련 교과목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문화유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우수 교과목 운영 사례 공유
 - K-Mook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사례 : 안양대학교 김형우 교수의 “강화도, 우리 역사를 말하다”)



〈그림 33〉 “강화도, 우리 역사를 말하다” 캡처 화면

자료 :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AYUk+FD_AYUk_01+2018_T2/about

- 문화유산 교육 강좌 수강생 대상 기초역량 진단 등의 교육효과 측정 및 분석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4년차	• 방문학교, 문화유산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 활성화
5년차	• 학교급별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운영체계 고도화

[세부과제 3] 권역별 대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보급

- 문화기획자 및 문화단체 지도자의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역량 지원
 - 문화기획자(예 : 지역축제 운영 관계자, 도시계획 전문가, 여행(답사) 기획자, 방송 및 공연기획자 등)를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문화단체 지도자의 문화유산 인식 제고 위한 인천 소재 문화원, 민간단체의 지도자 대상 문화유산 교육 연수 실시
 - 권역별 대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구성 통해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문화기획자 및 문화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3-4년차	• 문화기획자 및 문화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안정화
5년차	• 문화기획자 및 문화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 확대(지역, 대상 등)

[세부과제 4] 문화유산 에듀케이터(방문교사) 양성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방문교사) 양성
 - 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활성화 위한 에듀케이터(방문교사) 양성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방문교사) 자격과정 개발 및 운영기관 지정
 - 양성된 문화유산 교육 에듀케이터의 교육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연 단위의 정기적인 재교육 실시
 -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최신 교육 트렌드 및 영상 콘텐츠, 교구 등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
 - 관련 교과 교원을 문화유산 에듀케이터로 양성하는 방안 모색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의 활용 방안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교육 활동 활성화 위해 방문교사 인력풀 관리, 교육수요 기관과 연계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간 우수 교안 및 교수법 공유 위한 온라인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대상 우수 교안 경진대회 운영을 통한 우수 교수법 사례 공유 및 확산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자격과정 개발 및 교육 기관 지정
3-4년차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와 교육수요 기관과의 연계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5년차	•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제도 시행의 평가 및 미비점 보완

■ 사업효과

- 청소년 및 시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 교재 및 콘텐츠 보급
- 청소년 적성과 재능 계발
- 시민들의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 문화유산 교육 지속가능성 확보

■ 소요예산 : 90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학교 연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융합형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250백만원	신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250백만원	신규
권역별 대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보급	250백만원	신규
문화유산 에듀케이터(방문교사) 양성	150백만원	신규

(2) 문화유산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학생 대상)

Ⅰ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는 1960년대 이후 보존 및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이후 문화재 활용과 교육의 중요성 부각
 -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권리 의식이 강화되면서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유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현대 예술 중심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서 문화재교육 제도 도입을 명시하였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유산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음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문화유산 교육 효율성 제고 및 모델 개발과 보급을 위한 중점학교 지원, 교원연수 확대
 - 문화유산 고유 가치 반영 및 국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제고하는 문화유산 교육 정책 필요
- 문화유산 교육 우수학교, 교사, 학생 지원으로 문화유산 교육 참여 활성화
-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문화재청, 교육청, 각급 학교 연계 협력
- 청소년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학교 밖 체험활동 중심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공교육과 연계 강화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 패러다임의 전환 : (이전) 지식암기위주 교육 → (개정)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 초등학교 : 안전교육 강화, 소프트웨어교육 신설, 한글 및 독서교육 강화
 - 중학교 : 교과학습량 감축, 소프트웨어교육 신설, 자유학기 실시
 - 고등학교 : 문·이과 공통과목 신설, 기초교과영역에 한국사 포함, 진로 및 적성 맞춤교육
- 고교학점제 도입(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0)
 -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중 하나임
 -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 입시 중심 → 학생 성장 중심 △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 →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 수직적 서열화 → 수평적 다양화 등 크게 3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2년부터 전면 도입 시행할 예정임
-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긴 2019년부터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음
- 2017. 10. 문화재청 문화유산 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2017-2021) 수립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7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확대
- 2018. 2. 문화재청 문화유산 교육 사업설명회
 - 문화유산 방문학교(31개) : 문화유산을 주제로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진행되는 문화유산 교육
 - 문화유산 체험교실(11개) : 문화재 발굴현장 또는 민속문화재를 직접 방문하여 문화유산 현장에서 이뤄지는 체험교육
 - 테마 문화재학당(5개) : 일정한 주제를 갖고 관련된 문화유적에서 집중적 강의와 답사로 구성되는 교육
-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필수화 등 역사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교육은 한계
 - 현행 한국사 교과서는 문화유산의 비중을 강화하였으나 문화유산을 정치와 제도의 표현물로 보는 한계 지속
 -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문화사」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으나 2009년 고교 교과목 축소에 의해 교과목 폐지(교재 미개발)
 - 문화유산은 다양한 교과와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 이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한계
 - 초등학교(5-6학년) 교육과정에서 문화유산이 일부라도 활용되는 교육시간은 전체 교육시간의 4.36%에 불과
- 문화유산채널(<http://www.k-heritage.tv>)
 -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고품질 문화유산 콘텐츠를 서비스 하기 위하여 설치됨
 - 기록화 : 문화재 유형별 콘텐츠 제작,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확대, 문화재 독점 발굴 콘텐츠, 문화유산 뉴스 아카이브
 - 교육 : 수업활동 보조재, 문화유산 가치 재발견, 자유학기제 연계, 해외 보급용 교육콘텐츠
 - 대중화 : 국내외 TV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외국어 프로그램 제작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문화유산 교육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

- 문화유산 교육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교재 보급
 - 문화유산 교육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 문화유산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교육 중점학교 선정
 - 교재 보급, 프로그램 적용, 교육 컨설팅 우선, 교사 연수프로그램 지원
 - 2020년 문화재청 문화유산 교육 창의체험학교 프로그램 지원 유도
 - 문화유산 교육 자체 운영 학교 우선 지원
- 문화유산 교육 컨설팅 및 수업모델 개발
 - 인천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 우수 교육 사례 수업모델 개발 및 보급
- 학생 문화유산 교육 동아리 지원
 -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청소년 문화유산 동아리 지원, (가칭) 문화유산청소년단 발족, 교사-학생 사제동행 문화유산답사 지원
 - 학교 축제에서 문화유산 활용 홍보 및 지원
 - 문화유산 활용 축제 경연대회
- 교사 활동 지원 및 연수 지원
 - 교사들이 역사 수업, 문화유산 교육 수업 교안 개발 지원 및 지역 학교 공유
 - 인천문화유산포털 활용
 - 문화유산 교육 우수 교사 포상
 - 문화유산 교육 및 지도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문화유산 교육 전문 교사의 인력풀 관리 및 컨설팅단 등의 역할 부여
- 해외 문화유산 교육 기회 제공
 - 문화유산 교육 우수 교사 선정을 통해 해외의 우수한 문화유산교육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외의 우수 교육 사례 분석 및 인천 지역 특색에 적합한 적용 방안 탐색
- 중점학교 교육자 연구모임 및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중점학교의 문화유산 교육 교육자들의 교육경험과 우수성적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모임 지원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문화유산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계획 수립
3-4년차	• 문화유산 중점학교 모니터링
5년차	• 문화유산 중점학교 교육 효과 파급

[세부과제 2]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강화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 클러스터를 통한 자유학년제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협력기관-프로그램-전문가 연계형'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제공하여 학생이 관심분야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습 활동의 수준을 '일반 탐색'과 '심화 및 창의활동'의 2단계로 제시하여 학습자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 기회를 제공함
- 동일한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도 학습 활동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 제시 가능
- '일반 탐색' 활동은 저학년,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안하고, '심화 및 창의활동'은 '일반 탐색' 프로그램 체험 후, 각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자유학년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협력기관과 관련 전문가를 연계해 프로그램 구축 후, DB화하여 자유학기제 담당 학교 및 교사들이 보다 쉽게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칭) 클러스터를 통한 자유학년제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표 69> 자유학년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예시)

구분	학습 활동 수준	협력기관	프로그램	전문가
예시 프로그램 1	일반 탐색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무형유산 체험교육	무형유산 전승자
	심화 및 창의활동		무형유산 유형별 무형유산 전승자 인터뷰 후 킬링쓰기	
예시 프로그램 2	일반 탐색	인천시립미술관	디지털스토리텔링을 통한 전시 체험(RFID 등)	미술관 전시 기획자
	심화 및 창의활동		모동별 전시 기획안 구성	
예시 프로그램 3	일반 탐색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문화재복원 체험	문화재 보존과학자
	심화 및 창의활동		문화재복원의 과학적 원리 탐색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클러스터를 통한 자유학년제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3-4년차	클러스터를 통한 자유학년제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모니터링
5년차	인천 지역만의 자유학년제 맞춤형 특화 교육프로그램 구축

[세부과제 3] 학교 밖 문화유산 교육 지원 모델 다양화

-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 박물관 교육, 무형문화재 교육 등을 학교 외부 기관에서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실시
- 문화유산 체험교실
 - 문화유산 놀이터, 문화유산 고고학 체험교실 등 한국문화재단 및 발굴조사기관 연계 프로그램 확대 시행
 - 문화유산 활용 진로체험 교육 등
- 문화유산 교육 영상 및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문화유산 포털, 문화유산채널 연계
 - 교사연수 등을 통해 인천의 문화유산을 담은 영상콘텐츠 및 교육콘텐츠 보급 활성화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3-4년차	• 문화유산 체험교실 확대
5년차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 사업효과

- 문화유산 교육 보급률 제고(문화재청 목표 : 2017년 8%, 2019년 26%, 2021년 52%)
 - 문화유산 교육 중점학교가 선도
 - 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 진로교육, 인성교육 등과 연계

■ 소요예산 : 8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문화유산 교육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	100백만원	신규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강화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250백만원	신규
학교 문화유산 교육 지원 모델 다양화	500백만원	개선

(3) (시민 대상)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별 문화유산 교육 참여 촉진으로 인천시민으로서 정체성, 소속감 제고
- 문화유산, 풍속과 전통적 생활방식, 고풍스러운 역사적 풍경 등을 점차 풍부하게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전승하여 지역 자원으로 존속

- 지역 주민들이 문화유산을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재생에 기여
- '지역 문화재 생생(生生) 활용', '자연유산 민속행사'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연계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향유 확대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의 수용성 제고
- 인천 시민 역사문화 시민 랩(lab)
- 시민 주도 역사문화 동아리 지원
 - 지역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민주적 운영 :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가꾸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자체 조직을 만들어 내부적 의사결정과 협력을 통해 마을을 정비하고 유지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문화유산 기반 마을 만들기
 -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품위 있는 마을 조성 및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유산의 가치 향유
 -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과 '역사적 풍경' 등을 유지하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개별적 보호보다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확대
 - 문화유산과 '전통적 풍경' 등을 역사성과 전통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역사 문화적 경관 확보
 - 지역 근대문화유산을 정비하여 환경 개선 및 공동체적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로는 인천 옛 일본 은행 지점 건물들, 목포와 부산의 동양척식회사 지점 건물, 군산의 근대 건축물 등을 정비하여 전시관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경험 있음
 -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 및 문화유산 기반 마을 만들기의 확산 필요
- 영암 구림마을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의 전통과 지역 자원에 주목하여 전통마을을 조성한 사례
 - 한국 최초로 유약 바른 도기를 생산한 도기가마터를 발굴조사(1986, 1996) 후, 출토 유물과 유적, 조선시대 마을길 등 유형문화재와 대동계, 당산제 등 무형문화재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전통 마을 조성
 - 영암도기박물관 개관 및 한옥 민박 운영, 월출산 달맞이 공연 등을 통해 가치 확산
- 2017. 10. 문화재청 문화유산 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2017~2021) 수립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67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생생문화재 사업(문화유산 유유자적 : <https://www.cha.go.kr/eventInfo/index.do>)
 - 문화재청과 각 지방단체가 힘을 합쳐 전국 각지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 살아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자 체험 현장으로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문화재 활용 사업'
 - 기존의 문화재보존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생생하게 다가가는 사업임

- 인천시 생생문화재 사업

<표 70> 인천시 생생문화재 사업

미추출구	"비류, 문학산에 내일을 품다!"
강화군	8000년의 비밀, 저어새와 두루미를 품은 갯벌
계양구	출발! 生生 계양 여행 <3色 매력 우리고을>

○ 근대 군산 시간여행

-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통하여 일제 강점기 역사를 공부하고, 음악회, 지역 초·중학생·중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
- 대상문화재 :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등록문화재 제183호) 외 5개소
- 주요 프로그램

<표 71> 근대 군산 시간여행 주요 프로그램 구성

군산의 근대역사탐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10월 / 총 15회 • 신흥동일본식가옥 내부 해설프로그램 • 7월~11월 10:00~17:00 매주 토, 일요일 / 총 43회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 외 5개소 초·중학생, 가족, 일반인 / 회당 20명 내외 • 군산 원도심 내 문화재들을 통해 군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등 역사인식 제고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10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13:00~17:00 / 총 17회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 외 2개소 일반인 • 음악을 통해 일제강점기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짐
문화재 감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10월 둘째주, 셋째주 토요일 9:00~17:00 / 총 20회 • 근대 교육관 외 1개소 초·중학생 / 회당 20명 내외 •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및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동요학교, 연극학교 진행
문화재로 진로를 잡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10월 / 총 20회 • 군산 신흥동일본식가옥 외 1개소 초·중학생·중학생 / 회당 30명 내외 •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문화재를 활용한 진로교육
공감백배 군산역사문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4월 / 총 8회 • 근대 교육관 일반인 • 문화재 해설사(문화유산 이야기꾼) 양성과정

○ 목포 근대역사여행

- 개항 도시만의 특색인 일본인 거리의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일본식 건축물 속 근대시기 목포 사람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당시 인물들의 활약을 거리극으로 재현하여 올바른 역사인식과 암울한 역사 속 빛나는 목포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
- 대상문화재 : 구 목포 일본영사관(사적 제289호),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지점(전라남도기념물 제174호), 이훈동정원(문화재자료 제165호)

- 주요 프로그램 : 목포 근대 역사여행

- ▶ 5월 26일, 6월 23일, 9월 15일, 10월 27일 15:00~18:00 / 총 4회
- ▶ 목포근대역사관 1, 2관, 이훈동 정원 등 목포 역사유적 | 가족단위 / 30명 내외 | 도보
- ▶ 목포 근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장소 투어와 거리극의 만남

○ 서울 송파구 : 한성백제 부활의 꿈

- 서울 석촌동고분군에 관한 문화유산 가치를 극대화하여, 고대인들의 삶과 죽음, 한성백제의 역사적 사실, 백제 초기의 고분에 대한 이야기 등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친근하고 익숙한 문화재로 재해석하여 다양한 체험과 학습이 이뤄지도록 함
- 대상문화재 : 서울 석촌동 고분군(사적 제243호)
- 주요 프로그램

<표 72> 한성백제 부활의 꿈 주요 프로그램 구성

백제야 놀자! 돌말 스토리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4일(화)~27일(금), 9월 4일(화)~7일(금) 10:00~14:00 / 총 8회 • 돌말 스토리마켓 • 석촌동 고분군에 상설 체험장 및 공예품 중심의 플리마켓 운영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돌말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28일(토)~29일(일), 9월 8일(토)~9일(일) 13:00~18:00 / 총 4회
돌마리, 별이 빛나는 밤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7일(화)~27일(금) 19:00~21:00 / 총 11회 • 백제 사람들의 영원한 안식처에서 가족참가자들이 밤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헤아리며 동양 별자리 이야기와 별시 낭송, 별밤 음악회에 빠져본다

○ 인천문화재 야행

- 개항장 문화재 야행

□ 문화재와 함께 떠나는 밤마실

- ▶ 일 시 : 2018년 9월 8일(토) ~ 9월 9일(일) 20:00~21:00
- ▶ 장 소 :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
- ▶ 행사내용
 - 문화재 및 민간 문화시설 야간 무료개방
 - 문화재 관련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
 - 인천 개항장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
 - 스탬프 투어
 - 개항장의 모든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저자거리
 - 지역예술 문화예술품 전시 및 판매 복합장터

- 강화 문화재 야행

- ▶ 행사명 : 「2018. 강화 문화재 야행(夜行)」
- ▶ 기간 : 2018.9.14.(금) ~ 9.15.(토) 18:00~23:00
※ 2018.7.20.(금) - 7. 21(토) 1회차 행사 완료
- ▶ 개최장소 : 강화읍 용흥궁 공원 일원
- ▶ 테마 : 고려왕도에 흠뻑 젖다!
- ▶ 내용
 - 강화읍 북문길 일원 문화재, 공공시설 개방 및 문화행사
 - 초청공연(SG워너비 이석훈, 장덕철) 및 미디어파사드공연, 체험프로그램, 마켓, 먹거리 행사 등
 - 스탬프 투어
- ▶ 8夜 세부프로그램 (<https://ganghwanight.co.kr/>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 및 현장신청)
 - 꽃마차투어
 - 문화재에서 찍는 나의 인생샷
 - 강화도 알쓸신잡 투어
 - 강화 고려학당
 - 고려역사 미션임파서블
 - 강화문화체험부스
 - 고려궁지 별자리 관측 등

■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유산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민대상 (가칭) 문화유산 교육센터 지정

- 평생교육 관점에서 종합계획 수립
 - 문화유산에 대한 평생교육 부분은 현재 해양왕실문화유산 영역에서 부분적으로만 시행
 - 인천시 차원에서 평생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담당부서 배치 및 예산 확보, 포괄적·체계적 종합계획 수립 시행
- 문화유산 교육의 대상을 전세대로 확대
 - 현재의 학교중심, 어린아·청소년 중심인 문화유산 교육을 사회 교육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
 -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문화유산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면밀한 세대별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 설정
-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유산 평생교육에 대한 활용 프로그램 지원 및 시민대상 (가칭) 문화유산 교육센터 지정
 - 문화유산 관련 단체, 대학, NGO, 지역단체 등의 문화유산 (가칭) 문화유산 교육센터 지정 도입 적극 검토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시민단체 등과 연계체제 구축

- 장기적으로 지역 내 자발적인 문화유산 관련 학습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인천지역 내 문화유산을 행정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공무원 대상 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등 문화유산 인식제고가 가능한 연수과정 제공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유산교육 종합계획 수립
3-4년차	• 시민대상 (가칭) 문화유산교육센터 지정
5년차	•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세부과제 2] 시민 대상 문화유산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생애주기형 문화유산 교육 모델 개발
 -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유·초·중·고·대학생), 평생교육(성인, 노년층) 등 생애 주기에 맞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각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설정 및 세대별 특성화 교육,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의 경우 학교 중심으로 문화유산 교육 통한 지식 및 기초역량 함양, 청장년은 여가와 치유, 노년층에는 안정과 활력 등을 제공
- 권역별 문화유산교육 대표 프로그램 운영
 - 권역별 주요 문화유산 특성에 맞춘 지역 교육상품화 추진
 - 누구나 쉽게 인천 지역의 문화유산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유산 강좌 개설을 통해 문화유산 교육의 대중화 실현
 - 지역 축제를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 특강 및 체험 프로그램 시행
 - 인천 지역 내 권역별 대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방향 공유
- 시민 주도 역사문화 동아리 지원
 - 자발적 모임을 통해 지역 인근의 역사문화 답사, 탐방, 홍보 등 기능의 동아리 지원
 - 주민이 답사, 탐방, 연구의 주체가 되는 혁신적 시스템
 - 역사문화 기반의 마을만들기 연계
 - 문화유산 개념의 패러다임 전환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주민 주도형 교육 프로그램
 - 강사, 전문가 등은 허브 기관에서 연계 가능
 - 우수동아리 및 주민의 동아시아 개항지 연수 추진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생애주기형 역사문화교육 모델 개발
3-4년차	• 시민 주도 역사문화 동아리 지원
5년차	• 우수 모델 발굴 및 보급

[세부과제 3]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활용을 통한 정서안정, 생활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지역 정체성 정립 및 문화적 권리 실현 기회 제공
 - 지역주민·단체 및 기관 간의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지속적 발전 기반 마련
 -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 체계 구축
 - 지역주민들의 문화유산 교육 관련 요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문화유산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문화유산 동호회 활동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문화유산 답사 활동 지원 및 우수 동호회 발굴 및 사례 보급
- 무형유산의 체험을 통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연유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심신 재충전의 기회
 - 가족단위 대상 혹은 문화유산 동호회 대상 체험 교육활동 개발 및 운영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생활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4년차	• 생활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주민 참여 확대
5년차	• 우수 모델 발굴 및 보급

[세부과제 4] 취약계층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문화유산 이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이주민의 경우 한국사회에 적응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실시
 - 인천지역 내 도서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실시
 -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기자재 및 콘텐츠 지원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취약계층 대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4년차	•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 실시
5년차	• 취약계층 대상 문화유산 교육의 활성화

Ⅱ 사업효과

-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및 사회통합에 기여
-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기반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Ⅲ 소요예산 : 6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유산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민대상 (가칭) 문화유산 교육 센터 지정	250백만원	신규
시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100백만원	개선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활용을 통한 정서안정, 생활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150백만원	신규
취약계층 문화유산 교육 기회 확대	150백만원	개선

2)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1) 인천 문화유산 연구기관 확대 및 인천역사문화센터 기능 강화

Ⅱ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학에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인천문화재단 내 설치된 인천역사문화센터가 인천의 문화유산 연구 및 정책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연구자 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역사, 문화유산 연구 지원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활성화의 기반 마련
- (가칭)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사업단 선정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등과 차별화

Ⅱ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지역학이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함

- 역사와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 공통의 정체성을 인문, 사회, 자연 등 다양한 학문적 분야를 통해 학제간 연구를 실시하는 학문임
- 지역학과 관련된 문화유산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지역의 대학이나 문화재단이 지역문화를 주로 연구하고 진흥정책을 활성화하고 있으나,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광범위하고 문화예술이 현대적 개념으로 해석되는 결과 문화유산은 역설적으로 소외받는 경우도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상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2018년 1월 강화역사문화센터가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명칭 변경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업무 중복 방지
 -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이 기존 시립박물관이나 시 역사자료관과 중복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독자적 기능을 발전시켜야 함
- 인천문화재단(<http://www.ifac.or.kr/>) 인천역사문화센터 업무 분장
 - 인천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종합발전계획 연구
 - 인천 해양역사문화 탐구
 - 인천해양역사문화홍서 발간
 - 국내·국제교류사업 운영
 - 삼별초 역사문화교류
 - 인천 역사시민대학 운영
 - 인천 역사 서포터즈 운영
 - 인천 역사통신 발간
 - 홍보물 제작
 - 자문위원회 운영
 - 인천 역사 학술회의
 - 인천역사 다큐멘터리 제작
 - 인천 역사 달력 제작
 - 강화 관방유적 조사연구
 - 강화해양관방유적 총서 발간
 - 강화해양관방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인천 역사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 인천 역사공간정보DB구축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보존관리 및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2017년 2월 28일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연구기관임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궁궐, 성곽, 고분, 사지 등 주요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시대별 문화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구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역할 : 수도권 문화유적 조사·연구, 종남토성 발굴조사, 고려도성 학술조사 및 심화연구, 경복궁 발굴조사.
- 한국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 다양한 문화재 콘텐츠 구축 및 활용과 고품격 전통문화상품 보급
 -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와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한 재단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효율화 추진
 - * 한국문화의 집 공연사업, 전수회관 공연전시사업, 한국의 명인명칭 상실공연, 전통예술 공연, 전통문화 홍보사업 등 한국문화재단 지원
-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포털 및 문화재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개방·활용
 - 개념 : 연구보고서(간행물), 사진, 도면, 탁본, 영상, 3D 등 개별적 서비스 형태에서 이를 테마화, 주제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통합적 형태로 개방 서비스 함
 - 주요내용

▶ 집 성(테마화, 주제화)

- 자체 생산된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테마, 주제에 맞는 국내외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빅데이터화 함
- * 관련보고서, 사진, 도면, 탁본, 영상, 3D, 논문, 학술지, 문헌자료, 법령 등 타 기관에 구축된 자료와도 OPEN API를 통한 연계 구축

▶ 개 방(Open API, 데이터 Set 구축)

- 민간이 국가가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웹 사이트 등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인 Open API, 데이터 Set 마련
- 국가의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구축비용 절감과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창출가능(예시 : 서울시 교통업)

▶ 활 용 (문화유산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원소스 멀티유즈(OSMU)가능하도록 고품질 데이터를 모바일, 태블릿, 웹사이트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이용가능하도록 가공 서비스 제공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을 활용하여 체험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움직이면서 체험하는 헬스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등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가칭)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사업단 선정

- 역사문화 환경에 기반한 인천학 연구를 활성화하려면, (가칭)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사업단을 대학 및 기관 4~5곳을 선정하여 연구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각 사업단을 인천시 문화유산 권역과 연결하여 사업단 별 담당 권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사업단에서는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가 교육 등을, 역사문화센터는 시민 대상 문화유산 활용과 교육, 관광 자원 연결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실시함
- 연구 및 사업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담당 권역별 연구를 심도 깊게 진행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단 선정 • 사업 계획 수립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 사업 시행, 연구 성과 공유 • 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의 안정화 및 신규 연구 과제 개발

[세부과제 2]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 강화

- 지역사 연구 자료 수집 및 체계적 정리(DB화)
- 인천역사문화센터는 인천학 연구를 위한 통합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 인천문화유산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연구 기능 강화
- 문화유산 교육 및 향유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북한 황해 지역과의 역사문화유산 연구 교류
- 문화유산에 기반한 생활문화 진흥 및 환경 연구
- 인천을 문화유산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유산 중심의 심층 지역학 연구 수행
- (가칭)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사업단 운영의 허브 역할
-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지속연구
- 문화재연구소와 차별화된 지역학 중심의 센터로 발전하여 네트워킹 기능 강화 필요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문화유산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연구 기능 강화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교육 및 향유 대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문화유산에 기반한 생활문화 진흥 및 환경 연구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역사문화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세부과제 3] 인천문화유산 교육포털 개설 및 온라인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 보급

- 문화유산 교육포털을 활용한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교육 정보 제공
 - 다양한 정보 획득 및 교육 협력, 확산 플랫폼으로 운영
 - 교사, 학생 대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 플랫폼
-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문화유산 강좌 개설
 - 인천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대중화 실현
 - 교육 프로그램 주체에 따라 유료, 무료
 - 대학(평생교육원 포함)에서의 강의 개발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 강좌 확대
-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털과 차별화된 기능
 - 인천지역 문화유산 교육 및 관광 홍보로 기능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문화유산 교육포털을 활용한 문화유산 정보 및 관련 교육 정보 DB화
3-4년차	• 문화유산 온라인 강좌 확충
5년차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Ⅱ 사업효과

- 인천 문화유산 및 역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 확대 및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활용 지원 및 보급
- 인천을 문화유산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학제간 연구 유도 및 학문적 기반 강화
- 인천의 문화유산 연구 기능 강화 및 전문가 육성 활성화
- 인천의 역사 및 문화유산 DB화 및 정보 공유로 연구 지원

Ⅲ 소요예산 : 8,40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가칭)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단 선정	1,000백만원	신규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 강화	6,200백만원	개선
인천문화유산 교육포털 개설 및 온라인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 보급	1,200백만원	신규

(2) 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Ⅲ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역사,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이 실시해야 하지만, 관련 자격증 제도나 인력 양성기능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문화재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양성하는 전문가들이 일부 있으나,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 문화유산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 양성 기반 마련
 - 민간자격으로 문화유산 교육전문가 자격증(예 : 궁궐문화원 발급)이 있으나 활성화되지는 못함.
- 박물관 학예직이 있으나 이들이 문화유산 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업무의 분야가 다르고 인력이 부족한 형편임

Ⅱ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문화유산센터 또는 박물관, 각급학교 방문교육 등에 문화유산 전문가 활용
- 문화유산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에듀케이터)인력 역량 강화
- 지역 대학 육성 및 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 교사들의 문화유산 교육 연수는 학교 문화유산 교육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교원을 제외하고 논의함

Ⅲ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문화예술교육사

<표 73>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요건

등급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사람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참여자”라 한다)	

- 2급 교육과정은 15과목 40학점 600시간(예술전문성 영역 포함)으로, 문화예술교육 개론,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과목(10과목 이상, 전공자는 제외)이고, 1급 교육과정은 5과목 150시간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I, II 등으로 문화유산 보다는 문화예술 일반에 관한 것임
- 문화예술교육사 중에 문화유산을 전문으로 한 경우는 흔하지 않아, 문화유산교육을 별도로 독립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음

○ 문화관광해설사

-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일반적으로는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관광지에서 방문 목적이나 관심분야, 연령층 등에 따른 다양한 관광객들에게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안내하는 사람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벼운 이야기 위주의 해설로부터 역사, 문화, 자연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함
- 관광객들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하고, 문화재를 비롯한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며, 문화유산해설사, 문화재해설사라고도 함
-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는 방법은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해설사 인원을 관리하며, 필요시 충원됨
- 관광진흥법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의 인증(認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開設)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2019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변경되는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짐

○ 문화재 돌봄사업의 문화재 돌봄비

- 문화재 일상관리, 경미수리로 훼손 사전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 취약계층 인력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제도 운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에 근거함.
- 관리대상은 국가지정(등록포함)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이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추가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를 관리함.
- 주요한 활동 내용은 모니터링, 일상관리(청소, 조경관리 등), 경미수리(창호보수, 목공작업, 벽체보수 등)임.
- 추진방식은 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5:5)으로 민간위탁(11곳), 시·도 산하기관 위탁(3곳), 시·도직영(3곳)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예방적 경미보수 시행을 통해 사후보수 예산 절감

○ 문화재지킴이

-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 활동 지원을 통하여 문화재 보호의식 확대 및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작
- 2016년 10월 현재 61,751명의 지킴이와 56개 협약기업이 활동하는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성장함
- 제도 운영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에 있음
- 활동 대상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함. 다만, 박물관 소장 문화재, 출입·공개제한구역 내 문화재소유자·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문화재 등은 제외됨.
- 주요한 활동 내용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화재감시 및 순찰활동, 문화재 홍보 및 교육 활동 등
- 제도 추진 방식은 민간단체 경상보조 방식임
- 추진실적

<표 74> 문화재 지킴이 추진 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0월)
위촉건수(누계)	3,874건	15,604건	17,109건	18,450건	19,137건
활동인원(누계)	100,042명	59,279명	60,172명	69,508명	61,751명
협약체결(누계)	46건	47건	50건	55건	56건
기업 등 기부 현황	27.7억원	16.2억원	17.9억원	32.9억원	22.8억원

- 문화재 분야 자원봉사활동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박물관 에듀케이터

- 박물관에는 박물관의 이념과 운영의 주축이 되는 관장을 비롯하여 행정적인 사무를 맡고 있는 행정사무 관리자, 학예연구사, 자료관리담당관, 보존과학자, 그리고 교육담당의 에듀케이터, 보안을 책임지는 경비원, 자원봉사자 등이 있음.
- 박물관 에듀케이터란 박물관의 모든 행위를 시민 일반인에게 교육하는 교육전문가를 말함
- 유럽과 미국에서는 박물관 에듀케이터가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양성되고 있는 것은 아님
- 그러나 최근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박물관 에듀케이터 양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박물관 에듀케이터는 학예직이 맡는 경우도 있으나 역사와 문화재,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학예직 중에서도 특별하게 양성하거나 별도로 양성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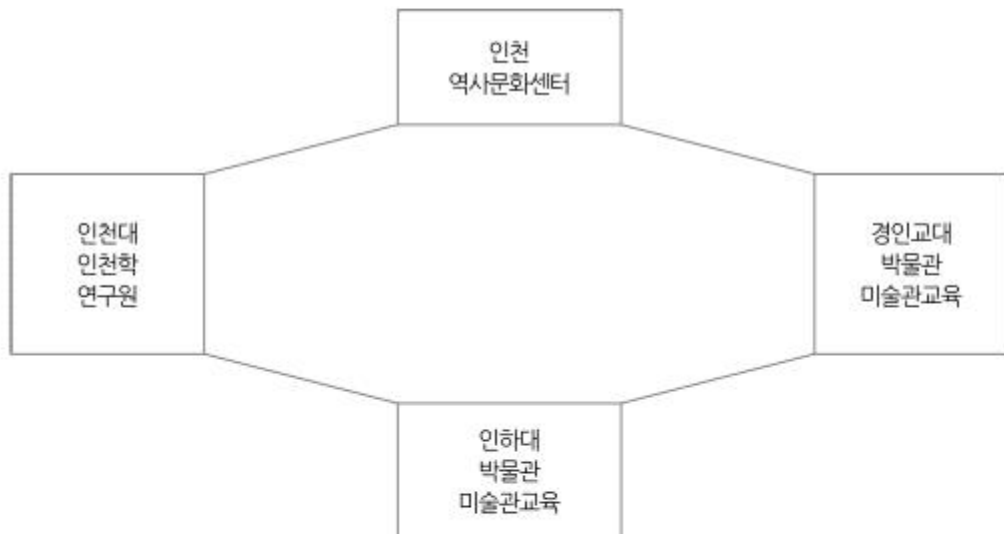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20대 국회 이상현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5501)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도 문화재 관련 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 교육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문화재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문화재보호 정책의 기능적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함. 나아가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지역문화재교육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문화재교육', '학교문화재교육', '사회문화재교육'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문화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1항제7호의4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3 신설). 문화재청장이 지역문화재교육센터를 지정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문화재교육, 사회문화재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5, 제22조의6 신설).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및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7, 제22조의8 신설)
- 사실 문화예술교육과 문화재교육은 상호 독립적 영역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분리 입법, 부처간 업무 영역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며, 동법이 통과될 경우 문화재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지역 문화유산 관련 학과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에 문화유산 관련 학과, 인천학 관련 학과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인천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인천대 역사교육과,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 연구소, 인하대 사학과, 인하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및 박물관미술관교육 전공,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박물관미술관교육 전공 등 지역 문화유산 관련 학과 지원
 - 인천학연구원(<http://www.isi.or.kr>)은 인천의 역사·문화·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인천 사회의 현실적인 역동성을 인문학적으로 규명하고,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2002년 설립되었음. 인천 연구의 성과를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사업, 인천 연구자 지원 및 자료 지원 사업, 인천의 역사·문화 교육 지원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학 관련 주제를 심층 토론하고 연구방법론을 확장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연구 성과는 「인천학연구」, 「교수논총」, 「인천학자료총서」 등의 간행물을 통해 지역 및 전국 학계에 발표하고 있음
 - 인천 주민 대상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유산 교육 지원
- 대학에 문화유산 관련 전공 개설 및 지원
 - 인천문화유산 연구 지원 및 성과 공유
 - 인하대 박물관, 경인교대 미술관 등 대학 내 박물관 지원
 - 교육대학원 박물관미술관교육 전공을 문화유산 교육 전공으로 활성화
 - 인천 관내 박물관과 대학의 문화유산 관련 전공의 MOU 체결 유도.



〈그림 34〉 지역 문화유산 관련 기관의 연계

- 대학별 집중 연구 및 관리 대상 문화유산 권역 선정
- 문화유산 교육 관련 학과를 통한 인천지역 문화유산 교육 역량 제공
 - 대학에서 문화유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 개설 유도 - 인천시와 협력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문화유산 연구대상 선정 및 역할 분담 • 대학 박물관 지원, 시민교육 지원 • MOU 체결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 추진 •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및 보급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관련학과와의 정기적인 성과확산 포럼 진행 • 문화유산 연구 및 콘텐츠 활용 효과 검증

[세부과제 2] 문화유산 전문 인력의 다양화

- 지역문화유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재교육
 -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과정 개선
 - 문화유산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강화의 경우 다양한 문화유산별로 전문가 양성, 통합프로그램 해설사 양성 등
- 문화유산지킴이 양성 및 교육
 - 시민단체 문화유산지킴이 양성과정 지원
 - 대학, 회사 등 민간영역에서 문화유산 지킴이 자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문화유산지킴이는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간접적 지원이 필요함
- 문화재 돌보미
 - 일상적 예방관리에서 경미한 수리,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는 문화재 돌보미 교육
 - 문화재 돌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보미 교육과정 고도화함
 - 인천시 문화재 돌봄사업이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
 - 돌봄단체를 강화와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기능할 수 있도록 함
- 박물관 에듀케이터 양성
 - 각 대학이나 박물관에서 양성된 에듀케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박물관 에듀케이터 채용 활성화 지원
 -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박물관 에듀케이터 활동 영역 확대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과정 신설 • 문화유산지킴이, 문화재 돌보미, 박물관 에듀케이터 양성 및 교육 현황 점검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지원 제도 개선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의 활동 영역 확대 및 보수교육 과정 운영 등을 통한 교육 품질 관리

[세부과제 3] 지역 소재 대학박물관 및 작은 박물관 지원

○ 작은 박물관 지원 사업 확대

- 작은 박물관 활성화 사업은 민영 박물관들의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수장고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임
- 2017년 기준 대상은 인천시 등록 사립박물관으로, 사업 공모 후 심의를 통과하면 박물관 1개당 1개 사업에 대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2017년 총 사업비는 4천400만원으로,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 금액을 늘릴 계획이었음
- 시민 300만명의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작은 박물관, 대학박물관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 특성화와 안내 책자 발간

- 지역 문화유산 권역과 결합한 박물관 특성화 사례 발굴 필요.
- 박물관과 지역유산 답사를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사립 박물관 활성화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이 활성화될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문화유산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아동 청소년 대상 박물관, 체험형 박물관, 선사 박물관, 근대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등 특성에 맞는 박물관 유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인천 소재 박물관 전문인력 고용 확대 지원

- 학예직, 보존 및 수리직, 연구직, 에듀케이터, 관리직 등 박물관 전문인력 고용 확대를 지원함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박물관 지원 사업 지속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특성화 및 안내 책자 발간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미비점 보완

Ⅱ 사업효과

-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전문성 제고
- 문화유산 연구 기반 마련

- 문화유산 종합 발전을 위한 학술적 기반 마련

■ 소요예산 : 1,85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지역 문화유산 관련 학과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800백만원	신규
문화유산 전문 인력의 다양화	300백만원	신규
지역 소재 대학박물관 및 작은 박물관 지원	750백만원	개선

(3)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및 연구 기반 강화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 인천 문화유산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파악의 필요
-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인천의 무형유산 실태 파악의 필요
-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초 조사 필요
- 인천의 정체성 탐구 및 확립을 위한 기본 자산 확충
- 보유자, 보유단체 없는 일상적인 종목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국가 무형문화재 정책에 동조하기 위한 자료 집적

■ 정책의 목적 및 방향

- 인천 전 지역 무형유산 조사(조사 대상의 항목화 및 조사 우선 순위 선정)
- 인천 소재 대학과 협조하여 무형유산 조사 실시

■ 정책의 현황 및 근거

-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종합 조사(문화재관리국,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실시)
 - 지역 단위 : 전라남도편(1969년), 전라북도편(1971), 경상남도편(1972), 경상북도편(1974), 제주도편(1974), 충청남도편(1975), 충청북도편(1976), 강원도편(1977), 경기도편(1978), 서울편(1979), 황해도 편안남북도편(1980), 함경남북도편(1981).
 - 주제별 : 어업용구편(1992), 향토음식편(1984), 무의식편(1984), 농악 풍어 민요편(1985), 주생활편(1985), 의생활편(1986), 예절편(1987), 불교민속놀이편(1988), 식생활용구편(1988), 묘지풍수편(1990), 도읍 신앙 생활풍수편(1991), 직물공예편(1991), 산속편(1992), 민간의약편(1996), 운반용구편(1997), 짚풀 공예편(1998), 고군산군도편(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주제별 시도별 종합 조사
 - 단일주제를 각 시도별로 종합조사 실시
 - 일생의례, 가정신앙, 세시풍속을 각 시도별로 간행
- 국립무형유산원의 농경 어로 유산 조사 사업
 - 새로운 법 제정 후 조사가 안 된 무형유산 분야 조사 시작
 - 호남 지역, 충청 지역 농경어로 조사 사업 완료
 -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명 확대에 기여

Ⅱ 추진 세부과제

[세부과제 1]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계획 수립
 - 1단계 : 조사 항목 설정
 - 2단계 : 조사단 구성
 - 3단계 : 실제 조사 실시
 - 4단계 : 조사 보고서 간행
-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의 대상
 - 그동안 조사된 무형유산의 여러 영역 조사
 -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 구비전승, 민간신앙, 세시풍속, 일생의례, 지명 및 언어, 예술 및 공예 등의 분야에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농경 어로, 생활 관습, 민간의료, 우주 및 자연에 대한 지식을 조사 대상으로 정함
 - 특히 농경·어로, 마을신앙, 무속신앙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 인천 무형유산 종합조사 대상1 - 인천 농경·어로 조사 방향성
 - 농경·어로 분야 조사대상 항목 선정·발굴 및 현장조사 실시
 - * 농경어로와 연계되어 있으나 항목 분류가 애매한 축산입업 등은 기타로 분류 가능
 - 인천지역의 자연환경, 생업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전승문화로 정착되어 실체화된 전승지식을 조사
 - 조사항목은 역사상·현재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외 지역상·희소성·시의성 등을 준거로 항목을 선정
 - * 단, 전승 단절이 오래되지 않았고 문화경제생태적 복원가치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음

〈표 75〉 인천 무형문화유산 조사항목 선정 준거

준거	내용
역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여 년 전부터 농어업인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어 전승되는 것 • 역사적 문헌이나 구전 기록이 있는 것 • 미래 존속 가치가 농후한 것
현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세대 간 전승이 유지되고 있는 것 • 발굴·복원된 유산이라도 현재적 전승이 확인 되는 것 • 현재적 기능과 가치가 농후한 것
지역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승 지역의 인문·자연 환경적 요인이 농후한 것 • 지역적 특징과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
희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개인, 집단에 의해 전승되는 것 • 유일의 가치가 있는 것
시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승과 단절의 우려가 있어, 유산의 보호가 시급한 것 • 현 시대적 가치를 지니는 것

○ 인천 농경·어로 조사 대상(안)

- 농경과 어로 중에서 인천 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목록화
- 농경 : 용진 고구마, 용진 참다래, 강화 약쑥, 강화 순무, 강화 인삼, 강화 쌀, 용진 양봉
- 어로 : 백령도 까나리 액젓, 인천 바지락, 인천 해삼, 인천 굴, 인천 새우젓, 강화 밴댕이, 강화 장어, 인천 꽃게

○ 인천 무형유산 종합조사 대상2- 마을신앙

- 미추홀구 등지의 마을신앙 조사 필요
- 용진군 일대의 도서 마을 신앙 조사
- 조사 항목 선정 준거 : 마을에서 전승되었거나, 현재에도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 전체
- 인천 각 구 문화원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조사 실시

○ 인천 무형유산 종합조사 대상3-무당굿

- 인천 무속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조사 실시
- 무당이 주재하는 모든 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 조사 대상 곳 : 강화교동진오기굿, 황해도자리건이굿, 황해도성주굿, 황해도철물어굿, 황해도진오기굿, 황해도 만수대탁굿, 강화대동굿 등

○ 무형유산 조사의 장기 전략 수립 필요

- 농경·어로, 마을신앙, 무당굿을 우선 조사
- 뒤이어 연차별로 각 항목별 무형유산 종합 조사 실시

○ 무형유산 종합조사의 주체

- 인천 소재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조사단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 전개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 농경·어로 조사
3-4년차	• 마을신앙 조사
5년차	• 무속 신앙 조사
6년차 이후	• 세시풍속, 일생의례, 구비전승 등 무형유산 항목별 조사 지속

[세부과제 2] 인천 무형유산 연구 활성화

- 무형유산 거점 연구소 선정
 - 인천 소재 대학 연구소 중에서 무형유산 거점 연구소 선정
 - 무형유산 정책,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전파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연구 역량 집결
 - 무형유산 관련 강의 및 교재 개발
- 지역 대학과의 연계 아래에 무형유산 지역학 개발
 - 인천 무형유산 교과서 개발
 - 인천 무형유산 관련 과목 개발
 - 대학과의 업무 협약 후 인천무형유산을 바탕으로 한 인천학 강의 개설 추진
- 무형유산 연구단체 설립
 - 이미 있는 인천민속학회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 (가칭) 인천무형유산 포럼 결성
 -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무형유산 해설사 양성
- 인천 무형유산 포럼 결성
 - 인천 거주 무형유산 관련 학자, 인천 소재 대학 관련자, 인천 시민단체 회원, 인천시 소속 유관 공무원 등이 모이는 무형유산 포럼 결성
 - 인천시 해당 정책 과장이 포럼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참여
 - 연 2회 세미나 및 무형유산 탐방 활동 실시
 - (가칭) 무형유산포럼 저널 간행
- 무형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자, 공무원, 시민이 유기적으로 연결
 - 무형유산 포럼이 중추 역할 담당
- 무형유산 기능 분야 종사 인력 및 연구 인력 네트워크 결성
 - 사라지고 있는 기능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

- 현대화, 기계화의 흐름에 맞춘 전통 기능 분야 방향성 모색 필요
- 네트워크 결성 후 무형유산 포럼과 연계하여 활동 방안 모색

◆ 세부과제 추진 단계

단계	사업의 주요 내용
1-2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거점 연구소 선정 • 인천 무형유산 포럼 결성, 기능 분야 인력 네트워크 결성 • 무형유산 연구 단체 결성
3-4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유산 지역학 교재 및 강의 개발 • 무형유산 포럼 간행
5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유산 연구의 네트워크 강화

* 특기 사항

항목	소요예산
거점 연구소 선정	협약 후 예산 구성
무형유산포럼	구성원들이 자체 회비로 운영
무형유산 네트워크	시민 주도로 운영함

■ 사업효과

- 무형문화유산의 대중적 관심 증대
- 인천무형유산의 연구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

■ 소요예산 : 800백만원(5년간)

세부과제	소요예산	비고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300백만원	신규
인천 무형유산 연구 활성화	500백만원	신규

▶▶ 5. 소요예산 정리(*예산규모는 대강의 추정액, 단위 : 백만원)

〈표 76〉 전략분야별 추정 소요예산

대전력분야	소전력분야	소요예산
문화유산과 인천브랜드	인천 유산의 세계화	3,790
	인천 유산의 가치 보존	58,620
인천형 문화유산보호 패러다임 구축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제고	1,208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 관리	7,598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확대	15,950
	문화유산 거버넌스의 확립	6,050
문화유산 교육과 연구	학교 및 시민 교육 활성화	2,400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11,050
합계		106,666

〈표 77〉 '인천유산의 세계화'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강화역사 유산의 세계화	고려 궁궐 재건 및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개선	240	40	100	100
	강화의 '고려역사문화 특구' 설정 및 발전 방안 연구	신규	400	150	150	100
	강도 역사 경관 길 개발 및 강도 역사 콘텐츠 개발	신규	400	100	200	100
	연례행사 '고려문화축전' 프로그램 개발	개선	800	150	150	500
	강화고려사 관련 국립박물관 유치	지속	350	200	100	50
	고려 역사문화 중심 남북 문화 교류	개선	1,100	400	400	300
국제역사문 화교류발전	세계 주요 역사문화도시와 네트워크 형성	신규	240	90	50	100
	<노르망디 강 기념관>과 교류	개선	260	60	100	100
합계			3,790	1,190	1,250	1,350

〈표 78〉 '인천유산의 가치 보존'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근대유산의 가치보존	인천 근대 유산 특별 유적지 보존 관리	신규	1,050	350	550	150
	근대 역사 공간의 조성 및 콘텐츠 구성	신규	400	200	100	100
	근대 건축물 등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산업화, 상품화	개선	420	100	200	120
권역별 대표문화유산 선정	인천시 권역별 대표문화유산 선정	신규	250	100	100	50
	권역별 문화유산 센터 선정	신규	500	200	200	100
	문화유산 관련 시설의 체계적 운영	개선	1,000	400	400	200
	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지속 추진	지속	55,000	20,000	20,000	15,000
	근대화도시조성사업 지원 및 도시재생	신규	문화재청 예산 지원			
합계			58,620	21,350	21,550	15,720

〈표 79〉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과 제고'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 및 세계유산 등재추진	시 지정문화재의 국가지정 승격	지속	30	10	10	10
	강화 해양 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속	750	250	300	200
	강화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신규	200	50	50	100
인천 무형유산의 정체성 재정립	무형문화재 분류안에 따른 지정 현황 파악 및 비지정 무형유산 세부 목록 작성	신규	178	50	50	78
	권역별 무형유산 정체성 확립	신규	50	20	20	10
	합계		1,208	380	430	398

〈표 80〉 '문화재 유형별 효율적 보존 관리'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문화유산 보존과 재산권의 조화	재산권 침해 논란 관련 주민 설득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지속	-	-	-	-
	강화지역 보존에 따른 재산권 보장	개선	500	100	200	200
	근대건축물 보존 및 활용 방안	개선	1,500	500	500	500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체계의 정비	ICT 기반 및 과학적 문화유산 보호 통합관리 체계 구축	신규	1,000	400	400	200
	문화재 일상예방관리 체계 구축	개선	2,500	1,000	1,000	500
	동산문화재 소장자 등 관리책임 강화 및 체계적 보존관리	신규	500	200	200	100
	비지정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지속 추진	개선	500	200	200	100
인천 무형문화재 진흥모델 구축	무형유산 전승 지원 모델 구축	신규	-	-	-	-
	이수자 관리 및 배출의 체계화를 통한 전승자 확대	신규	-	-	-	-
	인천 무형유산 특징에 적합한 공개 행사 점검 기준 설정 및 시행	신규	-	-	-	-
	전수교육관 운영 실태 파악 및 내실화 방안 마련	개선	120	30	50	40
인천 무형문화재 기록 및 활용	기록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	신규	800	400	300	100
	기록화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방안 수립	신규	178	50	50	78
	기록화 결과물 보급 및 보존사업과 연구에 활용	신규	-	-	-	-
합계		7,598	2,880	2,900	1,818	

〈표 81〉 '문화유산 향유와 복지 확대'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시민참여형 역사문화축제 활성화	역사문화축제 지속 확대	개선	5,200	2,080	2,080	1,040
	인천 역사문화도시 대표 축제 선정 및 육성	신규	1,050	420	420	210
	시민 참여 중심의 역사문화축제 육성	개선	750	300	300	150
	역사문화축제의 평가(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개선	1,850	740	740	370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사회적 소외계층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확대	개선	350	140	140	70
	사회적 소외계층 맞춤형 정보서비스 설계 및 제공	신규	1,250	500	500	250
	장애인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개선	개선	850	340	340	170
전통문화유산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관광 확대	개선	650	260	260	130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뱅크 구축	신규	900	360	360	180
	인천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개선	1,250	500	500	250
	인천시 문화유산 포털 개발 및 정보제공 활성화	신규	1,850	740	740	370
합계			15,950	6,380	6,380	3,190

〈표 82〉 '문화유산 거버넌스의 확립'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문화유산 시설 확충 및 거버넌스 지원	문화유산 시설 확충 및 지원 강화	개선	250	100	100	50
	근대건축물을 활용한 문화유산 시설 조성	개선	350	140	140	70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유산 시설 복원	개선	1,750	700	700	350
	문화유산 시설 및 단체 간 거버넌스 지원	개선	900	360	360	180
민간 영역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사업 확대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신규	900	360	360	180
	문화유산활용단체 중심의 문화유산 거버넌스 강화	개선	450	180	180	90
	문화유산형 사회적 기업 육성	신규	300	120	120	60
인천 무형유산과 시민 연계 사업 활성화	인천시 무형문화유산 시민참여형 홍보 지원	신규	250	100	100	50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예술 공연 및 체험행사 확대	개선	400	160	160	80
	생활 속 무형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개선	500	200	200	100
합계			6,050	2,420	2,420	1,210

<표 83> '학교 및 시민 교육 활성화'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학교 연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창의융합형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신규	250	100	100	50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문화유산 교육 교재 개발	신규	250	100	100	50
	권역별 대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보급	신규	250	100	100	50
	문화유산 에듀케이터(방문교사) 양성	신규	150	60	60	30
문화유산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 (학생 대상)	문화유산교육 중점학교 선정 및 지원	신규	100	40	40	20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 강화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신규	250	100	100	50
	학교 밖 문화유산 교육 지원 모델 다양화	개선	500	200	200	100
(시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유산교육 종합 계획 수립 및 시민대상 (가칭) 문화유산교육센터 지정	신규	250	100	100	50
	시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개선	100	40	40	20
	무형유산 및 자연유산 활용을 통한 정서안정, 생활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신규	150	60	60	30
	취약계층 문화유산 교육기회 확대	개선	150	60	60	30
합계			2,400	960	960	480

<표 84>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시기별 추정 소요예산

추진정책	세부과제	사업구분	총액	2019~20	2021~22	2023
인천 문화유산 연구기관 확대 및 인천역사문화 센터 기능 강화	(가칭) 인천역사문화유산 진흥 사업단 선정	신규	1,000	300	400	300
	인천역사문화센터의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 강화	개선	6,200	2,200	2,500	1,500
	인천문화유산교육포털 개설 및 온라인을 통한 문화유산교육 보급	신규	1,200	400	600	200
문화유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문화유산 관련 학과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신규	800	200	400	200
	문화유산 전문 인력의 다양화	신규	300	120	120	60
	지역 소재 대학박물관 및 작은 박물관 지원	개선	750	300	300	150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및 연구 기반 강화	인천 무형유산 종합 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신규	300	100	100	100
	인천 무형유산 연구 활성화	신규	500	200	200	100
합계			11,050	3,820	4,620	2,610

[부록 1] 인천시 지정문화재 현황

Ⅱ 국가지정 문화재

【 국 보 : 1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276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53	1권 1축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가천박물관	이길여 (가천박물관)	1993.04.27.

【 보 물 : 27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0	강화 장정리 오층석탑	1기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산193번지	국유 (강화군)	1963.01.21.
11-8	사인비구 제작 동종-강화 동종	1구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강화역사박물관	국유 (강화군)	1963.01.21.
161	강화 정수사 법당	1동	강화군 해안남로1258번길 142	정수사	1963.01.21.
178	강화 전등사 대웅전	1동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정수사	1963.01.21.
179	강화 전등사 약사전	1동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정수사	1963.01.21.
393	전등사 철종	1구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정수사	1963.09.02.
615	강화 장정리 석조여래입상	1구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584번지	국유 (강화군)	1978.03.08.
994	강화 백련사 철조아미타여래좌상	1구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61번길 270	백련사	1989.04.10.
1154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	1권 1첩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이길여 (가천박물관)	1993.04.27.
1155	재조본 경률이상 권1	1권 1첩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3.04.27.
1178	항약제생집성방 권6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3.11.05.
1179	태산요록	2권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3.11.05.
1180	신응경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3.11.05.
1205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7, 77	2권 2축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4.07.29.
1206	초조본 십주비바사론 권17	1권 1축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4.07.29.
1207	산거사요	4권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4.07.29.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208-1	춘추경좌씨전구해 권60~70	11권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4.07.29.
1209	우주두울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4.07.29.
1227	식물본초	2권 2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5.07.19.
1249	간이벽온방(안해)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7.06.12.
1250	세의득효방 권10~11	2권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상동	1997.06.12.
1490	이성운 초상	1점	부평구 / 서울시 종로구	이건우(국립고궁박물관위탁)	2006.12.29.
1508	이성운 위성공신교서 및 관련유물	총 19점	부평구 / 서울시 종로구	상동	2006.12.29.
1716	중수정화경사증류비용본초 권17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이길여 (가천박물관)	2011.06.21.
1785	강화 전등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3구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12.12.27.
1786	강화 전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31구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12.12.27.
1787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구	강화군 고비고개로188번길 112	청련사	2012.12.27.
1908	묘법연화경 목판	104매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16.09.01.

【 사 적 : 18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30	강화 삼량성	260,536㎡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41번지	(강화군)	1964.06.10.
132	강화산성	791,738㎡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강화군)	1964.06.10.
133	강화 고려궁지	15,097㎡	강화군 강화읍 북문길 42	(강화군)	1964.06.10.
136	강화 참성단	5,774㎡	강화군 화도면 홍왕리 산42-1번지	(강화군)	1964.07.11.
137	강화 부근리 지석묘	69,293㎡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강화군)	1964.07.11.
211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6,061㎡	서구 검암동 산438-21번지	국제 CC (서구)	1970.06.08.
224	강화 흥릉	31,415㎡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29-2번지	(강화군)	1971.12.28.
225	강화 초지진	4,242㎡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624번지	(강화군)	1971.12.28.
226	강화 덕진진	15,171㎡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73번지	(강화군)	1971.12.28.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227	강화 광성보	144,632㎡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3-1번지	(강화군)	1971.12.28.
259	강화 선원사지	12,486㎡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산133번지	(강화군)	1977.11.29.
287	인천 답동성당	9,924㎡	중구 우현로50번길 2	(재)인천교구천주 교회유지재단	1981.09.25.
306	강화 갑곶돈	65,099㎡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21번지 외	(강화군)	1984.08.13.
369	강화 석릉	793㎡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번지	산림청 (강화군)	1992.03.10.
370	강화 가릉	2,656㎡	강화군 양도면 농내리 산16-2번지	산림청 (강화군)	1992.03.10.
371	강화 근릉	1,091㎡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산림청 (강화군)	1992.03.10.
424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6,968㎡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22	성공회유지재단 (강화군)	2001.01.04.
452	강화 외성	247,651㎡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강화군)	2003.10.25.

【 국가무형문화재 : 6 】

지정 번호	명 칭	구분	종목 지정일	소재지	보 유 자	현보유자 인정일자
47	공시장	기능	1971.09.13	부평구	박호준 (남)	2008.05.27.
61	은을탈춤	예능	1978.02.23	미추홀구	차부회 (남) 박일홍 (남)	2013.07.17. 2013.07.17.
82-2	서해안 배연산굿 및 대동굿	예능	1985.02.01	미추홀구	김금화 (여)	1985.02.01.
90	황해도 평산 소 놀음 굿	예능	1988.08.01	동구	이선비 (여)	1992.07.01.
103	완초장	기능	1996.05.01	강화군	이상재 (남)	1996.05.01.
109	화각장	기능	1996.12.31	남동구	이재만 (남)	1996.12.31.

【 명 승 : 1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8	웅진 백령도 두무진	4,500,000㎡	웅진군 백령면 연화리 255-1번지	(웅진군)	1997.12.30.

【 천연기념물 : 14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66	웅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 북한지	156,396㎡	웅진군 백령면 대청리 43-1번지	산림청 (웅진군)	1962.12.3.
78	강화 갑곶리 탕자나무	79㎡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16번지	강화군	1962.12.7.
79	강화 사기리 탕자나무	262㎡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135-10번지	강화군	1962.12.7.
304	강화 불음도 은행나무	593㎡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186번지 외 1필지	강화군	1982.11.9.
315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676㎡	서구 신현동 131-7번지 외 6필지	서구	1982.11.9.
360	웅진 신도 노랑부리백로와 괘이갈매기 번식지	3,623㎡	웅진군 북도면 강봉리 신도 전역	산림청 (웅진군)	1988.08.23.
391	웅진 백령도 사굴 사빈 (천연비행장)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번지	(웅진군)	1997.12.30.
392	웅진 백령도 남포리 콩돌해안		웅진군 백령면 남포리 콩돌해안 일원	산림청 (웅진군)	1997.12.30.
393	웅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분포지	6,307㎡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번지	국방부 (웅진군)	1997.12.30.
419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435,015,316㎡	강화군	(강화군)	2000.07.06.
502	강화 참성단 소사나무	314㎡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55번지 참성단 내	인천시교육청 (강화군)	2009.09.16.
507	웅진 백령도 남포리 습곡구조	79,998㎡	웅진군 백령면 남포리 산282-1번지	국, 사유 (웅진군)	2009.11.10.
508	웅진 소청도 스트로마톨라이트 및 분바위	29,686㎡	웅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55-3번지	국, 사유 (웅진군)	2009.11.10.
521	웅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	78.3㎡	웅진군 백령면 중화길 230-7	농축식품부 (웅진군)	2011.1.13.

【 등록문화재 : 8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유자(관리자)	지정일자
246	인천 선린동 공화촌	1동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손광인,우심광	2006.04.14.
247	대한민국 수준원점		미추홀구 인화로 100	국토지리정보원	2006.04.14.
248	구 일본우선 주식회사 인천지점	1동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인천시	2006.04.14.
249	구 인천부 청사	1동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	2006.04.14.
427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1동	중구 자유공원로 58-9	인천시 교육청	2008.10.27.
567	인천 구 대화초 사무소	1동	중구 신포로27번길 96-2	백영임,계원숙	2013.08.29.
569	인천 세관 구 창고와 부속동	3동	중구 항동7가 1-47	관세청	2013.10.29.
705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제대 및 세례대	2점	강화군 강화읍 관청길 27번길 10	(재)대한성공회유 지재단	2017.12.05.

Ⅱ 시지정문화재

【 유형문화재 : 68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	인천도호부청사	2동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인천시 교육청	1982.03.02.
2	부평도호부청사	1동	계양구 어사대로 20	인천시 교육청	1982.03.02.
3	원대철제범종	1기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82.03.02.
4	송대철제범종	1기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82.03.02.
5	관음좌상	1기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82.03.02.
6	논현포대	1,826㎡	남동구 논현동 415-56번지	남동구	1982.03.02.
7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1동	중구 신포로23번길 89	인천지방법원	1982.03.02.
8	인천우체국	1동	중구 제물량로 183	서울지방우정청	1982.03.02.
9	경우량 영정	1폭	미추홀구 경인로144번길 41	경구열	1986.12.18.
11	인천향교	6동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재)인천광역시향교 재단	1990.11.09.
12	부평향교	2동	계양구 향교로 19	(재)인천광역시향교 재단	1990.11.09.
13	목조여래좌상	1구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90.11.09.
14	목조보살좌상	1구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90.11.09.
15	용궁사	3동	중구 운남로 199-1	(재)한국불교태고원 외 1인	1990.11.09.
16	인천창영초등학교 (구)교사	1동	동구 금창로 31	인천시 교육청	1992.12.16.
17	구)제물포구락부	1동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인천시 교육청 외 1인	1993.07.06.
18	인천가독고 사회복지관	1동	동구 우각로 57	(재)기독교대한감리 회유지재단	1993.07.06.
19	구)일본제58은행지점	1동	중구 신포로23번길 69	중구 요식업협동조합	1993.07.06.
20	용흥궁	3동	강화군 동문안길21번길 16-1	이경숙 외 1인	1995.03.01.
21	충렬사	5동	강화군 충렬사로 232	김종한 외 1인	1995.03.01.
24	연미정	1동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회산남용	1995.03.01.
25	강화유수부 동헌	1동	강화군 북문길 42	문화재청	1995.03.01.
26	강화유수부 이방청	1동	강화군 북문길 42	문화재청	1995.03.01.
27	보문사 석실	1동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보문사	1995.03.01.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28	교동향교	9동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재)인천광역시향교재단	1995.03.01.
29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1구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보문사	1995.03.01.
30	강화 석수문	1기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883	문화재청	1995.03.01.
32	심즈 신도비	1기	서구 공촌동 산8번지	심재갑	1995.11.15.
33	후애돈대	1기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번지	기획재정부	1995.03.01.
34	강화향교	1곽	강화군 향교길 58	인천광역시	1995.11.15.
35	삼암돈대	1기	강화군 내기면 외포리 산223-4번지	강화군	1999.03.29.
36	분오리돈대	1기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185-1번지	강화군	1999.03.29.
38	적석사 사적비	1기	강화군 연촌길 181	적석사	2001.04.02.
39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1동	동구 우각로 39	학교법인 영화학원	2001.04.02.
40	팔미도등대	1동	중구 팔미로 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02.02.04.
41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1동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7번지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002.02.04.
43	전등사 약사전 현왕탱	1폭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44	전등사 약사전 후불탱	1폭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46	전등사 청동수조	1구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47	전등사 업경대	1쌍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48	전등사 대웅보전 수미단	1식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49	홍예문	1기	중구 송학동2가 20	국토교통부	2002.12.23.
50	구)인천일본제18은행지점	1동	중구 신포로23번길 77	국토교통부 외 1인	2002.12.23.
51	내동 성공회성당	2,056.7㎡	중구 개항로45번길 21-32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002.12.23.
52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1동	강화군 온수길38번길 14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2003.10.27.
53	청련사 큰법당 삼장탱	1폭	강화군 고비고개로188번길 112	청련사	2004.04.06.
54	청련사 큰법당 현왕탱	1폭	강화군 고비고개로188번길 112	청련사	2004.04.06.
55	청련사 원통암 강로왕탱	1폭	강화군 고비고개로188번길 112	청련사	2004.04.06.
57	전등사 약사전 석불좌상	1구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4.04.06.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58	연수구 흥륜사 소장 대장일람집 권 제7,8	1책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2004.04.06.
59	연수구 흥륜사 소장 자치통감강목 제23 상권	1책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2004.04.06.
60	강화 솔정리 고씨가옥	542㎡	강화군 강화대로674번길 23-4	고영한	2006.05.15.
61	능인교당 신중탱화	1폭	종구 우현로62번길 19	능인사	2009.03.02.
62	백련정사 칠성도	1폭	미추홀구 경인로252번안길 58-16	백련정사	2010.12.06.
63	신간소문입식운기론오	3권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이길여 (가천박물관)	2012.07.26.
64	효경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이길여 (가천박물관)	2012.07.26.
65	중주당현절구삼체시법 권1	1권 1책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이길여 (가천박물관)	2012.07.26.
66	바리아크함 깃발	1점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2015.10.07.
67	시왕도	1점	미추홀구 비류대로 55번길 68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2015.10.07.
68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점	미추홀구 비류대로 55번길 68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2015.10.07.
69	목조보살좌상	1점	미추홀구 비류대로 55번길 68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2015.10.07.
70	선문염송설화 권1-30	30권 10책	서구 원적로 163-22	법명사 주지	2015.12.07.
71	요법연화경 권3	1축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주지	2015.12.07.
72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1	1축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주지	2015.12.07.
73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1	1축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주지	2015.12.07.
74	몽산화상육도보설	1책 24장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주지	2015.12.07.
75	불설장수멸죄호제 동자다라니경	1책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주지	2015.12.07.
76	용궁사 수월관음도	1점	종구 운남로 199-1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	2016.02.24.

【 무형문화재 : 28 】

지정 번호	명 칭	구분	종목 지정일	현 보 유 자	현보유자 인정일자
1	삼현육각	예능	1985.10.23.	김석승 (남)	2006.01.23.
2	단소장	기능	1985.10.23.	김환중 (남)	1990.11.09.
3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예능	1988.12.24.	차영녀 (여) 외 3인	1988.12.24.
4	대금정악(대풍류·대금)	예능	1989.12.28.	진철호 (남)	2003.11.10.
5	주대소리	예능	1992.05.29.	김필문 (남)	2010.06.10.
6	대금장	기능	1993.07.06.	임경배 (남)	2010.06.10.
7-1	가곡(남창)	예능	1995.11.18.	도상구 (남)	1995.11.14.
7-2	가곡(여창)	예능	2006.10.30.	김명순 (여)	2006.10.30.
8	강화 외포리 굿창굿	예능	1997.07.14.	정정애 (여)	1997.07.14.
9	대금장(일반)	기능	2002.02.04.	이청대 (남)	2002.02.04.
10-1	범패와 작법무(바리춤)	예능	2002.02.04.	김종형(능화) (남)	2002.02.04.
10-2	범패와 작법무(나비춤)	예능	2002.02.04.	박치훈(일초) (남)	2002.02.04.
11	규방다례	기능	2002.12.23.	최소연 (여)	2013.04.30.
12	강화 용두레질소리	예능	2003.11.10.	황길범 (남)	2010.06.10.
13	자수장	기능	2003.11.10.	-	-
14	단청장	예능	2004.04.06.	정성길 (남)	2004.04.06.
15	인천수륙재	예능	2004.04.06.	-	-
16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예능	2006.01.23.	박상주 (남)	2006.01.23.
17	완초장	기능	2008.12.15.	한영자 (여)	2008.12.15.
18	서갯들노래	예능	2008.12.15.	-	-
19	갑비고차농악	예능	2008.12.15.	전내익 (남) 외 1인	2008.12.15.
20	휘모리잡가	예능	2008.12.15.	김국진 (남)	2008.12.15.
21	경기12잡가	예능	2009.03.30.	이순희 (여)	2009.03.30.
22	목조각장	기능	2009.03.30.	이방호 (남)	2009.03.30.
23	판소리·고법	예능	2013.04.30.	조경근 (남)	2013.04.30.
24	꽃맞이굿	예능	2013.04.30.	김매물 (여)	2013.04.30.
25	지화장	기능	2013.04.30.	김은옥 (여)	2013.04.30.
26	부평두레놀이	예능	2015.03.16.	-	-

【 기념물 : 65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	문학산성	1곽	미추홀구 문학동 164-69번지	인천광역시	1986.12.18.
2	화도진지	9,482㎡	동구 화도진로 114	동구	1990.11.09.
3	김재로 묘	1기	남동구 운연동 산64-13번지	국토교통부	1990.11.09.
4	이윤생·강씨정려	1동	미추홀구 독배로404번길 34	부평이씨 승지공파 종친회	1990.11.09.
5	류사눌 묘	1기	서구 경서동 산200-1번지	문화류씨 문숙공파 종회	1990.11.09.
6	조서강 묘	1기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	배천조씨 경은당파 종중	1990.11.09.
7	조정만 묘	1기	남동구 도림동 산46-3번지	임청조씨 오제공파 종중	1990.11.09.
8	농허대지	1,692㎡	연수구 옥련동 194-54번지	재정경제부	1990.11.09.
9	용공사 느티나무	2주	중구 운남로 199-1	(재)한국불교태고원 외 1인	1990.11.09.
10	계양산성	1곽	계양구 계산2동 산8	인천광역시 외 42인	1992.05.15.
11	계산동 은행나무	1주	계양구 여사대로 20	인천시 교육청	1992.05.15.
12	장수동 은행나무	1주	남동구 장수동 63-6번지	남동구	1992.12.16.
13	양주성금속비	1기	중구 운중로21번길 11	중구	1993.07.06.
15	이규보 묘	1기	강화군 까치골길 72-17	여주이씨 문순공파 종중	1995.03.01.
16	강화 내가 오상리 고인돌	1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1번지	강화군	1995.03.01.
17	보문사 향나무	1주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대한불교조계종 보문사	1995.03.01.
18	봉천대	1기	강화군 고려산로463번길 30-6	산림청	1995.03.01.
19	장곶돈대	1곽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113번지	기획재정부 외 2인	1995.03.01.
20	강화전성	1곽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563번지	기획재정부 외 4인	1995.03.01.
22	계룡돈대	1곽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강화군	1995.03.01.
23	교동읍성	1곽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번지	농림축산식품부 외 7인	1995.03.01.
24	천제암(궁)지	1,025.2㎡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1번지	산림청 외 8인	1995.03.01.
25	갯곶나무 선착장 석축로	2개소	강화군 갯곶리 일원	국방부	1995.03.01.
26	허유전 묘	1기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번지	김해허씨 시중공파 중앙회	1995.03.01.
27	강화 인산리 석실분	1기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71번지	신재정 외 1인	1995.03.01.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28	강화 능내리 석실분	1기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1번지	산림청	1995.03.01.
29	이건창 묘	1기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27번지	이익상	1995.03.01.
30	이건창 생가	2동	강화군 해안남로1114번길 6	강화군	1995.03.01.
31	강화 대산리 지석묘	1기	강화군 강화를 대산리 1189-1번지	강화군	1995.03.01.
32	강화 부근리 점굴 고인돌	1기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6번지	강화군 외 1인	1995.03.01.
33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7기	서구 대곡로 356	신동청 외 4인	1995.03.01.
34	학익지석묘	1기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95.11.15.
35	김상용 순절비	1기	강화군 강화를 관청리 416번지	기획재정부	1995.11.15.
36	양현수 승전비	1기	강화군 전동사로 37-41	전동사	1995.11.15.
37	망양 돈대	1곽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번지	기획재정부	1999.03.29.
38	건평 돈대	1곽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번지	산림청	1999.03.29.
39	굴암 돈대	1곽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487번지	기획재정부 외 1인	1999.03.29.
40	미루지 돈대	1곽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170-2번지	기획재정부	1999.03.29.
41	북일곶 돈대	1곽	강화군 화도면 강화리 산361번지	산림청	1999.03.29.
42	용진진	1곽	강화군 선원면 연리 215번지	산림청 외 5인	1999.03.29.
43	영신군 이이묘	1기	계양구 계양대로 139번길 23-36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영신군종회	1999.03.29.
44	부근리고인돌군	16기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번지	강화군 외 50인	1999.04.26.
45	삼거리고인돌군	9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18번지	고촌길 외 23인	1999.04.26.
46	고천리고인돌군	18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6번지	오승근 외 12인	1999.04.26.
47	오상리고인돌군	12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4번지	강화군 외 12인	1999.04.26.
48	교산리고인돌군	11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번지	강화군 외 35인	1999.04.26.
49	강화 통제명학당지	6,381㎡	강화군 강화를 갑곶리 1061번지	최기산 외 8인	2001.04.02.
50	이여발 묘	1,774㎡	남동구 운연동 343-1번지	한산이씨 경익공파 종중	2002.02.04.
51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965.6㎡	중구 관동1가 24번지	국토교통부	2002.12.23.
52	아찰-이울형제 정려	1동	계양구 갈현동 산73-6번지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덕풍도정 종친회	2004.04.06.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53	이선봉 묘역	3기	계양구 동양동 152-5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2004.04.06.
54	한백문 묘역	1기	서구 마전동 산120-4번지	청주한씨 양해공파 종중	2004.04.06.
55	삼목도 선사주거지	72,444.6㎡	중구 운서동 1830-1번지	인천국제 공항공사	2006.09.11.
56	정계두 묘	694㎡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65번지	정시종	2007.02.26.
57	김안정 묘 출토 묘비	1기	서구 원당동 53번지	풍산김씨 김포파 종중	2008.12.01.
58	허암 정희량 유허지		서구 검암동 산61-5번지	해주정씨 종중	2009.03.02.
59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1,903㎡	서구 대곡동 산151-1번지	반남박씨 대종중	2010.04.27.
60	의령남씨 종중 묘역	1,058㎡	서구 원당동 산82-1번지	남기명	2010.04.27.
61	평산신씨 종중 묘역	2,076㎡	서구 대곡로368번안길 11	평산신씨 정연공파 이간공 종중	2010.04.27.
62	월성박씨 종중 묘역	7,428㎡	남동구 서창동 산29-41번지	대한주택공사 (월성박씨 종중)	2010.05.03.
63	이승훈 묘	8,430㎡	남동구 장수동 산132-1번지	학교법인 인천기독교학원(남동구)	2011.12.28.
64	강화 망산봉수	3,074㎡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131번지	강화군	2011.12.28.
65	황형 묘	2,629㎡	강화군 강화읍 월곡리 산72-1번지	창원황씨 장무공파 종중	2013.08.02.
66	강화 정족산성진지	5,821㎡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14.04.21.
67	강화 정족산사고지	94.22㎡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14.04.21.

【 민속문화재 : 2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	보문사 맷돌	2기	강화군 삼산남로828번길 44	보문사	1995.03.01.
2	용동 큰우물	1기	중구 인현동 90-13번지	국토교통부	1996.06.12.

【 문화재자료 : 25 】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1	육은지	205.9㎡	계양구 어사대로 20	인천시 교육청	1982.03.02.
3	어사대	1기	계양구 어사대로 20	인천시 교육청	1990.11.09.
4	각국조계석	1기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90.11.09.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면적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지정일자
5	원인재	2,645.7㎡	연수구 경원대로 322	인천이씨 대종회	1990.11.09.
6	이세주묘 출토 관 덮개	2개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1994.11.04.
7	전등사 대조루	1동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인천시 교육청	1995.03.01.
8	철종외가	2동	강화군 철종외가길 46-1	파주염씨 대종회 외 1인	1995.03.01.
9	원충사지	7,339㎡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번지	한명열	1995.03.01.
10	선수돈대	1기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번지	문화재청 외 1인	1995.03.01.
11	망월돈대	1,583.1㎡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번지	기획재정부 외 1인	1995.03.01.
13	참성단 중수비	1기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42-1번지	이영순	1995.03.01.
14	강화 서도 중앙교회	1동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 지재단	1997.07.14.
16	남북동 조병수가옥	2동	중구 용유로380번길 21	조병수	1997.07.14.
17	화도 돈대	1곽	강화군 선원면 연리 54번지	강화군	1999.03.29.
18	무태 돈대	1곽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51-4번지	강화군 외 1인	1999.03.29.
19	장도포대지	2,275㎡	남동구 아암대로 1614	남동구	2001.04.02.
20	인천 해관문서	1책	동구 화도진로 122	인천광역시 (화도진도서관)	2002.02.04.
21	전등사 대웅보전 후불탱	1폭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22	전등사 감실당 아미타불탱	1폭	강화군 전등사로 37-41	전등사	2002.12.23.
23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19.1㎡	동구 송현공원로 75-2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2003.11.10.
24	능인교당 현왕탱화	1폭	중구 우현로62번길 19	능인사	2009.03.02.
25	김취려 묘	1기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71	연양김씨 대종회	2010.12.06.
26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1구	서구 신석로51번안길 14-2	용수사	2014.04.21.
27	흥륜사 아미타불도	1폭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2014.04.21.
28	흥륜사 신중도	1폭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흥륜사	2014.04.21.

Ⅱ 시지정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2018. 1월 현재)

지정 번호	명 칭	계	보유자	명예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전수 장학생	비 고
		98	28	1	23	46	
1	삼현육각	2	1			1	
2	단소장	2	1			1	가능
3	인천근해 갯가노래 뱃노래	13	4	1	4	4	
4	대금정악(대풍류·대금)	4	1		1	2	
5	주대소리	8	1		4	3	
6	대금장	1	1				가능
7-1	가곡(남창)	3	1		1	1	
7-2	가곡(여창)	3	1			2	
8	강화 외포리 꽃창굿	6	1		5		
9	대금장(일반)	1	1				가능
10-1	범패와 작법무(바라춤)	3	1			2	
10-2	범패와 작법무(나비춤)	5	1		2	2	
11	규방디례	7	1		2	4	가능
12	강화 용두레질소리	9	1		2	6	
13	자수장	1			1		가능
14	단청장	1	1				
15	인천수륙재	1				1	
16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7	1			6	
17	완초장	2	1			1	가능
18	서곶들노래	4			1	3	
19	갑비고차농악	2	2				
20	휘모리잡가	3	1			2	
21	경기12잡가	3	1			2	
22	목조각장	3	1			2	가능
23	판소리·고법	2	1			1	
24	꽃맞이굿	1	1				
25	지화장	1	1				가능

[부록 2] 인천시 유/무료 관광지

무료관광지 (29개소) (2012)	• 중 구(15개소) : 개항장 역사문화의거리, 문화의거리, 북성포구, 신포문화의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영종도 백운산, 월미공원, 월미산, 을왕해수욕장, 인천대교기념관, 인천항 갑문,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한국이민사박물관, 호룡국산
	• 미추홀구(2개소) : 문학산성, 인천도호부청사
	• 연 수 구(4개소) : 가스과학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컴팩스마트시티, 가천박물관
	• 남 동 구(3개소) : 다문화체험관,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 계 양 구(1개소) : 계양산
	• 강 화 군(2개소) : 강화고인돌, 동막해변
	• 용 진 군(2개소) : 서포리해수욕장, 에너지파크
무료관광지 (18개소) (2013)	• 중 구(7개소) : 월미공원, 한국이민사박물관, 계물포구학부, 아트플랫폼, 월드커뮤니티센터, 한중문화관, 인천대교기념관
	• 미추홀구(2개소) : 문학산성, 인천도호부청사
	• 연 수 구(2개소) : 가스과학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 남 동 구(3개소) : 다문화체험관,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
	• 계 양 구(1개소) : 계양산
	• 강 화 군(2개소) : 강화고인돌, 동막해변
	• 용 진 군(1개소) : 서포리해수욕장
집계관광지 (25개소) (2012)	• 중 구(6개소) : 실미해수욕장, 연안부두 유람선, 월미도 유람선, 인천근대박물관, 재미난 박물관, 하나개해수욕장
	• 동 구(2개소) :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작약도(물치섬)
	• 미추홀구(3개소) : 범패 박물관, 송암미술관, 인천어린이박물관
	• 연 수 구(3개소) : 가천박물관, 송도유원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남 동 구(2개소) : 애보박물관, 인천대공원
	• 강 화 군(9개소) : 갯벌센터, 역사박물관, 강화전적지정화기념비, 평화전망대, 화문석문화관, 마니산, 보문사, 전등사, 함허동천
	• 중 구(6개소) : 연안부두 유람선, 월미도 유람선,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 무의도 해운
집계관광지 (20개소) (2013)	• 동 구(1개소) : 수도권산달동네박물관
	• 미추홀구(1개소) : 송암미술관
	• 연 수 구(1개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 남 동 구(2개소) : 애보박물관, 인천대공원
	• 강 화 군(9개소) : 갯벌센터, 역사박물관, 강화전적지정화기념비, 평화전망대, 화문석문화관, 마니산, 보문사, 전등사, 함허동천
	• 중 구(6개소) : 연안부두 유람선, 월미도 유람선,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 무의도 해운

[부록 3] 인천시 문화유산 관련시설 현황

☐ 선구지 현황

명칭	위 치	주 요 내 용	관 리 자
한국최초 천일염전지	부평구 십정동58-7 서울제강(주)	• 1908년 중국에서 기술 도입	서울제강
한국최초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가좌 인터체인지	•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 29.5km 4차선	한국 도로공사
한국최초 철도	중구 복성동 (인천역)	• 경인철도 / 1899.04.23. 33.2km 개통	철도청
인천최초 상수도 급수개통지	동구 송현동 (송현배수지)	• 1908년 15,577톤 규모의 급수시설 설치	동구청
인천최초 전기발전지	중구 송월동2가 2 (한전송월동자재창고)	• 1906년 한-청일 합자 주식회사 설립	(주)한국 전력
한국최초 연초공장지	중구 선린동 58 (중국화교학교기숙사)	• 1899.12.29. 영미 합자회사로 설립되어 꺾련을 생산한 곳	화교 소학교
한국최초의 서구식공원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 만국공원, 서공원으로 불려오다가 1957년에 "자유공원"으로 개칭	중구청
인천최초의 보통학교	동구 창영동 (창영초등학교)	• 1907년 개교	창영 초등학교
한국최초의 성공회	중구 내동 3 (인천성공회)	• 1890.09.29.에 인천지역 최초선교 시작 • 1891.09.30. 건축되었으나, 6.25당시 소실 • 현재 건물은 1956. 06.23 준공	인천 성공회
인천최초의 천주교포교지	중구 답동 3 (답동성당)	• 1897년 준공 1933년, 1937년 개축 • 전통적인 가톨릭교회 건축양식	천주교 재단
한국최초의 감리교포교지	중구 내동 29 (내리교회)	• 1885.07.19. 아멘젤라 목사에 의해 한국 최초 로 감리교가 포교된 곳	내리교회
한국 최초의 한글점자창안자 송암 박두성 생가	중구 율목동 25 (박두성 생가)	• 1923년 훈맹정음 창안에 착수, 1926년 8월에 완성	김재순
일본 영사관지	중구 관동 1가 (중구청)	• 1883.10.31. 일본영사관 개설지	중구청
청국 영사관지	중구 선린동 8 (화교학교)	• 1884년경 청국영사관 개설지	화교학교
영국 영사관지	중구 향동1가 3(파라다이스호텔)	• 1884년경 영국영사관 개설지	파라다이 스 호텔
전한국지	중구 내동 (구 인천여고 자리)	• 1892.05. ~ 1900.08.까지 주화를 제조	-
인천 유일의 동철승지	중구 송학동1번지 (홍예문)	• 일본인 지계를 확장을 위해 설치한 문 • 공사기간 : 1905 ~ 1908년	중구청
인천감리서지	중구 내동 83 (대한준설공사)	• 1883.08.19. 설치 : 각국 영사와 교섭지계 업무, 향내사무 등을 관장하던 곳 • 1895.05.26. 폐지	대한 준설공사
한국미술계 선구자 생가	미추홀구 문학동 127-1	• 1915년 경성서회미술학원 수료 • 3.1문화상, 문화훈장 등 서훈	길길수

☐ 전통사찰 현황

(2018. 1월 현재)

등록 번호	사찰명	소재지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지명 (법 명)	종파	비고
1	용궁사 (龍宮寺)	중구. 운남동 667 ☎ 746-1361 ☎ 02-739-3450	중구. 운남동 667번지 등 10필지 <125,669㎡>	김영기 (능 해)	태고종	신라 문무왕 10년 (서기670년)
2	전등사 (傳燈寺)	강화. 길상면 온수리 635 ☎ 937-0125	강화.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등 21필지 <196,668㎡>	여운수 (승 석)	조계종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서기381년)
3	보문사 (普門寺)	강화. 삼산면 매음리 629 ☎ 933-8271	강화.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등 23필지 <270,972.1㎡>	김만옥 (선 조)	·	신라 선덕여왕 4년 (서기635년)
4	정수사 (淨水寺)	강화. 화도면 사기리 467-3 ☎ 937-3611	강화. 화도면 사기리 467-3번지 등 3필지 <214,629㎡>	노승호 (도 림)	·	신라 선덕여왕 8년 (서기639년)
5	백련사 (白蓮寺)	강화. 하점면 부근리 231 ☎ 933-5082	강화. 하점면 부근리 231번지 등 9필지 <382,802㎡>	오원희 (해 성)	·	고구려 장수왕 4년 (서기416년)
6	청련사 (淸蓮寺)	강화. 강화읍 국화리 550 ☎ 933-3887	강화. 강화읍 국화리 550번지 등 20필지 <117,369㎡>	구영자 (해 조)	·	고구려 장수왕 4년 (서기416년)
7	청수암 (淸修岩)	강화. 강화읍 신문리 681-1 ☎ 934-2661	강화. 강화읍 신문리 681-1번지 등 3필지 <1,878㎡>	판해인 (해 인)	·	1936년 (비구니 임봉법스님)
8	적석사 (積石寺)	강화. 내가면 고천리 210-3 ☎ 932-6191	강화. 내가면 고천리 210-3번지 등 3필지 <74,099㎡>	최종용 (계 민)	·	고구려 장수왕 4년 (서기416년)

☐ 향교 현황

등록번호	사찰명	소재지	연혁	주요시설	전교	주요사업
1	인천향교 [시 유형문화재 제11호 (1990.11.09.)]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문학동)	• 건립연대 미확인 • 조선세조 14년(1468) 중수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동무, 서무, 홍살문	이진성	석전대제(춘추계) , 명륜학당 및 충효교실 운영
2	부평향교 [시 유형문화재 제12호 (1990.11.09.)]	계양구 향교로 22 (계산동)	• 고려인종 5년(1127) 건립 • 조선숙종 14(1688) 중수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동무, 서무, 홍살문	박우석	석전대제(춘추계) , 명륜학당 및 충효교실 운영
3	교동향교 [시 유형문화재 제28호 (1995.03.01.)]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229-49	• 고려 충렬왕 12년 (1286) 창건(추정) • 조선 영종 17년(1741) 이전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동재, 서재, 제기고, 내외삼문	방형길	석전대제(춘추계) , 명륜학당 운영
4	강화향교 [시 유형문화재 제34호 (1995.11.15.)]	강화군 강화읍 향교길 58	• 고려 인종 5년 (1127) 창건(추정) • 인조 7년(1629) 이전	대성전, 명륜당, 내외삼문	김용은	석전대제(춘추계) , 명륜학당 운영

○ 등록박물관 : 26개소(공립14, 사립11, 대학1)

연번	시설명	개관일 (등록일)	위 치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운영주체	전화번호
1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1946.04.01. (1995.12.29.)	연수구 청량로160번길 26	11,114	5,830	인천광역시	440-6712
2	가천박물관	1995.10.31. (1995.10.23.)	연수구 청량로102번길 40-9	7,210	2,448	윤성태	833-4747
3	인천어린이 박물관	2005.05.05. (2006.01.10.)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	2,525	원순미	432-5600
4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2005.10.25. (2006.01.10.)	동구 솔빛로 51	2,045	1,531	동구	770-6131
5	부평역사 박물관	2007.03.29. (2007.10.12.)	부평구 굴포로 151	17,956	3,109	부평구	515-6471
6	인하대학교 박물관	1976.03.01. (2007.10.12.)	미추홀구 인화로 100	-	-	관장 윤승준	860-8260
7	옥도끼 우주센터	2007.05.07. (2007.10.12.)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403	61,818	5,691	안경희	937-6918

연번	시설명	개관일 (등록일)	위 치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운영주체	전화번호
8	한국이민사 박물관	2008.06.19. (2008.06.26.)	중구 월미로 329	10,793	4,127	인천광역시	440-4626
9	범패박물관	2006.07.01. (2008.08.01.)	미추홀구 경인로70번길 11-13, 구양사	463	225	김종형	866-0029
10	애보박물관	2009.07.24. (2009.01.05.)	남동구 만의골로 71	3,930	764	변무숙	466-3181
11	한국선교 역사기념관	2008.12.22. (2009.03.02.)	부평구 장계로 393	1,654	4,575	한국선교 역사문화원	515-5995
12	검단선사 박물관	2008.11.27. (2009.03.02.)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7	10,216	1,970	인천광역시	440-6795
13	해명단청 박물관	2009.04.04. (2009.12.09.)	중구 신포로15번길 48	144	963	정성길	868-5898
14	국제성서 박물관	1995.04.30. (2010.09.20.)	미추홀구 경인로349번길 9	1,531	8,257	주안 감리교회	874-0385
15	강화역사 박물관	2010.10.02. (2010.10.23.)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19	14,187	4,233	강화군	934-4296
16	녹청자 박물관	2010.11.19. (2012.02.29.)	서구 도요지로 54	4,700	834	서구	560-4564
17	한국전통음식 박물관	2012.05.04. (2012.05.29.)	남동구 만의골로 71	201	764	변무숙	466-3182
18	소래역사관	2012.06.29. (2012.12.31.)	남동구 아암대로 1605	1,234	1,424	남동구	460-0590
19	인천개항 박물관	2010.10.02. (2013.02.06.)	중구 신포로23번길 89	1,306	864	중구	760-7508
20	한국근대 문학관	2014.03.19. (2014.03.19.)	중구 신포로15번길 76	1,064	781	인천 문화재단	455-7162
21	강화전쟁 박물관	2015.06.01. (2015.06.01.)	강화군 강화읍 해안동로1366번길 18	3,475	458	강화군	934-4291
22	인천학생6.25 참전관	2015.10.08. (2015.10.08.)	중구 우현로72번길 3-4	300	1,152	이규원	766-7757
23	강화자연사 박물관	2015.11.06. (2015.12.04.)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994-33	4,888	2,712	강화군	930-7090
24	초연다구 박물관	2015.04.09. (2015.12.09.)	중구 신포로39번길 8-1	161	109	박영혜	772-9779
25	짜장면 박물관	2012.04.28. (2016.12.27.)	중구 차이나타운로 56-14	582	846	중구청	773-9812
26	영종역사관	2018.03.예정 (2017.12.07)	중구 구읍로 63	5,000	2,907	중구청	760-6304

※ 시립박물관 분관인 송암미술관 미포함

○ 건립 중인 박물관 : 2개소 (공립1, 국립1)

연번	시설명	개관 예정일	위치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운영주체
1	계양산성박물관	2018년	계양구 계산동 산11번지 일원	6,739	1,999	계양구
2	국립세계문자박물관	2021년	연수구 송도동 24-8번지	19,418	-	문체부

○ 미등록박물관 : 11개소 (공립6, 사립5)

연번	시설명	개관일	위치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운영주체
1	섬이야기박물관	2015.06.09.	중구 때무리길 15	803	453.02	중구
2	한중문화관	2005.04.16.	중구 제물량로 238	2,377.9	2,889.88	중구시설관리공단
3	화교역사관	2015.06.11.	중구 제물량로 236	1,057.2	719.98	중구시설관리공단
4	재미난박물관	2005.12.24.	중구 안중로 190	363	1768	사립
5	인천근대박물관	2010.08.13.	중구 차이나타운로 55번길 16	60	110	사립
6	서광사부설 사리박물관	2002.09.17.	미추홀구 햇골길 37	42.9	-	서광사
7	송암박두성 기념관	1999.07.01.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143.61	-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8	강화 화문석문화관	2005.11.18.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413	8,949	1,098	강화군시설관리공단
9	강화 농경문화관	2003.06.12.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	31,117	1,659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10	강화 문학관	2010.07.06.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94-1	3,388	755.34	강화군 문화관광과
11	세계문화박물관	2011.01.20.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마니산로 657-6	982	493	사립

☐ 민속문화 시설

구분	인천 도호부청사	은율탈춤 전수관	구)제물포 구락부	인천상륙 작전기념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위치	미추홀구 매소홀로 589	미추홀구 수봉안길 78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연수구 청량로 138	미추홀구 매소홀로 599
규모	- 대지면적:9,103㎡ - 연면적:481.8㎡ - 객사, 동헌, 사무실 등(8개동)	- 대지면적:2,314㎡ - 연면적:736.40㎡ (지하1층,지상2층) - 대연습실, 전시실, 공방실 등	- 대지면적:367.11㎡ - 연면적:446.9㎡ (지하1층,지상1층) - 사무실, 전시실 등	- 대지면적:24,347㎡ - 연면적:2,079㎡ - 전시관, 영상실, 전망대, 인공폭포 등	- 대지면적:8,710㎡ - 연면적:6,982㎡ (지하1층,지상3층) - 공방, 기능실, 예능실, 기획전시실, 공연장 등
수탁 기관	(사)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총연합회 (회장: 박치훈)	은율탈춤보존회 (회장: 차부회)	인천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 최춘자)	직영 (2012. 9. 4.~)	직영 (2014. 8. 21.~)
위탁 기간	2017.01.01. ~ 2018.12.31. (2년간) ※최초위탁:2003.04.01.	2017.04.10. ~ 2019.12.31. (3년간) ※최초위탁:1984.04.01.	2016.01.01 ~ 2018.12.31 (3년간) ※최초위탁:2007.06.01.	-	-
위탁 사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통민속놀이체험, 야외공연장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연습실, 사무실, 의상보관실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문화공간, 전시제공)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시관, 영상실, 아외전시장 등)	-
근무 인원	8명 과장1, 사무1 시설관리, 청소3 경비3	3명 사무국장1, 사무1 청소1	2명 관장1, 실장1	16명 공업7급1, 학예사1 안내2, 경비6 시설관리1, 청소5	12명 행정6급1, 행정7급 1 공업7급 1, 시설9급 1 시설1, 경비3 청소3, 안내1
'18예산 지원 (천원)	330,000	123,000	155,399	819,109	522,730

[부록 4] 인천시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문화재(137)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운남동 고인돌	중구 영종대로 77	중구(1)
2	인천향교 앞 비석군	미추홀구 매소홀로 535번길2	미추홀구 (5)
3	주안동 고인돌	미추홀구 학익동 25-11	
4	미추홀구 문학동 고인돌	미추홀구 학익동 25-11	
5	학산서원터	미추홀구 학익동 산65	
6	송의동 전도관	미추홀구 수봉로 21번길 30	
7	계산동 비석 군	계양구 계산동 어사대로20	계양구 (3)
8	자오당지	계양구 계산동 769	
9	봉일사지 삼층석탑	계양구 계산동 산20-5	
10	숙의문씨 묘	서구 심곡동 산36	서구 (6)
11	가정지	서구 가정동 산456	
12	죽곳봉수대지	서구 가정동 산54	
13	중심성지	서구 공촌동 산1-1	
14	연회진지	서구 연회동 247	
15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서구 가좌동 IC	강화군 (120)
16	월곶진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17	월곶둔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18	동관제 묘(東關帝 廟)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467	
19	강화 청련사 부도 군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549	
20	연무당지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1092	
21	강화 대산리 황선신 정문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산126-2	
22	보만정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2	
23	관청리 하마비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938-2	
24	황련사지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282	
25	강화 홍릉 제실	강화읍 고비고개로282번길 48	
26	강화 심도식물터	강화군 강화읍 합일길 9번길 10	
27	윤집택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615-1	
28	황형택지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242	
29	염주둔대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산62	
30	복장대지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31	남장대	강화읍 청하동길 36번길 62	
32	가리산 둔대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44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33	좌강돈대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215	
34	용당돈대	강화군 선원면 연리 1	
35	유성원 효자정문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518	
36	오두돈대	불은면 해안동로 715번길 52-16	
37	강화 두운리 평해할씨 정문	강화군 불은면 고능로 344번길 20	
38	고능리 성황당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산107	
39	고능리 향나무	강화군 불은면 고능리 926-2	
40	강기운 의교비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41	양암돈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840	
42	택지돈대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1081	
43	강화 초지리 초지돈대	강화군 길상면 해안동로 58	
44	초지 석수문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78	
45	이규보 묘 계실	강화군 길상면 길적리 산115	
46	분청사기 요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178	
47	강화 상방리 화도초교 앞 비석 군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717	
48	강화 사기리 선두포 비석 군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2	
49	함허대사 부도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86	
50	송강돈대	강화군 화도면 내리 102	
51	마니산 참성단 금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6	
52	강화 흥왕리 흥왕사지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36	
53	흥익한택지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산30-2	
54	고려이궁지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404-1	
55	강화 능내리 능안 당집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57임	
56	도장리 어두 고인돌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어두부락 산1	
57	장지포 비석군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15-1	
58	동암 전인순 공적비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59	외포리 당집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28	
60	석각돈대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산171	
61	오상리 구주머리 차명세 정문	내가면 황청포구로 69번길 36-11	
62	강화 오상리 고상골 고인돌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238-2	
63	강화 오상리 성광 고인돌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04-1	
64	강화 망월리 고인돌 군 (1군4기)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산55	
65	강화 망월리 고인돌 군 (2군1기)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산47	
66	강화 부근리 대촌 고인돌 군	강화군 하점면 대촌247	
67	강화 삼거리 소동 고인돌 군(1군 4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38-2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68	강화 삼거리 소동 고인돌 군(2군 4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38-2	
69	강화 삼거리 천촌 고인돌 군(1군4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32	
70	강화 삼거리 천촌 고인돌 군(2군2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22-1	
71	강화 삼거리 천촌 고인돌 군(3군3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911	
72	강화 삼거리 천촌 고인돌 군(4군4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2	
73	강화 신봉리 골말 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97-3	
74	강화 이강리 성경 고인돌 군(1군1기)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94	
75	강화 이강리 성경 고인돌 군(2군2기)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366	
76	강화 창후리 사촌 고인돌 군(1군2기)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49임	
77	강화 창후리 사촌 고인돌 군(2군2기)	강화 하점면 창후리 441	
78	강화 창후리 뒷물 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1임	
79	봉은사지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193	
80	봉가지(奉哥池) 비석군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420	
81	강화 삼거리 한산이씨 효자문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139-5	
82	강화 삼거리 청해이씨 효자문	하점면 고려산로 285번길 89-10	
83	백련사 부도 탑	하점면 고려산로 61번길 270	
84	사직골 황원우천씨 기념비	강화군 하점면 고려산로 97-7	
85	봉가지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420-2	
86	삼거리 천곡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525-2	
87	연개소문 유적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88	강화 고려산 오련지 군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산132 임, 산155-1	
89	고려산성	강화 하점면 삼거리 소동부락	
90	강화 철산리 의두돈대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 1	
91	강화 부근리 소목굴 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산8	
92	강화 교산리 목곡 고인돌군(1군5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95-1	
93	강화 교산리 목곡 고인돌군(2군3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95-1	
94	강화 교산리 목곡 고인돌군(3군1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615	
95	강화 교산리 덕응 고인돌군(2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87	
96	강화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 (1군2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978	
97	강화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 (2군1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012	
98	강화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3군1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155	
99	강화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4군1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977	
100	강화 교산리 증산 고인돌군(5군2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1073	
101	강화 교산리 덕고개 고인돌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8735	
102	강화 덕하리 고인돌 군 (2기)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12-2	

연번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03	강화 북성리 요곡 고인돌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134-6	
104	강화 북성리 말미 고인돌 군 (2기)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1262-4	
105	강화 인화리 저운동 황효원 사당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저운동673	
106	문응규 사당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384	
107	강화 북성리 구동곶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996	
108	강화 북성리 작성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633	
109	강화 인화리 광암돈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32	
110	강화 북성리 불장돈대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 산 42	
111	강화 당산리 열녀문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산68	
112	석주권필 유허비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892	
113	고려 고종 사적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114	강화 양오리 고인돌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산1	
115	강화 하도리 아랫말 고인돌군 (5기)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187-1전	
116	강화 오류내 고인돌 군 (1군3기)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613	
117	강화 오류내 고인돌 군 (2군1기)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871	
118	강화 하도리 고인돌 군 (3군1기)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366-1	
119	강화 당산리 석우돈대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산2-1	
120	강화 읍내리 부근당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55	
121	강화 읍내리 사신당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1-2	
122	강화 양갑리 황경계 경려문	강화군 교동면 양갑리 236-2	
123	강화 읍내리 비석 군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85-4	
124	강화 읍내리 황룡우물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300	
125	수정산 조선시대 한증막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산92	
126	고구리 조선시대 한증막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33	
127	교동 화개사 부도 탑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산25	
128	교동 연산군 적거지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33	
129	교동 화개산 봉수대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산233	
130	강화 매음리 여류정 당집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370	
131	강화 상리 창말 당집	강화군 삼산면 상리 산154	
132	강화 석포리 당집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210-2	
133	강화 석포리 비석 군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525-1	
134	강화 불음도리 당집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리 산104	
135	화양사지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산52-2	
136	연평도 충민사	용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 34-1	용진군
137	백령도 패총	용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1	(2)

[부록5] 인천시민 대상 문화유산(정책) 이해 및 인식 실태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구분	내 용
조사 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만 19세 이상 일반 시민 1,000명
조사 기간	• 2018년 6월 25일~7월 13일
유효표본	• 1,007명 • 한계 허용오차±3.2%(신뢰수준 95%)
표본 설계	• 행정구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조사 방법	•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코딩, 편칭, 에디팅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로 전산처리함
수행 기관	• ㈜리서치알앤에이

2. 표본할당

구분	모집단 크기(명)	모집단비율 (%)	표본크기(명)		구분	모집단 크기	모집단비율 (%)	표본크기(명)			
			목표	조사				목표	조사		
총계	2,231,915		1000	1007	총계	2,231,915		1000	1007		
중 구	20대	10,708	0.5	5	5	부 평 구	20대	69,958	3.1	32	32
	30대	17,555	0.8	8	8		30대	83,065	3.7	37	37
	40대	19,196	0.9	9	9		40대	89,237	4.0	40	40
	50대	15,964	0.7	7	7		50대	93,920	4.2	42	42
	60대 이상	21,041	0.9	9	8		60대 이상	89,179	4.0	40	41
	계	84,464	3.8	38	37		계	425,359	19.1	191	192
동 구	20대	6,678	0.3	3	3	계 양 구	20대	44,230	2.0	20	21
	30대	10,086	0.5	4	5		30대	46,345	2.1	21	23
	40대	10,771	0.5	5	6		40대	56,177	2.5	25	24
	50대	11,098	0.5	5	5		50대	60,961	2.7	27	27
	60대 이상	16,937	0.8	8	8		60대 이상	44,797	2.0	20	20
	계	55,570	2.5	25	27		계	252,510	11.3	113	115
미 추 흥 구	20대	54,236	2.4	24	24	서 구	20대	57,099	2.6	26	24
	30대	62,052	2.8	28	28		30대	80,679	3.6	36	36
	40대	65,033	2.9	29	30		40대	91,735	4.1	41	40
	50대	67,558	3.0	30	28		50대	79,619	3.6	36	37
	60대 이상	81,506	3.7	37	37		60대 이상	63,667	2.9	28	27
	계	330,385	14.8	148	147		계	372,799	16.7	167	164

구분	모집단 크기(명)	모집단비율 (%)	표본크기(명)		구분	모집단 크기	모집단비율 (%)	표본크기(명)			
			목표	조사				목표	조사		
연수구	20대	39,881	1.8	18	18	강화군	20대	4,243	0.2	2	2
	30대	46,336	2.1	21	20		30대	4,950	0.2	3	3
	40대	59,494	2.7	27	27		40대	7,503	0.3	3	3
	50대	54,560	2.4	24	24		50대	11,507	0.5	5	7
	60대 이상	40,494	1.8	18	20		60대 이상	23,090	1.0	10	12
	계	240,765	10.8	108	109		계	51,293	2.3	23	27
	강화군	20대	62,550	2.8	28		28	옹진군	20대	2,282	0.1
30대		83,320	3.7	37	37	30대	1,982		0.1	1	1
40대		90,339	4.0	40	42	40대	2,324		0.1	1	1
50대		86,399	3.9	39	39	50대	3,529		0.2	2	2
60대 이상		80,342	3.6	36	36	60대 이상	5,703		0.3	2	2
계		402,950	18.1	180	182	계	15,820		0.7	7	7

4. 응답자특성

(N=1,007)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01)	49.8
	여성	(506)	50.2
연령	20대	(158)	15.7
	30대	(198)	19.7
	40대	(222)	22.0
	50대	(218)	21.6
	60대 이상	(211)	21.0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21.0
거주지역	연수구	(109)	10.8
	남동구	(182)	18.1
	부평구	(192)	19.1
	계양구	(115)	11.4
	서구	(164)	16.3
	옹진/강화군	(34)	3.4
	혼인여부	기혼	(713)
미혼		(294)	29.2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50)	14.9
	200~300만원 미만	(280)	27.8
	300~400만원 미만	(262)	26.0
	400~500만원 미만	(122)	12.1
	500만원 이상	(180)	17.9
	무응답	(13)	1.3
직업	전문/기술직	(146)	14.5
	경영/회사원/공무원	(251)	24.9
	자영업	(241)	23.9
	기능직/수련직/농어업	(164)	16.3
	학생/전업주부	(97)	9.6
	무직/기타	(108)	10.7

5. 문항별 결과

1. 시민들의 인천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 인식

문1. 귀하는 평소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관심 있다	2.7
②	관심 있다	23.7
③	보통이다	48.3
④	관심 없다	22.2
⑤	전혀 관심 없다	3.2

- ▶ 인천시민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정도는 긍정률 26.4%, 보통 48.3%, 부정률 25.4%로 보통수준(평균 3.00점)임
-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3.0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3.07점), 40대(3.03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관심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례수 (명)	빈도(%)					5점 척도 평균(점)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이다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전체	(1,007)	2.7	23.7	48.3	22.2	3.2	3.00
성별	남성 (501)	2.6	24.4	46.5	23.0	3.4	3.00
	여성 (506)	2.8	22.9	50.0	21.3	3.0	3.01
연령	20대 (158)	2.5	18.4	44.3	28.5	6.3	2.82
	30대 (198)	2.5	24.7	41.9	28.3	2.5	2.96
	40대 (222)	3.2	25.9	46.8	18.6	5.5	3.03
	50대 (218)	2.3	24.3	54.6	17.9	0.9	3.09
	60대 이상 (211)	2.8	23.7	52.1	19.9	1.4	3.07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1.4	24.2	48.3	25.1	0.9	3.00
	연수구 (109)	11.0	33.0	34.9	17.4	3.7	3.30
	남동구 (182)	1.6	15.4	51.1	26.4	5.5	2.81
	부평구 (192)	1.6	22.4	49.0	22.4	4.7	2.94
	계양구 (115)	3.5	27.2	46.5	21.1	1.8	3.10
	서구 (164)	1.2	26.4	50.9	19.0	2.5	3.05
	옹진/강화 (34)	0.0	17.6	64.7	14.7	2.9	2.97

문2. 귀하는 인천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그렇다	2.5
②	그렇다	17.8
③	보통이다	52.7
④	그렇지 않다	22.1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0

▶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인천 이미지 부합도에 대한 질문에 부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0.3%이며, 부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비율은 27.1%로 나타나고 있어, 인천 시민들에게 인천이 역사문화도시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편임(평균 2.91점)

▶ 성별과 연령별로는 비슷한 수준의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5점 척도 평균(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7)	2.5	17.8	52.7	22.1	5.0	2.91	
성별	남성	(501)	2.4	18.6	50.8	23.2	5.0	2.90
	여성	(506)	2.6	17.0	54.5	20.9	4.9	2.91
연령	20대	(158)	5.1	20.9	45.6	20.9	7.6	2.95
	30대	(198)	4.0	17.7	53.5	19.7	5.1	2.96
	40대	(222)	1.8	12.2	48.9	29.9	7.2	2.71
	50대	(218)	.9	18.8	56.0	22.9	1.4	2.95
	60대 이상	(211)	1.4	20.4	57.8	16.1	4.3	2.99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4.3	21.3	50.7	21.8	1.9	3.04
	연수구	(109)	4.6	33.9	43.1	13.8	4.6	3.20
	남동구	(182)	0.0	10.4	65.4	19.2	4.9	2.81
	부평구	(192)	1.6	11.5	49.5	30.2	7.3	2.70
	계양구	(115)	3.5	25.4	49.1	16.7	5.3	3.05
	서구	(164)	2.4	13.4	48.2	29.3	6.7	2.76
	옹진/강화	(34)	0.0	14.7	79.4	2.9	2.9	3.06

문3. 귀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또는 역사적 공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강화도의 역사유적지	40.6
②	중구 근대 개항장	5.5
③	인천도호부·문학산성 등 원인천	9.6
④	부평도호부·계양산성 일대	10.6
⑤	부평 등의 근현대 산업화 관련 공간	3.9
⑥	중구 및 용진군의 여러 섬들	12.3
⑦	기타	1.5
⑧	없다/잘 모르겠다	16.2

- ▶ 세부집단별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강화도의 역사유적지를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지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은 부평도호부·계양산성일대(13.3%)와 인천도호부·문학산성 등 원인천(10.9%)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 연령별로는 '강화도의 역사유적지'와 '중구 및 용진군의 여러 섬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천을 대표하는 유적지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부평도호부·계양산성일대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20~30대)에서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사례수 (명)	응답비율(%)								
		강화도의 역사 유적지	중구 및 용진군의 여러 섬들	부평도호부·계양산성 일대	인천도호부·문학산성 등 원인천	중구 근대 개항장	부평 등의 근현대 산업화 관련 공간	기타	없다 / 잘 모르겠다	
전체	(1,007)	40.6	12.3	10.6	9.6	5.5	3.9	1.5	16.2	
성별	남성 (501)	42.8	11.2	7.8	8.2	7.4	3.6	1.2	17.8	
	여성 (506)	38.4	13.3	13.3	10.9	3.6	4.2	1.8	14.5	
연령	20대 (158)	24.1	6.3	11.4	8.9	10.8	8.9	1.3	28.5	
	30대 (198)	30.3	7.1	17.2	5.1	6.6	8.6	2.5	22.7	
	40대 (222)	41.2	19.5	8.1	9.0	1.8	1.8	1.4	17.2	
	50대 (218)	51.4	13.9	9.7	9.7	3.2	1.4	0.9	9.7	
	60대 이상 (211)	51.0	12.4	7.1	14.8	6.7	0.5	1.4	6.2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37.0	19.9	13.3	10.9	4.7	4.7	0.0	9.5	
	연수구 (109)	59.6	5.5	4.6	8.3	3.7	1.8	0.9	15.6	
	남동구 (182)	44.8	2.8	5.0	7.7	1.1	0.0	6.1	32.6	
	부평구 (192)	23.4	15.1	17.7	9.4	9.9	8.9	0.0	15.6	
	계양구 (115)	46.0	8.8	14.2	8.8	6.2	4.4	0.0	11.5	
	서구 (164)	38.0	17.8	8.6	11.7	8.0	3.1	1.2	11.7	
	용진/강화 (34)	70.6	5.9	0.0	8.8	0.0	0.0	2.9	11.8	

문4. 귀하는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 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시민의 애함심 증대	12.5
②	지역정체성 확립	28.9
③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	19.1
④	시민의 삶의 질 향상	19.0
⑤	지역사회 품격 상승	12.3
⑥	없다/잘 모르겠다	8.2

- ▶ 성별로 살펴보면, 역사와 문화유산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인식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남성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20.4%), 여성은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21.0%)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음
-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30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40대~50대는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과 지역사회 품격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고 있음

	사례수 (명)	응답비율(%)						
		지역 정체성 확립	다양한 경제적 이익 창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애함심 증대	지역사회 품격 상승	없다 / 잘 모르겠다	
전체	(1,007)	28.9	19.1	19.0	12.5	12.3	8.2	
성별	남성	(501)	29.3	17.2	20.4	12.8	12.2	8.0
	여성	(506)	28.6	21.0	17.7	12.1	12.3	8.3
연령	20대	(158)	27.8	17.1	20.3	12.7	8.9	13.3
	30대	(198)	32.3	13.1	22.2	13.1	8.1	11.1
	40대	(222)	24.9	25.3	19.0	10.4	14.0	6.3
	50대	(218)	30.1	22.7	17.6	12.0	14.8	2.8
	60대 이상	(211)	29.5	16.2	16.7	14.3	14.3	9.0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29.9	18.0	14.7	11.4	17.5	8.5
	연수구	(109)	14.7	28.4	9.2	21.1	15.6	11.0
	남동구	(182)	17.6	11.5	52.7	6.6	8.2	3.3
	부평구	(192)	36.5	20.8	10.4	14.1	9.4	8.9
	계양구	(115)	37.5	15.2	11.6	16.1	9.8	9.8
	서구	(164)	33.1	22.1	12.9	11.7	12.3	8.0
	옹진/강화군	(34)	38.2	26.5	0.0	5.9	14.7	14.7

문5. 귀하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기 전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셨습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전혀 몰랐다	21.4
②	거의 모르는 편이었다	60.8
③	대체로 아는 편이었다	16.7
④	매우 잘 알고 있었다	1.0

-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20.7%로 여성(14.9%)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22.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19.3%), 60대 이상(19.0%)순으로 나타남

		사례수(명)	응답비율(%)			
			전혀 몰랐다	거의 모르는 편이다	대체로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전체		(1,007)	21.4	60.8	16.7	1.0
성 별	남성	(501)	19.9	59.4	18.9	1.8
	여성	(506)	23.0	62.2	14.7	0.2
연 령	20대	(158)	32.3	55.7	10.8	1.3
	30대	(198)	28.4	52.3	19.3	0.0
	40대	(222)	15.8	62.0	19.9	2.3
	50대	(218)	17.1	68.2	14.3	0.5
	60대 이상	(211)	17.1	63.8	18.1	1.0
거 주 지 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20.9	64.0	13.7	1.4
	연수구	(109)	32.1	47.7	20.2	0.0
	남동구	(182)	17.7	70.7	11.6	0.0
	부평구	(192)	27.1	52.6	19.3	1.0
	계양구	(115)	19.5	58.4	19.5	2.7
	서구	(164)	14.7	64.4	20.2	0.6
	옹진/강화군	(34)	17.6	67.6	11.8	2.9

문5-1. [5번 질문에서 3), 4)를 택한 분만 답해주십시오.] 귀하께서는 기존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만족한다	0.0
②	만족한다	25.0
③	보통이다	54.5
④	만족하지 않는다	18.2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3

- ▶ 인천시 역사와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25.0%로, 불만족(20.5%) 대비 만족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3.09점으로 여성(2.93점)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26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3.25점), 40대(2.94점)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례수 (명)	응답비율(%)					5점 척도 평균(점)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전체	(178)	0.0	25.0	54.5	18.2	2.3	3.02	
성별	남성	(103)	0.0	30.1	50.5	17.5	1.9	3.09
	여성	(75)	0.0	17.8	60.3	19.2	2.7	2.93
연령	20대	(19)	0.0	15.8	47.4	36.8	0.0	2.79
	30대	(38)	0.0	7.9	65.8	26.3	0.0	2.82
	40대	(49)	0.0	29.2	43.8	18.8	8.3	2.94
	50대	(32)	0.0	29.0	67.7	3.2	0.0	3.26
	60대 이상	(40)	0.0	37.5	50.0	12.5	0.0	3.25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32)	0.0	29.0	54.8	16.1	0.0	3.13
	연수구	(22)	0.0	27.3	68.2	4.5	0.0	3.23
	남동구	(21)	0.0	19.0	76.2	4.8	0.0	3.14
	부평구	(39)	0.0	15.8	52.6	28.9	2.6	2.82
	계양구	(25)	0.0	36.0	36.0	28.0	0.0	3.08
	서구	(34)	0.0	20.6	50.0	20.6	8.8	2.82
	옹진/강화군	(5)	0.0	60.0	40.0	0.0	0.0	3.60

문6. 인천시에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와 활용을 위해 중장기(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인천시의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그렇다	5.1
②	그렇다	36.3
③	보통이다	50.3
④	그렇지 않다	7.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6

- ▶ 인천시의 문화유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41.4%로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8.3%)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천시의 중장기 문화유산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평균 3.38점)
- ▶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3.43점으로 여성(3.32점)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5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0대(3.47점), 60대 이상(3.39점), 20대(3.27점) 순으로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5점 척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7)	5.1	36.3	50.3	7.7	0.6	3.38	
성별	남성	(501)	7.8	37.0	46.7	7.6	0.8	3.43
	여성	(506)	2.4	35.5	53.9	7.8	0.4	3.32
연령	20대	(158)	1.3	34.2	54.4	10.1	0.0	3.27
	30대	(198)	7.1	38.6	49.2	4.6	0.5	3.47
	40대	(222)	1.8	34.9	48.2	13.3	1.8	3.22
	50대	(218)	7.9	40.5	47.0	4.7	0.0	3.52
	60대 이상	(211)	6.7	32.9	53.8	6.2	0.5	3.39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6.7	43.3	42.4	6.7	1.0
	연수구	(109)	6.5	53.7	35.2	4.6	0.0	3.62
	남동구	(182)	1.1	11.0	72.4	15.5	0.0	2.98
	부평구	(192)	9.5	33.3	49.7	6.9	0.5	3.44
	계양구	(115)	3.5	42.5	47.8	4.4	1.8	3.42
	서구	(164)	3.7	44.2	44.8	6.7	0.6	3.44
	옹진/강화군	(34)	0.0	29.4	67.6	2.9	0.0	3.26

문7. 귀하는 향후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사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시민의 향유와 참여	14.8
②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 창출	25.8
③	국제적(남북간 포함) 홍보·교류	4.4
④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	12.3
⑤	박물관, 전시관 등의 운영 개선 및 신설	7.6
⑥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재산권, 지역 개발과의 조화 문제 포함)	27.0
⑦	기타	0.5
⑧	잘 모르겠다	7.5

- ▶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사업) 분야 중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재산권, 지역 개발과의 조화 문제 포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 창출(25.8%), 시민의 향유와 참여(14.8%) 순으로 나타남
-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19.1%), 30대(20.3%), 40대(37.3%)에서는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창출을, 50대(31.9%), 60대 이상(32.1%)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재산권, 지역 개발과의 조화 문제 포함)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시민의 향유와 참여	문화유산의 활용과 수익 창출	국제적 (남북간 포함) 홍보·교류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박물관, 전시관 등의 운영 개선 및 신설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1,007)	14.8	25.8	4.4	12.3	7.6	27.0	0.5	7.5	
성별	남성 (501)	12.4	26.7	4.8	13.7	6.0	28.3	0.8	7.2	
	여성 (506)	17.2	25.0	4.0	11.0	9.2	25.7	0.2	7.8	
연령	20대 (158)	10.2	19.1	6.4	18.5	10.2	18.5	0.6	16.6	
	30대 (198)	16.8	20.3	6.6	16.8	9.6	18.3	0.0	11.7	
	40대 (222)	8.2	37.3	3.2	10.9	4.1	31.4	0.0	5.0	
	50대 (218)	17.1	27.3	3.2	10.2	7.4	31.9	0.5	2.3	
	60대 이상 (211)	21.1	22.5	3.3	7.2	7.7	32.1	1.4	4.8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17.2	23.4	4.3	11.5	7.7	26.8	0.0	9.1	
거주 지역	연수구 (109)	14.8	31.5	7.4	12.0	5.6	20.4	0.0	8.3	
	남동구 (182)	6.0	25.3	1.6	13.7	7.1	42.9	0.5	2.7	
	부평구 (192)	15.7	27.7	7.3	13.6	8.4	16.8	0.0	10.5	
	계양구 (115)	19.6	19.6	6.3	8.9	8.9	26.8	0.0	9.8	
	서구 (164)	16.0	30.1	1.8	14.7	8.6	22.1	1.2	5.5	
	옹진/강화 (34)	20.6	14.7	0.0	2.9	2.9	47.1	5.9	5.9	

문8. 귀하는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최근의 사회적 환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수요	54.4
②	남북관계	3.0
③	사회적 소외계층과 다문화 가정	18.3
④	정보화·IT산업	13.1
⑤	기타	0.7
⑥	없다/잘 모르겠다	10.5

- ▶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 수요라고 답한 비율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정(18.3%), 정보화·IT산업(13.1%) 순으로 나타남
- ▶ 문화유산 정책 수립 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수요	사회적 소외 계층과 다문화 가정	정보화· IT산업	남북관계	없다 / 잘 모르겠다	
전체		(1,007)	54.4	18.3	13.1	3.0	10.5	0.7
성별	남성	(501)	52.5	18.3	14.5	3.0	11.3	0.4
	여성	(506)	56.3	18.3	11.7	3.0	9.7	1.0
연령	20대	(158)	43.9	19.7	14.0	2.5	18.5	1.3
	30대	(198)	50.5	18.7	12.1	4.5	14.1	0.0
	40대	(222)	59.8	17.8	12.8	0.9	7.8	0.9
	50대	(218)	56.7	20.7	12.4	2.8	6.5	0.9
	60대 이상	(211)	58.1	14.8	14.3	4.3	8.1	0.5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50.0	22.4	12.4	4.3	11.0	0.0
	연수구	(109)	69.7	8.3	4.6	3.7	11.9	1.8
	남동구	(182)	68.1	7.1	14.3	0.5	8.8	1.1
	부평구	(192)	53.9	21.5	8.4	5.2	11.0	0.0
	계양구	(115)	46.9	22.1	17.7	1.8	10.6	0.9
	서구	(164)	43.8	28.4	16.0	2.5	9.3	0.0
	옹진/강화군	(34)	38.2	5.9	35.3	0.0	14.7	5.9

II. 시민들의 문화유산 관련 참여와 향유

문9. 귀하는 인천의 역사나 문화유산 관련 시민 대상 사업에 참여나 향유(예 : 교양강좌 수강, 역사 유적 답사 참여, 전통문화 축제 참여 등) 기회를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그렇다	1.4
②	그렇다	24.3
③	그렇지 않다	60.0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4.3

▶ 인천의 역사나 문화유산 관련 시민 대상 사업에 참여나 향유 기회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이며,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74.3%로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역사나 문화유산 관련 시민대상 사업에 참여나 향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은 편

		사례수(명)	응답비율(%)				4점 척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7)	1.4	24.3	60.0	14.3	2.13
성별	남성	(501)	1.6	23.3	58.4	16.7	2.10
	여성	(506)	1.2	25.2	61.7	11.9	2.16
연령	20대	(158)	1.3	30.4	45.6	22.8	2.10
	30대	(198)	3.0	32.3	48.5	16.2	2.22
	40대	(222)	0.9	25.1	63.5	10.5	2.16
	50대	(218)	0.5	17.6	64.8	17.1	2.01
	60대 이상	(211)	1.4	18.1	73.3	7.1	2.14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0.9	23.7	64.5	10.9	2.15
	연수구	(109)	6.4	28.4	50.5	14.7	2.27
	남동구	(182)	0.5	9.3	78.6	11.5	1.99
	부평구	(192)	1.6	37.0	41.7	19.8	2.20
	계양구	(115)	0.0	31.8	52.7	15.5	2.16
	서구	(164)	0.6	23.3	61.3	14.7	2.10
	옹진/강화	(34)	0.0	2.9	85.3	11.8	1.91

문9-1. [9번 질문에서 3), 4)를 택한 분만 답해주십시오.] 귀하께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과 관련한 시민 대상 사업에 참여나 향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관심이 없어서	18.8
②	여가시간의 부족	50.5
③	관련 정보의 부족	23.2
④	역사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5.8
⑤	기타	1.6

- ▶ 인천의 역사나 문화유산 관련 시민 대상 사업에 참여나 향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여가시간의 부족을 언급한 비율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련 정보의 부족(23.2%), 관심이 없어서(18.8%) 순으로 나타남
- ▶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 부족을, 연령이 낮아질수록 관심이 없어서를 언급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사례수 (명)	응답비율(%)				기타	
		여가시간의 부족	관련 정보의 부족	관심이 없어서	역사문화 유산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전체	(744)	50.5	23.2	18.8	5.8	1.6	
성별	남성	(373)	51.5	22.6	18.9	5.4	1.6
	여성	(371)	49.6	23.8	18.7	6.2	1.6
연령	20대	(108)	47.2	19.4	31.5	1.9	0.0
	30대	(128)	46.5	22.0	25.2	5.5	0.8
	40대	(162)	49.4	29.6	13.6	4.9	2.5
	50대	(177)	55.4	21.7	17.1	5.1	0.6
	60대 이상	(169)	51.8	22.0	12.5	10.1	3.6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159)	40.9	24.5	22.0	10.7
연수구		(71)	57.7	19.7	18.3	2.8	1.4
남동구		(164)	71.3	20.1	7.9	0.0	0.6
부평구		(118)	41.5	26.3	25.4	5.9	0.8
계양구		(75)	43.8	23.3	23.3	5.5	4.1
서구		(124)	38.5	27.9	23.0	9.8	0.8
옹진/강화군		(33)	69.7	12.1	9.1	3.0	6.1

문10. 귀하는 지난 2017년도 1년 간 인천의 박물관, 전시관, 역사유적지 등을 몇 차례 방문하셨습니다가?

번호	구분	백분율(%)
①	10회 이상	0.5
②	7회~9회	4.1
③	4회~6회	16.9
④	1회~3회	39.9
⑤	방문 경험 없다	38.6

- ▶ 방문회수가 1회~3회라고 대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회~6회(16.9%), 7~9회(4.1%) 순으로 나타남
- ▶ 거주지별로는, 옹진/강화군 거주자의 방문율이 9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중구/동구/미추홀구(70.4%), 서구(69.8%) 순으로 방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명)	응답비율(%)				
			10회 이상	7회~9회	4회~6회	1회~3회	방문 경험 없다
전체		(1,007)	0.5	4.1	16.9	39.9	38.6
성별	남성	(501)	1.0	4.9	15.9	35.7	42.4
	여성	(506)	0.0	3.4	17.9	43.9	34.8
연령	20대	(158)	0.0	5.8	16.2	27.3	50.6
	30대	(198)	0.5	5.6	16.7	35.9	41.4
	40대	(222)	0.0	4.1	17.4	43.6	34.9
	50대	(218)	1.4	0.9	16.3	41.4	40.0
	60대 이상	(211)	0.5	4.8	17.8	47.6	29.3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0.5	6.8	23.3	39.8	29.6
	연수구	(109)	0.9	0.0	6.5	38.3	54.2
	남동구	(182)	0.0	0.6	3.3	43.1	53.0
	부평구	(192)	0.5	5.2	22.9	33.3	38.0
	계양구	(115)	1.8	7.2	14.4	36.0	40.5
	서구	(164)	0.0	4.3	22.2	43.2	30.2
	옹진/강화군	(34)	0.0	2.9	32.4	61.8	2.9

문10-1. [10번 질문에서 1), 2), 3), 4)를 택한 분만 답해주십시오.] 귀하는 인천의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의 현장 안내판, 안내 책자 등의 내용이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그렇다	4.8
②	그렇다	47.0
③	보통이다	44.4
④	그렇지 않다	3.3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5

- ▶ 역사 유적지나 박물관 방문빈도별로 살펴보면, 방문빈도가 7회~9회가 4.1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0회 이상(4.00점), 4회~6회(3.72점), 1회~3회(3.37점) 순으로 나타남
- ▶ 따라서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이해 정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사례수 (명)	응답비율(%)					5점 척도 평균(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10)	4.8	47.0	44.4	3.3	0.5	3.52
성별	남성	(282)	5.7	51.2	38.8	3.6	0.7	3.58
	여성	(328)	4.0	43.4	49.2	3.1	0.3	3.48
연령	20대	(76)	6.6	42.1	47.4	2.6	1.3	3.50
	30대	(116)	2.6	43.5	49.6	4.3	0.0	3.44
	40대	(142)	4.9	41.5	47.2	4.9	1.4	3.44
	50대	(129)	3.9	53.1	39.1	3.9	0.0	3.57
	60대 이상	(147)	6.1	52.4	40.8	0.7	0.0	3.64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145)	6.9	53.8	35.2	3.4	0.7	3.63
	연수구	(49)	4.2	43.8	45.8	4.2	2.1	3.44
	남동구	(85)	5.9	47.1	47.1	0.0	0.0	3.59
	부평구	(119)	4.2	35.3	57.1	3.4	0.0	3.40
	계양구	(66)	6.2	38.5	52.3	3.1	0.0	3.48
	서구	(113)	1.8	54.0	37.2	6.2	0.9	3.50
	옹진/강화	(33)	3.0	57.6	39.4	0.0	0.0	3.64

문11. 귀하는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나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그렇다	0.9
②	그렇다	17.9
③	보통이다	55.3
④	그렇지 않다	21.3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5

- ▶ 지역의 문화유산 홍보나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보통이다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21.3%), 그렇다 (17.9%) 순으로 나타남(평균 2.89점)
-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00점), 60대 이상(3.00점)은 평균 2.89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20대, 30대, 50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5점 척도 평균 (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007)	0.9	17.9	55.3	21.3	4.5	2.89	
성별	남성	(501)	1.4	17.0	55.6	21.2	4.8	2.89
	여성	(506)	0.4	18.8	55.1	21.4	4.2	2.90
연령	20대	(158)	1.9	11.0	53.2	22.7	11.0	2.70
	30대	(198)	0.5	16.8	56.9	20.3	5.6	2.86
	40대	(222)	0.0	26.4	50.0	20.9	2.7	3.00
	50대	(218)	0.9	14.0	57.2	24.2	3.7	2.84
	60대 이상	(211)	1.4	19.2	59.1	18.8	1.4	3.00
가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0.0	21.5	53.6	21.1	3.8	2.93
	연수구	(109)	1.9	11.2	44.9	38.3	3.7	2.69
	남동구	(182)	0.0	6.0	76.4	16.5	1.1	2.87
	부평구	(192)	2.6	27.0	44.4	17.5	8.5	2.98
	계양구	(115)	1.8	15.2	47.3	27.7	8.0	2.75
	서구	(164)	0.0	23.6	56.5	17.4	2.5	3.01
	옹진/강화	(34)	0.0	11.8	67.6	14.7	5.9	2.85

문12. 귀하는 인천시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유적지의 안내 여건(안내판, 리플렛, 안내인력) 개선	15.6
②	문화유산 관련 대중 도서 발간	5.4
③	박물관, 전시관 등 시설 개선 및 신설	8.8
④	역사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 활성화	37.0
⑤	인터넷, 모바일 등 활용한 역사문화정보 서비스 심화	16.0
⑥	강좌, 답사, 문화유산 홍보·보호활동 등 시민 직접 참여 사업 활성화	16.2
⑦	기타	0.9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24.8%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역사문화 정보 서비스 심화가, 40대는 23.2%로 유적지의 안내 여건(안내판, 리플렛, 안내인력) 개선이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유적지의 안내 여건 개선	문화유산 관련 대중 도서 발간	박물관, 전시관 등 시설 개선 및 신설	역사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의 활성화	인터넷, 모바일 등 활용한 역사문화 정보 서비스 심화	강좌, 답사, 문화유산 홍보·보호활동 등 활성화	기타
전체		(1,007)	15.6	5.4	8.8	37.0	16.0	16.2	0.9
성별	남성	(501)	14.1	5.8	9.4	35.7	17.1	17.5	0.4
	여성	(506)	17.2	5.0	8.2	38.3	15.0	15.0	1.4
연령	20대	(158)	10.8	5.1	12.7	29.3	24.8	16.6	0.6
	30대	(198)	9.6	5.1	13.6	36.9	16.2	17.2	1.5
	40대	(222)	23.2	5.0	3.6	40.5	12.3	15.0	0.5
	50대	(218)	16.4	3.7	8.9	36.9	16.4	17.8	0.0
	60대 이상	(211)	16.2	8.1	6.7	39.5	12.9	14.8	1.9
거주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17.2	3.8	9.6	33.5	16.7	18.7	0.5
	연수구	(109)	20.2	4.6	10.1	33.9	11.9	17.4	1.8
	남동구	(182)	4.4	8.8	4.9	47.8	18.7	14.8	0.5
	부평구	(192)	21.1	7.9	10.5	29.5	15.3	15.3	0.5
	계양구	(115)	17.0	4.5	12.5	44.6	11.6	9.8	0.0
	서구	(164)	18.4	3.1	8.0	35.6	14.7	19.6	0.6
	옹진/강화	(34)	2.9	0.0	2.9	35.3	35.3	14.7	8.8

III.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재산권의 조화

문13. 귀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가장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장	16.2
②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41.6
③	도시 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	27.3
④	기타	0.5
⑤	잘 모르겠다	14.4

- ▶ 연령별로 살펴보면,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이 4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대(48.4%), 40대(39.1%), 30대(38.4%) 순으로 나타남
- ▶ 도시 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라고 답한 비율이 40대가 32.7%가 가장 많고 30대(27.8%), 20대(27.4%), 50대(26.5%) 순으로 나타남
-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도시 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는 계양구(36.6%), 서구(34.2%), 중구/동구/미추홀구(31.8%), 부평구(31.4%)가,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장은 남동구(40.7%), 연수구(28.4%)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개인 재산권의 합리적 보장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도시계획 시 문화유산의 우선적 고려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1,007)	16.2	41.6	27.3	0.5	14.4	
성별	남성	(501)	18.7	37.6	30.2	0.4	13.1
	여성	(506)	13.7	45.5	24.5	0.6	15.7
연령	20대	(158)	16.6	29.3	27.4	0.0	26.8
	30대	(198)	17.7	38.4	27.8	0.0	16.2
	40대	(222)	18.6	39.1	32.7	1.4	8.2
	50대	(218)	12.1	48.4	26.5	0.9	12.1
	60대 이상	(211)	16.2	49.5	21.9	0.0	12.4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7.1	45.0	31.8	0.5	15.6
	연수구	(109)	28.4	43.1	8.3	0.0	20.2
	남동구	(182)	40.7	30.2	17.0	1.6	10.4
	부평구	(192)	9.4	44.5	31.4	0.0	14.7
	계양구	(115)	7.1	44.6	36.6	0.0	11.6
	서구	(164)	9.9	44.1	34.2	0.0	11.8
	용진/강화	(34)	0.0	38.2	29.4	2.9	29.4

문14. 귀하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현재의 법적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다	5.2
②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완화	21.7
③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후대에 전승 위해 강화	38.7
④	잘 모르겠다	34.4

- ▶ 연령별로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40대(39.5%), 50대(38.0%) 순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40대가 2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대(24.1%), 30대(21.8%) 순으로 나타남
- ▶ 젊은 층은 개인재산 보호를, 연령이 높은 층은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부평구(47.6%), 계양구(46.4%), 서구(45.7%)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 연수구(38.5%), 남동구(44.5%)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 용진/강화군은 61.8%로 잘 모르겠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완화해야 한다	현재의 수준이 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전체	(1,007)	38.7	21.7	5.2	34.4	
성별	남성	(501)	39.4	26.1	6.7	27.9
	여성	(506)	37.9	17.4	3.8	40.9
연령	20대	(158)	34.8	24.1	4.4	36.7
	30대	(198)	42.1	21.8	4.6	31.5
	40대	(222)	39.5	24.5	4.1	31.8
	50대	(218)	38.0	19.2	6.6	36.2
	60대 이상	(211)	38.0	19.2	6.3	36.5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45.2	11.5	3.8	39.4
	연수구	(109)	33.0	38.5	7.3	21.1
	남동구	(182)	18.1	44.5	6.0	31.3
	부평구	(192)	47.6	18.0	2.1	32.3
	계양구	(115)	46.4	12.5	8.9	32.1
	서구	(164)	45.7	12.3	3.1	38.9
	용진/강화군	(34)	17.6	2.9	17.6	61.8

문15. 귀하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 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매우 필요하다	24.3
②	필요하다	42.8
③	필요 없다	1.4
④	전혀 필요 없다	0.6
⑤	모르겠다	31.0

-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시민에 대한 보상 필요정도는 67.1%(매우 필요하다 24.3%, 필요하다 42.8%) 수준으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개인 재산권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편임
-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층인 30~50대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전체		(1,007)	24.3	42.8	1.4	0.6	31.0
성별	남성	(501)	28.4	45.7	1.6	0.8	23.5
	여성	(506)	20.2	39.9	1.2	0.4	38.3
연령	20대	(158)	18.4	42.4	1.3	1.3	36.7
	30대	(198)	22.3	47.2	1.5	0.5	28.4
	40대	(222)	32.3	40.5	1.8	0.5	25.0
	50대	(218)	25.9	41.7	0.9	0.5	31.0
	60대 이상	(211)	20.5	42.4	1.4	0.5	35.2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15.6	46.4	0.9	1.4	35.5
	연수구	(109)	33.3	50.0	1.9	0.0	14.8
	남동구	(182)	49.2	17.7	1.1	0.6	31.5
	부평구	(192)	24.5	44.8	1.0	0.0	29.7
	계양구	(115)	17.7	55.8	2.7	1.8	22.1
	서구	(164)	11.1	49.4	1.9	0.0	37.7
	용진/강화군	(34)	0.0	44.1	0.0	0.0	55.9

문15-1. [15번 질문에서 1), 2)를 택한 분만 답해주십시오.] 만약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규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	19.1
②	세금 등 각종 공적 납부금 감면	31.9
③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강화	34.3
④	기타	1.5
⑤	모르겠다	13.1

- ▶ 40~50대의 경우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야한다는 의견이 타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용진/강화군에서 71.4%로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강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구(42.9%), 연수구(40.0%), 중구/동구/미추홀구(38.8%)에서는 세금 등 각종 공적 납부금 감면, 연수구(35.6%)는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 남동구(55.0%)는 모르겠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거주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강화	세금 등 각종 공적 납부금을 감면	소유 토지를 국가가 매입	모르겠다	기타
전체		(671)	34.3	31.9	19.1	13.1	1.5
성별	남성	(368)	34.3	31.1	16.9	16.1	1.6
	여성	(303)	34.3	33.0	21.9	9.4	1.3
연령	20대	(96)	31.3	39.6	9.4	16.7	3.1
	30대	(137)	29.6	33.3	16.3	19.3	1.5
	40대	(160)	38.1	18.8	27.5	13.1	2.5
	50대	(146)	31.7	35.2	20.4	12.7	0.0
	60대 이상	(132)	39.7	37.4	17.6	4.6	0.8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131)	38.8	38.8	17.1	4.7	0.8
	연수구	(90)	22.2	40.0	35.6	2.2	0.0
	남동구	(121)	30.0	10.8	0.8	55.0	3.3
	부평구	(133)	35.9	32.1	26.0	4.6	1.5
	계양구	(83)	37.8	30.5	25.6	3.7	2.4
	서구	(98)	34.7	42.9	17.3	4.1	1.0
	용진/강화군	(15)	71.4	28.6	0.0	0.0	0.0

IV. 기타

문16. 현재 인천시에서는 강화도의 돈대·산성·포대 등 해양관광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번호	구분	백분율(%)
①	전혀 모른다	41.1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44.3
③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13.7
④	잘 알고 있다	1.0

-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등재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연수구(79.8%), 옹진/강화군(73.5%), 남동구(63.5%)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재 추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사례수 (명)	응답비율(%)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1,007)	41.1	44.3	13.7	1.0
성별	남성	(501)	40.0	43.5	15.3	1.2
	여성	(506)	42.1	45.0	12.1	0.8
연령	20대	(158)	54.8	37.6	7.0	0.6
	30대	(198)	48.5	35.9	13.6	2.0
	40대	(222)	31.7	45.7	22.2	0.5
	50대	(218)	38.0	48.1	13.0	0.9
	60대 이상	(211)	36.8	51.7	10.5	1.0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48.8	38.9	12.3	0.0
	연수구	(109)	20.2	54.1	22.9	2.8
	남동구	(182)	36.5	54.7	5.0	3.9
	부평구	(192)	40.0	43.7	16.3	0.0
	계양구	(115)	55.8	32.7	11.5	0.0
	서구	(164)	44.2	40.5	15.3	0.0
	옹진/강화군	(34)	26.5	50.0	23.5	0.0

문17. 강화도의 해양관방유적 이외에 인천에서 추가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만한 자연 또는 문화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호	구분	백분율(%)
①	강화도 등 서해안 갯벌	48.5
②	중구 근대 개항장	9.3
③	서구 대곡동 고인돌	18.8
④	기타	1.2
⑤	잘 모르겠다	22.3

▶ 전반적으로 해양관방유적 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진할만한 자연/문화유산에 대해 세부 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구 근대 개항장의 경우 20~30대 집단에서 추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례수 (명)	응답비율(%)				
			강화도 등 서해안 갯벌	서구 대곡동 고인돌	중구 근대 개항장	잘 모르겠다	기타
전체		(1,007)	48.5	18.8	9.3	22.3	1.2
성별	남성	(501)	47.8	17.7	10.6	22.7	1.2
	여성	(506)	49.2	19.8	7.9	21.8	1.2
연령	20대	(158)	44.3	19.0	13.3	23.4	0.0
	30대	(198)	39.9	21.7	14.1	24.2	0.0
	40대	(222)	49.5	20.9	4.1	22.3	3.2
	50대	(218)	47.7	21.3	8.3	20.8	1.9
	60대 이상	(211)	59.5	11.0	8.1	21.0	0.5
거주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211)	44.5	24.2	11.8	19.0	0.5
	연수구	(109)	74.3	6.4	6.4	12.8	0.0
	남동구	(182)	60.2	5.0	0.0	29.8	5.0
	부평구	(192)	37.7	27.2	19.9	15.2	0.0
	계양구	(115)	40.7	21.2	7.1	30.1	0.9
	서구	(164)	36.2	26.4	9.2	28.2	0.0
	옹진/강화군	(34)	73.5	5.9	0.0	17.6	2.9

문18. 인천시의 문화유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종분류	세부 내용
문화유산보존/개발 (n=18)	하찮은 문화유산이라도 외국같이 철저히 관리하여 자손대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되길~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박물관 시설 전시관등 시설 개선 및 신설필요
	문화유산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홍보강화(n=12)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문화유산유지와 문화유산홍보활동을 전국적으로 광고진행
	홍보를 잘 하셔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잘 알도록 해주세요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 축제 활성화 유적의 지속적인 보호
	언제 어디서 문화유적 행사가 있는지 홍보
현실적인 정책 수립(n=10)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여행 안내책자가 만들어져서 해석이 잘되어 배포되길 바랍니다
	현실성 있는 실질적 정책
	용두사미 되지 않는 추진력과 지속력이 필요
	문화유산 정책관련 전문가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듯
후대에게 전승 노력(n=6)	계획과 예산 잘 세워 추진하세요
	젊은이들의 문화 참석 수업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많은 학습과 교육
지역경제활성화(n=5)	문화유산 대중도서 발간
	시민홍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과 연계(영업창출 세계적으로)
시민인식강화(n=4)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시민 삶의 질 향상 노력(n=2)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바람
	시민들에 의한 휴식공간 활용

■ 참고문헌

• 단행본 및 보고서 등

- 강성복,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공주상여소리와 속불동화의 고향 봉현리』, 공주시, 2011
- 강선주 외, 『(중학교) 꿈과 끼를 찾아 떠나는 문화유산 여행』, 문화재청, 2016
-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서울·경기·인천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문화재청, 2013
- 경상남도청, 『경남의 무형문화재』, 경상남도청, 2013
- 국립무형유산원, 『아랫넛 수록재』, 민속원, 2017
- 국립무형유산원, 『잔관사 수록재』, 민속원, 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도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 1996~2017
- 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 김민정(동환), 『한국 불교제의례의 사상적 구조』,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수한·유다형, 『인천화교 역사문화 자산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6
- 김창수,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4
- 김창수·홍승연, 『인천 개항장 도시서사자원 활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2017
- 김혜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서곶들노래』, 민속원, 2013
- 나승만,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21호 가거도 멀치잡이노래』, 전라남도·국립민속박물관, 2011
- 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 연구원 스토리텔링연구센터,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문화재청, 2011
- 달전사수록재보존회, 『달전사 수록재 연구』, 달전사, 2018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5호 장동산디마을답제』(DVD)
- 리서치알앤에이, 『인천시민 대상 문화유산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인천문화재단, 2019
-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17~2021』, 2017
- 문화재청, 『2018년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2018
- 문화재청, 『2018 주요업무계획』, 2018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문화재청, 2017
-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문화유산교육 발전 중장기 계획: 2017-2021』, 문화재청,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7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본계획』, 2017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2018
- 부여수록재보존회, 『부여수록재 연구』, 민속원, 2016
- 생전예수재보존회, 『생전예수재 연구』, 민속원, 2017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2016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7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2017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8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서울특별시, 2018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 3종,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7
- 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 - 전형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17』, 남도민속학회, 2008
- 스페이스빔, 『골목길 숨은 보물찾기』, 인천문화재단, 2015
- 신진범·김지선, 『도시재생과 연계한 융합관광 육성방안 연구: 인천 개항창조도시를 중심으로』, 인천발전연구원, 2012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학술용역팀,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6
- 오문선 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호 산유화가』, 부여문화원, 2010
- 이미애·조상운,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2017년 군 구협약 정책과제』, 강화군인천발전연구원, 2017
- 이필영,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황도 봉기풍어제』, 민속원, 2010
- 이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사업 발굴』, 한국관광공사, 2013
- 인천광역시, 『2015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계획』, 2015
- 인천광역시, 『2016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계획』, 2016
- 인천광역시, 『2017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계획』, 2017
- 인천광역시, 『2017년도 통계연보』, 2018.
- 인천광역시, 『2018년 인천광역시 문화재 시행계획』, 2018
-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록화 도서』 13종, 민속원, 2008~2014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8 문화재과 업무기본서(편람)』, 2017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8 주요업무계획』,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7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의 고려 역사 위상 제고 및 가치 재조명을 위한 강도의 꿈 실현 계획(안)』, 2017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문화재과 주요업무: 업무기본서(편람)』, 2018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2018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2018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일반현황: 2018년 1월 현재』, 2018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동북아의 중심지 인천의 역사와 문화』, 2002
- 인천발전연구원, 『강화 역사문화단지 조성 기본 계획』, 2012
- 인천발전연구원, 『인물로 보는 인천사』, 인천광역시, 2013
- 인천발전연구원, 『강화군 문화재 주변 지역의 규제 개선 방안』, 강화군, 2017
- 인천발전연구원, 『근대문화박물관 설립 운영 방안』, 2017
- 임초봉 외,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 전라남도청,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도서』 3종, 민속원, 2011
- 전라북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33호 호남당골굿』(DVD)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2017년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전라북도, 2017
- 정상우 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연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정상우 외,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문화재청, 2012
- 정상우 외, 『남북 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 정상우 외, 『문화유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정비 방안 마련 연구용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 정상우 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마련 연구』, 201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013~2017 문화재기본계획 수립보고서』, 2013
- 조상운,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건축자산 조사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6
- 조준모, 『관광이 지역경제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지역축제 및 국제행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2012
- 청와대, 『2018 정부부처 업무보고』, 2018
- 최명철(원명), 『수륙재의 실행양상에 대한 비교 연구』, 위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최영화·민경선, 『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인천발전연구원, 2016
- 최영화·민경선, 『인천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6
-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도서』 33종, 민속원, 2010~2017
- 컬처앤로드,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연구』, 문화재청, 2017
- 통계청, 『2015 지역소득』, 2016
- 하효길 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 봉화산도당굿』, 수서원, 200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2021)』, 문화재청, 2015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2021)』, 문화재청, 2016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인천시 문화유산 정책 및 환경 분석 연구』, 인천문화재단, 20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2018
- 현대리서치연구소, 『2018년 문화유산 향유 및 인식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18
- 홍태한, 『불교의례의 민속적 이해』, 민속원, 2016
- 홍태한, 『온산별신제 연구』, 민속원, 2016
- 홍태한 외,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20호 남이장군사당굿』, 민속원, 2010

• 논문

- 김재호, 『조선왕조 개항의 경제사적 의의』, 『현대사광장』7(0), 2016
- 원도연, 『근대 식민지 경험의 탈각과 변용』, 『지역사회연구』 24(4), 2016
- 이현식, 『근대 도시, 인천의 재구축을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1
- 정상우·임초롱, 『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정정책학적 연구』, 『법학연구』 20-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허용호, 「원형의 신화, 전형의 논리」, 『무형유산학1』, 무형유산학회, 2016
- 홍태한, 「서울굿판에서 무속 지식의 전승과 교육」, 『어문학교육44』, 어문학교육학회, 2012
- 홍태한, 「서울굿판 문서의 존재와 구비문화 연구의 지향점」, 『실천민속학연구27』, 실천민속학회, 2015
- 홍태한, 「시·도무형문화재 지정 현황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 『남도민속연구』 제34집(남도민속학회, 2017)
- 홍태한, 「전주 무형유산의 가치와 전주다움」, 『전주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결과 보고 세미나자료집』, (사)무형문화연구원, 2017
- 홍태한, 「국립 무형유산원의 역할 증대 방안 모색-시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4, 국립무형유산원, 2018
- 홍태한,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발전 방안」,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민속학회, 2018

• 기사 및 보도자료

- 문화재청 보도자료(2006.5.9.),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092116§ionId=b_sec_1&pageIndex=426&pageUnit=10&strWhere=&strValue=&sdate=&edate=&category=&mn=NS_01_01
- 금강신문(2008.8.15.), 「스러졌다 살아난 옛 절 ④인천 강화 선원사」
<http://www.gg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9>
- 인천일보(2015.8.11.), 「「광복70년 격동의 인천」 수도권 관문역할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일취월장」」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3360#08hF>
- 뉴시스(2017.4.24.), 「인천시 2021년까지 융·복합 관광 중심지 조성」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4_0014850963&cID=10802&pID=10800
- 인천일보(2017.6.7.), 「인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전국 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216#08hF>
- 연합뉴스(2017.10.31.), 「'상륙작전 도시' 인천-노르망디 교류 강화 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171031071600065?input=1195m>
- 머니투데이(2018.4.19.), 「수원시·스톡홀랜드 유로파 교류 협력... '문화유산·도시재생' 공유」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41909563990768>
- 인천일보(2018.5.4.), 「근대 건축물 후세에 어떻게 물려줄 건가 고민해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09668#08hF>
- 아시아투데이(2018.6.3.), 「지난해 인천 방문 외국관광객 133만명 돌파... 전년대비 26.7만명 증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03010000658>
- 뉴스핌(2018.6.8.), 「한·몽 문화교류로 보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재개' 의미는」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605000448>

- 뉴스프리존(2018.7.3.), 「박경미 의원, 문화예술·문화유산·관광분야별 남북 문화교류 협력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64>
- KNS뉴스통신(2018.7.8.), 「경기문화재단 '단절 10년 남북문화교류' 이해 높인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46356>
- 한국경제(2018.7.9.), 「등록비 맞춰 리스·렌터카 유치한 인천... 1조 5000억 수입 '짹짹」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92576Y>
- 뉴스1(2018.7.11.), 「T맵 여름철 인기관광지는 '강원·제주 해수욕장」 <http://news1.kr/articles/?3369460>
- 시사뉴스(2018.7.14.), 「원산, '북한의 싱가포르' 되나」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3472>
- 참교육신문(2018.7.30.), 「인천대, '2018 인문도시 공모사업'에서 산업유산 인문학 주제로」 http://www.bukacademy.com/sub_read.html?uid=15752§ion=sc192§ion2=%B1%B3%C0%B0%C7%F6%C0%E5
- 뉴스1(2018.8.7.), 「"강화 석릉 주변서 천도 전후의 다양한 고려 고분 확인" 보고」 <http://news1.kr/articles/?3392414>
- 문화재청 보도자료(2018.8.8.),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목포, 군산, 영주 3곳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고시」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927§ionId=b_sec_1&mn=NS_01_02
- 인천복지방송(2016.8.30.), 「인천향교 전통문화 탐색감동 체험과 전통문화 체험학교」 http://www.inbjnews.com/section/sectionList.s.php?bo_table=newsmaster&sca=%C7%B0%BB%E7&wr_id=9183&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C0%CE%C3%B5%C7%E2%B1%B3+%C0%FC%C5%EB%B9%AE%C8%AD+%BB%EF%BB%F6%B0%A8%B5%BF+%C3%BC%C7%E8%B0%FA+%C0%FC%C5%EB%B9%AE%C8%AD+%C3%BC%C7%E8%C7%D0%B1%B3&sop=and

• 영상자료

- 고흥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7호 고흥월포농악』(DVD)
- 고흥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30호 고흥한적들노래』(DVD)
- 태안문화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4호 태안설위설경』(DVD)

• 인터넷 자료

- 문화유산채널(김정신),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2012.7.3.)
<http://www.k-heritage.tv/brd/board/275/L/menu/256?brdType=R&bbIdx=303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권기봉), 「프랑스 칸 기념관과 용산 전쟁기념관의 간극」(2015.9.24.)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blog/find/post/1171>
- 인천광역시청, 「우리가 알고싶은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찾아서」
<http://www.incheon.go.kr/board/1788/1996916>
- 프랑스 관광청, 「프랑스, 추모의 길」 <https://kr.france.fr/ko/news/article/53836>

• 인터넷 사이트

- 국가통계포털(2018) <http://kosis.kr>
- 문화재청 <https://www.cha.go.kr>
-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 <http://www.k-heritage.tv>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 생생문화재 사업(문화유산 유유자적) <https://www.cha.go.kr/eventInfo/index.do>
- 서울시 미래유산 futureheritage.seoul.go.kr
- 싱가포르 문화유산 계획 <http://www.ourshgheritage.sg>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블로그(2018) <https://blog.naver.com/unescobaekje>
- 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http://www.icjgss.or.kr/architecture>
- 인천개항장 문화재야행(2018) <http://www.culturenight.co.kr>
-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http://ilc.incheon.go.kr>
-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http://inmuseum.or.kr>
- 인천문화재단 <http://www.ifac.or.kr>
- 인천송도불빛축제소개(2017)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2510015>
- 인천연구원 <http://www.ii.re.kr>
-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http://www.isi.or.kr>
- 중구생활사전시관 <http://jihm.icjgss.or.kr>
- 통계지리정보서비스(2018) <https://sgis.kostat.go.kr>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8).<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
- 황산도어촌전시관 <https://blog.naver.com/soon120911/9017711666>

연구참여자

• 연구책임자

- 김락기(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장)

• 집필진

-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홍태한(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강선주(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강은영(인하대학교 인경교양교육연구소 연구원)
- 임지혜(문화다음 연구원)
- 안홍민(인천문화재단 인천역사문화센터 연구원)

• 연구보조원

- 이민술(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

• 연구조사용역기관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인천 문화유산 환경 및 정책 분석
- (주)리서치알앤에이-인천문화유산 관련 시민 설문조사

자문위원단

- 유지상(前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 조우성(前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 노태손(인천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
- 최영화(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민준홍(인천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팀장)
- 정성길(무형문화재 단청장, 해명단청박물관장)
- 윤용완((사)인천문화재보존사업단 단장)
- 손장원(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
- 김형우(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장장식(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 조봉래(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장)
- 김상태((사)인천사연구소 이사장)
- 이명운((사)해반문화 운영위원장)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재단

전 화 : 032-455-7167

홈페이지 : <http://www.ifac.or.kr>